원탁의 기사들

The Story of the Champions of the Round Table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190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The Story of the Champions of the Round Table" (Charles Scribner's Sons 1905)

저자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0745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주: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는 원본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된 이 파일의 HTML 버전도 있습니다. 10736-h.htm 또는 10736-h.zip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biblio.org/gutenberg/1/0/7/4/10745/10745-h/10745-h.htm) 또는 (http://www.ibiblio.org/gutenberg/1/0/7/4/10745/10745-h.zip)〉

쓰고 그리고 그린 이

호워드 파일

1902년, 저명한 미국 화가 하워드 파일은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전설을 다시 쓰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네 권으로 된 이 작품은 오랫동안 아서 왕조의 전설을 다룬 가장 뛰어난 해석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는 파일의 두 번째 권으로, 1905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이제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시 출간되어, 파일의 뛰어난 삽화와 장식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이 책은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도달할 운명을 타고났다.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는 아서의 유명한 기사 세 명, 즉 퍼시벌, 트리스트람, 그리고 호수의 랜슬롯의 전설을 온전히 그리고 감동적으로 서술한다.

* * * * *

호워드 파일이 그토록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시기는, 이후 십 년간 이어질 아동 문학의 황금기라 불리곤 한다. 그 시대의 빛나는 품격에 그가 기여한 바를 적절히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작

품이 지닌 방대함과 다양함은 그 어느 정의로도 다 담아내기 어렵다. 그는 창조적인 예술가이자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꾼이었던 인물이라, 그의 두 가지 재능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또 서로를 해석해 주었노라.

엘리자베스 네스빗이 『아동문학의 비평사』에서 이르되

[일러스트레이션: 호수의 랜슬롯 경]

서문

내가 이전에 저술하여 간행한 책에서 나는 아서왕의 역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였노라. 그 책에서는 그가 모루에서 뽑아낸 기이한 마법의 검으로 자신의 왕위를 드러내신 일과, 그 왕위를 어떻게 굳건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엑스칼리버라 불리는 아름다운 검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왕비로 모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의 위력이 세상에 전례 없이 유명했던 원탁의 기사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록하였노라.

또한 내가 그 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몇몇 위대한 기사들의 모험들과, 또한 마법사 멀린이 비비엔이라 불리는 마녀의 손에 의해 배신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만약 그 책을 읽으며 기쁨을 얻었더라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한 너에게 그에 못지않게 기쁘게 여겨지리라 나는 큰 희망을 두노라. 이는 내가 이후에, 이미 내 다른 책과 그 밖의 경로를 통해 너와 친숙해졌을

지도 모르는 몇몇 고결한 자들의 모험과, 아직 내게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 다른 고결한 자들의 모험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특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기사의 모험담에서 큰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노라. 그는 살아온 그 어떤 기사보다도 정신이 가장 고결하고, 용모가 가장 아름다우며, 마음이 가장 용감한 자였노라. 다만 그의 아들인 갤러해드만큼은 예외라 하겠노라. 갤러해드는 그의 가문과 이름, 그리고 아서왕의 치세를 빛낸 가장 높은 영광이었음이니라.

그러나 호수의 랜슬롯 경이 때때로 그의 행실에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는 결코 실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그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참으로, 랜슬롯이 온 세상에 있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다른 이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의 미덕과 결핍 모두에서 그는 다른 이들과 같았노라. 다만, 그와 형제인 우리들이 노력하고 실패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용감하며, 더 지치지 않는 자일 뿐이었노라.

목차

랜슬롯의 이야기

제1장

호수의 마성(魔城)에서 랜슬롯 경이 나와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일과, 아서왕이 그를 기사로 임명하신 일을 전하노라

제2장

어찌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함께 기이한 모험을 떠났으며, 라이오넬 경이 큰 슬픔을 안고 터퀴네 경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또한 에커 경이 그의 동생 랜슬롯의 떠남을 애통해하며 그를 따라갔다가 매우 불행한 모험에 빠지게 된 일.

제삼장

어찌 랜슬롯 경이 모르가나 부인과 그와 함께 있던 세 여왕들의 손에 잠든 채 발견되어, 모르가나 여왕의 성으로 옮겨져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4장

어찌 랜슬롯 경이 라이오넬 경을 찾았으며, 한 젊은 낭자가 그를 그의 생애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인도하였는가

다섯째 장

어찌 랜슬롯 경이 크로제트 낭자를 동반하여 모험에 나서시어, 어떻게 숲의 야인 페리스 경을 물리치셨는가

제6장

어찌 랜슬롯 경이 바데마구스 왕과 북웨일스 왕 사이의 시합에 참가하여, 어떻게 그 전투에서 바데마구스 왕을 위해 승리를 거두었는가

제칠 장

어찌 랜슬롯 경이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위기에 빠졌는가. 또한 그가 거인들에게 점령당한 불운한 성읍과 마을을 어떻게 해방시켰으며, 그곳의 영주를 지하실에서 어떻게 석방시켰는가.

제8장

어찌 랜슬롯 경이 케이 경을 위태로운 고개에서 구해냈으며, 또한 어찌 그가 케이 경과 갑옷을 바꾸어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트리스트람 경의 책

제1부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 부인의 이야기

이제 가웨인 경의 용맹한 행적과 그의 기개를 들어 말하리라. 그는 아서왕의 외사촌이자, 아서왕의 어머니 이그레이네의 오라버니인 로테르 왕의 아들이었으니, 그로 인해 그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요, 또한 그의 용맹과 기사도 정신으로 인해 그는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존경받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되었노라.

가웨인 경은 그다지 큰 키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체격은 단단하고 튼튼하여,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노라.

그의 머리카락은 금발이었고, 그의 눈은 푸르며 빛나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눈빛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읽어낼 수 있었노라. 그의 얼굴은 붉고 건강한 빛을 띠고 있어, 그가 기쁨에 차 있을 때면 더욱 빛나 보였노라.

가웨인 경은 그의 조카 아서왕을 매우 사랑하였고, 아서왕 또한 그를 아끼고 존경하였노라. 가웨인 경은 그의 조카를 위해라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지닌 충성심과 사랑의 증거였노라.

어느 날, 가웨인 경은 캐멀롯 성의 대청에서 아서왕과 구이니비어 왕비, 그리고 다른 기사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곧 한 사내가 성문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노라. 그는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노라.

그 사내는 말에서 내려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폐하,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고통받는 자입니다. 저는 제 나라를 잃었고,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잃었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서왕은 그 사내를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일어나라, 친구여. 네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사내는 일어나 아서왕 앞에 서서 이르되, "폐하, 저는 펠리노어 왕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왕국의 왕으로 삼으려 하셨으나,

저는 그 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기사로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나라를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아서왕은 그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슬퍼하며 이르되, "너는 나의 친구가 되었노라. 너는 원탁의 기사 중 한 사람이 될 것이요, 너의 용맹과 기사도 정신으로 인해 너는 많은 존경을 받을 것이니라."

가웨인 경은 그 사내를 바라보며 이르되, "형제여, 나는 너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리라.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요, 너의 땅을 되찾아 주리라."

펠리노어의 아들은 가웨인 경의 말에 감동하여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형제여, 나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웨인 경과 펠리노어의 아들은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노라. 그들은 함께 여행을 하며 많은 모험을 겪었고, 그들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노라.

가웨인 경은 그의 형제 펠리노어의 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그는 그의 형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는 그의 형제를 통해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노라.

가웨인 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라. 그는 여전히 많은 모험을 겪을 것이요, 그의 용맹과 기사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니라.

제1장

리요네스의 새로운 왕후가 트리스트람의 목숨을 어떻게 노렸는지, 그가 어떻게 프랑스로 갔는지, 그리고 다시 리요네스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환대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2장

트리스트람이 콘월 왕에게서 기사 작위를 받은 일과, 그가 유명한 기사와 전투를 치른 일

제삼장

어찌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 왕의 딸에게서 상처를 치유받았으며, 어떻게 그는 벨 이졸트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한 펠라미데스 경과 벨 이졸트 부인에 관하여

제4장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토너먼트에서 펠라미데스 경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 일어난 일들. 또한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 왕국을 떠나야 했는가.

그때 아일랜드의 왕인 말라드(Malod)는 그의 딸 이졸트(Isoult)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으니, 이는 그녀의 혼사를 정하기 위함이더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기사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트리스트람 경 또한 예외

는 아니었더라. 그는 익명의 기사로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이 대회에 참가하였노라.

토너먼트의 날, 광활한 경기장에는 수많은 기사가 모여들었고,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중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적들을 차례로 물리쳤고, 그의 이름은 점차 명성을 얻어가더라. 그러나 그에게도 운명의 적이 있었으니, 바로 펠라마데스(Sir Palamydes)였노라.

펠라마데스는 트리스트람의 기예를 눈치채고, 그가 바로 이졸트 공녀를 사모하는 자라고 의심하였노라. 두 기사는 서로를 마주 보며 대결을 펼쳤고, 그들의 창은 서로를 향해 날아갔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펠라마데스의 일격을 막아내고, 역으로 그의 방패를 깨뜨렸노라. 그러나 펠라마데스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금 달려들었으니, 두 기사의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졌노라.

결국 트리스트람 경은 펠라마데스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었노라. 이는 트리스트람 경의 자비로움이자, 그가 진정한 기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노라. 펠라마데스는 트리스트람 경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노라.

그러나 이 사건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노라. 아일랜드 왕 말라드는 트리스트람 경이 이졸트 공녀를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왕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노라. 왕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아일랜드를 떠나라고 명령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노라. 그는 슬픔에 잠긴 채, 이졸트 공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아일랜드를 떠났노라. 그의 마음에는 이졸트 공녀에 대한 사랑과, 떠나야 하는 아픔이 가득하였노라.

이렇게 트리스트람 경은 아일랜드를 떠나게 되었으니,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시작되었노라.

제5장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의 명을 받아 아일랜드로 건너가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이졸트 공녀를 콘월로 모셔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불러 이르되, “너는 아일랜드로 건너가 그곳의 아름다운 이졸트 공녀를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여 여기로 모셔오라. 이는 나의 지시이니, 네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믿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명을 받들어 즉시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이졸트 공녀를 만나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공녀는 트리스트람 경의 용기와 지혜를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Cornwall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바다 위에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쳤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트리스트람 경은 공녀를 보호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그들이 Cornwall에 도착했을 때, 마크 왕은 이졸트 공녀를 맞이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졸트 공녀와의 인연이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선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리스트람 경은 마크 왕의 명을 받아 아일랜드에서 이졸트 공녀를 모셔왔으나,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6장

어찌하여 트리스트람이 원탁의 기사 세 명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아서왕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때 트리스트람은 아서왕의 궁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명성은 사방팔방에 퍼져 기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많은 기사들이 그와 대결하기를 원했으나, 트리스트람은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았기에 그의 위명은 날로 높아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아서왕은 원탁에 앉아 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트리스트람의 활약상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 아들들아," 아서왕이 이르시되, "트리스트람은 참으로 놀라운 기사라. 그의 용맹과 기량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자라."

이 말을 들은 가웨인 경이 일어나 아서왕께 아뢰었다.

"폐하, 트리스트람이 얼마나 위대한 기사인지 저는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저와 맞서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기사인지 저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나이다."

아서왕이 물으시되, "가웨인아, 너는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가웨인이 대답하되, "폐하, 저는 자신의 검과 말에 믿음을 가집니다. 트리스트람이 원탁의 기사 중 한 명과 싸운다면, 그 승패는 힘과 기량이 아닌 운명에 달려 있을 뿐이옵니다."

이때 트리스트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서왕께 절하며 말하였다.

"폐하, 저는 가웨인 경과의 대결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왕의 궁전에서 싸우는 것을 꺼립니다. 만약 제가 가웨인 경을 이긴다면, 그것은 왕의 은혜로 인한 것일 뿐,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서왕이 물으시되, "그렇다면 너는 어디서 싸우기를 원하는가?"

트리스트람이 대답하되, "폐하, 저는 궁전 밖의 넓은 들판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제 실력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서왕이 이를 허락하시자, 트리스트람은 가웨인 경에게로 다가가 그와 함께 들판으로 향하였다. 두 기사는 말에 올라타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들의 창이 부딪히며 큰 소리가 울렸으나, 누구도 상대방

을 쓰러뜨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창을 부수고 다시 한 번 돌진하였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검을 뽑아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으나, 여전히 누구도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 시간 이상이나 치열하게 싸웠으나, 승패는 나지 않았다.

이때 아서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트리스트람과 가웨인 경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 싸우라! 너희 둘은 모두 위대한 기사들이라. 누가 이겼는지 가릴 수 없도다."

두 기사는 아서왕의 명령을 따라 싸움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 아서왕께로 돌아왔다. 아서왕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며 그들 모두를 칭찬하셨다.

"너희 둘은 참으로 위대한 기사들이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나의 원탁에서 너희와 같은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도다."

트리스트람과 가웨인 경은 아서왕의 칭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 후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우정을 나누었다.

제칠 장

어찌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과 담소를 나누었으며, 어떻게 그는 앵거스 왕을 대신하여 그의 대의를 위해 싸우기로 서약하였는지와, 그 후 일어난 일들

제이부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이야기

제1장

어찌 갤리스의 라모락 경이 틴타겔에 이르렀으며, 어찌 그가 삼림에서 트리스트람 경과 우정의 맹세를 나눴는지에 대하여

그때에 갤리스의 라모락 경은 왕의 영토를 누비며 모험을 구하던 중, 어느 날 아침 해가 동쪽 산맥 너머로 붉게 솟아오를 때, 틴타겔 성의 높은 성벽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렀노라. 그는 말에서 내려 성문을 두드리고, 성의 문지기를 만나 그에게 아서왕의 신하임을 알렸노라. 문지기는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며, 라모락 경이 성주인 아서왕을 뵙기를 원한다고 전하였노라.

라모락 경은 성의 넓은 뜰을 지나, 아서왕이 앉아 계신 큰 방으로 들어갔노라. 아서왕은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노라. 그날 밤, 라모락 경은 성의 한 방에서 숙식을 하였노라.

다음 날 아침, 라모락 경은 성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노라. 그는 숲속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노라. 그러던 중, 그

는 한 사내가 말에 올라타 숲속을 달리는 것을 보았노라. 그 사내는 트리스트람 경이러라. 트리스트람 경은 라모락 경을 보자, 말을 멈추고 그를 향해 다가왔노라.

두 사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노라. 그러던 중, 라모락 경이 먼저 입을 열었노라. "나는 갤리스의 라모락 경이라. 당신은 누구인가?"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였노라. "나는 트리스트람이라. 당신은 나를 알고 있는가?"

라모락 경이 말하였노라. "나는 당신의 명성을 들어보았노라. 당신은 뛰어난 기사라."

트리스트람 경이 웃으며 말하였노라. "당신도 뛰어난 기사라. 나는 당신의 명성을 들어보았노라."

두 사내는 서로를 존경하며, 우정의 맹세를 나누었노라. 그들은 서로를 친구로 삼고, 앞으로 함께 모험을 하기로 약속하였노라. 그 후, 라모락 경과 트리스트람 경은 함께 숲속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노라.

제2장

트리스트람 경이 캐멀롯으로 떠나는 길에 나본 르 누아르 경과의 결투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하여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자기 말과 무기를 갖추어, 아서왕의 원탁에 참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더라. 그는 외로운 길을 따라, 숲과 들을 가로질러 나아가며, 그 마음에는 영광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노라.

그러나 그의 길은 순탄치 아니하였더라. 그가 한 고요한 계곡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그에게 나타나 그 길을 막았으니, 그 사내는 나본 르 누아르라 불리우는 자였노라. 그는 검은 갑옷을 두르고, 검은 창을 들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더라.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 나본 르 누아르가 외쳤노라. "이 길을 지나가려거든, 내 검을 피할 수 있어야 하리라."

트리스트람 경은 고개를 들어, 그 사나이를 바라보며 이르되, "나는 트리스트람이라. 아서왕의 원탁에 참여하기 위해 캐멀롯으로 가는 길이라.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나는 싸움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길을 가고 싶을 뿐이니라."

나본 르 누아르는 웃으며 이르되, "너는 트리스트람이라? 그 이름은 많이 들었노라. 그러나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너와 싸울 것이요. 네가 이기든 지든, 네 이름은 이 땅에 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본 르 누아르는 그의 창을 들어 트리스트람 경을 향하여 돌진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도 그의 창을 들어 맞서 싸웠더라. 두 사나는 서로를 향해 창을 던지며, 말 위에서 격렬하게 싸웠노

라. 창은 부러지고, 갑옷은 찢어졌으나, 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트리스트람 경은 그의 검을 빼어, 나본 르 누아르의 갑옷을 찌르며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노라. 나본 르 누아르는 땅에 쓰러져, 트리스트람 경에게 항복하였노라.

"너는 강하구나, 트리스트람 경," 나본 르 누아르가 숨을 헐떡이며 이르되, "나는 네게 패하였노라. 이제 너는 내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내려다보며 이르되, "나는 너의 생명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네가 내 길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도 아서왕의 원탁에 참여하기를 권하노라. 그곳에는 더 큰 영광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노라."

나본 르 누아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리스트람 경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 길을 떠났으며,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약속하였노라.

이렇게 트리스트람 경은 나본 르 누아르와의 결투를 마치고, 그의 여정을 계속하였노라.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퍼져 갔노라.

제삼장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섬에서 정의를 행하셨으며, 이로써 라모락 경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셨는지. 또한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이 서로에 대한 깊은 우애를 다시금 갱신하셨는지에 대하여.

제삼부

트리스트람 경의 광기

제1장

어찌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부인과 함께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크 왕을 습격하고 틴타겔에서 숲으로 도망쳤는지의 이야기

제이장

트리스트람 경이 어떻게 케이 경에게서 검을 얻었으며, 그로써 숲 속에서 거대한 기사를 죽이고 매우 큰 곤경에 처한 한 부인을 구해낸 일. 또한 랜슬롯 경이 어떻게 숲 속에서 트리스트람 경을 발견하여 그를 다시 틴타겔로 데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삼장

어떻게 트리스트람이 틴타겔에서 발견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일어난 일

제4장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과 함께 콘월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함께 생을 마쳤는지에 대하여

퍼시벌 경의 책

제1장

퍼시벌이 세상에 나가게 된 일과, 그가 천막 속에서 아름다운 낭자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그가 구이니비어 여왕 앞에 나아가게 된 일과, 그가 처음 모험을 떠맡게 된 일에 대하여

퍼시벌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던 때,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집을 떠나 세상의 광활한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섰다. 어머니는 그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과, 항상 선을 행할 것과, 여왕과 기사들을 존중할 것을 일렀노라.

퍼시벌이 숲과 들을 가로질러 오래도록 길을 가매, 어느 때에 그는 넓은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흰 천막 하나를 보았노라. 그 천막은 실크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금실로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되었더라. 퍼시벌은 그 천막으로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가니,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낭자 하나가 앉아 있더라.

그 낭자는 퍼시벌을 보고 놀라 일어나 서서, 그에게 다가가 물었노라. "어느 곳에서 왔으며, 누구를 찾아 여기로 왔느냐?" 퍼시벌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퍼시벌이라 하며, 세상의 일을 배우기 위하여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왔나이다. 내가 누구를 찾아왔는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을 따르리라 하노라."

낭자는 그 대답을 듣고 미소를 띠며 이르되, "너는 아직 어리석도다. 그러나 너의 순진함이 나를 기쁘게 하노라. 너는 나의 호의를 얻었으니,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지금 캐멀롯으로 향하는 길에 있느니라. 그곳에는 아서왕과 그의 원탁의 기사들이 계시고, 내 여왕 구이니비어가 계시노라. 너는 그 여왕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녀에게 네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그녀의 명령을 받들지어다."

이 말을 듣고 퍼시벌은 낭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캐멀롯을 향하여 나아갔노라. 그가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많은 기사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어, 퍼시벌을 보고 그의 단순한 옷차림과 어린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라. 그러나 퍼시벌은 두려움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궁전 안을 두루 살피며 구이니비어 여왕을 찾았노라.

마침내 그는 큰 홀에서 구이니비어 여왕을 발견하였노라. 여왕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묻고, 그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으셨노라. 퍼시벌은 낭자의 말을 그대로 여왕에게 아뢰었노라. 여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첫 번째 모험을 맡기기로 결심하셨노라. 그리하여 퍼시벌은 그의 첫 번째 모험을 떠맡게 되었노라.

제2장

아서왕이 퍼시벌을 기사로 서임하신 일과, 그가 라모락 경과 함께 외출하여 모험을 찾아 떠났으나, 결국 라모락 경을 남겨두고 홀로 모험을 구하러 갔던 일, 그리고 한 위대한 기사가 그에게 무예의 묘법을 가르쳐 주었던 일을 전하노라.

그때 아서왕은 캐멀롯의 성에서 원탁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더라. 어느 날 아침, 왕은 넓은 홀로 모여든 기사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가운데 아직 기사로 서임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살피셨노라. 그들 중 한 사람, 퍼시벌이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청춘이었고, 얼굴에는 순진함과 결단력이 어우러져 있더라. 왕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시고, 성스러운 검을 그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놓으시며 이르시되,

"퍼시벌아, 너는 이제 기사라. 너의 검과 방패를 들고, 정의와 용기를 지키라."

퍼시벌은 무릎을 꿇고 왕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 왕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기사로 공인하시니, 홀 안에서는 기쁨의 외침이 터져 나왔노라.

그 후 퍼시벌은 랄로랙 경과 함께 성을 떠나 외출하더라. 두 기사는 말에 올라타, 숲과 들판을 가로질러 모험을 찾아 떠났노라. 그러나 퍼시벌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으므로, 랄로랙 경은 그에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리라 생각했노라.

그러나 퍼시벌의 마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모험을 해결하고, 자신의 명성을 쌓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더라. 그는 랄로랙 경이 옆에 있는 것을 다소 부담스럽게 여겼노라. 어느 날, 두 기사는 넓은 들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더라. 랄로랙 경은 주변을 살피며 길을 찾으려 했으나, 퍼시벌은 혼자서 길을 찾으려 결심하더라.

"경, 저는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겠습니다. 경께서 먼저 가시옵소서. 저는 곧 따라가겠사오니," 퍼시벌이 이르니라.

랄로랙 경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그의 결심을 존중하더라. "행운이 함께하기를, 퍼시벌아. 조심하라," 라며 그는 길을 계속 진행하더라.

퍼시벌은 혼자 남아서 주변을 살피며,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노라. 그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더라. 퍼시벌은 그에게 다가가가 인사를 드리니라.

"노인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났으나, 아직 그 방법을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퍼시벌이 묻더라.

노인은 그를 오래 바라보며, 그의 순수함과 열정을 보았노라. "나는 한때 위대한 기사였노라. 이제 나이는 들었으나, 여전히 무예의 묘법을 알고 있노라. 너를 가르치리라. 그러나 그 대가로,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하노라," 노인이 이르니라.

퍼시벌은 기꺼이 동의하더라. 노인은 그에게 검의 다루는 법, 방패의 사용법, 그리고 적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노라. 퍼시벌은 매일 매일 연습하며, 그의 실력은 날로 성장해 갔노라. 그는 노인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랐고, 그 결과로 그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기사가 되어 갔노라.

이렇게 퍼시벌은 랄로랙 경과 헤어져, 혼자서 모험을 구하며, 한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 무예의 묘법을 익히게 되었노라.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더라.

제삼장

퍼시벌이 숲에서 두 명의 기이한 사람들을 만나고, 매우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한 기사를 구한 이야기

제4장

어찌 퍼시벌이 보레페아르 성의 모험을 떠났으며, 여러 가지 훌륭한 모험을 겪은 후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제5장

어찌하여 퍼시벌이 한때 요랜드라는 말 없는 처녀에게 가했던 케이경의 일격을 갚았으며, 그 후 그가 자신의 사랑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는지

그림 목록

머리 그림--목차 꼬리 그림--목차 머리 그림--삽화 목록 꼬리 그림--삽화 목록

님유 부인이 랜슬롯을 호수 속으로 데려가니라

머리그림--서문

꼬리그림--서문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여왕에게 인사드리니라

머리그림--랜슬롯의 이야기

브리튼의 라이오넬 경

모르가나 왕비가 랜슬롯 경에게 나타나니라

랜슬롯 경이 터퀴네 경과 무투를 벌이니라

랜슬롯 경이 힐레르 경과 크로아제트와 함께 앉아 있더라

랜슬롯 경과 아름다운 엘루이즈

랜슬롯 경이 공녀의 매를 잡으려고 올라가니라

랜슬롯 경이 케이 경의 갑옷을 취하니라

꼬리그림--랜슬롯의 이야기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 서문 머리 그림 — 서문 꼬리 그림 모에야 부인을 구하는 트리스트람 — 서문 머리 그림 — 서문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 부인의 이야기 콘월의 왕 마크 벨 이졸트 부인 아일랜드 여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죽이려 함 왕 마크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트리스트람 경 랜슬롯 경과 함께 앉는 트리스트람 경 꼬리 그림 벨 이졸트와 트리스트람 경이 사랑의 약을 마심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 부인의 이야기 — 꼬리 그림 갤스의 라모락 경 —

서문 머리 그림 — 서문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이야기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의 성에 이르다 라모락 경이 나본 경의 돼지를 치다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이야기 —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이 왕 마크를 습격함 머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의 광기 케이 경과 숲의 광인 트리스트람 경이 바다로 뛰어듦 왕 마크가 흉계를 꾸미다 꼬리 그림 트리스트람 경의 광기 — 꼬리 그림

갤스의 퍼시벌 경 — 머리그림

서문

아름다운 이브트 부인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함께 길을 가니라

퍼시벌 경이 마법사 비비엔을 물리치니라

블랑슈플뢰르 낭자

케이 경이 퍼시벌 경의 명상에 방해가 되니라

꼬리그림 — 퍼시벌 경의 책

[일러스트레이션: 호수의 부인 님유가 랜슬롯을 호수 속으로 데려가다]

서문

이 일은 이미 내가 집필한, 아서왕이 처음 왕위에 오르셨을 때의 모험을 다룬 한 권의 책에서 이미 밝힌 바 있노라. 그 책에는 그를 지지하고 우호적인 동맹이 된 몇몇 소왕들이 있었음과, 또한 그와 적대시하던 또 다른 일군의 왕들이 있었음이 서술되어 있더라.

그의 친구들 중에는 벤윅의 왕 반이 있었는데, 그는 지극히 고결한 신분이요 높은 위계와 큰 명성을 지닌 영주였으며, 그 혈통은 지극히 높아서 세상 그 어디에도 더 높은 혈통을 가진 이는 드물었을 것이다.

〈각주: 반 왕과 그의 불운에 대하여〉

이에 어느 때에, 벤윅의 왕 반은 큰 환난에 빠지니, 이는 스코틀랜드의 왕 클라우다스가 그에게 대항하여 강대한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클라우다스 왕은 기사들과 영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벤윅으로 쳐들어와, 트라이블 성을 포위하고 그 견고한 요새를 함락하여 멸망시키려 하였더라.

이 고귀한 트라이블 성은 반 왕의 모든 영토에서 가장 으뜸이요 가장 견고한 요새라. 그러므로 그는 모든 기사들과, 헬레네라 이름한 그의 왕비, 그리고 랜슬롯이라 이름한 막내 아들과 함께 그곳에 틀어박혀 자기들을 수비하였더라.

이 아이, 랜슬롯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헬레네 왕비에게 더없이 귀중하였으니, 그는 단지 사지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지극히 아름다워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는 없으리라 믿을 만한 자였기 때문이라. 그는 어릴 적부터 어깨에 특이한

출생 표시를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 표시는 마치 피부 위에 황금 별이 찍힌 듯하였더라. 그러므로 왕비는 그 표시를 보며 이르되, “랜슬롯, 네 어깨의 그 별 때문에, 너는 우리 가문의 별이 될 것이요, 또한 네가 지니게 될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 온 세상이 네 광채를 바라보고 영원토록 경이로워하리라” 하였노라. 이에 왕비는 랜슬롯에게 지극한 애정을 다하여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를 사랑하였으니, 비록 그 때 그녀가 자신의 이 예언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때 반 왕은 자기가 트라이블 성에서 충분히 방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클라우다스는 그 성을 향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평야 전체를 뒤덮었더라. 성벽 아래서 수많은 전투가 치러졌으나, 클라우다스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강성해졌고, 반 왕의 편은 약해지고 더욱 두려움에 잠겨 갔더라.

〈각주: 반 왕이 아서왕을 생각함〉

그리하여 때를 같이하여 사정이 극도에 달하매, 반 왕은 아서왕을 생각하며 스스로 이르되 “나는 내 주군 왕께 나아가 그에게 원조를 구하리라. 그는 마땅히 이를 주실 것이요. 이 일에는 사신을 믿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직접 아서왕께 나아가 친히 그와 말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헬레네 왕비를 불러 자신의 친실로 들이게 하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사랑하는 자여, 내게 남은 길은 오직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우리 불행의 극한에 처한 이 상황에 그의 강력한 원조를 청하는 것뿐이라. 이 일에는 그 누구의 신임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직접 나서리라. 이제 내가 떠나는 동안 이 성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내가 이 일을 수행하러 갈 때 너와 랜슬롯을 데리고 가리라.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그칠 때까지, 우리 아들인 에커 경과 함께 아서왕의 궁정에서 너희 둘을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이에 헬레네 왕비도 그의 말에 동의하였더라.

이에 반 왕은 성의 시네샬, 곧 말리도르 르 브룬 경이라 불리우는 자를 불러 이르시되 "경이여, 내가 오늘 밤 비밀한 길로 이곳을 떠나 아서왕께 나아가며, 이 극한의 상황에 있어 그의 원조를 간구하려 하노라. 또한 나는 나의 부인과 어린 아이 랜슬롯을 데리고 가, 이 비참한 전쟁 동안 그들을 아서왕의 보호 아래 두려 하노라. 그러나 이 셋 외에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되, 나의 총애하는 종자 폴리오트 한 명만 동반하리라. 이제 내가 경에게 명하노니, 이 성을 나의 대리로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지키며,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적에게 넘기지 말지니라. 내가 곧 아서왕으로부터 충분한 원군을 이끌고 돌아와 이 곳을 구원하리라 믿노라."

〈각주: 반 왕과 헬레네 왕후, 그리고 랜슬롯이 트라이블에서 탈출하다〉

그때 밤이 깊어 매우 어둡고 고요해지자, 반 왕과 헬레네 왕후, 그리고 어린 아이 랜슬롯과 시종 폴리오트는 성의 작은 쪽문을 통해 비밀리에 성을 빠져나왔노라. 그들 뒤이어 그들은 매우 드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었고 양쪽에는 매우 높은 바위 벽이 우뚝 서 있었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클라우다스 왕의 군대 진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아래 계곡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노라. 그리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숲은 매우 고요하고 엄숙하며 어두웠노라.

이렇게 무사히 숲속으로 빠져나온 그 작은 무리는,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길을 재촉하였다. 새벽이 오기 얼마 전, 그들은 숲속의 한 벌판에 자리한 호수 하나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니, 험하고 급박한 여정의 피로로 인해 헬레네 왕비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주: 폴리오트가 빛을 보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폴리오트가 갑자기 입을 열며 반 왕에게 이르되, "폐하, 저쪽 하늘을 그렇게 밝게 비추는 그 빛은 무엇인가?"

반 왕이 잠시 바라보더니 곧이어 말하되, "아마도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리라."

"폐하," 폴리오트가 말하되,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그 빛은 우리가 온 남쪽 방향에 있고, 해가 떠오를 동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 왕의 마음은 불안해졌고, 그의 영혼은 큰 근심에 흔들렸노라. "폴리오트여," 그가 이르되, "네 말이 참되니,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불길한 징조임을 믿노라." 이에 그가 또 이르되, "여기 잠시 머

물라. 내가 그 빛이 무엇인지 탐지하러 가리라." 이에 그가 말에 올라 어둠 속으로 달려갔더라.

〈각주: 반 왕이 트라이블의 소멸을 보다〉

그때 근처에는 매우 높은 언덕이 있어 그들이 머무는 곳과 가까웠고, 그 언덕 정상에는 바위로 된 넓은 터가 있어 사방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었더라. 이에 반 왕이 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의 시선을 빛이 나는 방향으로 돌렸고, 곧이어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 빛이 트라이블에서 나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갈 때, 그는 마을과 성이 모두 큰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음을 보았더라.

반 왕이 이를 보자, 돌로 변한 자처럼 잠시 말 위에 앉아 있더니, 잠시 후 큰 소리로 외쳤노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게 슬픔이 있도다!" 그리고 다시 매우 큰 소리로 외쳤노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도다."

〈각주: 반 왕의 죽음〉

그때 큰 슬픔의 파도가 그를 덮쳐 잎사귀처럼 떨리게 하였고, 곧이어 그는 몸속에서 매우 날카롭고 쓰린 통증과 함께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심장인 줄 알았노라.

이때 언덕 꼭대기, 밤의 완전한 고요 속에 홀로 서 있던 그는 소리 높여 외쳤노라. "내 심장아! 내 심장아!"

그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자, 그는 더 이상 말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땅에 쓰러졌노라.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잘 알았으므로, 십자가를 빌어 기도할 수 없었노라. 그는 풀잎 두 개를 꺾어 거룩한 표적을 만들어 그것을 입맞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홀로 죽었노라.

그때 여왕 헬레인과 플로티오는 그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앉아 있더니, 곧 그 바위 길을 내려오는 말의 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에 여왕 헬레인이 이르되, "플로티오, 내 주군이 오시는 것 같구나." 하더라.

잠시 후 말은 빈 안장을 지고 돌아왔다. 플로티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부인, 이제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닥친 것 같습니다. 내 주군께 무슨 일이 있으신 듯하며, 그이가 큰 고난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은 있으나 그이께서는 없사오니."

그때 헬렌 왕비는 마치 생명의 기운이 갑자기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듯하였다. 그녀는 이미 닥친 일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꿈속을 걷는 자처럼 일어나, 매우 조용한 어조로 말하였다.

"폴리오, 방금 전 내 주군이 가셨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이에 폴리오가 아뢰되, "부인, 아침이 곧 밝으오니 잠시 기다리소서. 지금 밤이 너무 어둡사오니 그 곳으로 가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옵니다."

그러자 헬렌 부인이 대답하였다. “폴리오, 나는 기다릴 수 없노라. 만약 내가 여기서 머물러 기다린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이라 믿노라.”

이 말을 들은 폴리오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그녀를 모셔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어린 랜슬롯은 왕비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더라.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가져와 아이를 감싸고, 그가 깨지 않도록 매우 부드럽게 땅에 눕혔노라. 그 후 그녀는 말(팔프레이)에 올라타고, 플로티오는 그 말을 이끌고 얼마 전 반 왕이 올라간 언덕 위로 올랐더라.

〈각주: 헬레네 부인이 왕을 발견함〉 그들이 앞서 말한 넓은 바위 지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왕 반이 매우 고요하고 평온하게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 그의 얼굴에는 지극한 평화가 서려 있었으니, 진실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모든 죄악을 사함 받았다고 믿노라. 이제 그는 이 세상의 근심과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리라. 이에 헬레네 왕비가 그를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탄식이나 비명도 터뜨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랫동안 그의 죽은 얼굴을 바라보았노라. 이미 새벽이 밝아왔으므로 그의 얼굴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이르되, "사랑하는 주여, 지금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한 형편에 있나이다." 다시 그녀가 포리오에게 이르되, "가서 그의 말을 이곳으로 끌어오라. 우리가 그를 이곳에서 옮겨야 하노라."

포리오가 이르되, "부인, 당신께서 혼자 여기 계시는 것은 좋지 않나이다."

왕비가 이르되, "포리오여, 내가 얼마나 홀로 있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나를 여기 두고 떠난들 나를 더 홀로 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에 그녀가 큰 슬픔에 젖어 울기 시작하더라.

이에 폴리오도 크게 울며, 비 내리듯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그를 떠나갔더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떠올랐고, 온갖 새들이 기쁨에 넘쳐 노래하고 있었으며, 세상은 그토록 상쾌하고 환했으므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이 세상에는 근심과 시름이 깃들 수 있다고 믿을 자가 없었더라.

〈각주: 헬레느 부인이 산에서 시신을 내려오다〉 그리하여 헬레느 왕비와 플로티오는 죽은 왕을 말에 태우고는, 왕비가 이르되 “플로티오여, 너는 제 갈 길로 가라. 나는 먼저 앞서가 내 아들을 찾으리라. 지금 내 기쁨이 되어 줄 랜슬롯이 나를 필요로 할지 모르노라” 하더라. 이에 왕비는 플로티오보다 앞서 급히 가파른 언덕을 내려갔고, 얼마 후 그들이 잠시 쉬었던 그 작은 호숫가에 다다랐더라.

이때 헬레네 왕후가 그 초원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가 목격한 바는 매우 기이한 한 부인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은 어린 랜슬롯을 팔에 안고 있었노라. 부인은 랜슬롯에게 노래를 불렀고, 어린 아이는 그 얼굴을 올려다보며 웃고서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노라. 헬레네 왕후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노라. 또한 그녀는 그 부인이 지극히 특이한 용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았으니, 그녀의 옷은 온통 녹색으로 빛나며 놀라운 광채를 발하고 있었노라. 왕후는 그 부인의 목에 금으로 된 목걸이를 두르고 있음을 보았으니, 그것은 오팔과 에메랄드 돌로 장

식되어 있었노라. 그리고 그녀는 그 부인의 얼굴이 상아와 같아 매우 희고 맑으며, 그녀의 눈은 매우 밝아 상아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왕후는 그 부인이 지극히 놀랍도록 아름다우므로, 그녀를 바라보는 자는 어딘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노라 — 그 부인은 바로 요정(Fay)이었기 때문이었노라.

그 부인은 호수의 부인이었으니, 이는 앞서 『아서왕의 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자라. 그 책에는 그녀가 어떻게 아서왕을 도와 그 놀랍고 유명한 칼 엑스칼리버를 얻게 하였으며, 또 어떻게 극한의 곤경에 처한 온유한 기사 펠리아스를 도와 그를 호수 속으로 데려갔는지 기록되어 있나니. 또한 그녀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곳에 전해지니라.

그때 왕후가 그 부인 곁으로 다가가 이르되,

"부인, 간청하노니 제 아들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소서!" 이에 호수의 부인은 매우 기이한 미소를 띠며 이르되, "여인이여, 너는 네 아들을 다시 얻으리라. 그러나 지금이 아니니라. 잠시 후면 너는 그를 다시 얻으리라."

그러자 헬레네 여왕은 깊은 격정의 고통 속에 외치되, "부인,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내게서 빼앗으려 하시오? 다시 저에게 주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내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오. 보시오, 나는 집과 땅과 남편을 잃었으며, 삶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다른 기쁨도 잃었소. 그러므로 간곡히 청하오니, 내 아들을 내게서 빼앗지 마시오."

이에 호수의 부인이 이르되, “너는 잠시 더 네 슬픔을 견디라. 내가 네 아들을 빼앗는 것은 오직 다시 너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니라. 그가 자라나 네 가문의 영광이 곧 세상의 영광이 되도록 기르려 함이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가 되리라. 그의 혈통으로부터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태어날 것이니, 반 왕의 가문의 영광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언제까지나 회자되리라.”

그러나 헬레네 여왕은 더욱 큰 절망 속에 외치되,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작은 아들을 다시 얻는 것뿐이오! 저에게 주시오!”

〈각주: 호수의 부인이 랜슬롯을 호수 안으로 들이다〉

그때 그녀가 간청하며 호수의 부인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였으나, 호수의 부인은 헬렌 여왕의 손을 피하여 물러서며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필멸의 몸이 아니요, 요정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호수의 부인과 랜슬롯은 거울의 얼굴에서 숨결이 사라지듯, 헬렌 여왕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더라.

이는 거울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숨결이 뒤에 있는 것을 가리듯, 잠시 동안은 보이지 않다가 곧 숨결은 사라지고 흩어지며, 이때에야 모든 사물이 다시 선명하고 밝게 보임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호수의 부인은 사라져 갔고, 그녀가 서 있던 곳 뒤의 모든 것은 다시 선명하고 밝아졌으며,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더라.

그때 헬렌 왕비가 기절하여 쓰러졌고, 초원의 호수 곁에 죽은 자처럼 누웠더라. 포리오가 이르렀을 때 그가 그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의 주인은 이미 죽었고, 그의 부인은 죽음에 임박하여 그가 그녀가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앉아서 오랫동안 크게 애도하더라.

〈각주: 헬렌 부인이 수녀원에 들어가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길로 세 명의 수녀들이 지나쳤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수녀원에 거처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 슬픈 광경을 보고 큰 연민을 느끼며, 그곳에서 죽은 왕과 비통한 왕비를 데려갔다. 왕은 성지에 안장되었고, 왕비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후 그녀는 '슬픔의 자매'라 일컬어졌다.

〈각주: 랜슬롯이 호수에서 지낸 시절〉 이때 랜슬롯은 아서왕의 책에 일찍이 서술된 바와 같은, 마법 같은 호수가 덮고 있는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계곡에서 호수의 부인 님유와 함께 거의 십칠 년을 지냈노라.

그리고 호수의 땅은 이와 같았으니, 이는 여기서 서술하리라.

그 마법의 물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호수 아래 숨겨진 요정의 초원으로 들어설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지상의 인간에게는 매우 드문 특권이었노라.

그가 그 땅에 들어서면, 눈앞에는 광활하고 빛나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들판이 펼쳐졌으리라. 그 들판은 온통 정교하고 아름다운 꽃

들로 뒤덮여 있어, 그 꽃들의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선 자의 마음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오르리니, 향기롭고 무수한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은 보는 이의 영혼을 적셨으리라.

또한 그는 골짜기 곳곳에서 자라난, 그늘진 아름다운 수목들의 숲들을 보았으리라. 각기 그늘진 숲 사이사이에는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 솟아나 있노라. 그리고 그는 때때로,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즐거운 곳들에서, 그 땅의 고귀하고 온화한 백성들의 무리를 보았으리라. 그들은 유희를 즐기거나, 빛나는 금빛 하프의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노라.

또한 그는 그 아름다운 평야 한가운데에, 하늘 높이 뻗어 오른 탑과 지붕을 가진 놀라운 성채를 보았으리라. 그 성채는 그 땅 특유의 광채로 빛나며, 순금으로 지어진 성들과 요새들처럼 눈부셨노라.

이러한 땅이 바로 랜슬롯이 데려다진 곳이라. 내가 전한 바를 통해 너희는 그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알 수 있으리라.

그곳의 신비는 랜슬롯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으니, 이후 그가 그곳을 나서고서부터 그는 다른 이들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살던 동료 인간들과는 어딘지 멀고도 먼 곳에 있는 자처럼 여겨졌노라.

그는 자주 미소 짓기는 하였으나, 웃음은 그리 많지 않았노라. 비록 웃음을 터뜨릴지라도, 그것은 결코 경멸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요, 언제나 사랑과 자비에서 우러난 것이었노라.

* * * * *

이곳에서 펠리아스 경은 이제 수년간 큰 평화와 만족 속에 거하였더라. (왕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죽을 문턱에 이르렀을 때 호수의 부인 님웨가 그를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그 후부터 그는 반은 요정이고 반은 인간이었노라.)

그곳으로 랜슬롯을 인도하게 된 연유는, 펠리아스 경이 그에게 기사도의 모든 수련을 가르치고 연마시키기 위함이었노라. 온 세상에 펠리아스 경보다 무예에 능숙한 자는 없었고, 기사도의 의무를 랜슬롯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또한 그뿐이었기 때문이니라.

그때 펠리아스 경은 랜슬롯에게 기사도의 진수를 가르쳤으니, 그 가르침은 거룩한 행실과 예의뿐 아니라, 무예의 가치와 기예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되었더라. 그러므로 랜슬롯이 그 가르침을 다 받아 마침내 완전한 기사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어느 기사도 그의 무력이나 예의바른 행실보다 더 낫지 못하였더라. 다만 그의 아들인 갤러해드 경이 기사도의 궁전에 나타날 때까지라.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리라.

이때 랜슬롯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자 그는 기사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가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는 지극히 빛나는 밝은 별과 같았더라.

이러한 연유로, 나는 그의 초기 생애의 모든 정황과 사연들을 세세히 적어 보였노라. 이는 네가 그가 어떻게 호수 속으로 거두어졌으며, 이후에 어찌하여 '호수의 랜슬롯'이라 불리며 랜슬롯 경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예언된 위업을 이루었으며, 또 아서왕이 그를 기사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모험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곧바로 읽게 되리라.

제1부

랜슬롯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호수의 랜슬롯 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니, 그는 기사도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세상에 나타난 어떤 기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며, 완벽하신 기사로 모든 이에게 여겨졌노라. 그의 아들인 갤러해드 경이 기사도의 하늘에 빛나는 특별한 별처럼 나타나기 전까지, 랜슬롯 경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더라.

이 책에서는 그가 마법의 호수에 이끌려 들어간 일과, 그곳에서 나와 아서왕의 손으로 기사 작위를 받은 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하여 모든 이의 경외와 찬탄을 한 몸에 받았던 여러 모험들, 그리고 아서 펜드래곤의 원탁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 그 이야기들이 전하여지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왕비를 맞이하다]

제1장

호수의 마성에서 랜슬롯 경이 나와 다시 세상에 들어왔으며, 아서왕이 그를 기사로 임명한 일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요새는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로운 힘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이제 그 봉인이 풀려나고 있었다. 랜슬롯은 그 성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수년간 지내며, 자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지혜를 얻었노라. 그는 이제 그 고독한 은둔을 끝내고, 세상의 빛을 다시 보기로 결심하였노라.

그가 성문을 나서려 할 때, 호수의 부인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자녀여, 이제 너는 세상의 무지와 싸워야 하리라. 너의 힘은 이제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위해 쓰일 것이라." 하더라. 랜슬롯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호수의 잔잔한 물을 바라보았노라.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에 대한 용기를 얻었노라.

그가 성채를 벗어나자, 주변 풍경은 그의 눈앞에 새롭게 펼쳐졌노라. 숲은 더 푸르고, 바람은 더 맑게 불었으며, 하늘은 더 높고 넓게 느껴졌노라. 그는 이제 세상의 진정한 의미, 즉 고통과 기쁨,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기와 절망이 공존하는 곳을 향해 걸어가려 하였노라.

이때, 멀리서 아서왕의 기마대가 나타나 랜슬롯을 맞이하였노라. 아서왕은 그의 아들처럼 자란 랜슬롯의 용맹함과 지혜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노라. 왕은 기마에서 내려 랜슬롯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르시되, "랜슬롯이여,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노라. 너의 검과 마음은 모두를 위해 쓰일 것이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기사로 임명하였노라.

이렇게 랜슬롯 경은 다시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의 이름은 곧 캐멀롯의 원탁에 새겨질 것이었노라.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노라.

〈각주: 옛적의 봄에 대하여〉

나는 일년 중 어느 때보다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는 줄로 아노라. 바로 초여름이 그러한 때라. 이때 해는 기이하게도 정기가 왕성하고 강건하나, 그다지 무덥지 아니하니라. 이때 나무와 관목은 생기가 넘치고 그늘이 풍성하나, 뒤이은 날들의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마르지는 아니하도다. 이때 풀은 젊고 무성하여 푸르렀으니, 초원지를 가로질러 걸을 때면 마치 마법의 푸른빛으로 물든 파도치는 호수 위를 걷는 듯하고, 그 위에는 수많은 작은 꽃들이 흩뿌려져 있더라. 이때 장미는 온곳에 피어 있으니, 흰 장미와 붉은 장미 모두 그러하며, 야생장미도 풍성하도다. 이때 새집은 잘 난 병아리로 가득 차 있고, 작은 어미 새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높아져서 온 힘을 다해 노래하니, 이로써 이른 낮 시간은 그들의 달콤한 수다와 환호하는 합창으로 가득 차 있더라.

참으로 이는 일년 중 아름다운 계절이라. 비록 영혼이 젊은 황금빛 봄철만큼이나 활기차지는 않을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이 충만함을 볼 때 영혼은 큰 만족을 얻으니, 이로써 마음은 다른 계절에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크고 풍성한 기쁨으로 들뜨게 되느니라.

〈각주: 아서왕과 두 기사가 사냥을 떠남〉 이제 성 요한의 날 하루 전날, 한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시절에, 아서왕은 새벽녘 매우 일찍 그의 방에서 밖을 내다보았노라. 그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지, 곧 새벽빛의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노라. 해는

아직 뜨지 않았으나 곧 뜨려 하였고, 하늘은 순금처럼 빛나고 있었노라. 모든 풀과 잎과 꽃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이슬로 적셔져 있었고, 새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저귀었노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 주위에 가득 찬 생명의 충만함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때 아서왕 곁에는 두 명의 기사가 함께하였으니, 하나는 모르가나르 페이의 아들이자 아서왕의 조카인 에워인 경이요, 또 하나는 벤윅의 왕 반과 왕비 헬레나의 아들인 에커트 드 마리 경이었노라. 후자는 지극히 고결하고 청춘의 기운이 넘치는 기사로, 그 시기에 선출된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젊은이였더라. 이 두 사람은 아서왕과 함께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여름철의 달콤한 기운을 함께 즐기더라.

잠시 후 아서왕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들이여, 오늘 이 날씨는 너무도 아름다워 집 안에 머물기에는 아깝도다. 진실로, 평범한 농부들이 들판과 푸른 숲, 밝은 해와 푸른 하늘, 언덕과 계곡을 부는 바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데, 왕인 내가 내 성곽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라. 이제 나도 또한 밖으로 나가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 사냥을 떠날 것을 명하노니, 경들과 내가 이 성에 사는 다른 영주들과 부인들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출발하리라. 그러니 말과 사냥개를 준비하고, 몇몇 사냥꾼과 숲지기를 데리고 푸른 숲으로 사냥을 떠나자. 오늘 하루는 경들과 나를 위한 공휴일이니, 근심은 뒤로하고 잠시 동안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움을 누릴지니라.”

이에 그들은 모두 아서왕의 명을 따랐노라. 각자 스스로 무장을 갖추고, 왕이 명하신 대로 사냥꾼들과 숲지기들을 그 곁에 두었더라. 그 후 그들은 성채를 떠나, 너른 세상이 펼쳐진 저편으로 떠났으니, 이때는 아직 아침이 깊지 않아 성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이라 그들의 떠남을 아는 이가 없었더라.

그 날 종일 그들은 숲 속에서 큰 기쁨과 큰 희열로 사냥을 하였더라. 해가 이미 저물어 높은 수목의 꼭대기 너머로 가라앉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돌렸노라. 그때에 아서왕이 명하시되, 다시 캐멀롯으로 향할지어다, 하였더라.

〈각주: 아서왕과 그의 동행자들이 기이한 처녀와 난쟁이를 발견함〉

이때는 성 요한의 전야였으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요정들과 선녀(Fay)의 무리들이 평소와는 달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더라. 이에 아서왕과 두 기사, 그리고 각각의 숲지기들과 사냥꾼들이 숲의 외딴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지나가던 길이 다른 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한 처녀와 한 난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갑자기 눈치챈지라, 그들은 그 처녀의 매우 특이한 용모를 보아 그녀가 아마도 선녀의 무리일 것이라 짐작하였노라.

그녀와 그녀의 난쟁이는 각각 젖빛 하얀 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매우 기이하게도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히 서 있더라. 그들은 가시나무 덤불로 둘러싸인 작은 제단 곁에 머물러 있었으며, 처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 바라보는 자들을 경탄케 하였노라. 더욱이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사미트 천으로 옷을 입었으며, 그 의복은 은으로 수놓아졌더라. 또한 그녀의 말의 장구 역시 밝은 은으로 장식된 하얀 사미트로 만들어져, 그녀가 조금만 움직여도 은빛 때문에 순식간에 빛나곤 하였노라.

아서왕과 그와 함께한 두 기사가 이 처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그들이 그녀의 용모에 크게 경이로워하니, 그녀가, 높고 맑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노라.

"환영하노라, 아서왕이여! 환영하노라, 아서왕이여! 환영하노라, 아서왕이여!"

이처럼 세 마디를 세 번씩 반복하며, 이어 "환영하노라, 에웨인 경이여! 환영하노라, 에커트 데 마리 경이여!"라고 각기 그 경들의 이름을 불러 호명하였노라.

"낭자여," 아서왕이 이르시되, "네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서 우리가 너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로다. 이제 너는 네 이름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나는 네가 선녀(Fay)일 것이라 믿노라."

"영주여," 처녀가 이르되, "내가 누구인들 어떠하리요. 다만 나는 당신께 지극히 친하신 놀라운 부인의 궁중에서 온 자라. 그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기를 간구하셨노라. 내가 당신을 그녀께로 인도하리니."

"낭자여," 아서왕이 이르시되, "네가 청하듯 내가 함께 가기를 기꺼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를 네 여주인께로 인도하리니, 나와 내 기사들이 기꺼이 그 길을 따라 그녀께 예의를 표하리라."

[각주: 아서왕과 그의 기사들이 처녀를 따르니라] 이에 처녀가 손을 휘저으며 고삐를 당겨 앞장섰고, 난쟁이가 그녀를 따랐다. 아서왕과 두 기사도 그녀를 뒤따랐으며, 그들의 일행인 사냥꾼들과 사냥개들, 그리고 비글들이 모두 그들을 따라갔다.

그때 처녀와 난쟁이가 앞장서서 어느 정도 길을 인도하되, 그리 멀리까지 이끄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들이 갑자기 숲속의 한 넓은 초원에 다다랐을 때, 그 초원은 숲의 나무들로 둘러싸여 울타리처럼 둘러싸인 곳이더라.

그곳에서 왕과 기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큰 소동과 분주함을 보았더라. 어떤 이들은 흰 사미트로 만든 여러 천막을 치느라 매우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잔치를 벌일 것처럼 식탁을 차리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일 저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더라. 여기저기에는 짐나귀들과 짐말, 그리고 승용마들이 어지럽게 서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가문의 무리가 머물고 있는 듯하였더라.

이때 아서왕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초원의 건너편, 멀리서 세 사람이 돌능금나무 아래 특설로 마련한 침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들은 이 세 사람이 그 무리 중 가장 위대한 자들임을 깨달았더라.

〈각주: 아서왕과 그의 동료들은 낯선 백성들과 면담하게 되니라〉

세 무리 중 첫 번째 무리는 매우 위엄 있고 고귀한 용모의 기사였으니, 그의 갑주는 은빛처럼 희었더라. 그의 조끼는 은으로 수를 놓은 흰색이었고, 칼집과 칼띠 또한 희었으며, 그의 방패는 그 위를 덮고 있는 돌능금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은빛처럼 희었더라. 이 기사는 여전히 투구를 쓰고 있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노라.

세 무리 중 두 번째 무리는 흰 의복을 두른 한 부인이었으니, 그녀의 얼굴은 윔플로 가려져 있어 그녀의 얼굴 또한 매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의복은 놀라운 것이었으니, 흰 사르세넷 천에 백합꽃 무늬로 은이 수놓아졌더라. 또한 그녀는 가슴과 목 주위에 빛나는 은 사슬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사슬에는 다양한 종류의 빛나고 반짝이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노라.

세 무리 중 세 번째 무리는 열여덟 살의 소년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 아서왕은 그가 이와 같이 고귀한 존재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노라. 그의 얼굴은 희고 빛났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가능한 한 검은색이었으며, 어깨 위로 곱슬거리며 내려왔노라. 그의 눈은 크고 밝았으며 유난히 검은색이었고, 그의 눈썹은 매우 매끄럽게 휘어져 있어, 만약 그것들이 그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마에 그어진 것보다 더 고르게 그려질 수는 없었으리라. 그의 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내밀어졌으나(그러나 그리 심하지는 않았노라), 산호처럼 붉었으며, 그의 윗입술은 부드러운 검은 솜털로 그늘져 있었노라. 게다가 이 소년은 흰 새틴 천으로 완전히 옷을 입었으니, 그의 목에 걸려 있는 빛나는 은 사슬과 오팔과 에메랄드가 박힌 것 외에는 어떠한 장식도 없었노라.

이때 아서왕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여러 징표로 보아 그 세 사람 가운데 그 부인이 가장 위대한 자임을 깨달았으므로, 특히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이르되, “부인이시여, 보기에 내가 여기로 불려 온 것은 부인의 뜻인 듯하며, 부인은 나를 부르기 전부터 내 이름과 신분을 이미 아셨나이다. 이제 부인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인 자신에 대해 제게 밝혀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나이다.”

“경,” 그녀가 이르되, “그것은 내가 기꺼이 행하리니, 내가 예전에 경을 알았사오면, 경 또한 예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당신의 친구로 아셨음이오.” 이 말을 하고 그 부인은 얼굴의 윔플을 내리니, 아서왕은 그것이 호수의 부인임을 깨달았더라.

[각주: 아서왕이 다시 펠리아스 경을 발견하더라] 이에 그는 한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대니라. "부인," 그가 이르되, "저는 실로 당신을 잘 알아야 할 연유가 있사오니, 당신이 스스로 말하듯, 여러 차례에 걸쳐 저와 제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때 아서왕은 호수의 부인과 함께 있던 그 기사에게로 돌아서서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소이다. 그리고 당신이 투구의 면갑(umbril)을 들어 올린다면, 우리 세 분 모두 당신의 얼굴을 알게 되리라 의심치 않소." 이에 그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아서왕이 요청한 대로 자신의 면갑을 들어 올렸고, 세 사람은 그것이 온순한 기사 펠리아스 경임을 보았더라.

이제 아서왕의 책에서 펠리아스 경에 관하여 매우 충실히 서술되었나니, 거기서 그를 읽어본 자들은 그가 가장 친한 친구인 가웨인 경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일과, 호수의 부인이 그를 데려가 마법 호수처럼 나타난 그 놀라운 도시에서 함께 살게 된 일, 그리고 그 때 마지막으로 그를 목격한 자가 가웨인 경이었음을 기억하리라. 그러나 펠리아스 경이 그 때 가장 사랑하던 친구가 가웨인 경이었다면, 에웨인 경은 그 다음으로 그를 아끼던 자였노라. 그러므로 에웨인 경이 그 낯선 기사가 펠리아스 경임을 보았을 때, 그는 순전한 경이로움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노라. 호수의 부인과 함께 호수 속으로 들어간 이후로 펠리아스 경을 본 자는 없었기 때문이며,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노라.

이때 에웨인 경이 그 기사가 펠리아스 경임을 보자 큰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안아 안으니, 펠리아스 경은 이를 금하지 아니하더라. 비록 대개 때에 요정의 자손들은 인간의 손길에 닿음을 허락치 아니하나, 성 요한 날 전야에는 요정과 인간이 피와 살을 같이한 형제처럼 교류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펠리아스 경은 에웨인 경을 금하지 아니하고, 서로 안아 안으니 이는 한때 무기를 같이한 형제들이 마땅히 안아 안는 바와 같았더라. 각기 서로의 얼굴에 입맞추며 큰 기쁨을 나누었노라. 실로 그들의 기쁨이 지극하여, 곁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순수한 행복에 젖었더라.

그때 펠리아스 경이 아서왕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맞추었으니, 이는 모든 기사가 자신의 주군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였더라.

"하, 경,"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이 부인을 뵈옵던 때에, 경이 그 분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였노라." 그 후 아서왕이 호수의 부인에게 이르시되, "부인, 청하노니 내게 일러주시오. 그대 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청년은 누구인가? 내가 그와 같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우리를 그에게 소개해 주시겠는가."

"영주여," 호수의 부인 님웨가 이르되, "그가 누구요,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분명히 드러나리니, 바랄진대 그대는 이제 당장 알기를 원치 말라. 비록 그대라 할지라도 아직은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내가 말하건대, 잠시 전 십자가가 있는 길목에서 그대를 맞이하라고 보낸 내 처녀는 바로 그를 위한 일이었노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하리니, 보라! 그대의 환대를 위해 차려놓은 잔치가 이미 상 위에 올랐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린 다음,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야기합시다."

〈각주: 호수의 부인이 아서왕을 위해 연회를 준비함〉

이에 그들 여섯은 모두 일어나, 초원 한가운데 차려진 식탁 곁으로 가서 앉았더라. 밤은 매우 온화하고 포근하였으며, 기이한 광채를 발하는 보름달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숲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식탁 위에 놓인 은촛대에 꽂힌 수없이 많은 밝은 양초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므로, 밤은 마치 특이한 한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더라.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고기와 여러 종류의 훌륭한 포도주가 풍족히 차려져 있었으니, 그 중 일부는 금빛처럼 황금빛이었고, 또 일부는 카르분클(루비)처럼 붉었더라. 그들은 달빛 아래서 말과 웃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먹고 마셨더라.

때로는 그들이 캐멀롯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펠리아스 경과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여 주었고, 때로는 펠리아스 경과 그 부인이 그들이 머무는 땅에 관한 기이한 일들을 말하여 주었으니, 그들이 떠나온 요정 나라의 궁정보다 천국의 궁정이 더 아름다우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더라.

그 후 잔치가 끝난 뒤 호수의 부인이 아서왕께 아뢰었노라. "폐하, 제가 폐하의 총애를 조금이나마 얻었다면,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이에 아서왕께서 답하시되 "청하노라, 부인이여. 무엇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마." "폐하," 호수의 부인이 이르되,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사옵니다. 저와 함께 앉아 있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옵소서. 그에게 대한 제 정은 지극하여, 그 얼마나 귀하신지 제대로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제가 그를 우리 거처에서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니, 곧 폐하께서 그를 기사로 임명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간곡히 청하는 큰 은혜이옵니다. 이 뜻을 담아 저는 갑옷과 기사도의 모든 구비품을 지니고 왔사오니, 그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갑옷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고귀한 혈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부인이여,"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대가 청하는 바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네가 말한 그 갑옷에 관하여는, 내가 기사의 작위를 수여하는 자에게는 모두 내가 직접 선택한 갑옷을 갖추어 주는 것이 나의 관례니라."

호수의 부인은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이르시되, "폐하, 이 일만은 저의 뜻대로 두시옵소서. 이 청년에게 마련된 갑옷이 폐하의 고귀함과 그의 장래 명성에 전혀 손색이 없으리니, 폐하께서 그로써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 확신하나이다." 이에 아서왕은 그 말에 완전히 만족하시니라.

〈각주: 랜슬롯 경의 갑주 등에 관하여〉 그 갑주에 관하여, 옛 기록은 이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갑주는 바로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은 형태였으며, 호수의 마법 궁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반되어 왔으니, 즉 앞장서서 두 명의 청년이 두 마리의 흰 노새를 이끌고 왔고, 노새 등에는 은 장식이 달린 두 개의 상자가 실려 있었노라. 한 상자에는 그 갑주의 사슬 갑옷(하버크)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한 상자에는 철로 된 부츠가 담겨 있었노라. 그것들은 은처럼 빛나며, 순수한 금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노라.

그 다음으로 두 명의 시종이 흰 옷을 입고 흰 말에 올라타고 왔는데, 한 사람은 은 방패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빛나는 투구를 들고 왔으니, 그것은 마치 은으로 된 듯하며 역시 순수한 금으로 새겨진 문양이 매우 놀랍도록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노라.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두 명의 시종이 왔으니, 한 사람은 흰 칼집을 든 칼을 들고 왔는데 칼집에

는 은 못으로 장식되었고(그 검대는 은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면들이 박혀 있었노라), 다른 한 사람은 흰 전마를 이끌고 왔으니, 그 말의 털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빛나었노라. 그리고 이 말의 모든 장비와 구비품은 은과 은으로 장식된 흰 사미트 천으로 만들어졌노라.

이로써 당신은 그 젊은 부제가 그의 장차 올 위대함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얼마나 고귀하게 갖추었는지 볼 수 있노라. 당신이 짐작했듯, 그 청년은 바로 벤윅의 왕 반의 아들인 랜슬롯이었노라. 그는 곧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되었노라.

〈각주: 랜슬롯이 밤새 갑옷을 지킴〉 그 숲 가장자리에는 작은 수도원이 있어, 랜슬롯은 그 수도원의 예배당에서 그 밤을 새워 갑옷을 지켰노라. 에윈 경도 그 시간 내내 함께 하였더라. 한편 아서왕과 마리스의 에커 경은 호수의 부인이 마련해 준 비단 천막에서 각각 잠들었노라.

새벽이 밝자 에윈 경은 랜슬롯을 목욕탕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으니, 이는 기사로 임명받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행하던 관습이었더라.

이때 에윈 경이 그 소년을 목욕시키며 씻기노라. 그가 보니 소년의 어깨에 금빛 별과 같은 형상의 표식이 있더라. 이에 에윈 경은 심히 놀라워하되, 그 때에 이 일에 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고 보았던 일을 묵묵히 지켰노라. 다만 그는 이 표식을 보고 심히 놀라워하더라.

〈각주: 아서왕이 랜슬롯을 왕실 기사로 임명함〉 이에 에윈 경이 랜슬롯을 목욕시킨 후, 그가 장차 받게 될 의식에 알맞은 의복을 입혀 주었노라. 청년이 그렇게 차려입자 에윈 경은 그를 아서왕께 모셔갔고, 아서왕은 위엄 있는 의식을 거쳐 랜슬롯을 기사로 서임하셨으며, 친히 그의 허리에 띠를 매어 주셨노라. 이 일을 마친 후 에윈 경과 마리스의 에커 경이 그의 발뒤꿈치에 황금 박차를 채워 주었는데, 마리스의 에커 경은 자신이 친형제를 위해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 모든 정황과 의식을 다하여 기사로 서위되었으니, 이에 관하여 내가 상세히 일일이 말씀드린 바니라. 이는 지극히 위대하고 명성 높은 그 기사에 관한 모든 일이 마땅히 이와 같이 기록되고 전하여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라.

아서왕이 랜슬롯 경을 기사로 임명하신 후, 두 무리는 이제 갈라서는 때가 이르렀으니, 곧 호수의 부인 무리와 아서왕 무리가 서로 헤어지는 때라. 그러나 그들이 서로 작별하려 할 때, 호수의 부인은 랜슬롯 경을 곁으로 불러 이렇게 이르시되

〈각주: 호수의 부인이 랜슬롯 경에게 좋은 충고를 하다〉

"랜슬롯아, 네가 왕의 아들이며, 네 혈통이 이 땅 위의 그 누구보다도 고결함을 잊지 말라. 내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일러주었노라. 그러므로 네 덕성이 네 아름다움과 같고, 네 예의와 온유함이 네 무공과 같기를 힘쓰라. 오늘 너는 아서왕과 함께 캐멀롯으로 가서 그 유명한 기사들의 궁정에 네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 밤이 오기 전에 떠나 세상의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네 기사도 정신을 마땅히 증명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덕성을 행위로 증명하기 전까지 세상에 네 신분을 드러내게 하려 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네 스스로 네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세상이 너를 선포하기를 기다리라. 이는 한 남자의 덕성을 세상이 선포하는 것이, 그 남자가 스스로 자신의 덕성을 선포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떠한 모험이든 마다하지 말고 맡으라. 다만, 네가 손대어 시작했던 일은 결코 다른 이가 완성하게 하지 말라."

호수의 부인이 이같이 랜슬롯 경에게 충고한 후, 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는 정교하게 세공되고 놀라운 보라색 돌을 박은 반지를 건네주었다. 이 반지에는 모든 마법을 풀어버리는 힘이 깃들어 있었노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랜슬롯아, 이 반지를 착용하고 결코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말라."

랜슬롯이 이르되, "그리하겠습니다."

이에 랜슬롯 경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었으니, 그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그 반지는 결코 그의 손가락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아서왕과 에웨인 경, 그리고 마리스의 에커 경과 젊은 랜슬롯 경은 캐멀롯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더라. 그들이 함께 길을 가던 중, 에웨인 경은 마리스의 에커 경에게 비밀리에 이 청년의 어깨 피부에 금빛

별과 같은 자국이 있음을 일러주었노라. 이 소식을 들은 에커 경은 깊은 침묵에 잠겼더라. 에커 경은 그 표식이 자신의 형제 어깨에 있던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다른 이의 어깨에 그러한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이 청년의 어깨에 그 표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노라.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을 에웨인 경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을 지켰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캐멀롯에 이르다〉

그들이 아침 일찍 캐멀롯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토록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고귀한 젊은 기사로 보이는 랜슬롯 경의 도착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도착을 맞아 큰 환호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노라.

그 후 잠시 있다가 아서왕이 이르시되 “가자, 이 젊은이의 이름이 원탁의 의자 중 어느 곳에 적혀 있기를 바라노라. 내 생각에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궁중의 모든 이들이 앞서 서술된 천막으로 가서 원탁이 설치된 곳으로 향하여 살펴보았노라. 보라! 펠리노어 왕이 한때 앉았던 의자 위에 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

호수의 기사

이때에 호수의 부인이 자기 성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숲 속으로 가니, 그곳은 깊고 어둡고 고요하여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더라. 그녀는 그 숲의 한가운데서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결

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의 자갈과 모래가 훤히 비치는지라. 부인은 그 시냇가에서 한 어린아기를 발견하였으니, 그 아이는 비단으로 감싸여 있고 얼굴은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더라. 부인은 그 아이를 안아 들고 자기 성채로 돌아와서 키우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아이에게 랜슬롯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이는 그가 호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더라.

이 이름은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까지는 바뀌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이 이름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

* * * * *

〈각주: 랜슬롯 경이 원탁의 기사가 되다〉

이러므로 랜슬롯 경은 그 날 종일 캐멀롯에 머물러, 아서왕의 궁정에 모인 수많은 영주들과 부인들, 기사들과 귀부인들을 만나 사귀었노라. 그 동안 그는 마치 꿈속을 걷는 자와 같았으니, 호수에 끌려간 이후로 그는 인간 세상의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보는 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마법의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 새롭고 경이로웠기 때문이라. 그는 인간이요, 이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이었기에 이를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러므로 비록 호수의 성이 아름다웠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 곳으로 향하

지 않고 이 다른, 덜 아름다운 땅으로 향하였으니, 이는 그가 인간이요 이것이 인간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비록 그날이 그에게 있어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었을지라도, 호수의 부인이 그에게 그 곳에서 머무르기로 한 때에 관해 말한 것을 랜슬롯 경은 잊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해가 저물어 저녁이 가까워지매, 그는 모험을 찾아 떠나기를 원하여 아서왕에게 허락을 구하니, 아서왕은 그의 소원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떠날 채비를 갖추려 할 때, 그의 거실에서 에커 데 마리스 경이 들어와 이르되, "경하, 청컨대 내게 말씀하시오. 경의 오른쪽 어깨에 금빛 별과 같은 흔적이 있사오니까?" 랜슬롯 경이 대답하시되, "그렇도다. 그 말이 참이라." 에커 경이 다시 말하되, "청컨대 경의 이름이 랜슬롯이냐고 말씀하시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도다. 그것이 내 이름이라."

〈각주: 에커 경과 랜슬롯 경의 우애에 대하여〉 이에 에커 경은 크게 통곡하며 랜슬롯 경을 품에 안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노라. "랜슬롯이여, 너는 내 친형제라! 네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라! 우리는 모두 벤윅의 왕 반과 왕비 헬레나의 아들들이라." 이에 그는 큰 정성을 다해 랜슬롯 경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노라. 랜슬롯 경 또한 이 낯선 세상에 막 들어와 형제를 얻게 된 기쁨에 찬 마음으로 에커 경에게 큰 정성을 다해 입을 맞추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에커 경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하였고, 에커 경은 기사의 맹세로 이를 약속하였노라. (랜슬롯 경이 세상의 모든 이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만한 업적을 이루기 전까지, 에커 경은 결코 아무에게도 랜슬롯 경의 정체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랜슬롯 경이 이와 같이 세상에 나섰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중대한 위업을 떠맡아 모두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더라.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기사도의 모든 궁정에 매우 빠르게 알려졌더라.

〈각주: 랜슬롯 경의 여러 모험에 관하여〉

먼저 그는 '슬픔의 성(Dolorous Gard)'이라 불리던 성채에 드리운 마법을 풀고, 그 성을 해방하여 성 안에 갇혀 있던 슬픔과 비참함에 잠긴 모든 포로들을 석방하였노라. (이 성을 그는 자신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름을 '기쁨의 성(Joyous Gard)'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니, 이후 이 성은 그가 가장 사랑하던 보물로서 널리 명성을 떨쳤노라. 이는 그가 자신의 무공으로 거둔 첫 번째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요, 그는 이 성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였으며, 늘 이를 자신의 집이라 여겼노라.)

그 후 랜슬롯 경은 구이니비어 왕비의 명을 받아 노한(Nohan)의 부인을 위해 노섬벌랜드 왕과 맞서 싸웠으며, 노섬벌랜드 왕을 격파하여 그를 아서왕의 신하로 만들었노라. 이어 그는 경계 지방의 왕인 갈레홀트 경을 물리치고, 그를 포로로 아서왕의 궁정으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이후 갈레홀트 경과 랜슬롯 경은 영원한 친구가 되었노라.)

이리하여 잠시 후 온 세상이 랜슬롯 경의 이름을 입에 올렸으니,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 진실되게 말하기를, 그가 기마전이나 보병전 어느

것에서도 다른 어떤 기사에게도 패한 적이 없으며, 그가 맡은 모든 모험, 크든 작든 반드시 성공하였다고 하였노라.

이것은 호수의 부인이 원하던 바와 같았노라. 랜슬롯 경의 이름이 명성을 얻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행한 업적들 때문이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이 모든 유명한 모험들을 성취하고, 그 후 성공적인 기사도의 영광을 머리에 쓴 채 다시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왔더라. 그곳에서 그는 기쁨과 환호 속에 맞이되었고, 그의 것이 되어야 할 원탁의 자리에도 마땅히 앉혔더라. 그리고 그 궁정에서 그는 그곳에 있던 모든 기사들 중 가장 큰 존경과 신임을 받았노라.

아서왕께서 그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나는 왕에게 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도, 호수의 랜슬롯 경과 같은 기사가 자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알지 못하노라." 랜슬롯 경과 같은 기사는 세상에 드물게 나타나나, 그가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은 반드시 그 빛을 발하여 그가 섬긴 왕의 통치 전체를 비추게 마련이니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아서왕의 궁정에서 모든 이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으며, 이후 그의 생애 대부분을 그 궁정에서 보냈더라.

* * * * *

〈각주: 랜슬롯 경과 구이니비어 왕비에 관하여〉 이제 나는 랜슬롯 경과 구이니비어 왕비 사이에 존재했던 그 우정에 대해 반드시 언급하

지 않으면 안 되노라. 왕의 궁정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서로 가장 큰 친구가 되었으니, 그들보다 더 친밀한 두 사람은 세상에 없었더라.

이제 나는 그 우정에 관해 많은 악의성 발언이 있었음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그러한 악한 말들 중 어느 것도 믿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항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즐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니라. 비록 랜슬롯 경이 그의 부인으로 구이니비어 왕비 외에는 다른 어떤 부인도 모시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녀가 랜슬롯 경을 친한 친구 이상으로 여겼다는 진실된 말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노라.

랜슬롯 경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기사적 맹세로 구이니비어 왕비가 모든 면에서 고결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증언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의 기사적 맹세를 믿고, 그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믿기로 하노라. 그가 마지막 날에 은자가 되었고, 그녀도 수도자가 되었으며, 아서왕이 그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부서졌던 일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나는 그들 같은 고결한 영혼들에 대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믿기로 하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캐멀롯에서 지내던 모습〉

비록 랜슬롯 경이 이와 같이 왕의 궁정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그는 모든 것보다도 열린 세상과 모험의 삶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가 호수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에, 이러한 야외의 튼튼한 삶은 그에게서 매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왕의 궁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잠시 큰 기쁨을 찾았으니, 이는 그를 위해 수많은 투기들이 열렸고, 그가 어디를 달려가든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곳으로 그 위대한 기사,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사인 랜슬롯 경이 가노라" 하였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러나 그는 다시 광활한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항상 갈망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느 날, 그가 왕에게 허락을 구하여 그곳을 떠나 잠시 모험을 찾아 나가기를 청하니, 아서왕은 그의 소원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더라.

이제부터는 랜슬롯 경이 행한 여러 가지 뛰어난 모험과, 그가 그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여 원탁의 위대한 영광과 명성을 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그는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으뜸가는 기사였노라.

[그림: 브리튼의 라이오넬 경]

제2장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함께 기행을 떠난 일과, 라이오넬 경이 터퀴네 경을 만나 큰 슬픔을 당한 일. 또한 에커 경이 그의 동생 랜슬롯의 떠남을 슬퍼하며 그를 따라갔다가 매우 불행한 모험에 빠진 일.

이때 아서왕이 이미 랜슬롯 경에게 방랑을 허락하셨고, 랜슬롯 경이 출정을 준비하던 차에 그의 사촌이자 혈육인 라이오넬 경이 찾아와 그와 함께 기사 동행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모험을 찾아 떠남〉 아서왕이 랜슬롯 경의 허락을 확인하시자, 라이오넬 경도 또한 기쁨에 넘쳐 스스로를 준비하더라. 이튿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궁정을 떠나 작별의 인사를 올리고 함께 말을 몰아 떠났노라. 그 날은 매우 맑고 은혜로우며, 공기는 그 계절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 시절은 바로 봄의 꽃이 만발한 때였더라.

이때 정오가 다다르자,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울타리 곁에 커다란 사과나무가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배가 고팠으므로, 말들을 근처의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묶어 두고 곧장 사과나무 아래로 앉아 부드러운 키 큰 풀밭에 몸을 맡겼다. 그 풀은 아침의 서늘함을 아직 간직하고 있어 차가웠다.

[각주: 랜슬롯 경은 사과나무 아래서 잠들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 랜슬롯 경이 이르되, “형제여, 잠시 동안 깊이 잠들고자 하노라. 내 눈꺼풀이 납의 비늘처럼 무겁고, 온몸이 나른하여 견딜 수 없노라.” 이에 라이오넬 경이 대답하되, “좋으니, 잠시 쉬어가라. 내가 지킴이 노릇을 하리니, 그 후 네가 지키고 내가 쉬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투구를 베개 삼아 옆으로 누우니, 잠결에는 꿈도 생각도 없었노라. 오직 숲 속의 맑은 우물물처럼 깊고 순수한 잠이 그를 감쌌더라.

그가 이같이 잠든 사이, 라이오넬 경은 근처 수풀 그늘을 오가며 경계를 서니라.

〈각주: 라이오넬 경이 한 기사가 세 기사를 쫓는 것을 깨닫다〉

그들이 머무른 곳은 언덕 옆이었고, 그 아래로는 작은 계곡이 내려다보였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길은 햇빛 아래 하얗고 빛나며, 마치 비단 리본과 같았다. 그 길은 자라고 있는 곡식 밭과 목초지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때 라이오넬 경이 수풀 가장자리를 걷고 있을 때, 세 명의 기사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계곡과 그 길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 뒤로는 네 번째 기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체격이 매우 장대했고 온몸을 검은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 기사는 검은 말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방패도 검은색이었고 창도 검은색이었으며, 말의 장구 역시 검은색이었으니, 그 기사에게 속한 모든 것이 까마귀보다 더 검었노라.

그때 라이오넬 경은 한 기사가 다른 세 기사를 쫓고 있음을 보았으니, 그 기사의 말이 다른 세 기사의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기라. 그리하여 곧 뒤따르던 기사의 뒤를 밟아 따라잡았더라. 라이오넬 경은 검은 갑옷의 기사가 도망치는 기사에게 검으로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 기사는 말에서 머리를 먼저 내려떨어져 땅바닥에서 두어 번 세 번 굴러다니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버렸더라.

그때 검은 갑옷의 기사는 세 명 중 두 번째 기사를 사로잡아, 그 동료에게 행한 바와 같이 대우하였더라. 세 명 중 마지막 기사는 자신에게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마치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 몸을 돌렸으나, 검은 갑옷의 기사가 그를 향해 달려들어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일격을 가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천둥번개가 그에게 떨어졌다면, 그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더 갑자기 떨어졌을 것이라. 비록 그 전투가

세 퍼롱이나 떨어져 있었으나, 라이오넬 경은 그 타격의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들은 듯 또렷하게 들었더라.

그 후 흑기사가 세 기사를 모두 쓰러뜨리자, 차례로 그들에게 다가가 손등을 맞잡아 등 뒤에 묶어 버렸다. 그리고는 각 사람을 놀라울 만큼의 손쉬움으로 들어 올려, 그들이 떨어졌던 말의 안장에 곡식 자루라도 얹듯 얹어 놓았노라. 이 모든 광경을 라이오넬 경은 지극한 경이로움으로 지켜보며, 그 흑기사의 힘과 무용에 대해 깊이 감탄하였노라.

"하," 그가 스스로 중얼거렸노라. "나는 이 일을 탐문해 보리라. 아마도 저 흑기사가 원탁의 기사 한 명을 다루는 것이, 저 세 기사들을 다루는 것만큼 쉽지 않을지도 모르노라."

이로써 라이오넬 경은 말의 고삐를 아주 조용히 풀고, 랜슬롯 경이 깨어나지 않도록 발걸음을 매우 가볍게 옮겨 그 자리를 떠났더라. 그가 어느 정도 길을 간 뒤, 그는 자신의 기마에 올라타서 그 계곡으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였더라.

〈각주: 라이오넬 경이 흑기사에게 말을 걸다〉

라이오넬 경이 그 기사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가 방금 전의 예언대로 세 명의 기사 중 마지막 한 명을 말 안장에 묶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에 라이오넬 경이 흑기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기사여, 청컨대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부끄러운 방식으로 그 기사들을 대하는지 그 까닭을 알려주시오."

"영주여," 검은 갑옷의 기사가 매우 거칠게 이르되, "이 일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쓰러뜨린 기사들은 아서왕의 궁정 기사들이니, 나는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그러한 기사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노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서왕의 기사라면 나도 또한 당신에게 이와 같이 대하겠노라."

"이제야말로," 라이오넬 경이 이르되, "그대는 지극히 무례한 말을 하도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말하건대, 나도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기사라. 그러나 그대가 저 세 사람을 대하던 대로 나를 대할 것이라 생각지 않노라. 오히려 나는 그대를 위해 봉직하여, 이 기사들을 그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되리라 큰 소망을 품고 있노라."

〈각주: 흑기사, 라이오넬 경을 물리치다〉

이에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창과 방패를 갖추고 준비를 마쳤다. 흑기사도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또한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도로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말에 올랐다. 이때 각기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고 두 기사는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으니, 그 충돌의 위력이 장대하여 땅이 그 아래서 떨렸더라.

그들은 길의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부딪쳤으나, 보라! 그 격돌에서 라이오넬 경의 창은 서른에서 마흔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으나, 흑기사의 창은 꺾이지 않고 견고하였으므로, 라이오넬 경은 안장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져 말의 엉덩이 안장 덮개 너머로 날아갔더라. 그가 지면에 부딪혔을 때, 그는 쓰러짐을 멈출 때까지 세 번 굴렀더라. 그 치명적

이고도 두려운 타격으로 인해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그의 눈앞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검은 갑옷의 기사는 말에서 내려, 라이오넬 경의 팔을 등 뒤로 묶어 매고, 그가 앞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했듯 그의 몸을 안장의 위에 엎드러뜨렸다. 그리고 그는 그를 견고한 줄로 단단히 매어, 라이오넬 경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때 원탁의 기사 랜슬롯은 언덕 위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으니, 이는 그 위에 피어오른 꽃들 사이로 꿀벌들의 아름다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기 때문이라.

〈각주: 흑기사 터퀸 경에 관하여〉 이제 너희는 알아야 하리니, 이렇게 해서 라이오넬 경과 세 명의 기사들을 포로로 잡은 자는 바로 터퀸 경이라. 그는 매우 잔혹하고 오만한 기사였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사들이 전투를 벌인 그 골짜기 입구 너머에 크고 견고한 성을 하나 가지고 있었노라.

또한 터퀸 경의 관습이란, 그 길을 지나는 모든 기사들과 부인들을 포로로 잡는 것이었노라. 그가 포로로 잡은 기사들과 부인들 중, 아서왕의 궁정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충분한 몸값을 바치면 석방하여 주었노라. 그러나 아서왕의 궁정, 특히 원탁의 기사단에 속한 기사들은 그가 영원히 자신의 성에 가두어 두었노라.

그 성의 감옥은 매우 춥고 음울하며 처참한 곳이었고, 그는 자신이 정복한 네 명의 기사들을 그 감옥으로 데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포로로 감금할 의도였노라.

이제 우리는 아서왕의 궁전으로 시선을 돌리노라.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모험을 찾아 그 곳을 떠난 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때라.

〈각주: 에커 경이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을 뒤쫓다〉

에커 경이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떠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형제가 우리 사촌을 데려가듯 나도 데려갈 수 있었으련만."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아서왕에게 나아가, 왕궁을 떠나 그 두 사람을 뒤쫓아 그들의 모험에 합류하고자 하는 허락을 간청하였다. 아서왕은 기꺼이 그에게 허락을 내려주셨다.

이에 에커 경은 모든 준비를 신속히 갖추어,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을 뒤쫓아 빠른 발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에커 경이 말을 달리며 끊임없이 탐문하던 중, 그 두 기사가 자신보다 앞서 달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이르되, "조만간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오늘이 아니라면 밤이 되기 전이요, 또는 내일 아침이 되리라."라고 다짐하였다.

〈각주: 에커 경, 모험을 구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네 갈래로 갈리는 길목에 이르러, 랜슬롯 경과 라이오넬 경이 가지 않은 길을 택

하였으므로, 얼마를 간 끝에 그는 자신이 그들을 놓치고 말았음을 깨달았노라.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계속하여 하루의 한창 무렵까지 나아갔는데, 이때에 한 사냥꾼을 만나 다음과 같이 물었노라.

"야인아, 이 길로 두 기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한 기사는 흰 갑옷을 입고 흰 방패를 메었는데, 그 방패에는 한 부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 기사는 붉은 갑옷을 입고 붉은 그리폰이 새겨진 방패를 메었느니라."

"아니오," 사냥꾼이 대답하되, "나는 그런 무리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에 에커 경이 이르되, "이 근처에서 구할 만한 모험이 있느냐?"

이에 사냥꾼은 크게 웃으며 대답하되, "그렇소이다. 가까운 곳에 모험이 하나 있사오나, 많은 이들이 이에 도전하였으나 아직 그 누구도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사오이다."

이에 에커 경이 이르되, "그 모험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내가 이에 도전하겠노라."

"경," 사냥꾼이 이르되, "저쪽 길로 얼마쯤 가시면 넓은 해자로 둘러싸인 매우 크고 튼튼한 성이 하나 나올 것이옵니다. 그 성 앞에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길은 그 물을 건너는 얕은 건널목에서 교차합니다. 그 건널목 이쪽에는 매우 크고 단단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그 나무에는 놋그릇이 하나 걸려 있나이다. 그 그릇에 창 끝으로 두드리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모험을 당장 만나게 되리이다."

"동지여," 에커 경이 이르되, "그대의 소식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곧장 그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가 매우 빠른 발걸음으로 긴 거리를 달려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 곳에서는 아름다운 계곡의 입구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서 있던 곳 맞은편에는 크지도 높지도 않지만 매우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작은 언덕이 있었다. 그 멀리 있는 언덕 위에는 회색 돌로 지어진 높고 장엄한 성이 우뚝 서 있었는데, 많은 탑과 첨탑, 그리고 높은 굴뚝과 수십 개의 창문들이 맑은 날씨에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강이 계곡의 입구로 흘러내렸고, 그 강물은 은처럼 빛나며 고요하였다. 강 양쪽에는 평평하고 매끄러운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매우 푸르렀고, 여기저기 그늘진 수풀과 과일나무 밭이 있었다.

에커 경은 자신이 타고 있던 길이 앞서 말한 강을 얕은 나루에서 건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 곳이 사냥꾼이 말한 나루일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 나루로 내려갔고,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사냥꾼이 일러준 가시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 말한 그대로, 큰 놋그릇이 그 가시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각주: 에커 경이 놋그릇을 치다〉 이때 에커 경은 그 가시나무 수풀로 달려가, 그의 창끝으로 놋그릇을 내리쳤다. 그러자 놋그릇은 천둥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어 울렸다. 그는 다시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받침을 치었노라. 비록 그 아름다운 성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

나는 것을 그는 알았으나, 놋그릇을 여러 차례 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칠 기적은 없었더라.

그때 에커 경은 자신의 말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하려고 말을 여울로 몰아갔다. 그가 그곳에 서 있을 때, 강 건너편의 길에서 특이한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갑자기 그의 눈에 들어왔다.

먼저 검은 갑옷을 두른 한 기사가 검은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 말의 안장과 모든 구비들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그 기사 뒤로 네 마리의 말이 따랐는데, 짐을 나르는 말처럼 보였다. 그 네 마리 말 등 위에는 각각 갑옷을 입은 기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곡식 자루처럼 안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에커 경은 매우 큰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가 성곽에 다다르자, 여러 사내들이 달려나와 그가 끌고 있던 말들을 받아 성 안으로 들여갔다. 그 짐을 벗어던진 검은 기사는 곧장 에커 경이 있는 곳으로 거칠게 말을 몰아갔다. 그가 물가까지 다다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기사여, 그 물속에서 나와 나와 싸우라."

"좋소," 에커 경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비록 그것이 네게 지극히 큰 불편을 초래하리라 생각하나니."

〈각주: 에커 경이 흑기사에게 일격을 가하다〉

그가 그 나루터를 벗어나자, 물결은 그의 몸이 지나가며 일어난 격류로 온통 거품이 일며 소용돌이쳤다. 그는 곧장 창을 던져버리고 검을 빼들었으며, 그 흑기사를 향해 돌진하여 그를 강타하니, 기세가 워낙 거세어 그 기마의 말은 두 바퀴나 돌고 돌아버렸다.

"호!" 흑기사(Black Knight)가 외치되, "이는 내가 평생에 받아본 타격 중 가장 훌륭한 것이로다."

이러자 그는 곧장 에커 경(Sir Ector)을 향해 돌진하되, 어떠한 무기도 쓰지 않고 그의 몸통을 안장 아래, 겨드랑이 밑으로 감싸 안아 말에서 완전히 끌어내려, 자신의 안장 뿔 위에 던져 올렸다.

이러한 기이한 업적을 성취한 후, 에커 경이 여전히 안장 위에 엎드린 채로 그는 자신의 성채로 향하여 달렸으며, 성채의 뜰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에커 경을 돌바닥에 내려놓은 후,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오늘 나를 위하여 다른 어떤 기사도 감히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이제부터 나의 종(Man)이 되기로 서약한다면,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며, 당신의 봉사에 대한 큰 보상을 주리라."

그러나 에커 경은 큰 수치심에 사로잡혀 격분하여 외쳤노라. "나는 감히 방금 나를 대하듯 다른 기사들을 대하는 너와 같은 비겁한 기사의 시중을 들기보다는,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편이 낫다."

"좋다," 검은 기사가 매우 엄숙하게 말했다. "네가 선택할 것이 있느니라." 이에 그는 몇 가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많은 사나운 무리들이 에커 경을 공격하여 그의 갑옷을 모두 벗겨냈으며, 즉시 그를 반신 벗겨진 채로 앞서 언급된 지하실로 끌고 갔다.

〈각주: 흑의 기사가 에커 경을 포로로 삼다〉

거기서 그는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많은 기사들과 원탁의 기사들 중 몇몇을 발견하였으니, 그는 그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이 에커 경이 그와 같이 던져져 그들 가운데 섞인 것을 보자,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과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통곡하며 목소리를 높였노라.

"슬프도다," 그들이 이르되, "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살아 있는 기사는 없노라. 다만 랜슬롯 경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터퀸 경은 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라 하리라. 다만 랜슬롯 경이 더 위대하시다면 그분도 예외라."

[일러스트레이션: 모르가나 여왕이 랜슬롯 경에게 나타나니라]

제삼장

모르가나 레 페이 여왕과 그녀와 함께한 다른 세 여왕들이 잠든 랜슬롯을 발견한 일과, 그가 모르가나 여왕의 성으로 데려가져 그곳에서 겪은 일

〈각주: 네 명의 여왕과 그들의 행렬이 잠들어 있는 랜슬롯 경을 지나감〉 이때 랜슬롯 경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 라이오넬 경이 자신을 떠났음을 알지 못했고, 또 그 선한 기사가 어떤 불운을 겪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와 같이 잠들어 있을 때, 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매우 아름다운 귀족들의 행렬이 지나가며 대로를 화려하게 수놓았더라. 이 무리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이들은 네 명의 부인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왕들이었노라. 그들과 함께 네 명의 기사들이 말을 몰았고, 날씨가 무더웠으므로 네 명의 기사는 창끝에 녹색 실크 천의 네 모서리를 고정하여, 강한 햇볕으로부터 그 여왕들을 가릴 수 있도록 천막을 드리웠노라.

이 네 명의 기사는 투구를 쓴 채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네 필의 고귀한 전마를 타고 있었으며, 네 명의 여왕들은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고, 금박으로 수놓은 다채로운 안장과 구슬로 장식된 네 필의 흰 노새를 타고 따랐노라. 이러한 귀인들 뒤로는 스무 명 이상의 시종과 낭자들이 훌륭한 궁정으로서 뒤를 따랐는데, 일부는 말을 타고, 일부는 매우 편안하게 걷는 노새를 타고 있었더라.

이때 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들 옆을 지나가는 사이, 랜슬롯 경이 그들 바로 곁에서 잠들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봄날의 화창한 날씨를 맞아 수다를 떠들며 매우 기뻐하며 달리니, 따뜻한 공기와 자라나는 풀들, 푸른 들판, 그리고 밝은 하늘을 크게 즐기고 있었더라.

만약 랜슬롯 경의 말이 크게 울부짖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기사가 그곳에 있음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나, 그 말이 매우 힘차게 울자, 그들은 그 말을 알아차렸고, 이어 사과나무 아래 투구를 베개 삼아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는 랜슬롯 경을 발견하였더라.

이때 그 여왕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이는 모르가나 레 페이 여왕이니, 그는 아서왕의 자매요, 힘이 세고 사악한 마법사였으며, 그 일에 관하여는 『아서왕의 이야기』에 많이 기록되었노라. 모르가나 여왕 외에 북웨일스의 여왕과 이스트랜드의 여왕, 그리고 외곽 섬들의 여왕도 있었더라.

이때 여왕들과 기사들, 시종들, 그리고 부인들로 이루어진 이 무리는 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워 있는 랜슬롯 경을 보았더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라 말의 고삐를 당겼노라. 그들의 지나가는 소란과 떠들썩한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단단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모르가나 여왕은 자신을 따르는 시종 중 한 명을 불러 이르되, "가라, 조용히 가서 저기 있는 기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깨우지 말라."

〈각주: 한 시종이 랜슬롯 경을 알아차리다〉 이에 그 시종은 명을 받들어 행하였노라. 그는 사과나무로 달려가 랜슬롯 경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우연히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노라. 이는 그가 이전에 캐멀롯을 다녀온 일이 있어, 그곳에서 랜슬롯 경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급히 모르가나 여왕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폐

하, 저기 계신 그 기사께서는 호수의 대기사 랜슬롯 경이시라 믿사옵니다. 지금 세간에 그의 명성이 자자하오니, 그는 아서왕의 원탁 기사들 중 가장 힘센 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라 일컬어집니다. 그리하여 아서왕께서는 그를 다른 모든 기사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총애하시나이다."

이때 모르가나 여왕이 거기서 잠들어 있는 자가 랜슬롯 경임을 알자, 즉시 아서왕을 모독하려 그를 향하여 강력한 악령의 마법을 걸 생각에 사로잡혔노라. 그녀 또한 랜슬롯 경이 아서왕에게 얼마나 각별한 존재임을 잘 알았거늘, 그러므로 아서왕을 해치기 위해 그에게 해코지를 하려던 마음이 생겼던 것이라. 이에 그녀는 그와 같은 마법을 행하려던 뜻을 품고 랜슬롯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 그가 손가락에 호수의 부인이 주었던 반지를 끼고 있음을 보고는, 그 악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사악한 계획을 접어야 했더라.

〈각주: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이 랜슬롯 경에게 약한 마법을 걸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악의 있는 주술을 걸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마법으로 그의 잠이 세 시간에서 네 시간 동안 깨어남 없이 지속되게 할 수는 있었다. 이에 그녀는 그의 얼굴 위에서 손동작을 몇 가지 취했고, 그 결과 그의 잠의 실들을 서로 빽빽하게 짜 넣어, 그가 깨어나려 해도 그 실들을 뚫고 나올 수 없게 하였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일행 중 종자 몇몇을 불러내어 명하였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랜슬롯 경의 방패가 가져와졌고, 그는 그 방

패 위에 눕혀졌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들어 올리고 숲 속의 어느 성으로 그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 성의 이름은 샤토브라스였으며, 그것은 모르가나 왕비의 성 중 하나였다.

〈각주: 랜슬롯 경이 아름다운 방에서 깨어나다〉 그 동안 랜슬롯 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너무도 크게 놀라 자신이 환상 속에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노라. 그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이제 불꽃색 린넨으로 덮인 소파 위, 아름다운 방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자신이 누운 방이 매우 아름다운 곳임을 깨달았으니, 사방 벽에는 궁정의 아름다운 부인들과 전장의 기사들을 묘사한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 바닥에는 직조된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가 누운 침대는 조각이 새겨진 나무로 만들어져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더라. 그 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그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자신이 있는 방이 땅으로부터 매우 높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니, 그 방이 발치의 거친 바위 위에 매우 높게 지어져 있어서 숲이 마치 푸른 바다처럼 멀리 아래에 펼쳐져 보였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이 방에는 문이 하나뿐이며, 그 문이 철로 둘러싸이고 단철로 만든 큰 장식못으로 박혀 있음을 보았더라. 그가 그 문을 잡아당겨 보았을 때, 그것이 잠겨 있음을 알게 되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이 모든 일로 인해 자신이 감금된 자임을 깨달았으나, 그 처지는 결코 가혹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이르렀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각주: 아름다운 낭자가 빛과 음식을 들고 랜슬롯 경에게 오니라〉

저녁 황혼이 내리매, 거구의 체격에 용모가 몹시 사나운 한 문지기가 나타나 랜슬롯 경이 누워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라. 그가 문을 연 후, 아름다운 낭자 한 사람이 은쟁반 위에 매우 훌륭한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왔더라. 또한 그쟁반 위에는 세 개의 은촛대에 꽂힌 향기로운 밀랍 양초 세 개가 있었는데, 이들이 방 전체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었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이렇게 자신을 섬기려 들어오는 처녀를 보자, 그는 일어나 그쟁반을 받아 자신이 직접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러한 정중함에 대해 낭자는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기사여, 기분이 어떠시오?"

"아,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노라. 내가 친구와 함께 있는지 적과 함께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노라. 비록 내가 누워 있는 이 방이 매우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기는 하나, 나는 내가 마법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왔으며, 이 곳의 죄수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노라."

[각주: 낭자가 랜슬롯 경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때 낭자는 랜슬롯 경을 내려다보며 그를 불쌍히 여겨 마음이 아파하였다. “경,” 그녀가 이르되, “경이 이 지경에 빠진 것을 보니 내가 크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노라. 경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라 들었고, 확실히 경은 매우 고귀한 용모를 지니셨기 때문이니이다. 경께 말씀드리건대, 경이 갇힌 이 성은 마법의 성이며, 여기에 사는 자들은 경에게 해를 끼치려 하나니, 그러므로 경은 그들을 경계하시기를 권하노라.”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당신의 자애로운 말씀에 감사하노라. 내가 권하는 대로 각별히 경계하겠노라.”

그때 처녀는 더 말하려 하였으나, 문 밖의 문지기가 아직 그 자리에 있어 들을까 봐 두려웠고, 만일 들키면 재앙이 닥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잠시 후 물러가었고, 랜슬롯 경은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낭자가 랜슬롯 경에게 근심을 품지 말라고 일렀으나, 그 날 밤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하더라. 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노라. 내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그에게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아침이 밝았을 때, 랜슬롯 경은 자신의 방 문 밖에서 누군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 이가 들어왔을 때 그는 바로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임을 알았더라.

〈각주: 모르가나 여왕이 랜슬롯 경에게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영화로 치장하였으니, 그 용모가 빛나고 환하여, 그녀가 그 방에 들어올 때 랜슬롯 경은 자신이 보는 것이 눈의

환상인지, 아니면 살과 피를 지닌 실재의 존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녀는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왔고, 금빛보다 붉은 머리카락은 황금 리본으로 동여매었으며, 온몸은 금포로 옷을 입었더라. 손가락에는 보석이 박힌 황금 반지를, 팔에는 황금 팔찌를, 어깨에는 황금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그녀는 놀라운 광채를 발하였으니, 마치 순금으로 만든 기이한 동상과 같았도다. 다만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웠고, 눈은 지극히 빛났으며, 산호처럼 붉은 입술은 미소 짓고, 그 얼굴은 그녀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유혹의 술수로 움직이고 변화하였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 그는 일어서서 지극히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그 빛나는 환상을 목격하여 더할 나위 없이 놀랐기 때문이라. 이때 모르가나 왕비가 그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보석으로 수놓인 손가락을 자신의 손에 받아 입술에 대니라.

"환영하오, 랜슬롯 경!" 그녀가 이르되, "이곳으로 오심을 환영하오! 당신과 같이 고귀하고 명성 높은 기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실로 큰 영예이기 때문이오!"

"하,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당신이 저에게 베푸신 자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이 곳 어찌하여 왔으며, 어떠한 수단으로 왔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내가 어제 정오에 잠들었을 때, 나는 언

덕 위의 사과나무 아래 누워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 보라! 내가 이 아름다운 방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각주: 모르가나 여왕이 랜슬롯 경을 유혹하려 함〉 이에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은 미소를 띠며 다음과 같이 답하더라. "경이여, 나는 경이 들어본 적 있으리라 모르가나 르 페이 여왕이니, 나는 아서왕의 누이이니, 경은 그 아서왕의 특별한 기사라. 어제 정오, 다른 몇몇 여왕들과 작은 기사의 호위, 그리고 시종들과 낭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경이 잠들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노라. 경이 홀로 아무 동료 없이 누워 계심을 보고, 내가 가진 몇 가지 술수로 경에게 부드러운 마법을 걸어, 경이 누운 잠이 세 시간에서 네 시간 동안 깨지 않도록 하였노라. 그리하여 경을 이 곳으로 모셔왔노라. 경이 우리와 함께 며칠, 적어도 이삼 일 이상 머물며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 경의 명성이 매우 크다는 소문이 이 곳까지 들렸으므로, 이번 기회에 경을 부드러운 감금 상태로 모신 것이니라."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다른 때라면 그러한 제약은 나로 하여금 매우 기쁘게 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잠들었을 때 나는 내 사촌인 라이오넬 경과 함께였사오니,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저를 놓아 사촌을 찾아 가게 하소서. 내가 그를 만나면 다시 이 곳으로 돌아와 편안한 마음으로 부인을 뵈옵겠사오니이다."

"그렇구나, 경," 모르가나 여왕이 이르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리라. 다만 네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보증할 증표 하나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러자 그녀는 손가락에서 여러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된 금반지를 하나 꺼내었노라.

"이제 이 반지를 받아라," 그녀가 이르되, "네 손가락에 낀 그 반지와 바꾸라. 그리하여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각자 서로의 반지를 돌려받으리라."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것은 될 수 없나이다. 이 반지는 내 영혼이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맹세와 함께 내 손가락에 끼워졌기 때문이니이다. 다른 어떤 맹세라도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기꺼이 드리리다. 그러나 이 반지는 드릴 수 없나이다."

〈각주: 모르가나 왕비가 랜슬롯 경에게 분노하다〉

이때 모르가나 왕비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 눈은 불꽃의 반짝임처럼 빛났다.

"하, 기사여," 그녀가 이르되, "나는 당신이 그처럼 작은 증표 하나를 거절함으로써 한 부인과 한 여왕에게 그리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 나는 크게 모욕을 느꼈소. 그러므로, 당신이 섬기시는 아서왕의 자매로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그 반지를 내게 주기를 요구하오."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저는 그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비록 이를 거절함이 저에게 큰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이때 모르가나 왕후는 노기를 띤 얼굴로 잠시 동안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으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자, 곧바로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갔고, 랜슬롯 경은 혼란스러운 마음가짐으로 혼자 남게 되었노라. 그는 모르가나 레 페이라는 왕후가 지닌 마술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러한 마술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 할지 알 수 없었노라. 그러나 그가 끼고 있던 반지가 그녀가 행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마술에 매우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므로, 그 사실로부터 위안을 얻으려 애썼노라.

그러나 그는 그날 온종일 큰 불안 속에서 그 방에 머물렀고, 밤이 깊어 잠들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성의 사람들이 그의 잠자는 틈을 타서 어떤 음모를 꾀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성 안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그는 깨어 있기를 선택하였더라.

그때 밤의 한가운데, 첫 닭이 우는 시각쯤 되어, 그는 문틈으로 비치는 빛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깨달았더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젯밤 그의 저녁상을 차려주었던 그 젊은 낭자가 등불을 손에 들고 들어왔더라.

[각주: 그 낭자가 다시 랜슬롯 경에게 오니라] 랜슬롯 경이 그 낭자를 알아보고 이르시되, “처녀여, 너는 선의로 왔느냐, 악의로 왔느냐?” 그녀가 이르되, “경님, 저는 선의로 왔사옵나이다. 보기에 참으로 불쌍

한 이 신세에 경님을 뵈옵고 큰 연민을 느끼나이다. 저는 모르가나 레페이 여왕을 모시는 왕의 딸이오나, 그녀는 지극히 강력한 마법사라, 진실로 그녀가 언젠가 저에게 재앙을 내리리라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내일 저는 그녀의 시중을 떠나 아버지의 성으로 돌아가려 하나이다. 그사이, 저는 경님의 곤경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이다. 모르가나 여왕은 저를 신뢰하시니, 이 성에 대한 지식과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경님을 자유롭게 해 드릴 수 있나이다. 경님께서 원하신다면, 경님께서는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저를 섬기실 때에, 저는 경님을 자유롭게 해 드리겠나이다."

"좋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내 기사적 명예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 아래서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행하리라.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내가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말씀하시오."

〈각주: 낭자가 랜슬롯 경에게 그녀의 아버지, 바그데마구스 왕에 관해 말함〉

"경," 낭자가 이르되, "내 아버지는 다가오는 화요일에 북웨일스의 왕과 토너먼트를 벌이기로 정하셨노라. 그 날은 오늘로부터 꼭 두 주 뒤라. 이미 내 아버지는 한 차례의 토너먼트에서 패배하였으니, 이는 그에게 가담할 기사가 많지 않음 때문이요, 북웨일스의 왕은 아서왕의 원탁 기사 세 명을 편으로 거느렸기 때문이라. 이 원탁 기사들의 큰 도움으로 북웨일스의 왕은 지난 토너먼트에서 승리하였고 내 아버지는

패배하였노라. 이제 그는 다가올 토너먼트에서도 패배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만일 당신이 토너먼트 당일에 내 아버지의 편에 서서 참여한다면, 나는 그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의심치 않노라. 모든 이들이 당신을 이 시대의 세계 최고 기사라 말하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이 내 아버지를 도울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사도의 말씀으로 굳게 봉인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이 마법의 성에서 자유롭게 하겠노라."

"아름다운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의 이름과 너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가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내게 서약을 줄 수 없노라."

〈각주: 랜슬롯 경은 바그데마구스 왕을 돕기로 맹세하다〉

"기사님," 낭자가 이르되, "저는 엘루이즈라 불리는 고운 처녀라 하오며, 저의 아버지는 바그데마구스 왕이시라오."

"호!"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는 그대 아버지를 아노라. 그는 훌륭한 왕이시요, 또한 매우 존귀한 기사라 하노라. 그대가 만일 나를 위해 아무런 공로도 베풀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곳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리라면, 그대의 간절한 부탁 하나만으로도 내가 힘닿는 대로 그분께 원조를 베풀었으리라."

이때 처녀는 큰 기쁨에 겨워 랜슬롯 경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표하더라. 이에 두 사람은 랜슬롯 경이 바그데마구스 왕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의논하더라. 처녀 엘루이즈

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옵소서, 랜슬롯 경. 먼저 아뢰옵건대, 어제 잠들었던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작은 성 야고보의 수도원(Abbey of Saint James the Lesser)’이라 불리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수도원이 서 있사옵니다. 이 수도원은 그 주변을 두른 매우 귀중한 영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을 찾고자 한다면 누구나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제 저는 이 곳을 떠난 후 잠시 동안 그 수도원에서 숙박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실 때 그곳으로 오시거든, 제가 거기에 있을 것이오며, 제가 아버님을 모셔오리이다.”

"매우 좋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게 하리라. 나는 대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 제때에 도착하리라. 그사이, 내가 오늘 너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너의 자비로운 태도와 말씨를 기억하리라는 확신 아래 너는 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을 의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리라."

〈각주: 처녀가 랜슬롯 경을 자유로 이끄니라〉 이에 모든 일을 정리한 후, 엘루이즈라는 처녀가 그 방의 문을 열고 랜슬롯 경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더라. 그녀가 그를 여러 통로와 긴 계단들을 내려가게 하여 마침내 그의 갑옷이 있는 한 방으로 데려왔노라. 그러자 처녀는 랜슬롯 경이 자고 있던 사과나무 아래서 잠들기 전과 다름없이 온전히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었더라. 잠시 후 그는 완전히 무장을 갖추었더라. 그 후 처녀는 그를 안마당을 지나 랜슬롯 경의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인도하였는데, 말이 그를 보고는 알아차렸노라. 반달이 은빛 구름 사이를 배처럼 유영하는 빛 아래서 그는 말에 안장을 매었더라. 이에

그는 떠날 준비를 갖추었노라. 이때 처녀가 문을 열자, 랜슬롯 경은 밤하늘로 말을 몰아냈으니, 그 밤은 이제 해가 뜨려 하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엘루이즈는 랜슬롯 경이 그 마성의 성채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으니,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에게 큰 재앙이 닥쳤으리라.

* * * * *

이제 랜슬롯 경이 터퀸 경과 싸우던 일과, 그 때 일어난 일을 말하리라.

[그림: 랜슬롯 경이 터퀸 경과 싸우는 그림]

제4장

랜슬롯 경이 리오넬 경을 찾던 일과 한 젊은 낭자가 그를 그토록 치열했던 생애 최대의 전투로 인도하던 일

이때 랜슬롯 경은 숲을 가로질러 달려가니, 해가 막 밝아오기 시작하더라. 해 뜨기 무렵, 그는 몇몇 숯장수가 장사를 하던 벌판으로 나와서 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숲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 이 거친 자들에게 그는 어두운 숲에서 빛나고 빛나는 환상처럼 나타났더라. 그들은 그를 환영하며 그들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권했고, 그는 말에서 내려 그들

과 함께 앉아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노라. 그가 배를 채우자, 그는 그들에게 환대에 감사하며, 말에 올라타고 떠나갔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다시 사과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다〉

그는 오전 중반 무렵까지 길을 재촉하다가, 이틀 전 만개한 사과나무 아래서 잠들었던 그 장소에 갑자기 도착하였다. 이때 랜슬롯 경은 안장을 당겨 말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주변을 두루 살피었으니, 혹시 그 근처에서 라이오넬 경의 흔적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랜슬롯 경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백마를 탄 낭자를 보다〉 이때 랜슬롯 경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되, 라이오넬 경을 찾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던 차에, 하얀 승용마를 탄 한 낭자가 그 길을 지나가더라. 랜슬롯 경이 그녀에게 인사를 드리니, 그녀도 또한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노라.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 안위는 그리 좋지 못하도다. 동행한 무사가 사라져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어 그가 이르되, "혹시 너는 방패에 붉은 그리폰의 형상을 새긴 기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자 낭자가 대답하되, "아니오, 그런 자는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내가 행할 만한 모험이 이 근처에 있는지 아느냐? 보라, 나는 방랑 기사로서 그러한 것을 찾고 있노라.”

이때 그 낭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르되, "참으로, 기사여, 내가 들은 바로는 아직 어느 기사도 성취하지 못한 모험이 이 근처에 있나이다. 만약 그 모험을 쫓고자 하시면, 내가 그 곳으로 모셔가리다."

“내가 여기로 모험을 쫓아 왔거늘, 어찌하여 이를 쫓지 말아야 하겠는가,”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내가 바로 이 뜻을 위해 여기 왔노라.”

“그렇다면,” 처녀가 이르되, “그대여, 저와 함께 가시옵소서. 경을 만족시킬 만한 모험을 보여드리리이다.”

[각주: 낭자가 랜슬롯 경을 모험으로 이끄니라] 이에 랜슬롯 경과 그 낭자는 함께 그 곳을 떠나 길을 떠났노라. 그는 거대한 전쟁용 말을 타고, 그녀는 그 옆을 따라 걸음마하는 발걸음의 팔프레이를 타고 있었더라. 해는 그들 위에 내려쬐며 매우 쾌적하고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들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돌아서 그들을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 처녀가 매우 아름다우며 가냘프고, 랜슬롯 경은 지극히 고귀하고 위엄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멀리서라도 그를 본 자는 두 번, 세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이가 드물었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함께 길을 가며 담소를 나누게 되자, 낭자가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경은 지극히 훌륭한 기사로 보이며, 성공을 크게 바랄 수 있는 어떠한 모험이든 수행하기에 알맞은 분인 것

같소. 그러므로 경께 청하오니, 경의 이름과 경이 어떤 기사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아름다운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 이름을 고하는 일은 기꺼이 하노라.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불리며, 아서왕의 궁정 및 그의 원탁의 기사 중 하나이니라."

〈각주: 랜슬롯 경과 낭자의 대화〉 이 말을 듣자 낭자는 심히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찼다. "호!" 그녀가 이르되, "이 세상 모든 곳이 당신의 명성을 알리니, 랜슬롯 경,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이는 나에게 큰 기쁨이로소이다.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더구나 이렇게 함께 말을 타고 이 길을 함께 달릴 줄은 더욱이 생각지 못했노라. 이제 우리가 함께 떠난 이 모험의 실상을 말씀드리리다. 이 근처 어딘가에는 터퀸 경이라 하는 한 기사의 성이 있사오니, 그 성에는 아서 왕의 궁정 기사들과 원탁의 기사들 중 여러 명이 감금되어 있사옵니다. 이 터퀸 경은 그들을 큰 슬픔과 고통 속에 가두어 두는데, 성 아래 대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 합니다. 이 터퀸 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로 여겨지나이다 (당신이라면 다르시겠지만),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바가 없으니, 기마전이나 보병전 모두에서 그러하옵나이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당신이 그를 반드시 물리치리라고 믿사옵니다."

"아름다운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 또한 그와 마주할 때에 내 힘을 다하여 대적할 수 있으리라 믿노라. 이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나 이 일과 그 밖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나니."

그때 낭자가 이르되, "만일 당신이 터퀸 경을 물리친다면, 내가 또 다른 모험을 하나 알고 있나이다. 당신이 이를 감행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알기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만한 다른 이가 없을 것이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는 그런 일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모험이든 듣게 되어 기쁘도다. 나는 그러한 모험에서 큰 기쁨을 취함이니라. 이제 내게 말하라, 그 다른 모험이 무엇인가?"

〈각주: 처녀가 사나운 숲의 기사에 대해 랜슬롯 경에게 말함〉

"경," 처녀가 이르되, "이곳 서쪽 먼 곳에는 숲속에 성을 가진 한 기사가 있나니,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가장 사악한 성품을 지닌 기사라 하노라. 그는 끊임없이 숲 가장자리에서 숨어 있다가, 때때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돌출하여 공격하느라네. 특히 그는 이 땅의 모든 부인들을 적으로 여기나니, 이는 그가 많은 부인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감옥에 가두어 몸값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오. 때로는 그들을 오랫동안 감금하기도 하였나이다. 이제 나는 경이 나를 위해 그 모험을 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제야," 랜슬롯 경이 이르되, "세상에서 저런 악의에 찬 기사와 같은 악인을 물리치는 것은 모든 기사에게 마땅히 행할 바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터퀸 경을 물리치는 행운을 얻거든, 너의 뜻을 위해 이 모험을

맡겠노라. 단,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네가 나와 함께할진대라."

"그것을 기꺼이 행하리다," 처녀가 이르되, "어떤 부인이든 그러한 모험을 함께하시며 타시는 것은 큰 자부심이 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모든 일을 정리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그 계곡을 두 리그,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거리를 쾌적하게 달려가니, 마침내 앞서 말한 매끄러운 시내가 도로와 교차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곳은 앞서 말한 터퀸 경의 성이 있었고, 그곳에는 앞서 말한 가시덤불과 그 가시덤불에 매달린 대야가 그대로 있더라. 그때 처녀가 이르되, "랜슬롯 경이여, 그 대야를 두드리시오. 그리하시면 터퀸 경을 당신과 결투하도록 부르실 수 있나이다."

〈각주: 랜슬롯 경이 대야를 타격함〉 이에 랜슬롯 경은 그 대야가 걸린 곳으로 달려가, 창 자루 끝으로 대야를 매우 세게 내리쳤다. 그가 다시 한번, 또 다시 대야를 치자, 마침내 그 바닥이 뚫려 떨어졌으나, 그 즉시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그 때 잠시 후, 그는 한 사내가 그를 향해 말을 타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바라보니, 그 사내는 거구로 팔다리가 길고 힘이 세어 보이는 기사였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니, 그 기사는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 입고 있었고, 그가 탄 말과 말의 장구 또한 모두 검은색이었다. 그가 바라보니, 그 기사는 앞장서서 다른 한 필의 말을 끌고 오고 있었는데, 그 말의 안장 위에는 무장을 한 한 기사가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

었다. 그리고 랜슬롯 경은, 그 검은 옷의 기사가 자신이 찾고 있던 터퀸 경임을 알았다.

〈각주: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가 가헤리스 경을 포로로 잡으니라〉 이에 터퀸 경이 매우 신속하게 대로(大路)를 달려, 그 앞을 가던 다른 말과 함께 포로로 잡힌 기사를 몰고 랜슬롯 경이 앉은 곳으로 다가오더라. 그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랜슬롯 경은 그 상처 입은 기사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으며, 그들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 그의 방패에 새겨진 문양을 볼 수 있게 되자, 그는 그가 바로 터퀸 경이 그런 식으로 데려온 가웨인 경의 아우이자 아서 왕의 조카인 가헤리스 경임을 알아차렸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크게 노하셨으니, 원탁의 동료인 가헤리스 경이 터퀸 경에게 당하는 무례한 대우를 눈뜨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랜슬롯 경이 말을 몰아 터퀸 경을 맞이하며 외쳤노라.

"경! 그 상처 입은 자를 말에서 내려주시오. 잠시 쉬게 하시고, 우리 둘이 서로 힘을 겨루게 하시오. 원탁의 고귀한 기사에게 경이 이처럼 모욕을 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라."

"경," 터퀸 경이 이르되, "내가 저 기사를 대하는 대로 원탁의 기사들을 모두 대하노라. 만일 경이 원탁의 기사라면 나도 경을 그렇게 대하겠노라."

"그렇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원탁의 기사임은 틀림없노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너와 결투하기 위함이외다."

"기사여," 터퀸 경이 이르되, "너는 매우 대담하게 말하도다. 이제 내게 네가 어떤 기사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청하노라."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불리우며, 아서왕의 기사로서 친히 손수 제게 기사 작위를 내려주신 분이니이다."

"하!" 터퀸 경이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기사 중 그대가 내가 만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그대와 싸우려 함이었노라. 바로 그대가 도로운스 가드에서 나의 동생 카라더스 경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는 세상 모든 기사 중 가장 뛰어난 자로 여겨졌노라. 그러므로 그로 인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대를 미워하노라.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나는 아서왕의 궁정 기사들과 특별히 싸워 왔노라. 그리고 그대를 향한 그 미움 때문에 나는 이제 그대의 동료인 백여덟 명(5×20+8)의 기사를 내 성채의 가장 음울한 감옥에 가두어 두었노라. 또한 그대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으니, 그 기사들 중에는 그대의 친형 에커 경과 그대의 친족 라이오넬 경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단 이틀 전쯤 격파했으며, 이제 그들은 저기 있는 성채의 하층부에서 거의 벗겨진 채 누워 있노라. 내가 그대 명에 따라 그 기사를 내려놓으리니, 그대와의 전투가 끝난 후 그대의 자리에 그대를 안장 뿔에 묶어 두기를 바라노라."

이에 가헤리스 경을 묶었던 끈을 풀고 말에서 내려주니, 가헤리스 경은 크게 다치고 기력이 쇠하여 근처의 돌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더라.

〈각주: 랜슬롯 경과 터퀸 경의 결투〉 이때 랜슬롯 경과 터퀸 경은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며, 각각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여긴 위치를 점하였다. 각자가 돌진할 준비를 마치자, 두 사람은 말에 채찍을 가하며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으니, 그 격렬한 충돌은 천둥 번개처럼 굉음을 울리며 서로를 강타하더라.

그 공격이 이토록 격렬하였기에 각기 말들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고, 기수들은 큰 기교와 재주로 안장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낙마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노라. 그 충돌에서 터퀸 경의 말은 즉사하였고, 랜슬롯 경의 말은 등이 부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었으며,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자리에 누웠노라.

이에 각기 기사들은 검을 뽑아 방패를 앞에 세우고, 서로 격렬히 돌진하였으니, 그들의 맹렬한 눈빛이 투구의 구멍을 통해 불꽃을 뿜어내는 듯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부딪쳐 서로 치고받으니, 수십 차례에 걸쳐 격렬한 일격을 가하였고, 그 타격이 너무도 맹렬하여 방패나 갑옷이 그 일격을 견뎌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방패는 갈라지고 갑옷의 여러 조각이 그들의 사지에서 잘려 나가 땅바닥에 흩어졌으며, 각기 기사는 상대방에게 수많은 참혹한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그들이 서 있던 곳의 땅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적셔졌더라.

이때 해는 이미 정오를 지나 매우 무더워졌는지라, 곧이어 터퀸 경이 큰 소리로 외쳤노라. “잠시 멈추시오, 랜슬롯 경이여. 내가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하노라.” 이에 랜슬롯 경이 손을 멈추고 이르되, “무엇을 청하려 하느냐, 기사여?” 터퀸 경이 대답하되, “영주여, 목이 말라

하오이다. 물 한 모금 마시게 하소서."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가서 마시라."

이에 터퀸 경이 그 강가로 나아가 물속에 들어섰더니, 즉시 그의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더라.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몸을 굽혀 목을 축이고는, 곧장 다시 올라와 온전히 상쾌해진 채로 서 있더라.

그리하여 그는 다시 검을 들어 들고 랜슬롯 경을 향해 돌진하며 두 배의 힘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랜슬롯 경은 그 공격에 몸을 굽히며, 이 격렬한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더라.

그때가 되어 랜슬롯 경은 기운이 빠지고 목이 말라 울부짖었다. "기사여, 한 가지 은혜를 청하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터퀸 경이 물었다.

"기사여, 잠시 기다리소서. 제가 마시려 하오니, 목이 말랐사옵니다."

"아니로다," 터퀸 경이 말했다. "천국에서 목을 축이기 전에는 마시지 못하리라."

"하!" 랜슬롯 경이 외쳤다. "그대는 흉악한 천민이지, 진정한 기사가 아니오. 그대가 목이 말랐을 때, 제가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목이 말랐건대, 그대는 제가 목을 축이는 것을 막나이오."

이에 그는 분노에 치밀어 미친 자와 다름없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방패를 던져 버리고 양손으로 검을 쥐고서 터퀸 경에게 돌진하여 그를 다시 한 번, 또 다시 치니, 그의 타격은 그토록 맹렬하여 터퀸 경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물러서고, 기력이 쇠진하여 방패를 낮게 들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터퀸 경을 물리치니라〉 이때에 랜슬롯 경이 터퀸 경이 이같이 기진맥진한 것을 보자, 곧장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투구 부리(beaver)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게 끌어내렸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터퀸 경의 투구를 머리에서 벗겨냈으며, 칼을 들어 터퀸 경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어깨에서 분리시켰노라. 그 머리는 땅 위로 굴러떨어졌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치열한 전투의 여파로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그는 열기와 격분으로 거의 질식할 뻔했기 때문이라. 그 후 그는 물가로 내려가서,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걸어가니,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이 온통 붉게 물들더라. 랜슬롯 경은 몸을 굽혀 맹렬하고 뜨거운 갈증을 식혔더라.

그 후 그는 물에서 다시 올라왔으며,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 그는 처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이르되, “처녀여, 보라, 내가 터킨 경을 이겼노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노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때 낭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 외치되, “경이시여, 경은 크게 다치셨사오며, 두세 날은 물론 더 오랜 시간 동안 상처가 낫기까지 쉬셔야 하옵니다.”

“아니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기다릴 필요가 없노라. 지금 바로 함께 가겠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가헤리스 경에게로 갔으니, 가헤리스 경은 그 동안 내내 그 돌판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 랜슬롯 경이 가헤리스 경에게 이르되, “공경하는 영주여, 제가 당신의 말을 취하더라도 노여워 마소서. 이 낭자와 함께 당장 떠나야 할 형편이라. 보시거니와 제 말은 등골이 부러져 더 이상 탈 수 없사옵니다.”

“기사 각하,” 가헤리스 경이 이르되, “오늘 당신은 저와 제 말을 구하셨으니, 그러므로 제 말이나 제 소유물 중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이다. 그러므로 저는 청하오니 제 말을 취하시되, 다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어떤 기사인지 알려 주시오이다. 제가 제 칼을 걸고 맹세하건대, 오늘 당신처럼 놀랍고도 위대하게 싸우는 기사를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각주: 랜슬롯 경이 가헤리스 경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힘〉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불리우며, 아서왕의 기사로소이다. 그러므로 경이 그 사랑스러운 기사 가웨인 경의 아우이시니, 경을 위해 이와 같은 봉사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도다. 비록 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의 삼촌이시며 가웨

인 경의 삼촌이신 나의 주군 아서왕을 위해 이 싸움을 행하였을 것이니, 하물며 경을 위함이랴."

이때 가헤리스 경이 랜슬롯 경의 정체를 듣자, 그는 놀라움에 큰 탄성을 지르며 외쳤노라. "아, 랜슬롯 경이로다! 바로 너이시냐! 나는 너와 그 무예에 관하여 자주 들었노라. 나는 세상 그 어느 기사보다도 너를 만나고자 갈망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이처럼 뜻밖의 경우에 너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지 못하였노라." 이에 가헤리스 경이 일어나 랜슬롯 경에게로 다가가니, 랜슬롯 경도 그를 향해 나아와 서로 마주 보고 안으며 얼굴에 입을 맞추었노라. 그 때부터 두 사람은 형제와 같이 지내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은 가헤리스 경에게 성채의 포로들을 해방할 것을 명하다〉 이때 랜슬롯 경이 가헤리스 경에게 이르되, "부디 이 성채로 올라가 그곳에 갇힌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오. 내가 보기에 거기에 원탁의 기사들 중 많은 동료가 있을 것이오. 또한 내 형 에커 경과 사촌 라이오넬 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오. 만약 다른 친척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안락하게 해 주시오. 또한 성채 안에 보물이 있다면, 그곳에 갇힌 기사들에게 주어 그들이 겪은 고통을 보상해 주시오. 또한 에커 경과 라이오넬 경에게 내 뒤를 따르지 말고 궁정으로 돌아가 나를 기다리라고 전하시오. 내가 두 가지 모험을 혼자서 감행해야 하오."

그때 가헤리스 경은 크게 놀라며 랜슬롯 경을 향해 소리쳤다. “경! 경! 경께서 이제와 같이 중하게 다치셨거늘, 어찌 다시 다른 모험에 나서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사옵나이다. 내가 이제 떠나리다. 나의 상처가 깊어, 때가 되어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이때 가헤리스 경은 지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랜슬롯 경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요, 그의 갑옷도 그 전투에서 크게 깨어졌기 때문이라. 그런 연유로 가헤리스 경은 이와 같은 형편에서 싸우려 하는 자로서, 그처럼 의지를 굳건히 하는 자를 본 적이 없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낭자와 함께 떠남〉 이에 랜슬롯 경은 가헤리스 경의 말을 타서 그 젊은 낭자와 함께 길을 떠났고, 가헤리스 경은 랜슬롯 경이 명하신 대로 성으로 향하였더라.

〈각주: 가헤리스 경이 성채의 포로들을 구하다〉 그 성채 안에서 그는 두려운 형편에 놓인 백여덟 명의 포로들을 발견하였으니, 그중 어떤 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갇혀 있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라 내려왔고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더라.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갇힌 자들도 있었으니, 이는 라이오넬 경과 에커 경의 경우와 같았더라. 그러나 모두들 처참하고 비참한 형편이었더라. 이 슬픔에 잠긴 포로들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서왕의 궁정 기사들이었고, 그중 여덟 명은 원탁의 기사들이었더라. 이 모두들이 가헤리스 경을 에워쌌으니, 이는 그가 다친 것을 보고 그가 그들을 풀

어준 자라 여겼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감사를 받았더라.

"그렇지 않소," 가헤리스 경이 말하였다. "너희를 풀어준 이는 내가 아니니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셨노라. 그는 터퀸 경을 격파하셨으니, 그 전투는 내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이었노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노라. 나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돌판 위에 앉아 있었노라. 너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상처를 입었노라. 그리고 나는 맹세하노라. 내 생애에서 그토록 맹렬하고 용감한 전투를 본 적이 없노라. 하지만 이제 너의 고난은 끝이 났노라. 랜슬롯 경이 너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노라. 그리고 너는 자유로움 안에서 최대한의 평온과 안식을 취하라고 명하시노라. 특히 그는 에커 경과 라이오넬 경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명하시노라. 그리고 그대들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말고 궁전으로 돌아가 그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노라. 그는 혼자서 수행해야 할 모험을 떠나고 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을 뒤쫓는 라이오넬 경과 에커 경, 그리고 케이 경〉

"그렇지 않소," 라이오넬 경이 이르되, "내가 그를 뒤쫓아 반드시 찾아내리라." 이에 에커 경 또한 랜슬롯 경을 찾아갈 것이라 일렀더라. 그때 시종장 케이 경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으니, 세 경은 함께 말에 올라타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났더라.

그 나머지 기사들은 터퀸 경의 성을 샅샅이 수색하매,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열두 개의 보물상자를 발견하였노라. 또한 많은 보석과 비단

천, 금실로 짠 천의 다발들이 그 안에 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명한 대로 그들은 그 보물을 서로 나누어 가졌으며, 에커 경과 라이오넬 경, 그리고 케이 경을 위하여 각각 한 몫을 남겨 두었노라. 전에 슬픔에 잠겨 있던 그들이었거늘, 이제 그 귀중한 것들로 인해 부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

이처럼 그 거대한 전투, 곧 터퀸 경과의 싸움은 행복하게도 끝이 났으니, 이는 아마도 랜슬롯 경이 일생 동안 겪었던 전투 중 가장 격렬하고도 비통한 것이었으리라. 트리스트람 경이 예외라 할지라도, 그는 터퀸 경보다 큰 기사를 만나지 못하였으니, 다만 자기 아들인 갤러해드 경만이 그와 맞먹을 뿐이었더라.

이제 랜슬롯 경이 그 젊은 낭자에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모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이 힐레어 경과 크로아제트와 함께 앉아 있다]

다섯째 장

어떻게 랜슬롯 경이 크로이즈엣트 낭자를 동행으로 모시고 모험에 나섰으며, 어떻게 그가 숲의 야인 페리스 경을 물리쳤는가

이제 랜슬롯 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터퀸 경과의 전투를 마치고, 가헤리스 경의 말을 빌려 그 전투의 장소에서 젊은 낭자와 함께 떠나, 그가 그녀에게 하기로 맹세한 다른 모험을 수행하려 할 때였다.

〈각주: 랜슬롯 경의 상처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러나 비록 그녀와 함께 말을 타고 가기는 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건네지 않으니, 이는 그의 상처가 심하게 쑤시며 그가 큰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말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으며, 다만 견디어야 할 고통을 자신이 가진 인내로 최대한 견디려 할 뿐이었노라.

그리고 낭자는 자신의 편으로 보아 랜슬롯 경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으며, 그녀도 그를 위해 진심으로 불쌍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그녀는 그 순간 허황된 말로 그를 괴롭히지 않았으며, 잠시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노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며칠 동안 쉬시며 안위하시고, 상처를 살펴서 치료받으시며, 갑옷을 손질하고 고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곳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한 성이 있으니, 그것은 내 형제의 성이요, 우리는 작은 길목을 통해 거기로 갈 수 있노라. 거기에 너는 오늘 밤 쉬며 안위할 수 있노라. 내가 내 형제가 너를 보게 될 때 놀라울 정도로 기뻐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니, 이는 너의 명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

이때 랜슬롯 경은 처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르시되, "아름다운 낭자여, 내가 진실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노라. 오늘 내가 견뎌낸 전투로 인해 나는 다소 지친 바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일에 있어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노라. 그러나 낭자여, 내

가 아직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당신의 호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경," 그녀가 이르되, "나는 계곡의 크루아제트라 불리우며, 내 형제는 계곡의 힐레어 경이라 하오. 이제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갈 곳은 그의 성으로, 잠시 쉬어가게 하려 함이오."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낭자여, 내가 너를 따르리니, 어디로 데려가려든 네 뜻대로 하라"

[각주: 랜슬롯 경과 낭자가 함께 타는 법] 그때 두 사람은 계곡을 천천히, 그리고 매우 편하게 타고 지나갔더라.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좁은 곁길로 계곡을 벗어나 잠시 후에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작은 골짜기에 도착했노라. 그 골짜기는 크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들판과 초지로 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뜨린 나무 숲과 농가 밭이 흩어져 있었노라. 굽이치는 강이 이 계곡 한가운데를 흘러내리니, 강물은 매우 고요하고 매끄러워 풀밭 강둑을 가득 채우고 있었노라. 강둑에는 오리나무와 사초가 자라고 있었고, 길게 늘어선 가지치기 버드나무들이 강물 위로 드리워져 있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과 크로이즈트가 아름다운 계곡에 이르다〉

계곡의 끝에는 매우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성이 하나 서 있었으니, 그것은 돌과 빛나는 붉은 벽돌로 반반씩 지어졌더라. 그 성에는 유리창이 많았고, 높은 굴뚝들이 우뚝 솟아 있어 그 중 몇몇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더라. 성 주변과 그 근처에는 짚으로 지은 오두막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꽃망울을 터뜨린 나무들이 많았고, 일부 나무들은 꽃이 없이도 작은 집들의 처마를 그늘지게 하며 그 아래로 피신한 집들을 덮고 있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과 크로이즈엣이 그 작은 계곡에 이르렀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가고 하늘은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로 온통 빛나고 있었다. 제비들은 매끄럽고 빛나는 강물 위를 무수히 날아다니고 있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웠다.

소 떼들은 강가에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성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여, 랜슬롯 경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말의 고삐를 당겼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아름답고 행복한 계곡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크로이즈엣, 내 생각에는 내가 이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본 적이 없으며, 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즐거울 수 있는 곳도 본 적이 없노라."

이에 크루아제트 낭자는 크게 기뻐하며 랜슬롯 경에게 미소 지었노라. “그리 생각하시나이까, 랜슬롯 경?” 그녀가 이르되, “진실로 나는 이 계곡이 당신께 기쁨이 됨을 알고 매우 기쁘나이다. 내가 이 곳을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사랑함은, 바로 이곳이 내가 태어나고 저 성곽에서 자라난 곳이기 때문이니이다. 저 성곽은 내 형의 성곽이요, 그 이전에는 내 아버지의 성곽이었나니,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세상 그 어느 곳도 이 계곡만큼 내 마음속에 친근할 수는 없으리이다.”

〈각주: 크루아셋이 랜슬롯 경을 그의 형님의 집으로 데려감〉

그때 그들이 그 작은 계곡을 따라 전진하니, 부드럽게 흐르는 강가를 지나며 그들이 갈수록 랜슬롯 경은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큰 즐거움을 얻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쳤는데, 그곳의 백성들은 그 고결한 기사가 그 길을 가는 모습을 큰 감탄으로 지켜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에 이르러 안뜰로 말을 몰아 들어가니, 곧 그 성의 영주, 곧 계곡의 힐레어 경이 달려왔더라. 힐레어 경은 랜슬롯 경을 맞이하여 이르되, "환영하오, 기사여. 나의 누이와 함께 이 고요한 계곡으로 오시어 나를 크게 존경해 주시니 이는 큰 영광이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고귀한 자질을 지닌 여행객을 자주 접하지 못하오."

"형제여," 크루아제트가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 기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실로 큰 영광이라 일컫기에 마땅하도다. 이는 호수의 위대한 랜슬롯 경이시니라. 오늘 내가 그대가 공정한 결투에서 터퀸 경을 물리치는 것을 목도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대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찾아오심은 실로 큰 영광을 더하는 일이로다."

그때 힐레어 경은 랜슬롯 경을 매우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르되, "랜슬롯 경이여, 당신의 명성은 지극히 크사 이 고요한 외딴 곳까지도 이미 들렸사오니, 당신이 이곳에 오신 일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 이제, 내가 보기에 당신께서 부상을 입으셨고 또한 지치셨음을 알겠사오니, 부디 들어와서 몸을 쉬소서."

〈각주: 랜슬롯 경이 안위를 얻다〉 이에 여러 하인들이 달려와, 랜슬롯 경을 모시고 쾌적한 방으로 안내하였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의

갑주를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킨 뒤, 한 의사가 달려와 그의 상처를 살피고 치료하더라. 그 후 시종들은 그에게 부드러운 벨벳 천으로 만든 가운을 입혔고, 랜슬롯 경이 그것을 입자 그는 몸과 마음이 크게 편안함을 느끼고 큰 안위를 얻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힐레어 경의 성에서 머무름〉 이에 랜슬롯 경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며 그 곳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니라. 어느 아침, 그들이 모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랜슬롯 경은 자신이 그녀에게 약속한 그 모험을 행하기 위해 자신과 낭자가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힐레어 경이 이를 허락하더라.

이 무렵, 그 성의 갑옷 장인들이 랜슬롯 경의 갑옷을 이어서 고쳐 주었으므로, 그가 그것을 입었을 때 갑옷은 예전만큼이나 튼튼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랜슬롯 경은 매우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랜슬롯 경과 크루아제트는 그곳을 떠나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으니,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 모험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어 주었더라.

그들이 그 골짜기를 떠난 지 얼마 후, 그들은 매우 고대의 숲을 지나갔다. 그곳의 땅은 발밑에서 매우 부드럽고 말발굽 소리는 고요히 들렸으며, 위로는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숲속을 느린 걸음으로 지나갈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매우 즐겁고 명랑한 담소를 나누었다.

처녀가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기사로서 마땅히 여인을 섬겨야 함을 알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모든 방면에서 섬길 특별한 여인을 두지 않았는지, 나는 매우 신기하게 여깁니다.”

〈각주: 랜슬롯 경과 크루아제트가 서로 담소함〉

“하, 낭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 또한 한 부인을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노라. 그분은 모든 부인들 가운데 으뜸가는 분이라. 그 부인은 아서왕의 왕비, 구이니비어 부인이시라. 비록 내가 그녀의 시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매우 먼 거리에서 그녀를 섬기노라. 내가 그녀를 섬기는 것은 마치 땅 위에 서서도 항상 밝은 새벽 별을 올려다보는 자와 같으니라. 비록 그러한 자가 멀리서도 그 별을 사랑할지라도, 그 별이 서 있는 고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못하느니라.”

“하하!” 크루아제트가 이르되, “그 일만으로는 한 여인을 섬기는 길이 다하지 않나이다. 내가 기사라 할진대, 저렇게 먼 곳의 여인을 섬기기보다 눈앞에 있는 여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하노라. 대개 기사란 하늘의 별처럼 멀리 떨어진 여인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이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여인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 이에 랜슬롯 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소 짓기만 하였더라. 잠시 후 크루아제트가 다시 이르되, “당신은 그런 여인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랜슬롯 경?”

〈각주: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부인에 대하여 말함〉

"아니니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어찌 다른 여인을 섬기기를 원하겠는가. 내 사정은 이러하니라, 크루아제트여—내가 열여덟 살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세월을,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마법의 호수 아래 있는 신비로운 땅에서 보냈노라. 그 후 나는 그 호수를 떠나 이 세상에 나왔고, 아서왕께서 나를 기사의 반열에 올리셨노라. 이제 내가 인간들의 세상에서 매우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고, 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보지 못했으므로, 내게는 그 세상이 지극히 사랑스럽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이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노라. 그것은 너무도 신비롭고 너무도 아름다우므로, 내 영혼이 그 즐거움을 다 마시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게는 들판의 풀잎 하나, 나무의 잎사귀 하나까지 사랑스럽고, 기어 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모두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 아래 밖으로 나가 나를 둘러싼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것들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울음을 터뜨릴 것 같노라. 그러므로 크루아제트여,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세상에서 기사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내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왕좌에 앉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원하노라. 진실로, 내게는 이 일들에 대한 나의 기쁨으로 인해 네가 말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없으며, 오직 기사의 도에 대한 사랑과,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고 더 행복하게 만들려는 큰 소망뿐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네가 말한 방식대로 섬길 여인이 없는 이유라. 또한 나는 그런 여인을 결코 가지지 않겠노라. 오직 구이니비어 부인만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생각은 앞서 말한 그 밝은 별처럼 내 위에 서 있노라."

"하하," 크루아제트가 이르되,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부인을 위해 슬퍼하노라. 만일 그대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대 같은 위대한 기사가 그녀를 섬기기를 어떤 부인이라도 기뻐하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매우 명랑한 심정으로 웃었으니, 이는 그와 낭자가 이러한 담화를 나누며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음이라.

〈각주: 랜슬롯 경은 펠리스 경의 성을 발견하다〉

그들이 이 같은 길로 길을 재촉하여 아침나절이 조금 지난 무렵까지 이르렀을 때, 마침내 그 숲을 벗어나 매우 험준한 땅에 들어섰다. 그들이 지금 들어선 곳은 바위 투성이의 골짜기였으며, 거칠고 황량하여 아름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더라.

그들이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섰을 때, 멀리서 바위 위에 세워진 하나의 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성은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지붕과 굴뚝이 하늘을 배경으로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또렷하게 드러나 있더라. 그러나 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마치 손에 쥐고 손가락 사이로 가볍게 잡을 수 있는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그때 크루아제트가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저기 그 악한 마음의 기사 성이 있나니, 어제 내가 그에게 대하여 말한 바 있는 자라. 그의 이름은 숲의 시르 페리스라 하노라. 그 성 아래, 길이 그 숲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그가 숨어 있다가 그곳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사로잡으려 하느니라. 진실로 그는 매우 비열한 기사라, 비록 그가 강인하고 힘세다 할지라도, 다른 기사들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고 다만 여인들과 낭자들만을 습격하느니라. 이는 그가 스스로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보기에, 비록 그의 체격이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느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크로아제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함〉 이때 랜슬롯 경은 잠시 동안 그 성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노라. 그리고 이르시되, "낭자여, 네가 말한 바와 같이 그 기사가 정말로 그런 겁쟁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여행한다면 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그가 나와 너를 함께 보는 순간, 그는 숲속의 덤불 속에 숨어 나의 시선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나는 이렇게 하려 하노니, 너는 성의 시야에 드러나는 대로 주요 도로를 따라 달리라. 나는 숲 가장자리 안에 머물며, 너는 내 시야에 들되 다른 이들에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리라. 만약 그 기사가 네게 공격을 가한다면 — 내가 생각하건대 그는 그럴 가능성이 크도다 —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나와서 그와 결투를 벌이리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이 말한 대로 일이 정해졌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길을 떠났더라. 크루아제트(Croisette)는 대로변을 따라 달렸고, 랜슬롯 경은 숲 가장자리의 나무 그늘 아래를 달렸으니,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에서 숨기 위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오랜 길을 달려, 마침내 성채가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기에 이르렀더라.

〈각주: 펠리스 경이 크루아제트를 공격함〉 이때 그들이 길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작은 계곡을 향해 경사져 내려가는 곳이라, 그들은 갑자기 큰 소음을 듣게 되었고, 곧이어 숲에서 거구의 체격을 가진 한 기사가 나타나고, 그 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붉은 옷

으로 두른 시종이 바짝 따라왔다. 이 기사는 크루아제트가 있는 곳으로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였고, 시종 역시 그 뒤를 바짝 따라왔다. 이 두 사람이 크루아제트에게 가까이 다다르자, 시종은 말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팰프레이의 고삐를 잡아당겼고, 기사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치 그녀를 말에서 끌어내리려는 듯 그녀를 붙잡았다.

이때 크루아제트가 매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즉시 랜슬롯 경이 숲에서 뛰쳐나와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그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가 다가오며 크고 두려운 목소리로 외쳤다. "기사여, 그 부인을 놓아주고 나를 돌아보아 자신을 방어하라!"

〈각주: 랜슬롯 경이 페리스 경을 쓰러뜨리다〉 이때 숲의 야인 페리스 경이 도망칠 방도를 찾아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랜슬롯 경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더라. 그러므로 그는 방패를 손에 쥐고 검을 뽑아 방어 태세를 갖추었으니, 도피할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결전을 치르려 함이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창을 버리고 방패를 앞에 세우며 검을 손에 잡은 채, 말에 채찍을 가하여 페리스 경을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가 페리스 경에 가까이 다다르자, 안장에서 몸을 일으켜 일격을 가하였으니, 세상에 그 위력을 견딜 만한 것이 없으리라 믿었노라. 비록 페리스 경이 그 일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었으나, 랜슬롯 경의 검이 방패를 관통하여 방패를 든 팔을 찍어내렸고, 페리스 경의 투구에 가한 타격이 너무나도 위력적이었으므로, 페리스 경은 말에서 떨어져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말에서 뛰어내려 펠리스 경의 투구를 벗겨내고, 그의 목을 베려 검을 높이 들었다.

그때서야 페리스 경의 의식이 간신히 돌아왔고, 그는 두 손바닥을 모으며 비록 매우 약한 목소리로 외쳤노라. “저를 용서하소서, 기사여! 저는 당신께 항복하노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리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경,” 페리스 경이 아뢰되, “저의 기사도 정신을 걸거니와, 저를 용서하소서.”

“그래,”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는 나의 기사도 정신을 빌려 나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치욕을 감내해야 하리라. 만일 진정 기사다운 자라면, 너와 같은 처지에서 살기를 원치 않고 죽음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기사님이시여,” 펠리스 경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나는 이에 동의하노니, 다만 내 목숨만은 아껴주소서.”

이에 랜슬롯 경은 페리스에게 일어나라 명하셨노라. 그는 페리스의 말 고삐를 잡아 페리스의 팔을 등 뒤로 묶은 후, 이 일을 마친 뒤 창끝으로 그를 몰아 성으로 향하였노라. 성에 이르러 랜슬롯 경은 페리스에게 성문을 열라 명하니, 페리스가 이에 따랐노라. 이에 랜슬롯 경과 페리스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낭자와 시종이 그 뒤를 따랐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포로로 잡힌 처녀들을 해방하다〉 그 성에는 높은 신분의 처녀 열네 명이 몸값을 위해 포로로 잡혀 있더라. 그 중 일부는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노라. 랜슬롯 경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음을 알게 되자, 이 모든 처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 이에 그들은 랜슬롯 경에게로 나아가 그를 공경하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사를 드리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포로인 여인들에게 성의 보물을 나누어 주다〉

랜슬롯 경과 크로이즈트는 그 밤 내내 그 성에 머물렀다. 이튿날 아침이 밝자 랜슬롯 경은 성 안을 두루 수색하러 나섰다. 그는 은과 금으로 된 상당한 보물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페리스 경이 이전에 포로로 잡은 신분이 높은 여인들과 낭자들이 몸값으로 바친 것이었다.

랜슬롯 경은 이 모든 보물을 포로로 잡혀 있던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중 일부를 낭자 크로이즈트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각별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크로이즈트가 그를 이 모험의 현장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었다. 크로이즈트는 이에 매우 기뻐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그 보물 중 단 하나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때 크로이즈트가 이르되, “어찌 된 일이오이까, 랜슬롯 경이시여? 당신은 이 보물 중 하나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셨사오나, 이는 오직 당신의 무력으로써 얻으신 것이니, 원하시면 전부를 당신의 것으로 간직하셔도 마땅하오이다.”

"크로이즈트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호수 안에 살던 때에,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은 강바닥에서 주워 올 수 있는 자갈처럼 값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페리스 경을 치욕의 포로로 삼다〉 이 모든 일이 정해진 후, 랜슬롯 경은 숲의 야인 페리스 경을 자신 앞에 끌고 오라 명하였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비열한 기사여, 이제 너의 치욕이 네게 임할 때라" 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페리스 경의 갑옷과 의복을 벗기게 하였으니, 재킷과 바지까지 모두 벗겨낸 뒤 그의 팔을 등 뒤에 묶게 하고 목에는 줄매듭을 걸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페리스 경의 목에 걸린 줄매듭을 자신의 말 안장의 뿔에 매달았으니, 크로이즈트를 데리고 달아날 때 랜슬롯 경의 말이 어떤 걸음으로 가든 페리스 경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더라.

〈각주: 힐레어 경이 아서왕에게 페리스 경을 보내다〉 이에 랜슬롯 경과 크로이즈트는 힐레어 계곡의 힐레어 경의 저택으로 되돌아갔으며, 페리스 경은 그들 뒤를 쫓아 달렸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랜슬롯 경은 페리스 경을 힐레어 경에게 인계하였고, 힐레어 경은 페리스 경의 발을 말 배 아래로 묶어 말 등에 태웠다. 그리고 그를 캐멀롯으로 보내 아서왕에게 넘겨, 왕께서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다음 날 종일 그 계곡의 힐레어 경과 함께 머물렀고, 그는 그 즐거운 곳에 머물러 있음을 매우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곧 일요일 아침, 그는 앞서 약속한 대로 처녀 엘루이즈 더 페어를 만나기 위해 그 수도승들의 수도원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더라.

이제부터 너희는 바데마구스 왕의 대회에서 랜슬롯 경이 어떻게 활약하였는지를 들으리라. 만약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기를 기뻐한다면 말이다.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과 아름다운 엘루이즈]

여섯째 장

〈랜슬롯 경이 바데마구스 왕과 북웨일스 왕의 대결에 참여하여, 바데마구스 왕을 위해 승리를 거두게 된 이야기〉

〈각주: 랜슬롯 경이 아름다운 엘루이즈를 찾으러 떠난 일〉

랜슬롯 경은 수많은 대로와 오솔길을 천천히 달렸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멈추어 서서, 다시금 열린 하늘 아래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날은 따뜻했고, 그 때 하늘에는 구름이 두텁게 드리워져 무리 지어 흘러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가 하면, 곧이어 해가 다시금 뜨겁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이 믿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소나기가 그치자 수탉이 힘차게 울었고, 멀리서 다른 수탉이 화답하였다. 온 세상이 갑자기 미소 짓는 듯했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떨어졌으며, 작은 언덕들이 기쁨에 손을 치는 듯 떨렸다.

이처럼 랜슬롯 경은 그 날을 큰 낙으로 여겼고, 그가 아름다운 엘루이즈를 만나야 할 수도승들의 수도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밤이 되어버릴 정도로 여유로운 걸음으로 길을 갔더라.

그날 저녁, 엘루이즈는 마당을 내려다보는 수도원의 한 방에 앉아 있었다. 여러 개의 밀랍 촛불 빛 아래에서 한 처녀가 그림이 새겨진 책을 읽고 있었다. 처녀의 목소리는 높고 또렷하여, 엘루이즈는 매우 고요히 앉아 그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엘루이즈가 아름답게 앉아 있자, 아래 마당의 돌바닥을 울리는 거대한 말의 발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엘루이즈는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호수의 기사 랜슬롯임을 그녀는 보았다. 하늘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하늘은 회색빛으로 빛나고 있어 그녀가 누가 오는지 식별할 수 있었다.

이에 엘루이즈는 크게 기쁨의 외침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그녀는 랜슬롯 경이 있는 안뜰로 내려갔으며, 그녀의 여러 시녀들도 그녀를 따라갔다.

〈각주: 아름다운 엘루이즈가 랜슬롯 경을 환대하다〉 그녀가 궁정에 이르러 랜슬롯 경에게 큰 환대를 베풀고, 많은 시종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명하여 랜슬롯 경을 돌보라 하였노라. 이에 그들 중 일부는 랜슬롯 경이 말에서 내리도록 돕고, 일부는 그의 말을 거두었으며, 또 일부는 그를 위해 마련된 방으로 그를 모셔왔노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 시중들었으며, 그로 하여금 편안히 쉬게 하였더라.

이에 엘루이즈는 그에게 보랏빛 벨벳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예복을 보내니, 그것은 털로 안감을 댔더라. 랜슬롯 경은 그 옷을 입으니, 그는 큰 위로를 얻었더라.

그 후 랜슬롯 경은 엘루이즈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양식을 위해 차려진 아름다운 저녁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는 앉아 식사를 하였고, 아름다운 엘루이즈 본인이 그를 직접 모셨더라.

〈각주: 엘루이즈가 바데마구스 왕을 부르다〉 이때 그녀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 바데마구스 왕을 부르라 명하였다. 랜슬롯 경이 저녁 식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데마구스 왕이 그 곳에 도착하였으니, 엘루이즈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깊이 의아히 여기며 온 것이었다.

바데마구스 왕이 이르렀을 때, 엘루이즈는 그의 손을 잡고 랜슬롯 경에게로 이끌어 이르되, "폐하, 이 기사는 화요일의 이 대회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의 청을 들어 오셨나이다."

이때 바데마구스 왕은 처음 보는 랜슬롯 경이었으므로 그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에게 물었노라.

"경이시여, 이 싸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나이다. 이제 경의 이름과 어느 기사인지 알려 주시기를 청하노라."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랜슬롯이라 칭함을 받고, '호수의 사나이'라 불리나이다."

이때 바데마구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지극히 놀라워하며 크게 외쳐 이르되, “이것은 기이한 일이로다. 기사도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귀하가 여기 계시다니, 그리고 나의 싸움에 힘을 보태러 오시다니!”

〈각주: 랜슬롯 경이 바데마구스 왕과 대화함〉

“폐하,”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 일의 성패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폐하께 얼마만큼의 원조를 바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 낭자가 나를 위해 행한 모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나를 도와준 인과에 따라, 그녀의 청을 들어 힘이 닿는 한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도리라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그녀의 아버지이신 폐하를 위해, 폐하의 고난스러운 시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갚음에 불과하리라. 따라서 만약 운이 따라 이 곧 닥쳐올 전투에서 내가 폐하께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이 부인께 진 빚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갚았음에 있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리라.”

“영주여,” 바데마구스 왕이 이르되, “이 일에서 당신의 선의를 감사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며, 당신이 이에 가담하셨으므로 이 싸움은 기사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남으리라.”

이같이 그들은 서로 지극한 예의를 갖추어 말하였다. 그 후 잠시 있다가, 랜슬롯 경이 이르되, “폐하, 청컨대 저 북쪽 웨일스 왕의 편에 있는 아서왕의 궁정 기사들이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알고자 하오니이다.” 이에 바게마구스 왕이 이르시

되, “영주여, 원탁의 기사들 중 세 분은 다음과 같으니, 첫째는 아서왕의 조카인 모드레드 경이요, 둘째는 갈라한틴 경이요, 셋째는 마도르드 라 포르트 경이니이다.”

“하,” 랜슬롯 경이 이르되, “실로 이 세 분은 매우 훌륭한 기사들이라. 그들처럼 훌륭한 기사 세 분을 편에 두고 싸웠던 마당에, 북웨일스 왕이 예전에 그대와 겨룬 그 토너먼트에서 그토록 좋은 운을 거두었던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바게마구스 왕에게 전투의 순서를 조율하다〉

이후 그들은 내일 아침 어떻게 싸워야 할지 상의하느라 담소를 나누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노라.

“폐하, 폐하께서 신뢰하시며 우리 편에서 가장 강인한 기사라 여기시는 세 분의 기사를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이 세 분과 저, 네 분 모두의 방패를 온통 하얗게 물들이고, 제 방패 역시 하얗게 칠하리이다. 그리하면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리이다. 이는 제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직 제가 이 전투에서 자신의 무용을 입증한 후에야 제 정체가 밝혀져야 하오.”

“그리하여 폐하께서 세 분의 기사를 선택하시면, 우리 네 명은 전투가 벌어질 장소 근처의 숲이나 빈터에 숨어 있을 것이오. 폐하의 군대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적의 압박이 가장 심해질 때, 우리가 나타나 북웨일스 왕의 군대 측면을 급습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오. 그때 폐하께서는 공격을 더욱 맹렬히 가하시오. 하느님의 은총이 있사오

면,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그들의 진형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사옵니다."

이 조언은 바게마구스 왕에게 매우 훌륭하게 여겨졌으므로, 그는 랜슬롯 경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는 세 명의 매우 강인하고, 가치 있으며, 명예로운 기사들을 선택하였고, 이 기사들은 랜슬롯 경이 지시한 대로 그들의 방패를 하얗게 칠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랜슬롯 경의 뜻대로 갖추어지자, 전투가 있기 전날 밤이 이르렀더라. 해가 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랜슬롯 경과 바게마구스 왕이 택한 세 명의 기사들은 투기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말을 몰았으니, 그 곳은 엘루이즈 낭자가 머물던 수도원에서 약 십이 마일 떨어진 곳이라.

그들이 도착하여 보니, 랜슬롯 경의 뜻에 부합할 만한 키 크고 잎이 무성한 작은 숲이 있더라. 이 숲은 전투가 벌어질 초지의 한쪽 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초지로부터 약 삼 퍼롱 떨어져 있었다.

이 작은 숲 속에서 랜슬롯 경과 바게마구스 왕이 함께 택한 세 명의 기사들은 땅바닥에 몸을 눕히고, 각자 자신의 망토를 두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전투가 예정된 다음 날까지 그곳에서 잠들었더라.

이 대회의 준비는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더라. 전장의 초원 세 면에는 관중석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좌석들이 줄지어 놓였기 때문이라. 이 자리들은 다채로운 색상의 태피스트리와 휘장으로 덮여 있었는

데,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평직인 것도 있어, 초록빛 평평한 초원지대는 온통 화려하고 눈부신 색들로 둘러싸였더라.

해가 뜨자, 그 토너먼트를 목격하러 온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더라. 고귀한 신분의 영주들과 부인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지위의 기사 수종들과 낭자들이 있었고, 시민들과 장인들은 그 아내들을 동반했으며, 도시의 주민들과 숲의 농부들, 그리고 농지의 자유 농민들까지 모두 모였더라. 이들과 함께 두 진영의 많은 기사들이 왔고, 기사들 뒤에는 그들의 수종들이 호위하며 따랐더라. 이때 기사들은 모두 완전한 갑옷으로 무장하여 매우 밝게 빛났고, 수종들은 여러 질감과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 매우 활기차고 우아해 보였더라. 이로 인해 모든 군중이 전장 초원으로 향하는 대로 위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이 활기차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각주: 랜슬롯 경과 그 동료들은 투기장 근처에 숨어 있었다〉 이때 랜슬롯 경과 그와 함께한 세 기사가 숨어 있던 곳은 대로변에서 그리 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머무른 곳으로부터 그들은 고귀한 행렬이 모두 투기장으로 향하는 것을 모두 볼 수 있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 퍼롱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전장의 초지를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또한 높은 신분의 자들과 낮은 신분의 자들이 모두 각자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좌석에 자리 잡는 광경을 볼 수 있었노라. 또한 그들은 이쪽 저쪽의 광장에서 기사들이 자신의 차림을 갖추는 모습과, 곧 닥칠 대결에 대비하여 주군을 준비시키느라 여기저기를 바쁘게 오가는 기사보와 하인들을 볼 수 있었노라. 진실로, 그들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이 이 모든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노라.

그때에 정오가 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광장은 비어 있고, 두 진영이 전투를 위해 일렬로 진을 치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북쪽 웨일스 왕의 무리가 바게마구스 왕의 무리보다 훨씬 더 많음을 깨달았노라. 북쪽 웨일스 왕의 편에는 헬름이 거의 여덟 스코어(160)나 되었거늘, 바게마구스 왕의 편에는 네 스코어(80)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랜슬롯 경은 바게마구스 왕의 무리가 만일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려 한다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간파하였더라.

〈각주: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자, 원수(marshal)가 앞으로 나서서 나팔을 불었더라. 그 소리와 함께 두 무리의 기사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매, 일어나는 먼지의 구름이 너무도 커서 지나가는 기사들을 거의 볼 수 없었노라. 이에 그들은 전장의 초원 한가운데서 부딪쳤으니, 꺾이는 창들의 굉음과 소란이 듣기에 무섭도록 컸더라.

그때로 잠시 동안은 먼지와 소동이 심하여 아무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곧 먼지가 조금 걷히자, 랜슬롯 경은 바게마구스 왕의 편이 다른 편에 의해 밀려났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잠시 동안 그 전투를 지켜보았노라. 그는 바게마구스 왕의 부대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랜슬

롯 경이 동료 기사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여, 이제야 우리가 이 싸움에 뛰어들 적이로다."

그리하여 그와 그들이 그 숲을 벗어나, 언덕을 내려가고 들판을 가로질러, 마침내 그 전투의 초원인 메도우-오브-배틀에 이르렀더라.

〈각주: 랜슬롯 경과 그의 동지들이 전투에 합류함〉 이때 북웨일스 왕의 부대는 바게마구스 왕의 부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어, 네 명의 기사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 기사는 드물었으며, 비록 알아차린 자라 하더라도 그토록 소수의 기사가 오는 것을 크게 경계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의 접근을 막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북웨일스 왕의 부대 측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었다. 이에 그들은 그 측면을 거침없이 찔러들어가, 말과 기수 모두를 그들의 돌진에 넘어뜨렸다.

그 격돌에서 랜슬롯 경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고 튼튼한 창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맹렬한 기세로 적 진영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향해 돌진하여, 그가 제지당하기 전에 그 하나의 창으로 다섯 명의 기사들을 쓰러뜨렸노라. 또한 그와 함께하던 세 기사들도 또한 훌륭하게 싸웠으므로, 북웨일스 왕의 군대 측면 전체는 큰 혼란에 빠졌고, 그 맹렬하고 격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랜슬롯 경과 그의 세 동행자들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거리를 두고는 군중 속으로 돌진하였노라. 이번에는 랜슬롯 경이 북웨일스의 왕 자신마저 쓰러뜨렸으니, 그 타격이 너무도 격렬하여 왕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그의 시종들은 그를 그 전투터에서 들어 나르지 않을 수 없었노라. 이 두 번째 돌진에서 랜슬롯 경과 함께한 세 기사들은 북웨일스의 왕을 제외하고 열 한 명의 기사들을 쓰러뜨렸으므로, 군중의 그 일부분은 그들로부터 물러나 다른 공격을 막을 만한 곳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하였더라.

이때 바게마구스 왕의 무리는 네 명의 기사들이 일으킨 혼란을 보고, 맹렬하고도 격렬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들의 기세가 워낙 거세어, 북웨일스 왕의 군대는 잠시 만에 밀리기 시작하더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의 공격을 피해 물러난 자들과, 바게마구스 왕의 습격을 피하여 후퇴한 자들로 인해, 북웨일스 왕의 진영은 심대한 혼란에 빠졌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모드레드를 쓰러뜨리다〉

이때 아서왕의 궁정에 있던 세 기사가,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 기사들이 북웨일스 왕의 일당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보았고, 만약 랜슬롯 경의 돌격을 막지 못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더라. 이에 마도르 경이 이르되, "저곳에는 매우 강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기사가 있도다. 만약 우리가 그의 돌격을 막지 않는다면, 이 전투에서 우리는 큰 치욕을 당할지 모른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모드레드가 이르되, "이제 내가 그 기사와 승부를 겨루어 그를 쓰러뜨리겠노라."

이에 나머지 두 기사들이 그에게 가서 말한 대로 하라고 명하더라. 이에 모드레드 경은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길을 열어, 매우 격렬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랜슬롯 경은 모드레드 경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그 돌격에 대비하더라.

이에 두 기사는 무서운 기세로 충돌하였고, 랜슬롯 경은 모드레드 경에게 그토록 강한 일격을 가하여, 모드레드 경의 안장 가슴띠가 끊어지고, 안장 전체와 모드레드 경은 말의 꼬리 너머로 날아갔더라. 그와 함께 모드레드 경은 머리를 먼저 땅에 찍으며 낙마하여, 땅에 그토록 강한 힘으로 부딪혀 목이 거의 끊어질 뻔하였고, 그는 완전히 기절하여 쓰러졌으며, 그의 시종들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옮겨져야만 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마도르 경을 쓰러뜨리다〉 이 광경을 본 포트의 마도르 경은 소리 높여 외쳤노라. “하! 모드레드 경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에 그는 전력을 다해 랜슬롯 경을 향해 돌진하여 그를 쓰러뜨리려 하였노라. 랜슬롯 경도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두 기사는 격렬하게 충돌하였으니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낼 지경이었노라. 그러나 포트의 마도르 경의 창은 산산조각이 난 반면, 랜슬롯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견고하였노라. 그 결과 마도르 경과 그의 말은 함께 쓰러졌고, 말은 주인 위에 굴러떨어졌노라. 이 격돌로 인해 마도르 경의 어깨는 탈구되었고, 그는 결국 수행원들에게 부축을 받아야만 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갈라힌틴 경에게 치명상을 입힘〉 이때 갈라힌틴 경은 곁에 있던 시종에게서 큰 창을 받아 들고, 온 힘을 다해 랜슬롯

경을 향하여 돌진하더라. 랜슬롯 경도 전속력으로 그를 맞받아쳤고, 이 충돌은 앞서 일어난 두 번의 격투보다 훨씬 더 맹렬하였노라. 두 기사의 창은 모두 부러져 조각조각 나고, 끝자락까지 산산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부러진 창대를 던져버리고 검을 빼들었더라. 갈라힌틴 경이 랜슬롯 경에게 가한 일격은 그 무게로 인해 랜슬롯 경의 말의 다리가 떨릴 정도였노라. 이를 본 랜슬롯 경은 극도로 분하여 안장에 서서 일어서더니, 갈라힌틴 경에게 맹렬한 타격을 가하더라. 그 결과 갈라힌틴 경의 코와 귀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의 의식은 완전히 흐려져 눈앞이 아득해져 거의 햇빛을 볼 수 없게 되었노라.

이때 갈라힌틴 경의 머리가 그의 가슴 위로 처지며, 그는 자신의 말을 이끄는 힘을 잃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말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하여,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를 태우고 멀리 달아나었더라.

그리고 말이 조금 거리를 달린 후, 갈라힌틴 경은 더 이상 안장에 앉아 있을 힘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 땅 위로 굴러떨어졌으며, 다시 일어나기조차 힘이 닿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자신을 따르는 시종으로부터 크고 튼튼한 창 하나를 받아들고, 그 창이 부서지기 전에 열여섯 명의 기사들을 땅에 쓰러뜨리니라.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그의 행위에 경악하고 두려움에 떨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배그데마구스 왕을 위해 승리를 거두다〉

이제 북웨일스 왕의 부대는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너졌다. 이때 배그데마구스 왕의 부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기저기서 격렬하게 싸웠고,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쓰러져 새로운 전투 진형을 잡을 길이 막혔다. 그러므로 그 부대는 모두 항복하여 패배를 인정하였고, 이로써 배그데마구스 왕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가능한 가장 큰 영예라 할 만했다.

사실, 원탁의 기사가 셋만으로도 팔십 명의 기사가 백육십 명의 기사를 그와 같이 제압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또한, 만약 랜슬롯 경이 그 전투에서 보인 활약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승리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이때 랜슬롯 경은 배그데마구스 왕을 위해 그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두었노라. 전투가 모두 끝난 후, 배그데마구스 왕이 랜슬롯 경에게 나아와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오늘 내게 내 평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안겨주었나이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나와 함께하여 몸을 쉬고 음식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내가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마땅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당신과 같은 기사이자 챔피언을 왕이 마땅히 보상하듯 보답하고자 하오."

〈각주: 보상 없이 떠나는 랜슬롯 경〉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폐하의 후한 대접에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상을 필요로 하지 않사오니, 이는 모르고나 여왕이 저에게 해코지하려던 꾀

에서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처녀 엘루이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 마땅함이라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배그데마구스 왕이 랜슬롯 경에게 잠시 머물며 쉬어가기를 간청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그 뜻을 거절하고 조금도 머무름 없이 곧장 길을 재촉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배그데마구스 왕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에게 나를 대신하여 안부를 전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되, 만약 그녀가 다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나를 부르기만 하라. 비록 땅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곧장 그녀에게 달려가리라. 나는 아직 그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 전투의 초원에서 길을 떠나, 숲의 끝자락에 다다라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초원에 있던 자들은 그 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여 배그데마구스 왕과 북웨일스 왕 사이의 그 유명한 토너먼트에 관한 역사가 끝났노라.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이 낭자의 매를 잡기 위해 올라간다]

일곱 번째 장

어떻게 랜슬롯 경이 일생에서 그토록 위대한 위기에 빠졌는가. 또한 어떻게 그가 거인들에게 점령당한 불운한 성읍을 해방시켰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곳의 영주를 감옥에서 구해냈는가.

이때 랜슬롯 경은 많은 날을 방랑하며 다녔으나, 그의 앞에 뜻깊은 모험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가 둘러본 광활한 세상의 모든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으니, 그가 머무는 곳이라면 집이 없더라도 하늘 아래서 잠을 자며, 비와 햇살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날씨를 견디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성채를 갖춘 아름다운 계곡에 이르다〉

어느 날 아침, 날이 밝아오던 무렵, 그가 언덕 꼭대기를 넘어 서자, 그 아래로 한 폭의 그림 같은 계곡이 펼쳐져 있더라. 그 계곡은 매우 비옥하고 잘 가꿔져 있어, 온갖 무늬로 수놓인 아름다운 푸른 카펫처럼 들판과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노라. 그 계곡 한가운데에는 크고 고귀한 성채가 우뚝 서 있더라. 많은 탑들과, 높고 가파른 지붕들, 그리고 빽빽하게 모여 선 굴뚝들이 그 성채를 이루고 있었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그 계곡으로 내려가니, 그가 택한 길은 성채 정문 앞, 높은 회색 성벽의 그늘 아래에서 끝이 났노라. 그러나 그는 그 성채에서 머물지 않고, 그냥 그 성채를 지나쳐 나아갔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 성을 지나가려 할 때, 하늘 위에서는 매우 고운 은종소리가 달콤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들리더라.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멀리 떨어진 한 느릅나무를 향해 매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를 날고 있더라. 그는 그 달콤한 소리가 매의 모자에 달린 종들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바라보니, 매가 날아가는 동안 그 발에는 긴 끈이 늘어져 있더라. 이로써 그는 매가 주인에게서 벗어나 날아왔음을 깨달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매가 얽힌 것을 보다〉 이에 랜슬롯 경은 그 매를 주시하더니, 매가 높은 느릅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날개를 반쯤 펴고 균형을 잡으며 잠시 쉬는 것을 보았노라. 잠시 후 매가 다시 날으려 하였으나, 발에 찬 줄이 앉은 가지에 얽혀 묶여 버렸으므로, 날으려 해도 도무지 날 수 없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 매가 제 몸으로 부딪히며 갇힌 곳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을 보고 크게 불쌍히 여겼노라. 그러나 나무가 매우 높고, 본디 나무 타기를 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구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서서 그 매를 주시하고 있을 때, 성채의 쇠창살문이 큰 소리로 들려 오르며, 도개교가 내려졌고, 이와 함께 한 부인이 하얀 노새를 타고 성채에서 매우 빠르게 나와, 나무 위에서 매를 지켜보고 있던 랜슬롯 경 쪽으로 달려왔다. 그 부인이 랜슬롯 경에 가까이 다다르자, 그녀가 그에게 외쳤다. "기사여, 이 길로 매가 날아간 것을 보았나이까?" 랜슬롯 경이 대답하였다. "예, 부인, 그리고 보십시오, 저곳에 매가 걸려 있나이다. 저쪽의 느릅나무 가지에 끈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오."

그때 그 낭자가 자신의 매가 매달린 것을 보고는 두 손을 치켜들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아차, 아차! 내가 어찌하랴? 그 매는 내 주군의 가장 아끼는 맹금이라. 잠시 전 내가 그와 장난하고 있을 때, 그 새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날아올라,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멀리 날아갔노라. 이제 내 주군이 그 매를 이같이 잃어버렸음을 아시면, 나를 크게 노하실 것이요, 혹 나에게 심한 해를 입히실지도 모르노라.”

〈각주: 부인이 랜슬롯 경에게 매를 다시 찾아달라고 간청함〉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이시여, 저는 부인을 위해 매우 슬프나이다.”

“경,” 그녀가 이르되, “만약 경이 저를 도울 수 없다면, 저를 불쌍히 여긴들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어떻게 내가 이를 도울 수 있겠는가?” 랜슬롯 경이 물으니,

“영주여,” 그녀가 이르되, “내가 경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경께서 이 나무에 올라가 제 매를 구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나이다. 만약 경께서 이와 같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제 주인은 성질이 매우 격렬하고 포악하시니, 그의 가장 사랑하던 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큰 난처함에 빠졌노라. 그 나무를 오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부인,” 그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의 주군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 주시오.” “영주여,” 그녀가 답하되, “그는 펠롯 경이라 불리며, 북웨일즈 왕의 궁정에 속한 기사라 하노라.”

“이제 부인이시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부인은 나를 매우 어려운 고비에 빠뜨리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거니와 나는 나무를 오르는 자는 못됨이라. 실로 나는 이와 같은 나무 하나를 오르는 것보다 스무 명의 기사들과 싸우는 편이 나으리라. 그러나 부인의 뜻이 내 힘으로 성취될 수 있겠다면, 어느 부인의 청을 거절할 마음이

내게는 없노라. 이제 부인이 나를 무장 해제하는 데 도움을 주시거든, 내가 이 나무를 오르고 부인의 매를 찾아오리니."

[각주: 랜슬롯 경이 나무를 오르다] 이에 낭자가 노새에서 내리고, 랜슬롯 경이 말에서 내렸다. 낭자가 랜슬롯 경을 도와 갑옷을 벗기었다. 그가 모든 갑옷을 벗고 나니, 그의 바지와 더블릿만 남고 다른 옷은 모두 벗겨졌다. 그 후 그는 큰 힘과 고통을 감수하며 그 나무를 올랐고, 떨어질까 봐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매가 있는 곳에 도달했고, 가지에 엉킨 매의 줄을 풀어서 새를 해방시켰다. 그 후 그는 썩은 큰 가지를 부러뜨리고, 매의 줄을 그 가지에 묶어서 낭자가 있는 곳으로 던졌다. 낭자는 큰 기쁨으로 달려가 매를 잡았고, 가지에서 매를 풀어내어 매의 줄을 그녀의 손목에 묶어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이때 랜슬롯 경은 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하였노라. 그는 나무를 오를 때와 다름없는 큰 수고와 고통을 겪으며 내려왔더라.

[각주: 펠롯 경이 랜슬롯의 생명을 위협하다] 그가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던 중, 매우 빠르게 그 나무를 향해 달려오는 한 기사를 발견하였다. 그 기사는 온전한 갑주를 두른 상태였다. 그 기사가 나무에 다다르자 그는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고, 거기에 있던 부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랜슬롯 경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잠시 말을 건네자, 그 기사는 말에서 내려 랜슬롯 경의 방패로 가서, 그 표면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곧장 랜슬롯 경을 향해 고개를 들어, 이르되, "너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냐?"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노라." 그 기사가 이르되, "좋도다. 나는 그 사실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낀다. 나는 이 성의 영주이며, 그 사나운 숲의 페리스 경의 형제인 펠롯 경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그와 전투에서 그를 물리친 후 그를 매우 부끄럽게 대하였노라."

"경,"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그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대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은 상관없소," 펠롯 경이 이르되, "그는 내 형제였거늘, 경은 그에게 큰 모욕과 치욕을 안겼소. 그러므로 이제 나는 경에게 복수하리라. 이제 경은 내가 원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그에게 치욕을 안겼던 것과 같이 경을 부끄럽게 죽이리니.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경은 이 곳에서 살아서 떠나지 못할 것이오."

"기사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는 정녕 무고하고 무방비한 사내를 공격하려 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해롭게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있어 큰 치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너는 온갖 무장을 갖추었거늘 나는 맨몸이니, 이와 같이 나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요 배신일 뿐이라."

"그것은 상관없노라," 펠롯 경이 이르되, "이 일의 수치스러운 점은 내가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은총이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늘과 화해하라, 네 시가 이미 왔노라."

"기사여,"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내가 다만 한 가지 청원하노니, 네가 이토록 큰 수치스런 일을 감당하려 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다면,

적어도 나는 무기 없이 도적처럼 죽지 않기를 바라노라. 비록 다른 방어수단이 없더라도, 내 손에 검을 쥐어다오. 만약 한 기사가 죽어야 한다면, 무기 없이 죽는 것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내 검을 저 나뭇가지에 걸어두라.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리하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으리라."

"아니오," 펠롯 경이 말하였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의 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네가 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무기가 없더라도 나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노라. 너의 현재 모습 그대로, 내 뜻대로 하리라."

〈각주: 랜슬롯 경, 탈출을 위해 슬픈 고초를 겪다〉 이때 랜슬롯 경은 큰 당혹감에 빠졌으니, 그가 처한 그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사방을 두루 살피고 위와 아래를 모두 살펴보니, 마침내 그의 머리 바로 위쪽에 있는 느릅나무의 큰 가지 하나가 보이더라. 그 가지는 매우 곧고 단단하였는지라. 이에 그는 그 가지를 잡아당겨 나무에서 꺾어내고, 그것을 대략 곤봉과 같은 모양으로 다듬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낮추었으나, 그 기사는 그의 검으로 내려치기를 기다리며 기다렸는지라. 랜슬롯 경은 그 기사에게 충분히 낮은 위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자신의 말이 자신 아래, 그리고 약간 한쪽으로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곧장 선 나뭇가지 위를 따라 몸을 내밀더니, 재

빨리 뛰어내려, 기사가 서 있는 쪽에서 보아 말의 건너편 땅에 착지하였다.

〈각주: 랜슬롯 경이 기이한 무기로 펠롯 경을 물리치다〉 이 때 펠롯 경이 그를 향해 달려들며 검으로 내리치니, 점프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이 그를 베어 죽이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그보다 더 빠르니, 그는 곧 발을 붙이고 자신이 들고 있던 방망이로 펠롯 경의 일격을 막았노라. 그 후 그는 펠롯 경의 검 아래로 몸을 낮추어 들이닥쳤고, 펠롯 경이 검을 사용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그의 머리 옆쪽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노라. 그는 또다시 매우 빠르게 두 번째 타격을 가했고, 세 번째 타격도 가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두 세는 동안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노라. 그의 타격은 지독히도 무서워 펠롯 경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며, 기절할 듯한 약함으로 그의 힘줄은 힘을 잃었노라. 그 때 랜슬롯 경은 펠롯 경의 손에서 검을 빼앗았으니, 펠롯 경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노라. 랜슬롯 경은 펠롯 경의 투구를 벗겨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목을 앞으로 당겨, 그의 머리를 몸에서 잘라낼 준비를 하였노라.

이 모든 동안 그 낭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난 일을 주시하고 있었노라. 그러나 그녀가 펠롯 경이 처한 위태로운 형세를 보자, 그녀는 달려가 그의 몸을 안아 쥐며 아랑곳없이 소리 높여 외쳤노라.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날카로워, 랜슬롯 경에게 펠롯 경을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말 것을 호소하였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여전히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이르되, “부인,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노라. 그는 내가 교제해 본 어느 기사보다도 더 배신적으로 나를 대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 낭자는 더욱 격렬하게 외쳤노라. “랜슬롯 경이시여, 선량한 기사여, 내가 감히 청하노니, 당신의 기사도 정신으로 그를 용서하소서.”

〈각주: 랜슬롯 경은 펠롯 경의 목숨을 살려주니라〉

“잘 들었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에게 있어 내가 능히 베풀 수 있는 것을, 내 기사도 정신을 걸고 나를 청하는 어떤 부인이라도 거절한 적은 아직 없노라. 그러나 너희 둘 중 누구도 믿기 어렵구나. 방금 전 내가 사악한 배신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이 기사에 관하여는, 그가 바로 그 사악한 숲의 기사 페리스의 형제만큼이나 위대한 배신자이자 겁쟁이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살려주려니와, 내가 다시 갑옷을 입기 전에 그가 나를 배반할까 두려워 그를 믿지는 않으리라. 그러니 너의 노새의 고삐를 내게 주라.”

이에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랜슬롯 경에게 고삐를 주었노라. 랜슬롯 경은 고삐를 받아 펠롯 경의 팔을 뒤로 묶었노라. 그 후 그는 펠롯 경의 부인에게 자신의 갑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히도록 명하였으니, 그녀는 심히 떨며 이에 따랐노라. 그녀가 다 마치자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이제 나는 어느 누구의 배신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말에 올라타 그 곳을 떠나갔노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그 기사와 그 부인을 경멸하여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듯이 곧장 달렸노라.

그 후 랜슬롯 경은 잠시 동안 그 계곡의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여행하다가, 이내 그 계곡을 벗어나 한 숲에 이르렀고, 그는 그 숲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가로질러 여행하였다.

〈각주: 랜슬롯 경이 습지 지방에 도착하더라〉 해가 기울어 오후가 깊어가던 때라, 그가 그 숲을 벗어나 다시 열린 하늘 아래로 나왔을 때였다. 그가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는 완벽하게 평평한 습지대가 펼쳐져 있었으니, 그곳은 무척 푸르고 무성하여, 갈대와 부들풀로 둘러싸인 느린 강물과 많은 연못이 있었고, 물가에는 가지치지 않은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푸른 평원의 한가운데(그 평평함은 탁자의 표면과 같았으니) 벽돌과 돌로 반반씩 지어진 고귀한 성이 우뚝 서 있었고, 성 주변에는 크지 않은 마을과 성곽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 성과 마을은 호수로 둘러싸인 섬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돌 기둥 위에 지어진 긴 다리가 육지에서 섬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성과 마을은 습지 너머로 매우 먼 거리에 있었으나, 눈앞의 평평한 습지대를 건너보면 마치 매우 작고 정교한 조각품처럼 매우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였다.

이때 랜슬롯 경이 걸어가던 길은 어느 마을을 향해 조금 기울어져 있었으므로, 그는 그 곳을 더 가까이 살펴볼 뜻으로 그 길로 향하였더라. 그가 얼마 동안 그 길을 따라가며 걸어가되, 길 위에서 한 영혼도 만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갑자기 한 궁수를 만나게 되었

으니, 그는 버드나무 그늘에 숨어 물새를 쏘려 하고 있었더라. 그 물새들은 근처 연못에 모여드는 것이었으니, 궁수는 이미 자신의 허리에 여러 마리의 물새를 매달고 있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그에게 이르되, "좋은 친구여, 저쪽 마을이 어디냐?" 하니, 그 농노가 대답하여 이르되, "경이시여, 그곳은 습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습지의 마을이라 불리나이다. 그리고 그 성채는 같은 이유로 습지의 성채라 불리나이다."

〈각주: 랜슬롯 경이 하인 한 사람과 이야기함〉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곳은 무슨 곳인가? 좋은 곳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화살잡이가 이르되, "경이시여, 그곳은 본래 매우 좋고 행복한 곳이었나이다. 옛적에 그곳에 거하던 한 영주가 있었으니, 그는 공정하고 고결하며 백성 모두에게 자비로웠으므로 모든 백성에게 사랑받았었나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두 명의 사나운 거인들이 웨일스 산맥에서 나타나 성으로 들어와 기만으로써 성주를 포로로 사로잡았나이다. 그 거인들은 성주를 지하실에 가두어 인질로 삼고 있나이다. 그들은 성주의 친구들이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군대를 보내면 성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나이다. 그 외의 구원은 없나이다. 그들의 거대한 체격과 힘, 그리고 끔찍하고도 흉측한 얼굴을 보아 감히 그들과 맞설 기사가 없기 때문이니이다."

"글쎄,"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것은 슬픈 일이로다. 나는 그 고귀한 영주를 위하여 슬퍼하노라. 이제 다른 단신 기사 중 이 모험을 맡을 자가 없으니, 내가 직접 가서 이 거인들과 맞서리라."

"아니오, 기사 각하," 전령이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그들은 필멸의 인간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괴수들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목격하는 자는 모두 그들을 두려워하느니라."

"내 일을 걱정해 주어서 고맙도다, 좋은 친구여,"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내가 위험하다고 하여 모험을 거절한다면, 나는 결코 어떤 모험도 감행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니라."

이에 그가 그 농부를 향해 좋은 저녁을 빌며 길을 떠났고, 그의 행로는 한가로운 길목에 있는 그 마을을 향해 향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육지에서 섬으로 이어진 긴 다리에 다다랐노라. 그가 바라보니 다리의 끝에는 성문의 문이 서 있었고, 그 아치 너머로 성 안의 거리가 보였으며, 양편으로 늘어서 있는 집들과 오가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선명히 드러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감〉 그가 다리를 건너 나아가니, 그의 행차에 나는 소리에(그의 말이 다리의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우레처럼 들렸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 누가 그토록 대담하게 그들의 마을로 들어오는지를 보려 하였다.

랜슬롯 경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들은 높은 곳에서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외쳤노라. "돌아가소서, 기사여! 돌아가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이곳에서 당신의 죽음을 만나게 되리이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길에서 매우 굳건히 나아가니라.

이제 그 다리의 끝부분에 가까운 곳에 작은 돌집이 하나 서 있었다. 이 돌집은 다리의 감시자가 악천후로부터 피신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었다. 랜슬롯 경이 이 돌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돌집에서 갑자기 거대한 농부가 튀어나왔다. 그는 키가 일곱 피트 이상으로 키가 크고, 손에는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몽둥이 끝에는 철로 된 큰 못들이 박혀 있었다. 이 농부는 랜슬롯 경에게 달려가 그의 말의 고삐를 잡더니, 말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기사여,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랜슬롯 경이 말했다. "내 말의 고삐를 놓으라, 농부여." 이에 농부가 대답했다. "나는 너의 말의 고삐를 놓지 않겠노라. 그리고 너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거친 농부를 베어 죽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크게 노하여 검을 빼 들고, 그 칼날의 평평한 면으로 농부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리하여 농부는 곧장 고삐를 떨어뜨렸노라. 이에 그 농부는 물러서서 두 손으로 큰 철두를 든 채 랜슬롯 경을 향해 내리찍으니, 그 힘은 방아돌을 둘로 쪼갤 듯하였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검으로 그 타격을 막아내어 자신에게는 아무 해를 입히지 않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로 인해 랜슬롯 경은 더욱 격분하여 이를 갈며 노여움을 삼켰고, 안

장에 몸을 일으켜 그 농부를 향하여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니, 그 힘은 철모와 머리와 가슴을 뚫고 유방까지 이르렀노라.

〈각주: 백성들이 랜슬롯 경을 경고함〉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 끔찍한 일격을 보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외쳤노라. "돌아가라, 기사여! 돌아가라! 네가 행한 이 일은 네게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니라!" 하고 어떤 이들은 외쳤노라. "너는 다리의 수호자이던 거인을 죽였도다!" 또 다른 이들은 외쳤노라. "너는 이제 죽은 자니, 이 곳을 서둘러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나 랜슬롯 경은 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검을 닦아 다시 칼집에 꽂았노라. 그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다리를 건너 앞쪽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하였노라.

그리하여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그는 곧장 성으로 달려가 성문 안으로, 그리고 그 안의 마당으로 들어섰노라.

이때 성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나와 아래를 내려다보며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더라. 랜슬롯 경은 말에 앉은 채 사방을 두루 살피더니, 마당 너머로 매우 평평하고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전투에 적합한 곳임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말에서 내려 벽에 달린 고리에 말줄을 묶고, 그 푸른 들판으로 나아가 장차 닥칠 일을 대비해 몸을 가다듬었더라.

그때 성의 창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외치더라. "떠나라, 기사여! 도망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나 다름없으리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곳에 서서 매우 굳건히 기다렸더라. 이때 성채의 큰 문이 열리며,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두 거인이 그곳에서 나타나니라.

〈각주: 두 거인이 랜슬롯 경을 공격함〉 진실로 랜슬롯 경은 그와 같은 끔찍한 존재를 본 적이 없었으니, 그들은 열 피트가 훨씬 넘게 키가 크고 몸은 매우 거대하며 사지는 길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소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철 고리를 달았으며, 각각은 거대하고 두꺼운 곤봉을 무기로 들고 있었는데, 그 곤봉은 철로 감싸고 못처럼 뾰족한 철 못으로 장식되어 있더라. 이들이 랜슬롯 경을 향해 다가오며 곤봉을 휘두르고 매우 음흉하게 웃으며, 길고 하얀 이를 갈았으니, 그들은 그를 쉽게 무찌를 줄 알았기 때문이라.

[각주: 랜슬롯 경이 첫 번째 거인을 죽임] 이때 랜슬롯 경이 그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방패를 앞세우며 태연한 자세로 그 공격에 대비하더라. 그러자 거인들이 갑자기 그를 향해 돌진하여 둘이 함께 그를 내리치니, 이는 한 방이 빗나가면 다른 한 방이 적을 죽일 것이니, 적에게서 두 공격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놀라운 기교로 한 거인의 공격은 검으로, 다른 거인의 공격은 방패로 막았노라.

이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는 왼쪽에 있던 거인을 향해 돌아서서 그 어깨에 무서운 일격을 가하니, 그 힘으로 갑옷을 뚫고 어깨를 베어 몸통 절반까지 깊숙이 들어갔노라. 그러자 거인의 머리와 한쪽 팔은 한쪽으로, 다른 한쪽 팔과 어깨는 다른 쪽으로 찢겨 나갔더라. 그와 함께 거인은 땅에 쓰러져 비명처럼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니, 듣기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었노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죽었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두 번째 거인을 죽임〉

이제 그 거인의 동료가 그 무서운, 그리고 끔찍한 일격을 보았을 때,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잠시 동안 떨며 넋이 나간 자처럼 서 있더라. 그러나 그가 랜슬롯 경이 자신에게도 달려들 준비를 하는 것을 보자, 그는 그의 곤봉을 떨어뜨리고 크고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노라.

그와 함께 그는 성채 쪽으로 달렸고, 그 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성채 안의 자들은 그에게 대문과 성문을 닫아놓았으므로, 그는 그 길로 도망칠 수 없었노라. 그러므로 그 거인은 추격자로부터 벗어나려 하며 큰 비명을 지르며 안뜰을 빙빙 돌았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그를 뒤쫓았노라.

랜슬롯 경이 그의 칼로 그를 여러 번 치매, 마침내 공포와 고통, 그리고 피로로 인해 그 거인은 넘어져 땅에 쓰러졌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칼을 두 손으로 쥐고 그의 머리를 베어냈노라. 그 머리는 공처럼 땅을 굴러갔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는데, 이는 그가 거인을 매우 격렬하게 쫓았기 때문이요, 다시 숨을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노라. 그가 그렇게 서 있을 때, 성채 안의 많은 자들과 마을의 많은 자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와서, 그를 둘러싸고, 그가 그곳에서 거인들을 없애 준 데 대해 그에게 큰 찬사를 보내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주군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경이시여, 그는 이 성채 아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벽에 사슬로 묶여 있나이다. 그가 거기 갇힌 지는 삼 년이 넘었사오나, 경이시여, 경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 감히 그분께 구원을 베풀려 한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가서 그를 찾아내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를 자유롭게 하고 서두르라. 그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한 처지를 마련하라."

〈각주: 랜슬롯 경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떠난다〉 그들이 이르되, "경하옵소서, 그분을 뵙고 경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받으시지 않겠나이까?" 그러나 랜슬롯 경이 대답하시되, "아니오, 그렇지 않소." 다시 그들이 이르되, "이 전투를 치른 뒤에 무엇이라도 좀 드시겠나이까?"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그런 요기가 필요치 않소." 그들이 다시 이르되, "그렇다면 잠시나마 쉬어 가시겠나이까?" "아니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머물 수 없노라. 나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없노라."

이에 그는 성벽의 고리에 묶여 있던 말을 풀고, 그 위에 올라타 그 성채와 그 마을을 떠나, 그가 왔던 다리를 건너 멀리 달아났다. 온 백성이 그를 뒤따라가며 큰 환호성을 보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성채를 떠났노라. 이는 그가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한 자들의 감사와 찬사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비록 그가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였으나, 그들의 감사와 칭송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그가 그 성채의 영주를 거인 무리에게서 해방시킨 후, 그는 그 일로 만족하여 쉬지도 않고 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 길을 갔더라.

실로 그 시절의 고결하고 용감한 기사들이 그러하였으니, 그들은 인류를 위해 현저한 공을 세우기는 하나, 그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이 얻은 것보다 기사도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극치의 만족을 찾았더라. 이는 그들이 모든 보상을 자신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이니, 곧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주인이신 왕의 영광을 한층 더 빛나게 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자는 누구든 랜슬롯 경이나 트리스트람 경, 라모라크 경, 퍼시벌 경, 나아가 갤러해드 경 자신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믿노라. 신이 빚으신 참된 기사가 되기 위해 성스러운 안수식이나 정결의 목욕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이 고귀한 기사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유한한 왕이 칼을 어깨에 얹는 의식이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합당함을 증명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바라고 타인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봉사에서 호수의 랜슬롯 경을 본받아, 온갖 힘과 기운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로써 타인의 칭찬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는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훌륭한 기사가 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케이 경의 갑주를 입는 랜슬롯 경]

제8장

랜슬롯 경이 위태로운 고개를 지나던 케이 경을 구한 일. 또한 그가 케이 경과 갑옷을 바꾸어 입은 일과 그 뒤에 일어난 일

어느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랜슬롯 경이 아름다운 저택에 이르러 밤을 지낼 곳을 청하니,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이하여 숙소로 삼게 하더라.

〈각주: 노부인이 랜슬롯 경을 따뜻하게 맞이하다〉

그 영지의 주군은 없었으나, 매우 훌륭한 교양과 매너를 갖춘 한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랜슬롯 경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하여, 자신이 가진 대로 성심을 다해 환대를 베풀었다. 그녀가 그 앞에 내놓은 것은

매우 훌륭한 저녁 식사로, 뜨겁고 향기로운 요리들이었으며, 이를 마시기 위해 거대한 잔에 담긴 꿀술을 내밀었다.

랜슬롯 경이 식사를 하는 동안, 노부인은 그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자신이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고 답하였다.

"호!" 그녀가 이르되,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듣노라. 그러나 매우 좋은 이름이로다."

이때 랜슬롯 경이 웃으며 이르되, "내 이름이 너의 마음에 들다니 기쁘구나. 내가 아직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들, 괜찮으니라. 나는 아직 젊은 기사로서, 아직 기사로 봉직한 지 단 삼 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이노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이름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지리라 믿노라."

"네 말이 옳도다," 그녀가 이르되, "너는 아직 매우 어리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느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금 웃으며 말하되, "그대는 참으로 옳게 말하였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 그 여주인은 그를 위해 마련해 둔 숙소로 안내하였노라. 그 숙소는 안뜰의 성문 위에 있는 아담한 다락방이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침상으로 가서, 여행의 피로로 지친 나머지 곧 깊은 평온의 잠에 빠졌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잠에서 깨어나다〉

그때 밤의 한복판에 문득 성문 두드리는 소리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 그리고 즉각적인 출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노라. 이 소리에 랜슬롯 경이 잠에서 깨어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이토록 소란을 피우는지 살펴보았더라.

그때 달빛이 매우 밝고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 속에서 랜슬롯 경은 성문 밖에 말에 탄 채 전신 갑주를 두른 한 기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 기사는 검의 손잡이로 성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소리쳤더라.

그러나 누군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달려가기도 전에, 높은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장대하게 울려 퍼지더니, 곧이어 세 명의 기사가 맹렬히 그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 세 기사는 분명히 한 기사의 뒤를 쫓고 있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그 한 기사를 발견하고는 맹렬히 달려가 그를 에워싸고 세 사람이 동시에 그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한 기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방어하였으나, 그의 형편은 매우 비참하여 결국 압도당할 것이 분명하였으니, 세 기사가 성문 근처에서 그를 너무 가까이 에워싸고 있어 그가 그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기에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때 랜슬롯 경은 세 기사가 한 기사를 공격하는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되, “저 기사는 분명히 매우 곤경에 처하였도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리라. 이는 세 기사가 한 기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만약 그

가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그의 죽음에 일조한 자가 될 것이로다."

〈각주: 랜슬롯 경이 공격받은 기사의 구원을 위해 달려감〉

이와 함께 그는 달려가 갑옷을 입고 전투를 준비하더라. 그 다음 그는 그의 침대 시트를 벗겨내어 창문의 창틀에 매달아, 그 시트를 타고 땅으로 빠르게 내려가 그 기사들이 격투를 벌이고 있던 곳 근처에 도착하더라. 이리하여 안전하게 도착한 그는 매우 큰 소리로 외쳤노라.

"귀하들, 너희가 공격하는 그 기사를 놓으라. 그리고 나를 향하라. 내가 너희와 직접 싸우려 함이니라."

그때 그 기사들 중 한 사람이 매우 격렬한 어조로 이르되, "너는 누구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러나 너희 세 명이 먼저 나와 맞서지 않고 저 한 명을 공격하게 하지는 않겠노라."

"좋도다," 그 말을 건 기사가 이르되 "너는 곧 그 일을 네 뜻대로 이루리라."

그리하여 그와 그의 동료들은 곧장 말에서 내려 검을 빼들고, 세 방면에서 동시에 랜슬롯 경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랜슬롯 경은 등을 성문에 기댔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보호하려던 그 기사가 즉시 말에서 내려 랜슬롯 경을 돕기 위해 달려들려 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매우 격렬하게 그를 만류하며 이르되, “멈추시오, 기사여. 이는 나의 분투이니, 당신은 간여하지 말게.”

[각주: 랜슬롯 경이 세 명의 기사들과 결투하다] 이에 그 세 명의 기사들이 매우 격렬하게 그에게 돌진하매, 그들은 모두 동시에 그를 향해 내리치며,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들의 온갖 기력을 다해 그를 때렸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그들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많은 고난을 겪었노라.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가 동시에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계책을 썼고, 곧이어 그들 중 한 명을 상대할 기회를 포착하였노라. 이에 그는 갑자기 그 한 명을 향해 몸을 돌렸고, 순간적으로 그가 가한 치명적인 일격은 그 기사가 쓰러져 마치 그 힘에 맞아 죽은 자처럼 누워 있게 하였노라.

그 두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는 또 다른 한 명을 향해 달려가 거세게 한 방을 날렸노라. 그의 정신은 혼미해졌고, 그는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원형을 그리며 달렸노라.

그때 그는 세 번째 상대를 향해 돌진하여 큰 힘으로 그를 밀어냈노라. 그가 물러서자, 랜슬롯 경도 그의 동료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 기사도 즉시 검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일어나려 할 힘을 잃고 말았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달려가 그의 투구를 벗겨내고, 머리를 붙잡고 목을 베려 하였으나, 쓰러진 기사가 랜슬롯 경의 무릎을 안으며 소리쳐 부르짖었노라.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어찌하여 너를 살려주어야 하겠느냐?” 랜슬롯 경이 물으시니라. “경,” 그 기사가 외치며 간구하되, “경의 기사도 정신을 빌려 살려주옵소서.”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려 하는 자에게, 어찌 기사의 영예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이때 다른 한 기사는 랜슬롯 경의 일격에 쓰러졌으나,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랜슬롯 경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경이여, 그 목숨을 아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제 당신께 항복하오니, 진실로 당신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랜슬롯 경의 노여움이 가라앉았으나, 그는 이르되, “아니오, 내가 당신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나이다. 당신 세 명이 이 외로운 기사를 공격하였으니, 당신 세 명 모두 그에게 항복할지니라.”

“영주여,” 무릎을 꿇은 기사가 이르되, “나는 그 기사에게 항복하기를 몹시 꺼노라. 우리가 그를 이곳까지 쫓아왔고, 그는 우리에게서 도망쳤노라. 만일 당신이 그를 돕기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를 정복하였으리라.”

“그렇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아니하노라. 다만 네가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할 뿐이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나는 부득이하게 네 동무들과 너희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노라. 그러므로 네가 선택할지니라."

〈각주: 세 명의 기사는 한 명의 기사에게 양보해야 하리라〉 이때 무릎을 꿇은 그 기사가 이르되, "경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경의 뜻대로 항복하는 것뿐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께서 우리로부터 구원하신 그 기사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나이다."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일로 도움을 받은 그 기사에게로 돌아서서 이르되, "기사여, 이 기사들이 당신께 항복하였사오니 당신의 명을 따르리이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은혜로써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오."

"경," 그 기사가 이르되, "나는 원탁의 기사 중 시네샬인 케이 경이며, 아서왕의 양형(養兄)이라. 지금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을 찾아 방황하던 중이로다. 이제 나는 경이 호수의 랜슬롯 경이거나, 적어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사라 믿노라."

"그대가 옳도다, 케이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나야말로 호수의 랜슬롯이로다." 이에 두 사람은 서로를 크게 기뻐하며, 전우로서 마땅히 하듯 서로를 안아 포옹하더라.

그때 케이 경은 랜슬롯 경에게, 자신을 습격한 세 기사가 누구인지 말하였다. 그들은 세 형제였으며, 그는 한때 무예의 모험에서 넷째 형제를 쓰러뜨려 크게 다치게 했노라. 그러므로 그 세 형제는 사흘 동안 그를 쫓아, 해를 끼치려 했노라.

〈각주: 케이 경, 세 기사의 항복을 받다〉 이때 케이 경은 세 기사의 항복을 받기를 몹시 꺼렸으나, 랜슬롯 경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길은 허용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하여 케이 경은 랜슬롯 경의 뜻대로 하기로 승낙하였더라. 이에 세 기사가 나아와 케이 경에게 자기를 항복하니, 케이 경은 그들을 캐멀롯으로 보내어 아서왕 앞에 그들의 사정을 아뢰게 하고, 아서왕이 옳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그 사건을 판결하게 하라 명하였노라.

그때 세 명의 기사들이 말에 올라타서 달아났고, 그들이 떠나자 저택의 문이 열리며 랜슬롯 경과 케이 경이 안으로 들어왔노라. 그러나 그들의 주인이었던 노부인이 랜슬롯 경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몹시 놀랐노라. 그녀는 그가 아직 침실의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경이여, 내가 보기에 경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던 것 같소.”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사옵니다. 내가 실제로 잠들고 있었사오나, 내가 이 기사가 세 명의 기사들과 맞서 목숨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사오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를 도우러 갔나이다.” 노부인이 이르되, “좋소이다. 경이 이토록 젊으면서도 이만한 용기를 지녔사오니, 언젠가 매우 훌륭한 기사가 될 것이오.” 이에 랜슬롯 경과 케이 경은 크게 웃었노라.

이에 성주부인은 케이 경 앞에 빵과 포도주를 차려 내었으니, 그가 먹고 몸과 마음을 달래고 난 뒤, 케이 경과 랜슬롯 경은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거기에 누웠더라. 두 사람은 몸이 매우 편하여 곧 깊은 잠에 빠졌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케이 경의 갑옷을 입다〉

해가 뜨기 전, 랜슬롯 경이 깨어났으나 케이 경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에 랜슬롯 경은 케이 경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장난을 부릴 마음을 먹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이 경의 갑옷을 모두 입고, 케이 경의 방패와 창을 가져와, 대신 자신의 갑옷과 방패, 창을 케이 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매우 조용히 그 방을 떠나 케이 경을 여전히 잠든 채로 남겨두었고, 케이 경의 말을 잡아 타서 떠나갔노라. 이 모든 동안 케이 경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노라.

잠시 후, 케이 경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랜슬롯 경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주위를 두루 살펴보매, 자신의 갑옷은 사라지고 대신 랜슬롯 경의 갑옷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그는 랜슬롯 경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간파하고 이르되, “아! 이 신사는 어찌 그리 고결하고 예의 바른 기사인가. 그는 나를 보호하고자 자신의 갑옷을 내게 남겨두었도다. 내가 그의 갑옷을 입고 그의 방패를 들며 그의 말을 타고 나아가면,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을 리 없느니라. 만약 그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전투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 믿기 어렵도다.”

이러자 그는 일어나서 랜슬롯 경의 갑옷을 입었으며,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주인부인에게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마음속으로 큰 기쁨을 안고 그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는 케이 경이 말한 바와 같았으니, 그가 길에서 다른 기사들을 만나 그 방패에 새겨진 형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이르되 “그 기사와 다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니라, 이는 랜슬롯 경이시니라” 하고 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아무 사람과도 싸울 일 없이 캐멀롯에 도착하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캐멀롯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랜슬롯 경은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되, 세상의 어떠한 근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화창한 날씨를 맞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나 그가 향하던 길은 언제나 캐멀롯을 향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는 잠시 캐멀롯으로 돌아가 왕의 궁정에 있는 친구들의 형편을 살펴볼지니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각주: 랜슬롯 경, 잔치에 임한 세 기사를 보다〉

그리하여 그는 곧장 캐멀롯 주변의 땅으로 들어갔으니, 그 땅은 매우 평탄하고 비옥하여 아름다운 강들과 초원, 그리고 많은 오두막과 작은 마을로 가득했고,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들은 여행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더라.

그가 이 곳을 지나가던 중, 강가 여기저기에 나무 숲이 서 있는 매우 넓은 초원에 다다랐노라. 그가 초원을 가로질러 갈 때, 앞에 긴 다리가 있음을 보았고, 다리의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비단 천막 세 개가 서 있더라. 이 천막들은 너도밤나무 숲의 그늘 아래에 설치된 것이었노라. 각 천막 앞에는 땅에 꽂힌 큰 창이 서 있었고, 그 창에는 해

당 천막의 주인인 기사의 방패가 걸려 있더라. 이 방패들을 랜슬롯 경은 매우 쉽게 읽어내어, 그곳에 있는 기사들의 신분을 알 수 있더라. 곧 그들이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세 형제, 곧 건터 경, 길메어 경, 레이너드 경임을 알았노라.

랜슬롯 경이 그들의 천막을 지나갈 때, 세 기사가 가장 중앙에 있는 천막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많은 시종들과 소년이 그들을 모시며 봉사하고 있더라. 이는 그 기사들이 매우 높은 신분이었으며, 높은 영주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각주: 세 명의 기사가 랜슬롯 경에게 자신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라고 청함] [각주: 랜슬롯 경은 건터 경을 쓰러뜨림]

그 기사들이 랜슬롯 경을 보고는 그가 입고 있던 갑옷 때문에 그가 케이 경인 줄 알았더라. 세 형제 중 장남인 건터 경이 크게 소리쳐 외쳤노라. "여기 오라, 케이 경. 우리와 함께 먹으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나아갔노라. 이때 건터 경이 이르되, "오늘 아침 케이 경이 매우 교만해진 것 같구나. 이제 내가 그를 데려오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교만을 땅에 떨어뜨리리라."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투구를 쓰고, 달려가 방패와 창을 챙기며, 말에 올라타 랜슬롯 경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쫓아갔노라.

그가 랜슬롯 경에 가까워지자 크게 외쳤노라. "멈추라, 기사여! 돌아서서 나와 함께 가라!" "내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랜슬롯 경이 물었노라. 건터 경이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돌아가거나, 아

니면 나와 무기를 겨뤄야 하느니라." "좋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억지로 돌아가는 것보다 싸움을 선택하오."

이때 건터 경은 놀랐노라. 케이 경은 평소 이처럼 싸움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었노라. 그러자 랜슬롯 경은 방패와 창을 갖추고 자세를 취하며 섰고, 건터 경도 이에 맞서 섰노라. 두 사람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각기 말에 채찍을 가하며 무서운 속도로 서로에게 돌진하였노라.

두 기사 모두 상대방의 방패 한가운데를 가격하였으나, 랜슬롯 경의 돌진은 너무도 위력적이어서 견딜 수 없었노라. 그 결과 건터 경과 그의 말은 먼지 구름 속에 쓰러졌으니, 그 먼지가 걷힐 때까지 그들을 볼 수 없었노라.

이때 레이놀드 경과 길메어 경은 심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건터 경이 케이 경보다 훨씬 뛰어난 기사로 여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케이 경이 어찌하여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쓰러뜨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더라.

이때 그 형제들 중 둘째인 길미어 경이 즉시 랜슬롯 경을 향해 소리쳤다. "잠시 기다리시오. 결투를 벌입시다."

"좋소,"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만약 당신을 피할 수 없다면 결투할 수밖에 없소. 다만 서둘러 주시오. 나는 어서 길을 떠나고자 하오."

이에 길미어 경은 재촉하여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챙긴 뒤 말에 올랐다. 모든 준비를 갖추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랜슬롯 경을 향해 돌진하였고, 랜슬롯 경 또한 그에게 맞서 돌격하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길미어 경을 쓰러뜨리다〉 그 격투에서 각기 기사들은 서로의 방패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길미어 경의 창은 조각조각 부서졌으나, 랜슬롯 경의 창은 견고히 버텼다. 그러므로 길미어 경의 안장 가슴끈이 끊어지자, 안장도 기사도 말에서 완전히 떨어져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길미어 경은 완전히 기절하여 그곳에 누워 있었다.

〈각주: 랜슬롯 경이 레이놀드 경에게서 승리를 거두다〉

그때 레이놀드 경이 다른 자들처럼 앞장서서 랜슬롯 경을 향하여 달려들었노라. 그 격투에서 랜슬롯 경은 말과 기수를 함께 쓰러뜨렸으니, 레이놀드 경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쳤을 것이 분명하더라.

그때 레이놀드 경이 검을 뽑아 큰 소리로 외쳤노라. "오라, 기사여! 발로 서서 내게 싸움을 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시려 하느냐, 기사여? 내가 칼을 들고 너와 싸울 만한 원한은 없노라." 레이놀드 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소. 너는 나와 싸워야 하오. 비록 네가 케이 경의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아노니 너는 케이 경이 아니오. 오히려 케이 경이 결코 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사나이요."

"아니로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겠노라." 이에 그는 말의 고삐를 당겨 돌아서고, 분노한 채 대로 한 복판에 서 있는 레이놀드 경을 뒤로한 채 달아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네 명의 고귀한 기사들을 만남〉 그 후 랜슬롯 경은 별다른 생각 없이, 어디로 향하는지 깊이 고민하지도 않은 채 고요한 걸음걸이로 말을 몰았다. 그러던 중 어느덧 그는 한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었으며, 대로 양쪽에는 두 줄의 키 큰 포플러 나무가 늘어섰다.

그때 랜슬롯 경은 이 포플러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네 명의 기사가 각기 자신의 말 곁에 서서 매우 즐거운 듯 담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랜슬롯 경이 가까이에 다가서자, 그는 이들이 원탁의 기사 중 매우 유명하고 고귀한 네 명의 기사임을 깨달았다. 곧 그들 중 한 명은 그의 형제인 에커 드 마리스 경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가웨인 경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유웨인 경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그모어 르 데지루스 경이었다.

이때 랜슬롯 경이 가까이에 다다르자 가웨인이 이르되, “보라, 저편에서 시종장 케이 경이 오노라.” 하니 사그모어 르 데지루스 경이 이르되, “그가 맞노라. 잠시 여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가서 그를 넘어뜨리리라.”

그리하여 그는 곧장 말에 올라타서 랜슬롯 경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노라. "멈추시오, 기사여. 당신과 한판 붙기 전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소."

"무엇을 원하시오?" 랜슬롯 경이 물었노라.

"경," 사그모어 경이 대답하되, "저는 경과 한판 붙고자 하오."

"좋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다른 길이 없으니 경의 뜻을 기쁘게 받들겠소."

〈각주: 랜슬롯 경이 사그모어 경을 무찌르다〉 이에 그들 각자는 방패와 창을 갖추었으니, 사그모어 경이 방패와 창을 차리고 랜슬롯 경도 또한 방패와 창을 차니라.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두 기사는 온 힘을 다해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 격돌에서 사그모어 경의 창은 부러졌으나, 랜슬롯 경은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말과 사람 모두를 근처에 있던 물웅덩이로 쓰러뜨렸더라.

그때 에커 드 마리스 경이 이르되, “하, 실로 큰 불운이 사그모어 경에게 닥친 듯하도다. 케이 경에게서 패배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와 상대하러 가리라. 만일 이 일이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에 대한 조롱이 끊이지 않아 궁정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말을 타고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을 몰았다. 그가 랜슬롯 경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외쳤다. "가자, 케이 경!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

"내가 너와 싸워야 하느냐?" 랜슬롯 경이 물었다.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노라."

"상관없소." 에커 경이 말했다. "내가 너를 상대하기 전에는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소."

"좋소." 랜슬롯 경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이 더 빠를수록, 나는 더 빨리 내 길을 떠날 수 있겠소."

〈각주: 랜슬롯 경이 에커 경을 쓰러뜨리다〉

이와 함께 각기 기사들은 자신을 준비하매, 그들이 모든 방면으로 준비되기에 이르러 서로 마주쳤다. 그들의 충돌은 격렬하여, 랜슬롯 경의 창이 에커 경의 방패를 뚫고 그의 어깨를 쳤으니, 에커 경은 그 충격으로 땅에 쓰러져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 움직일 힘을 잃었더라.

그때 에웨인 경이 가웨인과 함께 서 있던 자리에서 이르되, "내가 본 바 중 가장 놀라운 일이로다. 내가 케이 경이 저와 같이 전투에서 자신을 나타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노라.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그와 한번 시합을 해 보리라."

이렇게 말한 뒤 에웨인 경은 말에 올라타 랜슬롯 경을 향해 돌진하였으니, 이번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아니하고 두 기사 모두 즉시 싸울 자세를 갖추었더라. 그들이 서로의 말을 부딪히자 랜슬롯 경이 에웨인 경에게 가한 타격은 놀라울 정도였는지라,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창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방패는 너무 낮게 내려져 있어 만약 랜슬롯 경이 죽이려 했다면 그 자리에 서 있던 에웨인 경을 쉽게 죽일 수 있었으리라.

〈각주: 에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항복함〉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기사여, 내게 항복하라." 하니 에웨인 경이 이르되, "저는 항복하오이다. 당신이 케이 경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자라 믿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저는 항복하오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것은 좋구나. 이제 그대여, 그대 옆에 서서 다른 두 기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하라. 내가 가웨인 경이 나와 재주를 겨루려 함을 보았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패하다〉

그리고 랜슬롯 경이 말한 바와 같으니라. 가웨인 경 또한 말에 올라타 그 대결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두 기사는 각기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하여 마주 섰더라.

그리하여 각기 기사가 말에 박차를 가하며 천둥처럼 서로에게 돌진하매, 두 기사는 각각 상대방의 방패 한가운데를 가격하였더라. 그 격돌에서 가웨인 경의 창은 둘로 부러졌으나, 랜슬롯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으로 가웨인 경에게 맹렬한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 타격에 가웨인 경의 말은 공중으로 솟구쳤고, 말이 뒤로 넘어지기 전에 간신히 안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만약 그가 땅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말은 그 위에 쓰러져 그를 짓이겼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가웨인 경이 검을 뽑아 매우 격렬하게 외쳤노라. "내려와서 나를 상대하라, 기사여! 너는 케이 경이 아니니라!"

"아니로다,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와 싸우지는 않겠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대로 길을 이어가니라.

그러나 그는 말을 타고 가며 투구 뒤에서 스스로 웃으며 중얼거렸노라.

"하나님이시여, 이 창을 얻은 케이 경에게 기쁨을 주소서. 나의 손에 이보다 더 훌륭한 창이 들어온 적이 없었노라. 내가 이 창으로써 이 한 시간 동안 일곱 명의 유명한 기사들을 쓰러뜨렸노라."

원탁의 네 기사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로하였다. 다만 에커 경만이 이르되, "우리를 이같이 섬긴 자는 결코 케이 경이 아니었노라. 오히려 그런 자는 케이 경 열 명을 합친 것보다 낫고, 설령 스무 명을 합친다 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느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캐멀롯으로 돌아오다〉 이때에 저녁때가 되어 랜슬롯 경이 캐멀롯에 이르렀노라. 그 때에 아서왕과 그 신하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있더라. 랜슬롯의 도착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기쁨이 넘쳤고, 그들은 그를 궁정으로 들여 왕과 구이니비어 부인 곁에 앉혔노라. 그는 여전히 무장한 차림 그대로였더라.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랜슬롯 경, 그대는 어떠하뇨?" 하시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무사합니다," 하더라.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니, 랜슬롯 경이 궁정을 떠난 후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노라.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케이 경의 갑옷을 입고 일곱 명의 기사들을 만나게 된 일을 말하자, 그곳에 있던 일곱 명을 제외한 모두는 한없이 웃어 대었다. 그러나 일곱 명은 그와 같이 조롱받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 * * * *

이제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에 대해 충분히 알렸으리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였노라. 내가 아서왕의 손에 의해 그가 기사로 서임된 일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방랑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험했는지, 그가 얼마나 고결하고 관대한 신사였으며,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자비로우셨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너희 스스로 보게 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잠시 그를 떠나야 하리라.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질 다른 책에서, 나는 그에게 다시 돌아와 그의 다른 모험들에 관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리라.) 그 동안 나는 다른 한 기사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하노라. 그는 많은 이들에 의해 호수의 랜슬롯 경과 거의 동급으로 뛰어난 기사로 여겨졌노라.

맺음말

이곳에 랜슬롯 경의 이야기가 끝나니라. 이어지는 것은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에 대한 이야기이니, 그는 랜슬롯 경과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처럼 깊이 사랑할 수 없으리만큼 끈끈한 우정의 사슬로 묶여 있었노라.

사실 호수의 랜슬롯 경에 관한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노라. 아름다운 직물의 무늬가 씨실과 함께 짜여지듯,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의 일생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제 리요네스의 기사 트리스트람의 아름다운 모험들을 들려주리라. 내가 이를 이야기하는 기쁨과 같이, 너희가 이를 읽으며 같은 즐거움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빕노라.

트리스트람 경의 책

[일러스트레이션: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서문

리요네스라 하는 한 왕국이 있더라. 그 나라의 왕은 멜리아두스라 불렸고, 왕비 엘리자베스 부인은 코른월의 마크 왕의 자매였더라.

리요네스 땅에 지극히 아름다운 한 부인이 있으니, 그녀는 교활하고 사악한 마법사라. 이 부인은 지극히 고귀한 용모를 지닌 멜리아두스 왕을 깊이 사랑하여, 그를 어떻게든 자신의 성으로 유인하여 곁에 두려 끊임없이 꾀를 꾸미더라.

〈각주: 멜리아두스 왕의 사냥〉

이때 멜리아두스 왕은 세상에서 손꼽히는 명사냥꾼이었고, 왕비인 엘리자베스 부인과 사랑에 빠진 기쁨 다음으로 사냥을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어느 날, 늦가을의 찬바람이 부는 날에 그는 사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노라. 비록 그 날은 매우 춥고 황량하였으나 그는 사냥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른 아침 무렵이었다. 사냥개들은 문득, 지극히 기이한 사슴 한 마리를 들이댔다. 그 사슴은 순백의 털을 지니고 있었고, 뿔은 찬란하게 금박을 입혀 순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생물은 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적이라도 된 듯 보였다.

이 사슴이 수풀을 가르고 나타나자, 사냥개들은 마치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힌 듯 거친 울음소리를 지르며 즉각 추격을 시작했다. 멜리아두스 왕이 이 생물을 목격했을 때, 그 역시 또한 즉각적으로 그것을 쫓고자 하는 거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 생물을 바라본 왕은 크게 외치며 말에 박차를 가했고, 그 속도는 너무도 빨라 잠시 후 그의 궁정 사람들은 모두 뒤로 남겨졌다. 왕과 사냥감은 숲속에서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다.

〈각주: 멜리아두스 왕이 사슴을 쫓다〉 사슴은 사냥개들이 발끝까지 바짝 따라붙은 채 숲의 고개를 지나며 맹렬히 달렸고, 멜리아두스 왕은 온 힘을 다해 이를 추격하더라. 마침내 사냥은 숲을 벗어나 숲 너머의 넓은 평야로 터져 나왔다. 이때 멜리아두스 왕은 평야 한가운데에 꽤 큰 호수가 있음을 보았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섬이 있으며, 그 섬 위에는 매우 높고 장엄한 성이 서 있음을 보았더라. 사슴은 그 성을 향해 큰 속력으로 달렸고, 호수에 다다르자 물에 뛰어들어 섬 쪽으로 헤엄쳤노라. 호수 양쪽 뭍가까이에는 얇고 맑은 얼음판이 깔려 있었더라.

사냥개들이 사슴을 쫓아 그 얼어붙은 물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추격을 멈추고 가장자리에서 흐느끼며 서 있더라. 얼음과 차가운 물이

그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멜리아두스 왕은 그러한 멈춤 없이, 곧장 말에서 내려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슴을 쫓아 물을 건넜노라. 그가 다른 편에 도착하자, 그는 사슴을 발로 쫓아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하되, 사슴은 성채로 달아나 그 안뜰로 들어갔고, 멜리아두스 왕이 그 뒤를 쫓았더라. 이때 그가 성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성문의 문이 닫혔고 멜리아두스 왕은 포로가 되었노라.

〈각주: 멜리아두스 왕은 마법에 걸린 성에서 포로가 되니라〉 이제 너희는 그 성이 앞서 말한 아름다운 마법사의 거처였음을 알지니라. 그녀가 아름다운 사슴을 보내어 멜리아두스 왕을 유혹하여 자신의 궁정으로 끌어냈으니, 이로써 왕은 그녀의 포로가 되니라. 또 하나 알려야 할 것은, 그녀가 왕을 성 안에 가두자 마법으로 그를 둘러싼 올가미처럼 얽매어, 왕이 엘리자베스 부인과 그의 궁정, 그리고 그의 왕국을 모두 잊게 하였노라. 왕은 오직 자신을 그처럼 속여 자신의 권력 아래로 끌어들인 그 아름다운 마법사만을 생각하였더라.

〈각주: 엘리자베스 부인의 극심한 슬픔〉 이제 왕과 함께 갔던 자들이 왕 없이 리요네스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왕이 그 날에도, 다음 날에도, 그리고 어느 때에도 돌아오지 않자, 엘리자베스 부인은 그를 걱정하며 점점 더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그리고 두 주가 지나도 왕에 대한 소식이 없자,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은 극에 달하여 정신을 잃었으므로, 그녀가 미친 듯이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경계와 감시를 서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그들은 그녀를 성채 안에 가두어 두었노라.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감시인들을 피하여 성채를 벗어나 숲속으로 달아났으니, 그녀를 모시던 이들이 그녀가 사라졌음을 알아차리기 전의 일이었노라. 오직 한 명의 귀한 처녀만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젊은 시종 하나를 불러 그녀를 뒤따르게 하였노라. 그 시종은 왕비가 어디로 향하는지 쫓아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 하였노라.

〈각주: 엘리자베스 부인이 숲으로 달아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부인은 숲 속 깊이로 달아났고, 그 여종과 소년도 그녀를 따라 달렸다. 여왕은 그녀가 숲 속에서 자신의 주군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달렸으나, 이내 달림으로 인한 피로에 기운이 빠져 땅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이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여왕이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고, 땅 위에는 고운 눈가루가 엷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추위는 엘리자베스 부인의 의복을 뚫고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얼려버렸다.

이때 그 부인은 여왕의 처지를 보시고는 소년을 불러 이르시되, "서둘러라! 리요네스의 성으로 돌아가서 성의 기사들을 모두 데리고 속히 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여왕은 이 곳에서 죽게 되리라." 이에 소년은 여왕의 명을 받들어 큰 속도로 달아나 그 뜻을 행하고, 여왕은 그 부인과 함께 홀로 남게 되니라.

그때 그 여종이 이르되 “부인, 어찌하신 고요?” 하니 왕후가 이르되 “슬프도다, 나는 죽을 병이 들었노라.” 여종이 이르되 “부인, 구원이 미치기까지 조금만 견디실 수 없으십니까?” 그제야 엘리자베스 부인은 지극히 불쌍히 여겨 울며 이르되 “아니오, 더 이상 견딜 수 없사옵니다. 찬 기운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사오니.” (사실 그 때 이미 그녀의 마음속 찬 기운으로 인해 죽음은 그녀를 덮고 있었노라.)

그리하여 왕후의 눈물과 심한 고통 한가운데서 마침내 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자 그녀의 마음 위에 뜻밖의 큰 평화가 내려앉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이 숲에서 태어난 일〉 이에 그녀는 깊은 피로에 잠긴 듯 유모에게 말하되, “내가 세상에 낳은 아이는 누구인가?” 유모가 대답하되, “그것은 남자아이니이다.” 왕비가 이르되, “그를 들어 내가 보게 하라.” 이에 유모가 아이를 들어 올렸으나, 왕비는 그를 거의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안개 같은 것이 그녀의 눈앞에 드리워져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라. 그 때 그녀는 죽음의 깊은 심연에서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비가 아이를 보고, 그가 매우 강건하고 활기 넘치며 지극히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보자, 이르되, “보라, 이는 나의 아이라. 그는 극심한 고통과 큰 슬픔의 한가운데서 태어났노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트리스트람’이라 불릴지니, 이는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 부인은 숨을 거두었으니, 시녀는 그 곁에 서서 통곡하며 그 차갑고 외로운 숲 속에서 큰 소리로 애곡하더라.

그때 성에서 왕비를 찾으라고 파견된 기사들이 곧장 달려왔더라.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러 보니, 부인은 대리석 석상처럼 차갑고 하얗게 땅 위에 누워 있더라. 이에 그들은 그녀를 들어 올리고 들것에 실어 데려갔고, 시녀는 큰 슬픔에 울부짖으며 뒤를 따랐으며, 아이를 망토에 감싸 안고 있었더라.

이와 같이 트리스트람이 태어나니,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 흘려진 눈물 때문에 지어졌더라.

이제 왕 메리아두스가 마법의 성채에서 구금되었던 곳에서 돌아온 일을 전하노라.

〈각주: 멜리아두스 왕이 감금에서 해방되다〉

이때 멀린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 있었으니, 이는 『아서왕의 책』에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비비안이 아직 그를 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멀린은 멜리아두스 왕이 어느 성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그 마법사의 성에서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간파하더라. 이에 그는 왕을 묶어두었던 마법보다 더 강대한 주문을 외웠고, 왕의 기억 속에 왕비와 그의 왕국을 다시금 되살려 주었노라.

그리하여 왕은 곧장 마법사의 성을 탈출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그가 찾은 것은 온통 슬픔과 비통뿐이었노라. 엘리자베스 부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멜리아두스

왕은 귀환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 잃은 사랑의 비통함에 완전히 짓눌려 지내니라.

이제 트리스트람의 이야기를 전하노라. 그는 어떻게 청춘을 보냈으며, 어떻게 마크 왕의 손으로 코른월의 기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제1부

트리스트람 경과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의 이야기

이곳에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 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함께 당대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두 기사의 한 사람으로 여겨졌더라.

또한 여기서는 구이니비어 왕비 다음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온화하신 부인으로 꼽히던 벨 이졸트 낭자의 이야기가 전하여지리라.

[일러스트레이션: 트리스트람이 모에야 부인을 구원하다]

제1장

리요네스의 새 여왕이 트리스트람의 목숨을 노리던 일, 그가 프랑스로 건너가던 일, 그리고 다시 리요네스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랑으로 맞이받던 일을 전하노라.

이에 멜리아두스 왕은 엘리자베스 부인을 잃고 칠 년 동안 심히 애통해하더라. 그 세월 동안 그는 삶에서 큰 낙을 얻지 못했고, 특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태어난 아들 트리스트람에 대한 애정도 더욱 시들해졌노라.

그때 어느 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한 신하가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폐하, 폐하께서 이같이 고독하게 배우자 없이 지내심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폐하께는 왕비가 필요하시며, 트리스트람 외에 또 다른 자손들이 있어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왕국의 운명이 오직 한 어린 아이의 생명 하나에 달려 있게 되겠사옵니다."

〈각주: 멜리아두스 왕이 모에야 부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다〉 그리하여 멜리아두스 왕은 이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잠시 후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바는 참되도다. 비록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어 떠난 그 사랑스러운 이를 대신하여 사랑할 수 없음을 알나니, 그럼에도 나는 다른 왕비를 맞이하리라.” 이에 잠시 후 그가 브리튼의 왕 하웰의 딸인 모에야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니라.

모에야 왕비는 이미 브리튼의 한 백작과 결혼하여 트리스트람과 나이가 비슷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이 아들을 데리고 리요네스로 왔고, 그 아들과 트리스트람은 매우 친한 벗이 되었더라.

그러나 모에야 부인은 트리스트람을 깊이 미워하니, 이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만일 이 트리스트람이 없었더라면, 내 아들이 이 땅의 왕이요 주군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히자, 얼마 후 그녀는 트리스트람을 제거하여 자신의 아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도록 할 방도를 꾀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트리스트람은 열세 살쯤 되었으나 그 몸은 매우 크고 건장하며, 신체의 힘과 얼굴의 아름다움은 남달랐다. 그러나 모에야 왕비의 아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었으니, 더 아름답고 고귀한 트리스트람일수록 왕비는 그를 더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날 왕후는 지극히 교활한 연금술사를 불러 이르되, “나에게 그런 종류의 음료를 하나 주시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리이다.” 연금술사는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어, 황금빛을 띠는 작은 병에 담긴 음료를 건네주었다.

〈각주: 모에야 부인이 트리스트람을 해치려 꾀하다〉

이때 트리스트람과 호수의 부인 모에야의 아들은 성의 한 뜰에서 공놀이를 즐기곤 하였나니, 그들이 그곳에서 놀이할 적에는 대개 격렬한 운동에 땀을 흘리며 열이 올랐더라. 모에야 부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날 그녀는 독이 든 작은 병을 꺼내어 그 일부를 잔에 붓고, 맑은 물을 가득 채운 뒤, 두 소년이 공놀이를 하던 벤치 위에 그 잔을 올려놓았노라.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노라. "저들이 놀이로 인해 열이 오르면, 트리스트람은 목을 축이기 위해 반드시 이 물을 마실 것이요. 그리하면 내 아들이 내 유산을 물려받을 날이 가까우리라."

〈각주: 왕비의 아들이 독을 마시다〉

이렇게 두 청년은 그들의 게임에서 매우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은 극도로 더워졌으며 곧 둘 다 매우 심하게 목이 말랐다. 그때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내가 마실 것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의 의형제가 이르되, “보라, 저기에 물 잔이 있도다. 마시라! 그리고 네 목을 축이고 나면 그때 내가 마시리라.” 하지만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아니오, 형제여, 당신이 먼저 마시소서, 당신은 나보다 더 목이 말랐으니까.” 그때 처음에 모에야 부인의 아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트리스트람이 마시기를 원했으나, 나중에 그는 트리스트람이 명한 대로 행했고, 두 손으로 잔을 들고 자신의 어머니가 준비한 그 독을 자유롭게 마셨다. 그때 그가 충분히 마신 후, 트리스트람이 잔을 들고 마시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르되, “잠시 기다리시오, 트리스트람, 그 잔에는 매우 쓴 맛이 있도다,” 그리고 그는 이르되, “내 내장이 매우 쓰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소,” 그리고 그는 외치되, “불쌍한 나! 나는 큰 고통에 빠져 있도다!” 이와 함께 그는 땅에 쓰러져 큰 고통의 발작 속에서 누워 있었다. 그때 트리스트람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움을 부르짖었으나, 도움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으니, 모에야 부인의 아들은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모에야 부인은 영혼의 극심한 고뇌에 시달리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었노라. 멜리아두스 왕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으나 그 또한 쉽지 않았더라. 이후 그녀가 트리스트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증오하게 된 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만일 이 트리스트람이 없었다면, 내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요!”

그녀는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밤낮으로 평정을 잃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병 속에 남아 있던 독의 나머지를 모두 꺼내 노란 포도주가 담긴 잔에 부었다. 그리고 이 잔을 자신의 시종 한 명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트리스트람에게 가져가라. 내가 지시할 때에 그에게 건네라" 하였노라.

〈각주: 모에야 부인이 다시 한 번 트리스트람의 목숨을 노리다〉

그리하여 그녀는 트리스트람이 있는 대청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부인이여, 이는 나의 소원이로소이다. 내가 항상 당신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 외의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사오니, 당신 또한 나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품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때 시종이 노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모에야 부인이 그 잔을 받아 들고 이르되, “이 잔을 받아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하면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트리스트람을 유난히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트리스트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조금도 없었으므로, 시종이 가져다주는 잔을 받아들일 손길을 내밀었다.

그때 마침 사냥에서 돌아온 멜리아두스 왕이 대청에 들어오셨으니, 그는 땀에 흠뻑 젖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가 그 잔의 포도주를 보고는 이르시되, "잠시 기다리라, 트리스트람. 내가 마시리라. 내가 목을 축인 다음에야 너도 마실 것이니라."

그때 그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입가에 대려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모에야 부인이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왕이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마시지 말라 하느냐?” “상관이 없다,” 모에야 부인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노라.”

그리하여 그녀는 왕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더니 잔을 빼앗아 땅 위로 포도주를 쏟았더라.

〈각주: 멜리아두스 왕이 왕후를 죽이려 함〉 이때 멜리아두스 왕은 모에이아 부인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였노라. 이에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앞으로 끌어냈으니, 그녀가 홀의 바닥에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멜리아두스 왕은 그의 거대한 검을 뽑아내니 그 빛이 번개처럼 번쩍였고, 그는 외쳤노라. "네가 무엇을 행했는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더 이상 내게 말할 수 없게 되리라!" 이때 모에이아 부인은 멜리아두스 왕의 허벅지를 꼭 쥐며 비명을 질렀노라. "당신의 손으로 저를 죽이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피가 당신을 불명예로 물들일 것이니이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니, 그 후로는 법에 따라 저를 다스리소서. 진실로 저는 살 가치가 없사오니다." 이에 모에이아 부인은 왕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였더라.

이에 멜리아두스 왕이 큰 소리로 외쳐 시종들을 불러 이르되, “이 여인을 데려가 감옥에 가두라. 그러나 그에게 해가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이 나라의 영주들이 그 여인을 심판할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노라." 하고는, 그를 그대로 두고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더라.

그 후, 정해진 시기가 되어 모에야 부인은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이 여왕을 위해 자비를 구함〉 여자가 화형대에 오를 날이 이르렀을 때, 트리스트람은 그녀를 깊이 불쌍히 여겼다. 그가 그녀가 장작더미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멜리아두스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다. "아버지, 청원하나이다." 이에 멜리아두스 왕이 트리스트람을 바라보시니, 왕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노라. "내 아들아, 원하는 바를 말하라.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러자 트리스트람이 아뢰었노라. "아버지, 청컨대 이 부인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녀가 이미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것 같사오며, 확실히 하느님께서 그녀가 저지르려던 사악함에 대해 심히 가혹하게 징벌하셨나이다."

이에 멜리아두스 왕은 트리스트람이 법에 간섭하려 함에 몹시 분하여하였으나, 이미 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이를 거두어들일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왕이 이르되, "좋다, 내가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녀의 목숨은 네 것이니, 장작더미로 가서 그녀를 데려가라. 그러나 그 일을 마친 뒤에는 이 땅을 떠나 다시는 이 곳을 찾아오지 말라. 네가 법에 간섭하였으며, 왕의 아들이라 하여 이 살인자를 구원한 것은 잘못이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곳

을 떠나라. 너희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나라에서 또 다른 살인이 자행될까 두려우니라."

이에 트리스트람은 눈물을 흘리며 화형대에 묶인 여왕의 곁으로 달려가, 단검으로 그녀의 결박을 베어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르되, "부인, 이제 당신은 자유로우니 가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듯 당신도 용서받으소서."

그러자 여왕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트리스트람, 당신은 나에게 지극히 자비로우시도다."

그녀가 맨발이요 속옷만 입은 채였으므로, 트리스트람은 자신의 망토를 벗어 그녀에게 두르며 입혀주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이 리오네스를 떠남〉 그 후, 트리스트람은 곧장 리오네스를 떠났고, 멜리아두스 왕은 왕실의 고귀하고 존경받는 영주 중 한 명인 고버네일이라는 자를 그와 함께 보내기로 명하였다. 두 사람은 프랑스로 향하여, 그곳에서 프랑스 왕의 궁정에서 매우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트리스트람은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프랑스에 머무르니, 프랑스 왕의 궁정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마치 그가 프랑스 왕가의 혈통인 양 대하였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읽히고 연구된 사냥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하프를 다루는 데 있어 세상의 어느 악사(樂士)보다도 더 뛰어난 기량을 갖추어, 그와 비길 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는 날로 체격이 건장해지고 용모는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기사도의 모든 예절과 덕목을 깊이 깨우쳤다. 그 무렵 그는 무예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여, 프랑스 땅 어디를 가도 그와 맞설 이는 없었기 때문이라.

이리하여 트리스트람은 그 땅에서 오 년 동안 평온히 지내었으나, 그의 마음은 온전히 고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버네일에게 이르되, “고버네일,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와 내 고향을 보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꾀할 수 없노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면, 나의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반드시 찢어질 것임이라.” 고버네일이 이에 반대하는 말을 하려 해도, 트리스트람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두 사람은 프랑스를 떠나 길을 떠났고, 트리스트람은 하프를 타는 악사로, 고버네일은 그의 시종으로 변장하였더라. 이리하여 그들은 리오네스로 향하는 길을 걸었노라.

〈각주: 트리스트람이 리오네스로 돌아가는 이야기〉 어느 날, 멜리아두스 왕이 식사 중이시던 차에, 두 사람이 대청에 들어왔노라. 고버네일은 긴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어 그 모습은 완전히 변장한 듯하여, 그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은 아름다움과 청춘의 빛나는 광채로 빛나고 있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놀라워하더라.

멜리아두스 왕의 마음은 트리스트람에게 강하게 끌려가시며, 왕은 조정의 모든 이들 앞에서 이르시되, "너는 누구인가, 아름다운 청년아? 어디에서 왔느냐?"

이에 트리스트람이 대답하되, "폐하, 저는 하프 연주자이며, 이는 제 종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왔나이다."

그러자 멜리아두스 왕이 트리스트람에게 이르시되, "경, 프랑스에서 트리스트람이라 불리는 청년을 보았는가?"

트리스트람이 대답하되, "예, 저는 그를 여러 번 보았나이다."

왕이 이르시되, "그는 잘 지내는가?"

"예," 트리스트람이 대답하되, "그는 매우 잘 지내나, 때때로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멜리아두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크게 흔들려 얼굴을 돌리셨노라. 잠시 후, 왕이 트리스트람에게 이르시되, "경은 하프를 연주할 수 있는가?"

트리스트람이 대답하되, "예, 폐하께서 듣기를 원하시면 연주하겠나이다."

이에 트리스트람은 하프를 들고 자신의 앞에 놓은 후, 현을 튕겨 연주하더라. 그가 연주하는 방식과 노래하는 소리는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경이로운 것이었노라.

이에 트리스트람의 하프 선율에 감동한 멜리아두스 왕의 마음이 녹아내리더라. 왕이 이르시되, “이것은 놀라운 하프 연주라. 이제 네가 원하는 바를 내게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네 것이 되리라.”

이에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폐하, 폐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이다.”

“그러나,” 멜리아두스 왕이 이르되 “내 말대로 될지니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이 그의 하프를 버려두고 멜리아두스 왕이 앉으신 곳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되 “폐하, 만일 실정이 그러하다면, 제가 폐하께 청하는 바는 이 하나이니이다. 곧 폐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폐하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각주: 멜리아두스 왕이 트리스트람과 화해함〉 이때 멜리아두스 왕은 큰 놀라움에 사로잡혀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누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용서해야 하느냐?” 하니,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폐하, 저는 폐하의 아들이며, 폐하의 왕비이신 그 부인의 목숨을 구한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때 멜리아두스 왕은 기쁨에 넘쳐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트리스트람을 품에 안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노라. 트리스트람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화해하더라.

그 후 트리스트람은 리오네스에서 잠시 동안 평화롭게 지내며, 멜리아두스 왕과 모에야 왕비 사이의 화목을 주선하였다. 왕비는 그가 자신에게 매우 잘 대해주었으므로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각주: 트리스트람은 기사 작위를 거절하더라〉

이와 같이 트리스트람이 귀환한 후, 멜리아두스 왕은 그를 기사로 삼으려 하였으나 트리스트람은 그 때에 기사라는 영예를 받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르되, “폐하, 제가 지금 기사 작위를 받지 못함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저는 오히려 커다란 모험이 닥쳐올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나이다. 그때에 그 모험에 대비하여 기사로 서게 된다면, 저는 즉시 명성을 얻으리이다. 만약 제가 단지 홀에 앉아 잔치를 즐기고 마시며 즐거워하기 위해 기사로 서게 된다면, 우리 가문에 무슨 영예가 있으리이까?”

이와 같이 트리스트람 경이 말하니, 그 말씀이 멜리아두스 왕에게 잘 들렸으므로, 멜리아두스 왕은 그 후부터 그에게 기사 작위를 권유하기를 멈추었더라.

이제 시 트리스트람이 기사 작위를 받은 경위와, 그가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라 일컬어지는 첫 전투를 치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리라.

[그림: 코른월의 마크 왕]

제2장

어찌하여 트리스트람이 콘월 왕의 손으로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또 어떻게 그가 유명한 기사의 하나와 전투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기에서 말하노니, 그 때에 콘월의 마크 왕에게 큰 시련이 닥쳤으니, 이 마크 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트리스트람 경의 삼촌이었더라. 그 시련이란 바로 이러하니라.

〈각주: 아일랜드 왕이 콘월의 조공을 요구하다〉

콘월의 왕과 아일랜드의 왕은 두 땅 사이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한 한 섬을 두고 큰 논쟁을 벌였노라. 비록 그 섬은 콘월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아일랜드 왕은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콘월의 왕에게 그 섬에 대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노라. 이 마크 왕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콘월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큰 분쟁이 일어나 각국은 전쟁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아일랜드 왕이 이르되 "이 분쟁으로 인해 아일랜드와 콘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 다만 이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우리 각각 한 명씩 기사를 택하여, 그 두 기사가 무기를 들고 싸워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라. 진실은 곧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이제 너희는 알지니, 그 때에 콘월의 기사들은 모든 기사도 궁정에서 크게 경멸되었더라. 이는 그 시대에 콘월 궁정에 명망 있는 기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마크 왕은 아일랜드 왕으로부터의 그 도전을 받을 대장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도전에 응해야 했으니, 그는 그러한 도전을 거절하여 콘월을 방어할 기사 대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는 아일랜드 왕이 원하듯 될 것이며, 아일랜드 왕이 대장을 선택한다면 자신도 또한 그렇게 하리라 이르니라.

〈각주: 아일랜드 왕이 마하스 경을 대장으로 선택함〉 이에 아일랜드 왕은 자신의 대장으로 아일랜드의 마하스 경을 선택하였으니, 그는

세상에 있는 기사들 중 가장 위대한 자 중 하나였더라. 내가 이전에 집필한 『아서왕의 책』에서, 펠리아스 경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마하스 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센 대장이었으며, 가웨인 경과 다른 이들을 얼마나 손쉽게 무너뜨렸는지 읽을 수 있노라. 그러므로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그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사라 믿었으니, 이는 호수의 랜슬롯 경의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랜슬롯 경의 시대에도 그가 더 위대한 대장인지, 아니면 랜슬롯 경이 더 위대한 대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곤 하였더라.

이에 콘월의 모든 기사들이 마하스 경을 막아설 수 없었노라. 또한 콘월 밖에서 그를 상대할 기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하스 경이 원탁의 기사였기 때문이라. 원탁의 기사들 중 그와 맞서 싸울 자가 없었으며, 그 유명한 원탁의 형제들보다 위대한 다른 기사는 세상에 없었노라.

이에 마크 왕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울 기사를 구하려 할 때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더라.

이 곤란한 처지에서 마크 왕은 사신을 리요네스로 보내, 리요네스에 마하스 경과 맞설 기사가 있는지, 그리고 아일랜드와의 싸움에서 왕의 대리인이 되어 주기로 자원하는 자에게는 큰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물었다.

〈각주: 트리스트람이 콘월로 가는 허락을 구하다〉

이때 젊은 트리스트람은 그의 삼촌 마크 왕이 보낸 서한을 읽자, 곧장 그의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었노라.

"폐하, 얼마 전 폐하는 저로 하여금 기사가 되기를 원하시었사옵니다. 이제 이 기회에 저를 콘월로 보내시옵소서. 제가 그곳에 이르러서는 삼촌 마크 왕께 간청하여 저를 기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하리니, 그러면 저는 곧장 마하스 경을 맞서 싸우러 나가겠사옵니다. 저는 마크 왕을 대신하여 이 모험을 맡고, 마하스 경에 대항하여 왕의 대리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비록 마르하스 경이 위대한 기사요 명망 높은 영웅이라 할지라도, 만약 제가 전장에서 그를 격파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면, 저의 기사 작위 덕분에 우리 가문에는 필연코 지대한 영광이 돌아갈 것이옵니다."

그때 멜리아두스 왕이 트리스트람을 바라보며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고, 이르되 "트리스트람, 너는 다른 이가 감히 도전하지 않을 이 모험을 떠맡을 만큼 지극히 큰 마음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네 마음이 그 길을 가라 명하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에 필요한 힘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노라."

그리하여 바로 그날 트리스트람은 리요네스에서 콘월로 떠났으며, 동행한 자는 구베르네일 한 명뿐이었노라. 그는 배를 타고 콘월로 건너가, 당시 마크 왕이 궁정을 열고 있던 틴타겔 성에 도착하였더라.

해가 기울어 오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그는 마침내 그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 때 마크 왕은 많은 기사들과 영주들을 둘러싸고 대궐

에 앉아 계셨는데, 왕의 마음은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한 시종이 달려와 아뢰되, “폐하, 밖에 두 명의 이방인이 서서 폐하의 뵙기를 청하옵니다. 한 사람은 위엄과 단정함이 돋보이는 분이며, 다른 한 분은 젊은이로 그 고귀하고 장중한 용모는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이가 없을 듯하옵니다.”

이때 왕이 이르시되, "그들을 들이라." 하시니라.

[각주: 트리스트람과 구베르네일이 콘월로 오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은 곧바로 대청으로 받아들여져 마크 왕 앞에 섰더라. 그 중 한 사람은 구베르네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트리스트람이었더라. 트리스트람은 구베르네일 앞에 나서서 서고, 구베르네일은 트리스트람의 하프를 지니고 있었더라. 그 하프는 금으로 만들어져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더라.

그때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을 바라보아 그의 키와 아름다움을 기이하게 여겼더라. 이는 트리스트람이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 높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영웅처럼 보였더라. 그의 이마는 우유처럼 희었고, 그의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금처럼 붉고 어린 사자의 갈기처럼 풍성하였더라. 그의 목은 두텁고 단단하며 곧아 흰 돌로 만든 둥근 기둥 같았더라. 그는 푸른 비단 옷을 입었으며, 그 옷은 금 실로 매우 정교하게 수놓아졌고, 다채로운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더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특별한 부와 아름다움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더라.

이에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의 거룩한 용모에 놀라워하며, 그의 마음은 사랑과 존경으로 트리스트람을 향하여 끌려가는 것을 느꼈노라. 잠시 후, 왕이 입을 열어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무엇을 구하느냐?"

〈각주: 트리스트람이 콘월을 위한 전사로 자원하다〉

“영주여, 제 이름은 트리스트람이오며, 리요네스의 땅에서 당신의 자매가 한때 여왕으로 통치하던 곳으로부터 왔나이다. 제가 이 곳으로 온 목적은 이렇나이다. 당신께서 아일랜드의 전사와 맞서 당신의 권리를 옹호할 전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당신이 친히 제게 기사 작위를 내려주시거든, 저는 당신의 대리로 서서 아일랜드의 마하스 경과 맞서 싸우겠사옵나이다.”

그때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의 담대함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아일랜드의 기사 마하스가 연륜이 깊고 무공이 지대하여, 호수의 랜슬롯경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그 어느 기사도 그의 짝이 될 수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 무예에 아직 미숙한 네가 어찌 그와 같은 명망 높은 기사의 위세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영주여,”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저는 마하스 경이 어떤 기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 과업이 지닌 막대한 위험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기사도를 사모하는 자라면 위험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터이옵니다. 그렇다면 기사도의 용맹함에는 무슨 덕이 있으리이까? 그러므로 신에게 제 신뢰를 드리며,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제게 필요할 때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시리라 큰 희망을 가노라.”

그때 마크 왕은 큰 기쁨에 차올라 스스로 속삭였노라. “이 젊은이가 나의 명예를 위협하는 이 위험들에서 나를 무사히 구해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왕이 이르되, “트리스트람, 나는 네가 이번 임무에서 매우 훌륭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 믿노니,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리라. 내가 너를 기사의 작위에 올릴 것이며, 또한 왕실의 기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갑옷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리라. 또한 내가 네게 가장 우수한 플랑드르산 말을 마련해주리니, 네가 세상 그 어느 기사보다도 잘 갖추고 말도 잘 갖추게 될 것이라.”

〈각주: 트리스트람이 왕의 기사로 임명되니라〉 그 밤, 트리스트람은 성의 예배당에서 자신의 갑옷을 지켰고, 이튿날 그는 그토록 엄숙한 의식에 부합하는 모든 절차와 함께 기사로 서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사로 서게 된 날의 오후, 마크 왕은 그 때마땅한 배를 준비하여, 마하우스 경이 머무르고 있음이 알려진 그 섬으로 트리스트람과 고버네일이 출항하였더라.

드디어 그들 항해의 둘째 날, 해가 한창 뜬 무렵, 그들은 자신이 찾고자 하던 땅에 도착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그들이 찾던 곳임이 틀림없었더라. 선원들은 안전한 항구를 마련하였고, 닻을 내리자마자 곧장 갑판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통로를 놓았더라. 트리스트람 경과 고버네일은 그 통로를 따라 말들을 이끌고 건너가, 마침내 마른 땅을 밟았더라.

그 후 그들은 상당한 거리를 나아갔더니,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 무렵, 멀리서 해안가에 가까이 정박한 세 척의 매우 아름다운 배

를 발견하더라. 이때 그들은 그 배들 그림자 아래, 전차(全裝)한 갑옷을 입고 고귀한 말에 앉아 있는 한 기사를 보았고, 그가 바로 트리스트람 경이 찾고자 하던 자임을 알아차렸노라.

이에 고버네일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이르되, "경, 저 배들의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그 기사는 바로 마하우스 경이시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마하우스 경을 맞이하러 나아가니라〉

"그가로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가 맞도다."

그리하여 그는 오랫동안 그 기사의 얼굴을 굳게 응시하다가, 마침내 말하되, "고버네일아, 저기 보이는 자는 내 나이가 어리므로 첫 싸움에서 마주하기에는 매우 위엄 있고 거만한 기사로 보이노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강하신 도우심을 베푸시거든, 나는 반드시 그의 손에서 큰 명성을 얻으리라."

잠시 후 다시 이르되, "이제 가라, 고버네일아. 이 일에서 나를 혼자 두라. 내가 저 기사와 맞설 때 아무도 곁에 있어서는 안 되노라. 내가 이 전투에서 그를 제압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바치든지 하리라. 사정은 이러하니라, 고버네일아. 만일 마하우스 경이 나를 제압하고 내가 패배한 자로서 그에게 항복하거든, 나의 삼촌은 코른월의 땅에 대해 아일랜드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리라. 그러나 만약 내가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죽거든, 그는 다시 다른 시기에 다른 기사를 데려와 싸워야 하리라. 만일 나의 삼촌 왕이 그를 대신할 기사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심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고버네일은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영주여, 이 전투가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더는 말하지 말라, 고버네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고버네일은 명을 받아 돌아서서 떠났으니, 가는 길 내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이때 마하우스 경이 그 들판에 서 있는 트리스트람 경의 모습을 보고는, 곧장 그를 만나기 위해 말을 몰아 그곳으로 향하더라. 그가 가까이 다다르자 마하우스 경이 물었노라. "너는 누구인가, 기사여?"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 나는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오. 그곳 땅의 왕 멜리아두스의 아들이자, 코른월의 왕 마크의 조카로소이다. 나는 코른월의 왕을 위해 싸우러 왔노라. 아일랜드의 왕이 요구하는 조공의 부담으로부터 그를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마하우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전과를 쌓은 기사이며 전투에 능한 자인가?"

"아니오,"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되, "나는 불과 사흘 전에야 기사가 되었을 뿐이오."

"슬프도다!" 마하우스 경이 이르되, "너와 너의 고귀한 용기에 대해 나는 매우 슬퍼하노라. 그 용기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니라. 너는 나와 상대할 만한 자가 아니니, 나는 이미 사십 전 이상의 싸움터에 섰기 때문이라. 그 각각의 싸움이 이번 싸움보다 훨씬 컸으리라 믿노라. 또한 나는 세계 최고의 기사들과 맞서 싸웠으나, 아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노라. 그러므로 너의 극도로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너는 마크 왕에게 돌아가 그를 통해 나를 대신할 다른 기사를 보내라고 청하라. 그 기사는 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단련된 자일 것이니라."

"경,"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경의 충고를 감사하노라. 그러나 내가 기사가 된 목적은 오직 경과 격투하기 위함이니, 나의 과업을 완수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노라. 더욱이 경의 높은 명성과 담력 및 무공을 들을 때, 경과 맞서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더욱 강해지느니라. 내가 경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만일 내가 경을 이긴다면, 기사도 사회에서 지극히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니."

"자, 마하우스 경이 이르되, '네가 내 손에 죽을 것 같지는 않구나. 네 젊음을 생각하노라. 이 싸움이 그리 치열하게 끝날 수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옵소서,"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당신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이 싸움에서 당신을 물리칠 것이오. 내 몸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겠노라. 이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노라."

"슬프도다!" 하고 마하우스 경이 이르되, "이는 실로 큰 불행이라. 그러나 네가 정하여 주셨으니, 마땅히 그와 같이 될지니라." 이에 그는 트리스트람 경에게 인사를 올리고 고삐를 당기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가 곧바로 그 싸움을 준비하더라. 트리스트람 경 또한 뒤처지지 않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비록 그 일의 결말에 대하여 의심이 가득하였으나.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부상을 입다] 이에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각각 큰 함성을 지르고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며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으니, 그 광경은 보는 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였더라. 둘은 각각 창을 들어 상대방 방패의 한가운데를 찔렀고, 그 격돌 속에서 마하우스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방패를 뚫고 그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혔더라.

그러자 트리스트람 경은 그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그의 철제 부츠를 가득 채울 만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으니, 부츠는 피에 흠뻑 젖어 버렸고, 그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그 혹독하고 쓰린 일격을 견디면서도 그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고, 넘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잠시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장 말에서 내려와 검을 뽑아 든 뒤, 자신의 방패를 앞에 세웠더라. 마하우스 경이 그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역시 말에서 내려와 보병으로서 전투를 준비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곧장 서로에게로 달려들었으니, 두려울 정도로 거친 힘과 악의에 찬 마음으로 서로를 내리쳤고, 그 광경은 참으로 참혹하더라.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치명상을 입혔고, 그 결과 갑옷의 큰 조각들이 몸에서 잘려 나가며 떨어졌노라. 또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으므로, 여전히 몸에 걸친 갑옷의 부분들은 붉은 물감으로 칠한 듯이 피로 물들었더라. 그들이 서 있던 땅 위도 피로 적셔졌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격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마하우스 경에게 치명상을 입힘〉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처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전투에서 죽게 될까 두려워하더니, 차차 자신이 마하우스 경보다 더 강인하고 체력이 더 남다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에 큰 희망이 그에게 찾아와 더 큰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노라.

그때 마하우스 경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트리스트람 경은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 번 내리쳤다. 그 치명적인 타격에 마하우스 경은 더 이상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없었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마하우스 경이 더 이상 방패를 지탱하지 못함을 보고는, 곧바로 검으로 헬멧을 향해 큰 일격을 가하였더라.

그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트리스트람 경의 검이 마하우스 경의 헬멧을 매우 깊게 관통하여 두개골 속으로 파고들었노라. 트리스트람 경의 검이 마하우스 경의 헬멧과 두개골에 꽉 박혀 버려, 다시 빼낼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마하우스 경은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이때 트리스트람 경의 검날 끝부분이 부러져 마하우스 경에게 입힌 상처 속에 그대로 남아 버렸노라.

〈각주: 마하우스 경이 전장을 떠남〉 이때 마하우스 경은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깨닫고, 홀연히 기운이 솟아올라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라. 처음에는 원형을 그리며 거닐며 가장 처절한 비명을 지르더니, 이어 일어난 모든 일을 깨달은 그는 검과 방패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노라. 그는 눈이 먼 자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졌으니, 이는 치명상을 입어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쫓아 멈추게 하려 하였으나, 자신 또한 깊은 상처와 출혈로 인한 극도의 피로로 인해 그러지 못하였노라. 다만 마하우스 경을 향해 외쳤노라.

"서라, 서라, 기사여! 이제 시작했으니 이 싸움을 끝내자고!"

그러나 마하우스 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눈 먼 자처럼 비틀거리며 자신의 배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노라. 그가 입은 깊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그에게 허위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그를 이렇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내려와 그를 맞아 들이고 들어 올려 그의 배로 모셔갔노라. 그 후,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돛을 올리고 닻을 올려 그 땅을 떠나갔더라.

그때 곧이어 구베르네일과 트리스트람 경의 일행 중 몇몇이 그 곳으로 달려와 트리스트람 경을 발견하였으니, 그는 옆구리의 큰 상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의 검에 기대어 있었더라. 이에 그들은 그가 걷지 못함을 곧 깨닫고, 그를 태워 온 배로 돌아가기 위해 그의 방패 위에 그를 들어 올리고는 그를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그들이 배에 도착하자 그를 긴 침상에 눕히고 갑옷을 벗겨 상처를 살폈다. 이때 그들이 본 것은 마하스 경이 그의 옆구리에 입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라, 그들은 슬픔의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었으니, 모두 그가 죽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로 돌아오다〉 그러므로 그들은 돛을 올렸고, 이틀 만에 그를 코른월의 틴타겔에 앉아 있던 마크 왕에게로 데려왔노라.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 경이 얼마나 창백하고 쇠약하며 약해졌는지를 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슬픔에 겨워 크게 울며 애도하였노라. 이는 그 역시 트리스트람 경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마크 왕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르되, "폐하, 폐하를 위해 제가 잘하였사오니까?"라고 하니, 마크 왕은 "그렇도다"라고 답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에게 자신을 밝힘〉

"그렇다면,"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내가 너의 왕국을 아일랜드로부터 조공을 바쳐야 할 치욕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

의 누이의 아들임을 밝힐 때가 되었노라. 나의 아버지는 리오네스의 왕 멜리아두스요, 나의 어머니는 엘리자베트 부인이시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천당으로 거두시어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게 하기 전까지는 너의 누이였노라."

그러나 마크 왕이 이 말을 듣자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노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필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느님이시여, 차라리 내 온 나라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 조카가 이와 같이 죽기를 원치 않노라!"

이제 마하스 경에 관하여 말하노니,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머리에 입은 트리스트람 경의 상처로 인해 죽었더라. 그러나 그가 죽기 전, 그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아일랜드의 여왕, 곧 마하스 경의 자매는 그 흉포한 상처 속에 아직 남아 있던 칼날의 파편을 발견하였노라. 그녀는 그것을 빼내어 치워 매우 신중하게 숨기며, 속으로 이르되, "만약 내가 이 칼날 조각에 꼭 맞는 칼을 가진 그 기사와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는 불길한 날이 되리라."

이제 내가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과 아일랜드의 마하스 경 간에 벌어진 그 거대한 전투의 전말을 모두 말하였노라. 이제부터 트리스트람 경 이후에 일어난 일을 듣게 되리니, 이어지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림: 미녀 이졸트 부인]

제삼장

이르되,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 왕의 딸에게서 상처를 치유받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또한 팔라미데스 경과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에 관하여.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마하스 경의 손에 입은 중상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곪아갔으므로, 많은 이들이 이는 배신으로 인한 것이요, 창끝에 독을 발라 이 병든 자가 앓는 악질병을 일으킨 것이라 여겼더라. 그리하여 차차 트리스트람 경은 그 상해로 인해 극도로 병들었기에, 그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가 필히 죽으리라 생각하였더라.

이에 마크 왕은 지혜롭고 박식한 명의들과 외과 의사들을 구하여 코른월로 소환하되, 트리스트람 경의 상처를 살피게 하였으나, 이 모든 이들 중 아무도 그에게 어느 정도의 안위라도 가져다 줄 수 없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에서 병들다〉

어느 날 마크 왕의 궁정에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두루 여행하며 온갖 상처를 고치는 방면에 깊은 지식을 지닌 한 현숙한 부인이 찾아왔더라. 왕의 명을 받아 그녀는 트리스트람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이미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상처를 살피니라.

그 일을 마친 후 그녀는 트리스트람 경의 방을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마크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때 마크 왕이 그녀에게 물으시되, "자, 저 기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폐하," 그녀가 이르되, "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오며, 그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아일랜드의 공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벨 이졸트라 불리는 이 외에는 알지 못하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지닌 자요, 오직 그녀만이 트리스트람 경을 다시 생과 건강으로 돌려보낼 희망이 있사오니, 만약 그녀마저 실패한다면 다른 이는 그를 구할 수 없으리라 믿사옵니다."

이후 앞서 말한 여인이 떠난 뒤,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가 그의 상태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마크 왕이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너는 아일랜드의 왕녀에게 가서 그녀가 네 상처를 살펴보게 하겠느냐?”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이동의 피로와 고통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이르되, “폐하, 이는 병든 자에게 지극히 큰 고역이로소이다. 더욱이 이는 나로 하여금 큰 위험에 빠뜨리니, 내가 아일랜드로 가서 만일 내가 마하스 경을 죽인 자라 밝혀진다면, 내가 그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처로 인해 지극히 고통스러워하여, 지금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나을지니, 그러므로 만약 치유가 가능하다면, 나는 아일랜드로 가리라.”

이리하여 얼마 후,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아일랜드로 실어갈 배를 준비하였다. 그 배에는 다채로운 색의 비단 돛을 달았고, 내부는 정교하게 수놓은 비단 천과 은실과 금실이 섞여 직조된 직물로 치장하

였으니, 그 외관은 위엄 있는 대왕이라도 타고 다닐 만할 만큼 훌륭하였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마크 왕은 여러 시종들로 하여금 트리스트람 경을 가마에 태워 배까지 모셔가게 하고, 그들을 명하여 갑판 위에 설치된 붉은 비단 천막 아래에 놓인 붉은 새틴의 부드러운 침상에 트리스트람 경을 눕게 하였노라. 그 천막은 은실로 수놓아지고 은색 술로 장식되었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 곳에서 바다의 바람이 달콤하게 불어와 그의 얼굴과 관자놀이와 머리카락과 손을 시원하게 어루만질 때, 편안히 누워 있더라. 그리고 그 동안 구버네일은 트리스트람 경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시중을 들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항해하다〉

그때 그들이 아일랜드로 출항하니,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하여 풍파가 없었더라. 그리고 해질 무렵, 셋째 날에 그들은 아일랜드 해안가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바다 위로 솟은 바위 위에 성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

그때 그 성 근처에서 여러 어부들이 배를 타고 어로를 하고 있더라. 트리스트람 경의 선원 중 한 사람이 그 성이 무엇인지 어부들에게 물어보았노라. 이에 어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성은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의 성이오." 하고 또 말하되, "지금 바로 그 시에 왕과 왕비, 그리고 벨 이졸트라는 이름의 공녀와 그들의 온갖 궁중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사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이를 듣고 이르되,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 실로 나는 매우 병들어 있거늘, 나의 항해가 끝났음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쁘도다.” 그러므로 그는 선장에게 그 성채의 성벽 바로 아래로 배를 가까이 대고, 그곳에서 닻을 내리라고 명하니, 선장은 트리스트람 경의 명을 따랐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로 온 경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는 지극히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한 왕이나 고귀한 공자의 배와도 같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채의 성벽 아래로 내려가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서서 감탄하였다.

그때 해는 이미 지고 하늘은 놀랍도록 황금빛으로 물들었으며, 이 황금빛 하늘에는 은빛 방패와도 같은 달이 성채의 지붕과 탑들 위에 밝고 고요하게 떠 있었다.

또한 땅에서는 꽃향기가 은은히 퍼져 나왔으니, 이는 이때가 봄의 정점이었고 과일나무들이 모두 꽃으로 가득 차 무성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이라, 저녁의 부드러운 공기까지도 향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의 마음속에는 큰 평안이 찾아왔더라. 이에 그는 고버네일에게 이르되, “고버네일, 내가 곧 이 상처로 인해 낫거나, 아니면 곧 죽어 고통 없는 낙원으로 들어갈지라. 내가 이제 모든 이에게 대하여 큰 만족과 평안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 이르되, “내 하프를 여기로 가져오라. 내가 잠시 그것을 타주리라. 나는 이 즐거운 저녁때를 노래하고 싶구나.”

〈각주: 트리스트람 경의 노래〉 고버네일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빛나는 하프를 가져다 주니라. 트리스트람 경이 그것을 손에 받자마자 현을 맞추었고, 현을 맞춘 뒤에는 손가락을 떨어뜨려 노래를 시작하였더라. 저녁의 고요함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수면 위를 가로질러 놀라울 만큼 맑고 달콤하게 울려 퍼졌으며, 성곽의 성벽에 서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아마도 그 배 위에 천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더라.

그때에 벨 이졸트 부인이 자신의 거처 창가에 앉아 저녁의 평화를 즐기고 있더라. 그녀 또한 트리스트람 경의 노래를 듣게 되니, 그녀가 함께 있던 낭자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듣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고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말하되, “내 생각에는 이는 무언가 천사의 목소리로도다.”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부인. 이는 상처 입은 한 기사가 부르는 노래이며, 그는 얼마 전 기이한 배로 이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벨 이졸트 부인이 시종하던 소년에게 이르되, “왕과 왕비를 부르라. 그들이 이 노래를 듣게 하라. 내가 낙원의 성벽 너머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리라 생각지 못했노라.”

이에 시종은 온 힘을 다해 달렸고, 잠시 후 왕과 왕비가 벨 이졸트 공녀의 방으로 이르렀더라. 공녀와 왕 부부는 창틀에 기대어 서서, 부드러운 황혼빛 속에서 음유시인 트리스트람 경이 노래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노라.

그때 앵거스 왕이 이르되, "이제 나는 저 음유시인을 이 성으로 불러들여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노래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유시인임에 틀림없다."

벨 이졸트 공녀가 아뢰되, "청컨대 폐하, 그렇게 하소서. 이러한 노래가 이 곳에서 울려 퍼진다면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옵니다."

이에 앵거스 왕은 그 배로 작은 배를 보내어 노래하던 자를 성채로 데려오라 명하였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벨 이졸트 부인을 뵙게 될 것이요, 그녀가 나를 고쳐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왕의 작은 배로 옮기게 하였고, 그들은 그를 앵거스 왕의 성채로 데려와 성채의 아름다운 방 중 하나에 놓인 침상에 눕혔더라.

〈각주: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에게 오다〉 이때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이 누워 있는 곳으로 나아가 이르되, “시라, 내가 당신을 더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제 옆구리에 입은 큰 상처를 벨 이졸트 공녀가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들으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지닌 자라 하오니, 그리하여 저는 이토록 고통스럽고 비통한 중상을 입고 있어 곧 죽게 될까 두려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만일 치유되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까 하옵니다.”

“영주여,” 앵거스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너는 평범한 기사가 아니라 고귀한 신분의 귀인이라, 네가 바라는 대로 하리라.” 그러자 앵거스 왕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묻노니, 네 이름이 무엇이요, 어디에서 왔는가?”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내 이름을 트리스트람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자들 중 내가 이 곳 여왕의 형제를 죽게 한 자임을 아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하고는 이르되, “영주여, 제 이름은 트람트리스 경이며, 저는 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라이오네스라는 땅에서 왔나이다.”

앵거스 왕이 이르시되, “트람트리스 경이여, 잘 왔도다. 이제 네가 바라는 대로 행하리라. 내일 벨 이졸트 부인이 네 상처를 살펴, 가능하면 낫게 하겠노라.”

〈각주: 미녀 이졸트 부인이 상처를 살핀다〉

그리고 앵거스 왕이 말한 바와 같이 일이 진행되었으니, 이튿날 미녀 이졸트 부인이 자신의 시종들을 거느리고 트리스트람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나아왔더라. 시종 중 한 명은 은제 대야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시종은 은제 주전자를 메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고운 린넨 천으로 된 수건을 들고 있었더라.

미녀 이졸트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누워 있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상처를 보여주소서."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자신의 가슴과 옆구리를 드러내자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이때 그녀가 그 처참한 상처로 인해 트리스트람 경을 깊이 불쌍히 여겨 이르되, "슬프도다.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귀한 기사가 이처럼 혹독한 상처를 입어야 하다니!"

이렇게 트리스트람 경 옆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하게 상처를 살폈으니, 그녀의 손가락이 장미 꽃잎처럼 부드러웠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가 트리스트람 경의 상처 깊숙이 박혀 있는 창끝의 일부를 발견하였더라.

그녀는 매우 능숙하게 그것을 뽑아냈노라. 비록 트리스트람 경이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긴 하였으나. 그와 함께 진홍빛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나왔고,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죽은 자와도 같이 기절하더라.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곧장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 향신료를 그의 콧구멍에 대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렸고, 그의 몸은 큰 평안과 안위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노라. 비록 그 평안이 잠시 동안 죽음의 평안과도 같았을지라도.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치유되다〉 이와 같이 벨 이졸트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의 목숨을 구하였으니, 이는 잠시 후 그가 다시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곧이어 사지와 몸이 거의 완전히 건강하고 강건해졌기 때문이라.

이제 서술하노니,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공녀를 사랑하게 된 연유와, 그녀 또한 트리스트람 경을 사랑하게 된 인연이라. 또한 유명

한 기사, 사라센인 팔라미데스 경이 벨 이졸트를 사랑했으나,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일 또한 전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 부인을 사랑하다〉 일찍이 말하였거니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리스트람 경은 그 중대한 상처에서 완치되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는 항상 벨 이졸트 부인 곁에 머물렀으니, 이는 트리스트람 경이 그녀를 기이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 부인 역시 트리스트람 경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녀를 사랑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이요,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한 것은 바로 같은 이유 때문이었더라. 그녀는 자신의 옆구리 상처에서 창끝을 뽑아낼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에서 피가 어떻게 쏟아져 나왔는지를 결코 잊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녀는 한때 그에게 겪게 했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 두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항상 함께 지내며, 거처나 대청에서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더라. 그 동안 그 누구도 트람트리스 경이 바로 트리스트람 경이며, 아일랜드의 마하우스 경을 죽인 손이 바로 그 자신의 것임을 알지 못했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아일랜드에 일 년 동안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건강하고 건장한 몸으로 회복하더라.

〈각주: 팔라미데스 경이 아일랜드로 오다〉

그때에 사라센 기사 팔라미데스 경이 그 땅에 이르렀으니, 그는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자라. 그가 도착하였음에 모든 이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큰 존경을 표하였더라.

그러나 팔라미데스 경이 벨 이졸트 부인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였을 때, 그는 지극한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 정열은 트리스트람 경이 그녀를 사랑하던 것과 거의 다름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언제나 그녀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그녀를 따랐노라.

그러나 벨 이졸트는 팔라미데스 경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두려워할 뿐이었으니, 그녀의 모든 사랑은 이미 트리스트람 경에게 바쳐졌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라미데스 경이 지극히 사나우며 힘센 기사였으므로, 그녀가 감히 그를 모욕하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녀는 그를 미소로 맞이하며 모든 정성과 친절로 대하였노라. 비록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향한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거짓으로 대하며 지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불쾌해하다〉 이 모든 것을 트리스트람 경은 곁에서 바라보았으며, 팔라미데스 경이 늘 부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큰 불쾌함을 느꼈노라. 그러나 벨 이졸트가 트리스트람의 불쾌함을 보았으므로,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건네는 기회를 얻으니 이르되, “트리스트람, 불쾌해하지 말라. 내가 어찌 하랴? 당신은 내

가 이 기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노라. 다만 그가 너무 사나우며 너무 강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할 뿐이니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 제가 이 곳에 있으면서도 다른 기사가 저와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그 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얻게 한다면, 이는 저에게 지극한 치욕이 되리다."

그녀가 이르되, "트람트리스여,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 기사의 도전을 받겠느냐? 보라, 네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아니하였거늘, 팔라미데스 경은 온전히 건강하여 그 힘이 충만하도다. 진실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너와 팔라미데스 경이 전투를 벌여, 네가 완전히 낫기 전에 그가 너에게 해를 끼칠까 함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의 결전〉

"부인,"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는 이 기사나 그 밖의 다른 어떤 기사에게도 두려움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한 내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과 다름없이 강인해지게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임을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당신의 편에서 이 기사와 맞서고자 하노라. 만약 당신이 갑옷을 준비해 주신다면, 나는 그를 상대하여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이 꾀하리라. 당신의 아버지인 앵거스 왕에게 큰 투기회를 선포하게 하시오. 그 투기회 속에서 나는 팔라미데스 경을 찾아내어 대결하리니,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를 물리쳐 당신이 그에게서 해방되기를 바라노라."

벨 이졸트가 이르되, “트람트리스여, 감당하시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예, 일생 중 이보다 더 준비된 적은 결코 없겠나이다.” 이에 벨 이졸트가 이르되, “그대의 뜻대로 하리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에게 그들 사이에 오간 모든 말을 비밀에 부칠 것을 명하였다. 특히 그가 그들 계획한 그런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임을 절대 숨길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저는 제 목숨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비록 그 위험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사오나, 적들이 이곳에서 저를 발견한다면 제 목숨을 건지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일에 관여한다면, 이는 오직 당신과 저 사이에만 비밀로써 지켜져야 하옵니다.”

이에 그들 각기 헤어져, 벨 이졸트 공녀는 아버지 왕께 나아가서 펄라미데스 경을 기리기 위한 큰 시합 날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청하매, 왕은 기꺼이 그 뜻을 들어주리라 말씀하셨노라. 이에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궁정에 칙서를 보내어, 큰 토너먼트가 개최될 것이며,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가 큰 상과 큰 영예를 받게 될 것임을 알렸노라. 그리하여 기사도 정신이 넘치는 모든 궁정에서는 이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니, 거기에는 무예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기사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노라.

이제 그 대회와 거기에 참여한 트리스트람 경과 펄라미데스 경의 일화를 들려주리라.

[그림: 아일랜드 여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죽이려 함]

제4장

트리스트람 경이 토너먼트에서 펄라미데스 경을 만나게 된 일과, 그 후의 일을 기록함.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 왕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연유를 기록함.

이때 아일랜드 왕 앵거스가 정한 대회가 드디어 그 시기를 맞이하였으니, 이는 실로 무예 대회 중 가장 명망 높은 것이었더라. 그토록 고결한 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예는 드물었노라. 그 때 아일랜드 왕의 궁정에 모여든 기사들의 수는 실로 놀라울 지경이었으니, 이는 전례 없이 높은 품격의 모임이었더라.

〈각주: 아일랜드의 기사도 궁정에 관하여〉 아일랜드의 그 궁정이 얼마나 훌륭하였는지는, 그 대회에 백 명의 기사의 왕과 스코틀랜드의 왕이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도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 아그라베인 경, 그리고 바데마구스 경과 케이 경, 도디나스 경, 사그모르 르 디지루스 경, 소 굼렛 경, 그리고 그리플렛 경이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밖에도 이름 높은 수많은 기사들이 함께 하였노라.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의 궁정에 모여들었으므로, 전투지가 인접한 모든 초지와 들판은 여러 가지 빛깔의 천막과 파빌리온이 가득히 설치됨으로써 꽃밭처럼 화사하게 물들었더라.

대회 당일, 무수한 군중이 투기장으로 모여들어 그 장소는 온통 움직임으로 가득 찼더라. 마치 한 바다의 인파가 일어나 그 좌석과 매대를 넘쳐흐르는 듯하였기 때문이라.

이 토너먼트는 사흘 동안 계속되리라. 셋째 날에는 대혼전이 벌어져, 이 모든 기사들이 서로 다른 진영에 서서 맞서리라.

그러나 그 사흘 중 처음 이틀 동안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좌석에 앉아 내려다보며 검술 시합을 구경하더라. 그가 앓던 병에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아끼며 때가 다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노라. 그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니라.

〈각주: 펄라미데스 경의 기적 같은 활약〉

이 이틀 동안 트리스트람 경은 펄라미데스 경이 어떤 기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전적을 세우는 것을 목격하더라. 펄라미데스 경은 벨 이졸트 부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았으므로, 열 명의 힘을 더한 듯 전장에서 자신을 들어 올리는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전장을 한 마리 전장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돌진하여, 자신이 쓰러뜨리고 파괴할 상대를 찾았노라.

첫날 그는 가웨인 경에게 기마 창시합을 도전하였고, 이어 가헤리스 경, 백인의 왕, 그리플레트 경, 사그모어 르 데지루스 경, 그리고 열네 명의 다른 기사들을 차례로 도전하였노라. 그는 이들을 모두 상대하여 많은 자들을 제압하였는데, 자신에게는 조금의 하자도 없었더라. 둘째

날에는 아그라베인 경, 그리플레트 경, 케이 경, 도디나스 경, 그리고 열두 명의 다른 기사들과 맞서 큰 성공을 거두었노라.

이에 그들의 활약을 목격한 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 소리를 지르며 외쳤노라. “정녕 이 세상 어느 기사보다도 이 기사가 더 위대하도다. 아, 랜슬롯 경 자신조차 이 기사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없으리라.”

이에 이졸트 공녀는 마음속으로 근심에 잠겨 이르되, "트리스트람, 저 멀리서 보기에 실로 사나우며 두려운 기사가 있도다. 이제 내가 때때로 네가 그를 이겨낼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이르되, “부인, 이미 나는 펄라미데스 경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지 모르는 어떤 기사보다도 더 큰 기사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노라.” 그러나 벨 이졸트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이 말한 그 기사가 바로 아일랜드의 마하스 경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각주: 펄라미데스 경이 벨 이졸트 부인에게 청을 넣다〉

이때 그 토너먼트의 둘째 날 저녁 무렵, 펄라미데스 경은 벨 이졸트 부인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이르되, “부인,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은 오직 부인을 위함이었나이다. 만약 부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행한 일 중 삼분의 일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니이다. 이제 부인께서는 나를 이처럼 강렬히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

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므로 부인께 간청하노니, 부인의 선의를 조금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이 이르되, "경은 잊지 말라. 이번 전투는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노라. 내일 경이 오늘처럼 행운을 얻지 못할지 누가 장담하리오. 그러므로 경이 그 전투도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게 하겠노라."

"그렇구려," 펄라미데스 경이 이르되, "내일 그대를 위해 오늘보다 더 값진 일을 하리라."

그러나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은 그 말을 듣고는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이라. 혹시 펄라미데스 경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그에게 아무런 승리를 거두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노라.

이에 그 유명한 검술 시합의 제삼일이 이르렀고, 그 아침이 밝자 양 진영에서 서로 대결할 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한쪽 진영의 수장은 펄라미데스 경이었고, 그 편에는 가웨인 경과 그를 따르던 여러 기사들도 함께하였으니, 이들은 말하되 "펄라미데스 경과 대적하기보다 그와 함께함이 더 큰 명성을 얻을 것"이라 하여 그의 편에 합류하였더라. 다른 한쪽 진영의 수장은 백기사왕과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이 두 분은 모두 매우 유명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명장들이었으며, 높은 용기와 놀라운 업적을 가진 자들이라.

〈각주: 벨 이졸트가 트리스트람 경에게 갑옷을 입혀주다〉 이제 그 대회가 열릴 때가 가까워지자,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 부인이 마련해 주신 갑옷을 갖추어 입으러 갔다. 그가 무장을 마치자 그녀가 내려주신 말을 가볍게 타올랐다. 트리스트람 경의 갑옷은 희고 은빛처럼 빛났으며, 그 말 또한 온통 하얗고, 그 위에 얹은 안장과 장구들도 모두 희었으므로, 트리스트람 경은 놀라울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그가 온갖 무장을 갖추어 준비를 마쳤을 때, 벨 이졸트 부인이 그의 곁으로 찾아와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준비되었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 준비되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트리스트람 경의 말 고삐를 잡고 그를 성의 작은 문으로 인도하여 밖으로 내보내니, 그곳은 너른 들판이 펼쳐진 곳이라. 트리스트람 경은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잠시 그 들판에서 기다렸더라.

그러나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은 그녀의 아버지인 왕과 어머니인 왕비와 함께 대회장에 나아가, 그녀에게 할당된 자리, 즉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더라.

〈각주: 펄라미데스 경의 시합에서의 싸움〉 그리하여 잠시 후 그 우호적인 시합이 시작되었노라. 다시 한 번 펄라미데스 경은 격렬한 경쟁의 분노로 가득 찼으므로, 그는 전장을 헤매며 분노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공포를 퍼뜨렸노라.

일단 그는 백인의 왕에게로 달려가, 그 기사에게 무서운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 힘에 말과 기사가 함께 땅에 쓰러졌노라. 그 후 같은 방식으로 그는 스코틀랜드 왕을 그의 검으로 치니, 그도 곧장 안장에서 떨

어졌노라. 그 후 그는 하나 둘 연이어 다른 일곱 명의 기사들을 쓰러뜨렸노라. 그들은 모두 단단히 검증된 힘과 무용을 지닌 자들이었노라. 그러자 이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외쳤노라. "저자는 인간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그리하여 펄라미데스 경의 공포로 인해, 그 시합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분노한 사자처럼 그를 피하였노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자유로운 속도로 말을 몰고 이르렀으니, 그의 빛나는 모습은 은으로 빚어낸 인물과도 같았더라. 이에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주목하며 서로에게 물었노라. “이 기사는 누구인가? 그는 어느 진영에 가담하여 싸우려 하는고?”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을지 알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으니, 트리스트람 경은 곧바로 백왕과 스코틀랜드 왕의 진영에 합세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한쪽 진영은 크게 기뻐하고, 다른 쪽 진영은 슬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트리스트람 경이 실로 위대한 전사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의 토너먼트 입장〉 이때 곧바로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다른 편 기사 네 명이 달려들었으니, 그중 한 사람은 가헤리스 경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플레트 경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데마구스 경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케이 경이었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전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헤리스 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사관 케이 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사들을 쓰러뜨리거나 격파하였더라.

이때 가웨인 경이 이를 바라보며 사그모어 경에게 이르되, “저곳에는 실로 무쌍한 힘을 지닌 기사가 있도다. 이제 가서 그가 어떤 기개를 지녔는지 살펴보자.”

이때 가웨인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사그모어 경이 다른 쪽에서 그를 맞섰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에워쌌다. 먼저 가웨인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그런 강타를 가하여, 그 힘에 트리스트람 경의 말이 두 바퀴나 도돌이쳤다. 이에 사그모어 경이 다른 쪽에서 그를 또 한 번 내리쳐, 트리스트람 경은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타격에 격분하여 분노의 불꽃이 그의 뇌수 속으로 타올라 마치 화염이 번진 듯하였다. 이에 그는 안장을 박차고 일어나 가웨인 경에게 무서운 타격을 가하니, 그 힘에 견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타격은 가웨인 경의 방패를 가르고, 그의 투구 정수리에 내려앉아 투구의 일부를 갈라냈으며, 어깨의 갑옷 일부도 함께 찢어냈다. 그 무섭고도 끔찍한 타격의 힘으로 가웨인 경은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 있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 격렬한 일격에 넋을 잃고 경탄하던 사그모어 경을 돌이켜 공격하여, 역시 그를 쓰러뜨리고 기절케 하였으니, 사그모어 경은 두 시간 이상이나 그 기절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더라.

이때 팔라미데스 경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가한 두 차례의 타격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하! 저곳에 참으로 놀라운 기사의 한 사람이 있도다. 내가 지금 당장 그를 만나서 내 명성을 높이지 않는

다면, 그 기사가 이 전투에서 나보다 더 많은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로다."

그리하여 이때 팔라미데스 경은 곧장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돌진하더라.

〈각주: 팔라미데스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돌진하다〉 트리스트람 경이 그를 보자 큰 기쁨에 찼으니, 그는 스스로 말하되 "이제야 비로소 팔라미데스 경의 날이 올지, 아니면 내 날이 올지 정하여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팔라미데스 경을 향해 선뜻 돌진하여 결투를 시도하매, 두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서 서로 마주쳤더라.

그때 바로 팔라미데스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가한 일격은 마치 천둥번개가 그의 머리에 떨어지는 듯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잠시 동안 혼미하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정신을 차린 그는 분노로 가득 차 그 격분으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팔라미데스 경을 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팔라미데스 경을 향해 돌진하여, 분노와 기운을 다해 연이어 세 번이나 내리쳤다. 그 타격의 강렬함에 팔라미데스 경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만 했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팔라미데스 경이 그 맹렬한 공격을 견디느라 방패를 낮게 들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안장에서 몸을 일으켜, 팔라미데스 경의 투구 꼭대기를 향해 무서운 일격을 가하였

다. 그 타격의 위력은 팔라미데스 경의 뇌수가 물결치듯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장 고리를 꼭 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어 트리스트람 경이 또 한 번 내리치자, 팔라미데스 경의 시야는 어둠에 잠겼고,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져 말발굽 아래 먼지투성이의 땅에 쓰러졌다.

그때 이 대결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그리고 격렬한 열정으로 함성을 질렀으니, 이는 그 전투 전체에서 행해진 가장 훌륭하고도 현저한 무예 시합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시합을 지켜본 이들 중 대다수는 "은빛 기사라!"라고 외쳤노라. 당시 그 은빛 기사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는 그 기사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무공의 영광으로 가득 차 그 기쁨에 눈물을 흘렸노라.

〈각주: 벨 이졸트가 트리스트람 경을 지목하다〉 이때 아일랜드 왕이 이르되 "저 기사는 누구뇨? 팔라미데스 경을 그토록 놀랍게도 무찌른 자가 누구인가? 세상에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진 기사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였노라.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전사라 하리라." 이에 기쁨에 눈물을 흘리던 벨 이졸트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소리쳐 이르되 "폐하, 저이는 트리스트람이옵니다. 그분께서 우리 곁에 죽게 되어 오셨을 때부터, 이제 우리 가문에게 이토록 큰 영광을 안겨주셨으니 말입니다.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부터, 그분께서 평범한 기사가 아니라 위대한 전사임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때 아일랜드 왕은 심히 놀라 기뻐하며 이르되,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라.”

이제 그 공세 이후 트리스트람 경은 더 이상 그 전투에 관여하지 않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더라. 그러나 그는 팔라미데스 경을 호위하던 기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데려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잠시 후, 팔라미데스 경이 다시 말에 올라타 그 전투의 초지를 떠나려 함을 깨달았으며, 곧 그는 팔라미데스 경이 마음 상한 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멀리 달아나는 것을 보았더라.

이 모든 것을 트리스트람 경이 목격하였으나, 팔라미데스 경의 떠남을 막으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잠시 후 팔라미데스 경이 그 곳을 떠나자, 트리스트람 경도 또한 그를 따라 그 길을 떠났다.

그가 전장의 초원을 충분히 벗어나자, 트리스트람 경은 말에 박차를 가하여 팔라미데스 경이 간 그 길로 맹렬히 달리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상당한 거리를 그 속도로 달린 끝에, 드디어 길 앞에 서 있는 팔라미데스 경을 발견하더라. 그때 팔라미데스 경은 숲 가장자리에 다다라 있었는데, 그곳에는 큰 날개가 강풍에 천천히 돌아가는 여러 개의 석조 풍차가 서 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팔라미데스를 다시 쓰러뜨리다〉

이곳은 고요한 곳이라, 싸움을 벌이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큰 소리로 팔라미데스 경을 부르며 외쳤노라.

"팔라미데스 경이여! 팔라미데스 경이여! 돌아보라! 여기는 네가 나에게서 잃었던 명예를 되찾을 기회라."

이에 팔라미데스 경은 그 큰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노라. 그러나 부른 자가 방금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준 그 기사임을 보자, 분노로 이를 갈며 말에 채찍을 가하여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돌진하였노라. 그의 검이 밝은 햇살에 번개처럼 빛나며 뽑혔노라.

트리스트람 경에 가까이 다다르자, 팔라미데스 경은 안장에 서서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나는 이 기사에게 잠시 전에 잃었던 명예를 한 방으로 되찾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큰 기교와 손재주로 팔라미데스 경의 일격을 방패로 막아냈노라.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태세를 정비한 후, 팔라미데스 경에게 일격을 가하였노라. 첫 번째 타격으로 트리스트람 경은 팔라미데스 경의 방패를 쳐부수고, 그의 머리에 강한 일격을 가하여 팔라미데스 경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노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의 말에서 재빨리 내려, 쓰러진 팔라미데스 경에게 달려가 큰 힘으로 그의 투구를 벗겨냈노라. 이에 그는 매우 격렬하게 외쳤노라.

"기사여, 나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는 팔라미데스 경의 목을 베려 하듯 검을 들어 올렸노라.

그때 팔라미데스 경은 자기 위에 서서 저렇게 있는 트리스트람 경을 보고, 그의 타격을 무서워하여 이르되, "경, 저는 경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만은 살려 주시옵소서."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일어나라” 하매, 팔라미데스는 애를 써서 무릎을 꿇고 일어났으며, 그대로 트리스트람 경 앞에 꿇어앉았더라.

“이제 네가 스스로를 내게 내어주었으니, 네 목숨을 구하였도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첫째로, 너는 벨 이졸트 부인을 떠나라. 일 년 내내 그 부인에게 가까이하지 말라. 이것이 내 첫 번째 명령이라. 둘째로, 오늘부터 일 년과 하루 동안 기사도의 갑옷을 입지 말라.”

“슬프도다!” 팔라미데스 경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며, 어찌하여 나를 죽이지 않으시오나이까? 내가 그대에게 항복한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하며 그는 부끄러움과 분함으로 눈물을 흘렸노라.

“그렇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미 일어난 일은 잊자. 이제 너는 내게 항복하였으니, 이는 나의 명이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검을 다시 칼집에 꽂고, 말에 올라타 떠나갔으며, 팔라미데스는 그대로 그곳에 남겨두었더라.

[각주: 팔라미데스 경이 무장을 해제하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떠난 후, 팔라미데스 경이 일어나 크게 울부짖으며 이르되, “이것은

내게 있어 이처럼 치욕스러운 일이니, 더 큰 치욕이 있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노라" 하고, 이에 그의 미시코르디아를 뽑아 그 갑옷의 끈을 베어 끊고, 몸에서 갑옷의 조각들을 찢어내어 좌우로 격분하여 던져버렸노라. 그가 이와 같이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진 후, 그의 말에 올라 숲속으로 달려가니, 그 울음소리는 완전히 마음이 찢어진 자와 같았더라.

이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약속한 대로 벨 이졸트 공녀에게서 팔라미데스 경을 쫓아냈노라.

이때 트리스트람이 다시 아일랜드 왕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려 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성 앞에는 그를 기다리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그를 향해 큰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노라. "환영하노라, 트리스트람 경! 환영하노라, 트리스트람 경!" 이때 앵거스 왕이 나아가 트리스트람 경의 손을 잡고 이르되, "환영하노라, 트리스트람 경이여. 당신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큰 영광을 얻었사오니!"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를 책망함〉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 공녀를 향해 깊은 책망의 시선을 보내며, 잠시 후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이르되, "공녀여,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는가?"라 하였노라.

공녀가 이르되, “경님, 저는 경님을 배신할 뜻이 없었나이다. 다만 경님의 승리에 대한 기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이로 인해 아무런 해악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빕노라.”

공녀가 이르되, “어떤 해악이 생길 수 있사옵니까, 경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공녀께 말씀드릴 수는 없사오나, 저는 이로 인해 해악이 생길까 두려워하오.”

아일랜드의 여왕이 와서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너는 이미 죽음에 가까이 있었거늘 어찌 그리 빨리 싸움을 하였느냐. 이제 내가 목욕을 준비하리니 너는 그 안에서 목욕하라. 너는 아직 건강하고 강건하지 못하도다.”

“낭자여,”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나는 아무런 목욕도 필요치 않소. 내가 이제 모든 면에서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니이다.”

“아니오,” 여왕이 이르시되, “당신은 그 목욕을 반드시 해야 하노라. 당신이 치렀던 이 전투로 인해 이후 어떠한 해악도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노라.”

이에 그녀가 미지근한 물로 목욕통을 준비하였으니, 그 물은 여러 가지 향신료와 강력한 약초로 매우 진하게 만들어졌더라. 목욕통이 준

비되자 트리스트람 경은 옷을 벗고 목욕에 들어갔으며, 왕비와 벨 이졸트 부인은 그의 침실로 이어진 인접한 방에 있었더라.

〈각주: 아일랜드 여왕이 트리스트람 경의 검을 바라보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목욕에 임한 사이, 아일랜드 여왕과 벨 이졸트는 그의 거실 안을 두루 살피더라. 그들은 트리스트람 경의 검이 놓인 곳을 보았으니, 그는 목욕을 준비하며 허리의 띠를 풀 때 그 검을 침상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이라. 이때 여왕이 벨 이졸트에게 이르되, "보라, 이 얼마나 거대한 검인가," 하고는 곧장 그것을 들어 칼집에서 칼날을 뽑아내었더라. 그리고 그녀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며 빛나는 검인지를 보았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녀는 칼끝으로부터 약 일 반 피트쯤 되는 지점에서 칼날 가장자리에 반달 모양의 큰 파편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았더라. 그녀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응시하였더라. 그러자 갑자기 그녀에게 큰 공포가 엄습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바로 그 칼날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파편을, 그가 죽어간 마하스 경의 상처에서 발견했음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트리스트람 경의 검을 손에 들고 돌로 변한 자처럼 서 있더라. 이를 본 벨 이졸트는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르되, "부인, 어찌하신 것이오?" 여왕이 이르되, "그다지 중요한 일은 없노라," 하고는 곧장 트리스트람 경의 검을 내려놓고 매우 빠르게 자신의 거실로 향하였더라.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캐비닛을 열고, 마하스 경의 상처에서 뽑아낸 칼날 파편을 꺼내었으니, 그녀는 그 파편을 그날 이후로 간직해 왔

었더라. 이를 들고 그녀는 재빨리 트리스트람 경의 거실로 돌아와 그 파편을 칼날에 맞춰 보았더라. 보라! 그것은 완벽하게, 조금의 틈도 없이 딱 들어맞았더라.

〈각주: 여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공격하다〉

그때 여왕은 마치 갑자기 미친 자처럼 사로잡혔고, 그녀는 매우 큰 소리로 외쳤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배신자여!"라 하며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였노라. 이에 그녀는 트리스트람 경의 검을 집어 들고, 그가 목욕하는 방으로 큰 분노를 안고 달려들었노라. 그리고 그녀는 그가 목욕통 속에 온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에 그녀가 그에게 돌진하여 그의 검으로 그를 내리쳤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몸을 옆으로 던져 그 타격은 그 목적을 잃었노라. 그때 여왕은 다시 그를 내리치려 하거나 그 무기로 그를 관통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고버네일과 헬레스 경이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붙잡고 격렬하게 비명 지르며 저항하는 그녀를 억지로 막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녀에게서 검을 빼앗아 그녀의 손에서 떼어냈고, 내내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린 자처럼 비명 지르며 울부짖었노라.

그때 고버네일과 헬레스 경이 그녀를 놓아주자, 그녀는 방을 박차고 나오며 큰 비명과 함께 격렬하게 달아나, 앵거스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노라.

"정의여! 정의여! 내가 내 형을 죽인 자를 찾았노라. 왕이시여, 그에게 정의를 베푸소서."

이에 앵거스 왕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르시되, “그 사내 어디 있느냐? 나를 그에게로 데려가라.” 하신지라, 왕후가 이르되, “그는 트리스트람이니이다. 이 곳으로 들어왔으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앵거스 왕이 이르되, “부인이여, 당신이 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뇨? 내가 당신의 말이 참되다 믿을 수 없노라.” 이에 왕후가 소리쳐 이르되, “스스로 가보소서, 영주여. 가서 그 말이 얼마나 참된지 확인하소서.”

그때 앵거스 왕이 일어나 그 곳을 떠나 서 트리스트람의 거실로 향하였더라. 그곳에서 그는 트리스트람 경이 매우 급히 옷을 차려 입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무장을 마친 것을 보았더라. 이에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에게 다가가 이르되, “이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무장한 채로 발견하였도다. 너는 내 가문의 원수인가?”

트리스트람이 울며 대답하되, “아닙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니이다. 저는 폐하와 폐하의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하오니, 만약 저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폐하를 위해 싸우기를 기꺼이 원하오이다.”

이에 앵거스 왕이 이르되, “만약 그대가 말한 바가 옳다면, 어찌하여 그대는 싸움을 준비한 듯 무장을 하고, 손에는 검을 들고 여기 있느냐?”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비록 제가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는 친구이로소나, 제가 폐하를 친구로 볼지 적으로 볼지 알 수 없사오니, 그러므로 저는 폐하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였나이다. 저는 방비도 없이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사오니, 적어도 제게도 방어할 길이 있게 하소서.”

앵거스 왕이 이르되, “그대는 지극히 어리석은 말을 하도다. 어찌 한 명의 기사가 나의 온 가문을 상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리요? 이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누구이며,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또 그대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죽였는지 알면서도 여기로 왔는지 내게 말하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앵거스 왕에게 고백하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신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리이다.” 하고는 앵거스 왕에게 모든 일을 고백하니, 곧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하스 경과 싸웠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곳으로 와서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를 뻔하였던 일을 말하였노라.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이 진리이니이다, 폐하. 그리고 신이 마하스 경에게 악의를 품지 아니하였음도 진리이니이다. 신은 단지 왕의 조카인 콘월의 마크 왕을 위해, 그리고 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와 결투를 벌였을 뿐이니이다. 신은 그와 함께 운명을 걸었고, 그가 신과 함께 운명을 걸었사오며, 또한 신은 기사로 서던 날, 마하스 경과 싸웠으

니, 그것이 신이 치른 첫 번째 전투였사옵니다. 그 전투에서 신은 크게 다쳐 죽을 뻔하였으니, 폐하께서 잘 아시거니와, 그는 수많은 전투로 단련된 숙련된 기사였사오며, 그의 패배는 기만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운명 때문이었나이다."

이에 앵거스 왕은 트리스트람 경이 한 말을 모두 들으시고, 그가 말을 마치자 이르시되, "하느님 보시니, 트리스트람이여, 너는 마하스 경과 맞서 참된 기사로서 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노라. 네가 그 뜻을 품었더라면, 네 숙부의 원수를 갚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노라. 또한 네가 그리도 젊은 나이에 마하스 경과 같이 이름 높은 기사의 손에서 명예를 구한 것은 진실로 기사다운 행실이었노라. 내가 믿건대, 네가 그의 길을 막기 전까지 세상에 그보다 더 위대한 기사는 없었노라. 오직 호수의 랜슬롯 경만이 다를 뿐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얼마 전에 목격한 네 활약과 함께, 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사 중 한 명이며, 랜슬롯 경이나 그 밖의 그 누구와도 견줄 만한 자라고 믿노라."

"비록 이 모든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부양할 수는 없노라. 내가 너를 이곳에 두면, 나는 왕비와 그 일족뿐만 아니라 마하스 경의 친족이거나 그와 우정의 맹약을 맺었던 많은 영주들과 기사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대로 하여,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하노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를 도우거나 도와줄 수는 없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벨 이졸트 공녀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큰 선행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사옵니다. 지금 저의 손에 들려 있는 검의 손잡이를 치켜들고,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고 맹세하노라. 아니, 저의 명예조차도 바치리이다! 그녀가 저의 마음속 모든 사랑을 차지하고 있사오니,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이제 제 기사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저 또한 머지않아 적지 않은 명성을 가진 기사가 될 것이라 믿사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느끼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제 목숨이 구원된다면, 이 외지에서의 제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제게서 친구이자 충실한 하인을 얻는 것이 폐하께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사옵니다.

저가 어디로 가든, 저의 기사적 맹세를 드리나니, 저는 공녀의 종이 될 것이며,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그녀의 충실한 기사가 될 것이라 맹세하노라. 그리고 그녀가 저를 부르신다면, 결코 그녀의 시중을 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이에 앵거스 왕은 잠시 이를 묵상한 뒤 이르시되, "트리스트람, 네 말이 지극히 옳도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를 이 곳에서 무사히 데려갈 수 있겠는가?"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저를 폐하의 명성에 흠이 없게 돌려보낼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이다. 이제 간청하오니, 폐하의 자비로써 제가 폐하의 공녀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어서 모든 기사들과 왕실 친족들에게도 정당한 기사로서 작별을 고하게 하소서. 만약 그들

중 저의 행방을 막거나 제 떠남을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위험이 얼마나 크든 저는 그 자와 맞서야 하리이다."

"앵거스 왕께서 이르시되, '그대는 매우 기사다운 태도로 행동하도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바대로 하리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계단을 내려가 벨 이졸트가 머무는 한 방소로 들어갔노라. 그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이르되, "부인, 저는 이 곳을 떠나야 하오나, 이는 제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선에서여야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자 하나이다. 저는 평생토록 부인을 위한 진정한 기사가 되어, 기사가 부인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오. 제 마음은 오직 부인에게만 속하오니, 저는 언제나 부인을 위한 진실한 기사가 될 것이오. 비록 다시는 부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의 얼굴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든 부인에 대한 생각은 항상 제 곁에 머물리이다."

이때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은 크게 울기 시작하더라. 이를 본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도 격정으로 일그러졌으며, 그는 이르되, "부인, 그리 울지 마옵소서!" 하니, 그녀가 이르되, "슬프다,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거늘, 그가 다시 이르되, "부인, 당신이 나를 구하여 주셨나니, 내가 목숨을 잃으리라 생각하던 때에 내 생명을 주셨고, 고통에서 편안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를 되돌려 주셨노라. 하느님이시여, 내게 다시금 그 모든 고통을 주사 당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와 헤어지다〉 이때 앵거스 왕이 곁에 서 있거늘, 그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마와 눈, 그리고 입술에 입맞추니라. 이에 그는 돌아서서 그 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슬픔에 눈이 어두워져 문고리를 더듬어야만 했으며, 드디어 그것을 찾아 그 곳을 빠져나왔더라.

그 후 트리스트람은 곧장 성의 홀로 향하여 들어가니라. 그곳에서 그는 왕을 모시고 있는 성의 여러 영주들과 기사들을 다수 발견하였으니, 이 일의 소식이 매우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분노에 차 있었고, 일부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은 온몸에 완전한 갑옷을 두른 채 매우 담대하게 들어와, 그들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그리고 위대한 용기로 말하였노라. 이르되,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실례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말하라. 내가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리라.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노라. 그러나 이러한 말은 지금 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지 말라. 여기 내 몸이 있으니,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자의 몸과도 맞서 나의 기사도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때 그 자리에 있던 기사들은 모두 멈춰 서서 침묵을 지켰고, 트리스트람 경에 대해 반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비록 왕비와 친족 관계에 있는 기사와 영주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트리스트람의 당당한 기개가 그들을 위압하여, 그 누구도 그에게 응수할 마음을 내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은 그 곳을 떠났으니, 뒤를 따라오는 자가 있는지 고개를 돌려 살펴봄이 없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의 아일랜드 떠남〉 이에 그는 그 성을 떠나고, 고버네일이 그를 따라갔으며, 그의 떠남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 후 그와 고버네일은 해안가에 이르러 배를 타고 트리스트람 경의 함선으로 향하여, 그리하여 아일랜드를 떠나 항해하였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그는 수없이 여러 번 죽기를 원하였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비록 그 몸은 온전하고 건강하였으나, 그 영혼은 심히 불안하고 괴로워하더라. 비록 그는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고 건강하였으나, 그의 마음에는 인생의 모든 기쁨이 이미 뒤로 남겨진 듯하여, 낙원의 성벽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으리라 여겼더라.

[그림: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 앞에서 하프를 타다]

제5장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의 명을 받아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이졸트 공녀를 데려오게 된 일과 그간의 사정》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다시 콘월로 돌아오매, 마크 왕과 왕실의 모든 기사들과 영주들이 그를 크게 영접하며, 그가 무사히 귀환하였음을 기뻐하여 큰 환대를 베풀었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은 깊은 우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 그의 눈앞에는 푸른 하늘조차도 굵은 베옷처럼 어둡게 변하여, 온 세상에 빛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에 대해 말하더라〉 비록 그에게 삶이 큰 기쁨이 되지 못했거니와,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에 관한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지었노라.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비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그녀의 슬프고도 사랑스러운 기사였음을, 그리고 비록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희망조차 없었으나 일생 동안 그녀에게 충실하리라 맹세했음을 노래하였노라.

이와 같은 노래를 그는 빛나는 금색 하프의 선율에 실어 불렀으며, 마크 왕은 그를 듣기를 즐겨 하였노라. 때때로 마크 왕은 깊게 한숨을 쉬며 이르되, “경의 그 부인은 실로 지극히 놀랍고 아름다우며 은혜로운 분이시라” 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사옵나이다. 그녀가 바로 그 모든 분이옵니다” 하였노라.

그때에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지극히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사랑은 쓰디쓴 증오로 변하였으니, 이에 대해 곧이어 들으리라.

그때에 콘월의 기사들은 그 땅의 모든 기사 중 가장 무가치한 자들로 여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무예와 기량이 너무나 미천하여 많은 기사도적 궁정에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에 대해 콘월의 기사 한 명은 아마도 기사일지언정, 확실히 진정한 챔피언은 아니

라고 일컬어졌노라. 이는 콘월의 모든 이들에게 큰 치욕이었으며, 특히 그 말이 상당 부분 진실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더라.

〈각주: 가네이스의 블레베리스 경이 콘월로 오다〉 어느 날, 콘월의 궁정에 한 위대한 고결한 기사가 찾아왔으니, 그의 이름은 가네이스의 블레베리스 경이라 했노라. 그는 가네이스의 블라모어 경의 형제요, 호수의 랜슬롯 경의 가까운 사촌이었느니라. 이 기사는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 중 하나였으므로, 콘월에서 큰 존경과 함께 맞이되었고, 그의 도착을 기뻐하며 큰 기쁨을 나누었노라. 이는 그의 명성을 지닌 기사들이 그 땅에 드물게 찾아왔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궁정에 없었는데, 그는 사냥을 위해 숲으로 들어갔던 것이라. 그러나 전령이 보내져 그에게 알리니, 왕의 궁정에 블레베리스 경이 계시며, 마크 왕께서도 그에게 궁정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노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명을 받들어 궁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그 때 마크 왕의 성에서는 블레베리스 경을 기리기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그 잔치에서는 강한 포도주가 많이 마셔졌으므로, 블레베리스 경과 다른 이들의 머리는 그 술기운으로 매우 뜨거워졌다. 그러자 술의 열기와 잔치의 소란과 떠들썩한 소리에 블레베리스 경은 매우 성급해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기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아서왕 궁정의 기사들이 콘월의 기사들보다 더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자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하는 기분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원탁의 기사 한 명은 콘월의 기사 스무 명과 맞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때 잔치의 그 일부분에 적막이 내려앉았으니, 이는 거기에 있던 모든 기사들과 영주들이 블레베리스 경의 말을 들었으나 그에게 답할 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마크 왕은 블레베리스 경을 바라보며 매우 시큰둥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말에 깊은 혐오감을 가진 듯이 여겨지며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우리 손님으로 여기 잔치에 함께 앉아 있사오니, 우리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치 않도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말한 바는 쉽게 반박될 수 있겠노라.”

이때 블레베리스 경의 얼굴과 머리로 피가 거세게 치솟았고, 그는 크게 웃으며 이르되, “자, 영주여. 내가 이곳에서 손님이 되어 오래 머물 필요는 없소.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진실인지 쉽게 시험해 보실 수 있소.”

〈각주: 블레베리스 경이 콘월의 기사들을 도전하다〉

이 말을 마치자 블레베리스 경이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노라. 그가 서 있던 곳 근처에는 매우 정교하게 세공되고 기교 있게 조각된 금잔이 하나 놓여 있음을 그가 발견하였더라. 블레베리스 경이 그 잔을 손에 들어 올렸더니, 그 안에는 붉은 포도주가 반쯤 차 있더라.

이에 그는 모든 이들 앞에 서서 매우 큰 소리로 외쳤노라.

"영주들이시여, 그리고 콘월의 모든 기사들이여. 내가 너희의 더욱 뛰어난 용기와 무공을 위해 이 잔을 마시노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나은 전운을 얻기를 바라노라."

이러고 그는 잔에 담긴 포도주를 모두 마셔 버렸노라.

그리하여 그가 다시 말하되, "이제 나는 여기서 떠나 이 잔을 가지고 가리니, 만일 콘월의 어느 기사라도 이 잔을 내 손에서 빼앗아 왕께 다시 가져온다면, 나는 이 나라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기사들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겠노라."

이러고 그는 그 잔을 손에 든 채로 매우 오만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그곳을 떠나갔노라. 그러나 그곳에 있던 기사들 중 그에게 멈추어 서라고 하거나, 그의 무례한 말에 대해 꾸짖으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더라.

그가 홀을 나와 서늘한 공기를 맞자, 포도주의 열기는 곧 식어갔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르되, "슬프도다! 내 호스트이신 마크 왕께 내가 그리도 무례했도다." 잠시 그는 그 잔을 다시 가져가 자신이 한 말을 사죄하려 했으나, 이후에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방으로 가서 갑옷을 갖추어 입고, 그 잔을 가지고 마크 왕의 궁정을 떠나 말을 몰았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의 노여움〉

그가 떠난 지 얼마 후, 트리스트람 경이 다른 이들이 모인 대청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모두의 얼굴이 어둡고 침울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수치심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도 없었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블레베리스 경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매, 마크 왕이 이르되, “그는 이미 떠났노라.”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묻되, “어찌하여 떠났는가?” 하매,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고, 블레베리스 경이 그 잔을 가져감으로써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수치와 조롱을 안겼음을 전하였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로 피가 격렬히 치솟았으며, 그가 이르되, “여기 블레베리스 경을 책망하거나 그의 떠남을 막을 기개 있는 기사가 단 한 명도 없었는가?” 하더라. 이에 그가 대청 안을 두루 둘러보았으니, 그 모습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사자 같았고, 아무도 그의 얼굴을 직시하거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이르되, “좋도다. 만약 콘월 왕을 변호할 뜻이 있는 기사가 콘월에는 없다면, 리오네스의 한 기사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는 콘월 왕의 손에서 기사 작위를 받았으니까.” 하고는, 그는 돌아서서 거만하게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났으며, 그들은 모두 전보다 더 큰 부끄러움에 잠겼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온갖 장비를 갖추어 무장을 마쳤노라. 그는 말을 불러 타서 승마한 뒤, 블레베리스 경이 향했던 길로 떠났으며, 고버네일이 그와 함께 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블레베리스 경을 쫓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과 고버네일은 오랜 시간 좋은 속도로 달렸노라. 그들이 만난 이들에게 물었으니, 블레베리스 경이 그 길을 지나갔는지였노라. 마침내 그들이 숲에 들어와 한참을 달렸을 때, 오후 늦게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곧 그들의 앞에 두 기사가 나타났으니, 체격이 매우 크고 힘센 이들이라. 그들은 모두 빛나고 번뜩이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고, 각각 플랑드르 혈통의 거대한 전쟁마를 타고 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두 기사와 조우함〉

"고버네일아,"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급히 앞서 나가라. 저기 있는 두 기사가 누구인지 내게 확인하라."

고버네일이 즉시 말을 몰아 달리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두 기사의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니, 다시 트리스트람 경에게 돌아와 보고하더라.

"주군, 저들은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매우 저명한 명장 두 분이옵니다. 그중 한 분은 주군께서 이미 아시거니와, 다른 한 분은 생소하옵니다. 한 분은 아일랜드에서 열린 그 토너먼트에 참가하셨던 사그모어 르 데지레 경이시요, 다른 한 분은 도디나스 르 소바주 경이옵니다."

"자, 저들은 실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두 기사요. 잠시 이곳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담소를 나누어 보겠소."

“영주님,” 고버네일이 아뢰되, “저희는 그 기사들과 맞서지 말 것을 권하옵니다. 그들보다 무예에 뛰어난 기사는 드물지 않사오니, 만일 그들과 시합을 벌이신다 하더라도 성공하시리라고는 보기 어렵사옵니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조용하라, 고버네일!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여기 머물라!”

그때 기사들은 트리스트람 경과 고버네일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자, 숲의 탁 트인 곳에서 멈춰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더라. 트리스트람 경이 위엄 있고 거만하게 말을 몰고 그들에게로 다가왔고, 충분히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고삐를 당겨 거만하게 몸을 가누며 이렇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 경계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를 요구하노라."

이에 사그모어 경이 매우 경멸하는 어조로 대답하되, “아름다운 기사여, 당신은 콘월의 기사인가?”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것을 묻는가?” “영주여,”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물었던 그러한 질문들에 응할 용기를 가진 콘월 기사의 소문이 드문 까닭이니이다.”

“자, 그건 그렇고,”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는 지금 이 순간 콘월의 기사로 있노라. 내가 너에게 일러두거니와, 너는 이 곳을 떠나지 못하리라. 나의 물음에 답하거나, 무력으로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때 도디나스 경이 매우 격렬하게 말하되 이르되, “콘월의 기사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무예의 만족을 당장 받으실 것이요, 또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에 그는 매우 튼튼한 창을 손에 쥐고 조금 멀리 달려가니, 트리스트람 경은 그가 싸움을 걸 의도를 보자 또한 조금 멀리 달려가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더라. 그때,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그들은 놀랄 만한 격렬함으로 서로 돌진하여 땅이 그들 아래서 떨리고 흔들렸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도디나스 경의 결투〉

이때 두 사람은 그 길 한가운데서 만나, 철과 나무가 부딪치는 굉음과 함께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돌진에서 도디나스 경의 창은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으나, 트리스트람 경의 창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충돌에서 트리스트람 경은 도디나스 경을 안장으로부터 완전히 들어 올려, 말의 엉덩이 받침 너머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도디나스 경을 그렇게 격렬하게 던져 그의 목이 거의 부러질 지경에 이르렀으며, 도디나스 경은 잠시 동안 죽은 자와 다름없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누워 있었다.

그때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자, 기사여. 네가 내 동료를 때린 그 타격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네와 내가 상대할 차례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사그모어 경의 결투〉 이에 트리스트람 경도 또한 창을 손에 쥐고, 도디나스 경이 행한 바와 같이 돌격할 자리를 정하였으며, 트리스트람 경도 또한 그가 전례로 행한 바와 같이 그 자

리에 섰더라. 곧바로 두 사람은 트리스트람 경과 도디나스 경이 서로 질주하며 충돌했던 것과 같은 가혹한 기세로 서로 달려들었으니, 그 격돌에서 트리스트람 경이 창으로 사그모어 경에게 가한 일격은 지독하여, 말과 기수를 모두 쓰러뜨렸고, 쓰러진 말이 사그모어 경 위에 떨어지며 그의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여, 그가 잠시 동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의 기마술을 다한 뒤, 땅에 쓰러져 있는 두 기사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아름다운 기사들이여, 더 싸우고자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싸웠나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아서왕의 궁정에는 너희보다 더 큰 기사들이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단 한 명의 기사에게 연이어 패배하였으니 그 치욕을 크게 여겨야 하리라. 오늘 콘월의 한 기사가 너희 둘을 모두 크게 모욕하며 상대하였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이때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경이여, 당신의 진정한 기사도 정신에 걸려 말씀하옵나니,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당신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분이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웃으며 이르되, "아니오, 나는 아직 젊은 기사로서 전투에서 아직 그다지 많은 시련을 겪지 못했소. 내 이름에 관하여는, 당신이 묻기에 내 기사도 정신에 걸려 당신에게 숨길 것이 없소. 나는 트리스트람 경이라 불리며, 리오네스의 왕 멜리아두스의 아들이오."

"하!" 사그모어 경이 소리쳤다. "만약 그대가 옳다면, 그대에게 패한 것에는 그리 큰 치욕도 없으리라. 나는 잘 기억하노니, 그대는 아일랜드 왕의 궁정에서 원탁의 기사 여섯 명을 물리쳤으며, 사라센인 팔라마데스 경을 어떻게 쉽게 제압했는지. 또한 그대가 마하우스 경과 싸워 그를 이겨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느니라. 이제 마하우스 경과 팔라마데스 경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 두 명이었으니, 그대가 우리와 같은 대우를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제 그대가 우리를 물리쳤으니, 그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영주들이여,"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바는 단 두 가지라. 첫째는 너희가 코른월 땅으로 가서 마크 왕께 나아가, 너희가 코른월 기사 한 명에게 패하였다고 고백하리라 하는 그 맹세라. 둘째는, 너희가 이 길로 블레베리스 드 가니스 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는 말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영주여, 경께서 우리게 명하신 대로 마크 왕께 나아가 우리의 패배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베리스 경에 관하여는, 우리가 방금 얼마 전 그를 만나 보았사오니, 그가 이 곳에서 그리 멀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이제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대들에게 좋은 저녁을 비오. 또 당신의 정보에 감사하노라. 그가 이 국경을 떠나기 전에 블레베리스 경에게 할 말이 몇 마디 있소."

이에 그는 구버네일을 불러 두 사람은 숲 속으로 향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길을 재촉하더라. 한편 도디나스 경과 사그모어 경은 그들이 맹세한 바대로 마크 왕의 궁궐로 향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블레베리스 경에게 오다〉

이제 트리스트람 경과 구버네일이 그 길로 꽤 먼 거리를 더 나아간 때라, 그들은 숲길 앞에서 블레베리스 경을 보았노라. 그는 매우 당당하게, 그리고 느릿한 걸음걸이로 말을 몰고 오고 있었더라. 그 때 해는 땅 가까이로 매우 낮게 기울고 있어, 숲 나무들의 꼭대기들은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으나, 숲 아래쪽은 모두 시원하고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노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과 그와 함께한 구버네일이 블레베리스 경에 매우 가까이 다다랐을 때, 트리스트람 경은 매우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돌아서서 멈추라고 명하였노라. 이에 블레베리스 경은 돌아서서 트리스트람 경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노라.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이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블레베리스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신이 코른월의 마크 왕의 식탁에서 부끄러운 방법으로 빼앗아 온 매우 고귀한 잔을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다 하오. 이제 내가 당신에게 그 잔을 내게 주어서 다시 왕에게 가져가게 하기를 요구하오."

"좋소," 블레베리스 경이 이르되, "만약 당신이 그 잔을 내게서 빼앗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잔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소. 그리고 당신이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안장의 고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그 잔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코른월의 기사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믿소."

"그 일이라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조금 있으면 어찌될지 보게 될 것이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블레베리스 경을 무찌르니라〉

그때 각기 기사는 창을 손에 쥐고 조금 멀리 물러나, 공격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더라. 그리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각기 서로에게 돌진하여 그 충돌의 격렬함이 심히 컸기에, 창끝에서는 불꽃이 튀었노라. 그 돌진에 각기 기사의 말은 쓰러졌으나, 각기 기사는 안장으로부터 몸을 빼어 가볍게 땅에 뛰어내렸으며, 누구도 넘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각기 칼을 빼어 방패를 앞에 세우고, 서로 맞서서 그 힘의 전부를 다하여 찌르고 베었노라. 각기 상대방에게 많은 치명타를 가하였으므로, 각기 갑옷은 여러 곳에서 함몰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피로 물들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트리스트람 경은 분노로 매우 격분하여 블레베리스 경에게 돌진하되, 그를 그렇게 맹렬히 치므로, 블레베리스 경은 뒷걸음질 치며 방패를 낮게 들어 보호하였노라. 이를 본 트리스트람 경은 블레베리스 경에게 재차 돌진하여, 그 기사에게 머리에 큰 일격을 가하

였노라. 블레베리스 경은 힘을 잃고 발을 붙들지 못하여 무릎을 꿇고 쓰러졌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블레베리스 경의 투구를 벗겨내고 이르되, "기사여, 내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영주여," 블레베리스 경이 이르되, "저를 주께 항복하나이다. 실로 주께서는 평생 제가 만난 어떤 기사보다도 진정한 기사로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블레베리스 경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영주여, 저와 이같이 맞서게 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여기노라. 실로 저는 주께 패하는 것이, 제가 주를 이기는 것보다 더 나았으리라 생각하노라. 저는 주께서 호수의 랜슬롯 경의 사촌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랜슬롯 경을 존경하노라. 그러므로 저는 살아있는 그 누구의 우정보다도 그의 우정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 저에게는 주에 대한 원한이 없었노라. 다만 코른월 왕, 즉 저의 삼촌을 위하여 마땅히 싸워야 했기 때문에 주와 맞섰을 뿐이니라."

이에 블레베리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당신을 뵈옵고자 하오니, 당신이 누구시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나는 매우 젊은 기사로서 이름은 트리스트람이라 하오며, 리오네스의 왕 멜리아두스와 코른월의 마크 왕의 누이인 엘리자베스 부인의 아들이오."

〈각주: 블레베리스 경이 잔을 트리스트람 경에게 건넨다〉

"하," 블레베리스 경이 이르되, "나는 당신에 관해 대단한 평판을 들어왔노라, 트리스트람 경. 이제야 직접 대가를 치르고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 중 한 분임을 알았노라. 옳소, 나는 의심치 않노니, 언젠가 당신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나 가일스의 라모락 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오. 이 두 분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들이라. 이제 나는 만약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싸울 필요조차 없이 이 잔을 드렸을 것이라고 믿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를 매우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노라."

이에 블레베리스 경은 안장 고리에 매달아 두었던 잔을 풀어 주었고, 트리스트람 경은 그 잔을 받아 감사의 뜻을 표하더라.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말들을 되찾아 각각의 안장에 올라, 각자 가려던 곳으로 길을 떠났노라.

그리하여 해가 진 직후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의 왕과 그의 궁정에 이르러 마크 왕에게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제가 다시 가져온 당신의 잔을. 하느님께 비옵나니, 저보다 훨씬 연로하신 당신의 기사들 중 한 분이 제가 행한 바를 대신 감행할 담력을 갖추셨더라면 좋았으리이다." 하고는 그 말을 남기고는 그들을 모두 부끄러움에 잠기게 한 채 그곳을 떠났더라.

이 일들 있은 지 얼마 후, 마크 왕이 낮잠을 청하기 위해 낮잠자리로 들어가셨더라. 이때는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라. 왕이 누우신 곳 근처 창문은 공기가 통하도록 열려 있었더라. 그 때, 창문 아래 정원에서 세 명의 기사들이 앉아 있더라. 이 기사들은 서로 트리스트람

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블레베리스 드 가니스 경에게서 그 잔을 가져온 일과, 그런 기사가 코른월에 있어 궁정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논하고 있더라.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만약 코른월의 왕이 트리스트람 경과 같은 기사라면, 훌륭한 기사가 그 궁정에 많이 올 것이며, 코른월은 오늘날처럼 자신의 기사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왕이 트리스트람 경과 같은 기사이시기를!"이라고 말하더라.

〈각주: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미워하다〉

마크 왕은 이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들이 나눈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지독한 독약과도 같았노라. 그들의 말이 그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그곳에 머무르자, 그 즉시 트리스트람에 대한 그의 사랑은 증오로 변하더라. 그리하여 그 날 이후로 마크 왕은 자신이 들은 말을 끊임없이 묵상했고, 묵상할수록 그의 삶은 더욱 쓴맛이 났으며, 트리스트람 경에 대한 증오는 더욱 깊어졌노라.

그리하여 그가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곤 했노라. “그들이 너를 나보다 더 나은 기사라 하더냐? 하느님이시여, 네가 죽거나 이 곳을 떠나기를 빕니다. 언젠가 네가 나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때로는 그가 트리스트람 경을 그렇게 바라보며 속삭이기도 했노라. “하느님이시여, 그에게 재앙을 내려 그가 시들게 하소서!”

그러나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에 대한 이 증오를 항상 숨기셨으니,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더라. 특히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변했는지 누구보다도 의심하지 못하였노라.

어느 날, 트리스트람 경은 마크 왕 앞에 앉아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왕은 트리스트람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트리스트람 경은 요즘 자주 하던 대로, 아름다운 벨 이졸트 여인에 관하여, 그녀의 얼굴이 꽃 중에서도 장미처럼 고운 까닭에 관하여,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지새는 새와 같아 슬픔의 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가까이 있는 자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까닭에 관하여 노래하였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와 같이 노래하는 동안, 마크 왕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듣는 동안 그의 마음에 한 생각이 스며들었고, 이에 왕은 미소하였다. 트리스트람 경이 아름다운 이졸트에 대한 노래를 마치자, 마크 왕이 이르시되, "어진 조카여, 내가 너에게 한 소임을 부탁하고 싶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어떤 소임이오리까, 주군?"

마크 왕이 이르시되, "아니로다. 내가 너에게 이 소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네가 기사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할진대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악의를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미소하며 이르되, "사랑하는 주군, 만약 이 소임이 내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

면, 주군의 청을 받고 이를 수행하겠사오며, 이에 나의 기사도를 맹세하노라."

마크 왕이 이르시되, "그대는 이 소임을 수행할 수 있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사오면, 주군이 그 소임을 말씀해 주실진대, 나는 이를 수행하겠사오나이다."

〈각주: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약속에 배신하다〉 마크 왕이 이르되, "나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벨 이졸트 공녀에 대한 네 노래를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고자 하는 소임은 이렇다. 너는 아일랜드로 가서 벨 이졸트 공녀를 데려와 내 왕비가 되게 하라. 네 노래와 발라드 때문에 내가 그녀를 이처럼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녀를 내 왕비로 모시기 전까지는 내 생에 어느 곳에도 행복이 있을 수 없으리라 믿노라. 그러므로 이제, 네가 기사도적 맹세로써 이 일에서 나의 명을 따르리라 약속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네게 명하는 소임이라." 이에 그가 트리스트람 경을 매우 기묘한 미소로 바라보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절망에 빠진 사연〉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하프를 내려놓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크 왕을 바라보았으니, 그의 얼굴은 죽은 자의 그것처럼 놀랍도록 창백해져 있었더라.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이르되,

"폐하, 폐하가 어찌하여 이것을 저에게 지우시는지, 또 어찌하여 저를 배신하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저는 언제나 한 명의 위대한 기사이자 혈육으로서 폐하께 충성을 다해 왔사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시며, 어찌하여 저의 죽음을 꾀하시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폐하는 잘 아시거니와, 제가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된다면 왕비나 그녀의 친족들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폐하를 위해 제가 아일랜드 왕비의 오라비인 마하우스 경을 전장에서 죽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결과야 어찌되든, 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잃는 편이 낫사옵니다. 만약 제가 목숨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일을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오.

사실, 제게는 제 벨 이졸트 공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한 기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노라 믿사옵니다. 저는 그녀를 그녀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의 병폐를 고쳐주시고 저의 큰 고통에 안락을 주시며, 저를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폐하께서 저에게 행할 것을 명하신 그 일은 저에게 죽음보다 더 쓴 것이오."

"그렇구나," 마크 왕이 이르되,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 바 없노라. 다만 네가 이 모험을 완수하리라 하는 기사도의 맹세를 이미 내게 주었음을 알 뿐이니라."

“좋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만일 하느님께서 이 일에서 내게 도움을 주시거든, 내가 나의 기사도 정신으로 맹세한 바를 반드시 행하겠소.” 이에 그는 그곳을 떠나니, 그 절망이 크기로는 마치 그의 마음이 재가 되어버린 듯하였더라. 그러나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한 것을 기뻐하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되, “이것은 내가 이 기사에게 품은 증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안이로다. 나중에는 아마도 더 큰 위안을 얻게 될지니라.”

그 후 트리스트람 경은 더 이상 마크 왕의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왕의 궁정을 떠나, 마크 왕이 그에게 이전부터 자신의 소유로 내주었던 작은 성으로 곧장 향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영혼 깊은 곳의 큰 절망 속에 여러 날을 보냈으니, 하느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잠시 동안은 고버네일만이 그와 함께 있었고 다른 이는 없었으나, 얼마 후 몇몇 기사들이 그에게 찾아와 큰 위로를 건네며 자신의 기사 동료가 되기를 자원하였다. 이 기사들은 열여덟 명이었는데,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의 동행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경은 영혼의 이처럼 큰 고난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옵소서. 오직 경은 하느님께서 지고 가라 명하신 짐을 지실 참된 기사로서 그 짐을 맡으소서."

이같이 말하더니,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이 그의 절망에서 깨어나 스스로 이르되, "이 신사들이 말한 바는 참되도다. 하느님께서 과연 이 매우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셨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를 감당할지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을 떠남〉 이에 트리스트람 경과 그와 함께한 기사들은 그 장소에서 하루 이틀, 혹은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어느 아침, 트리스트람 경은 무장을 하고, 동료 기사들도 또한 무장을 갖추었으며, 모두 그 성을 떠나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에게 약속했던 그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향할 뜻을 품고 항해를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돛을 올리고 코른월을 떠나 아일랜드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길을 급히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 항해 둘째 날에 이르러 거대한 바람의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그와 같은 폭풍은 그 배의 선원들이 평생 동안 본 적 없는 것이었더라. 파도는 산맥처럼 솟아올랐고, 곧이어 물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며 양쪽에는 눈처럼 하얀 거품으로 뒤덮인 물의 언덕이 일었더라. 그리고 곧 그 배는 거대한 바다가 그것을 구름 속으로 던져 넣을 듯이 공중으로 들어올랐는가 하면, 곧이어 녹색의 물이 배를 완전히 삼켜 버릴 듯이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더라. 공기는 지옥의 악마들과 사악한 영혼들로 가득 찬 듯이 울부짖었고, 바람은 짠물로 인해 젖어 있고 소금기로 매우 쓰라렸더라. 그리하여 그 배는 그 폭풍을 피해 달아났고, 온배의 사람들은 거대한 풍랑과 격분한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심장이 녹아내렸더라.

저물 무렵, 망루에서 감시하던 자들은 육지와 항구를 보았고, 그 육지 위에 항구를 내려다보는 고귀한 성채와 크고 아름다운 마을이, 높은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그들은 자신이 본 바를 다른 이들에게 알렸고, 모두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

였더라. 이에 그들은 배를 항구 쪽으로 몰아넣고, 무사히 입항한 후 성채와 마을의 성벽 아래에서 닻을 내렸으며, 신께서 그들 무리를 그 끔찍한 폭풍의 위난에서 무사히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캐멀롯에 도착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고버네일에게 이르되, "고버네일아, 우리가 지금 이르게 된 이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고버네일이 이르되, "주군, 이는 캐멀롯인 듯하옵니다." 이에 곁에 서 있던 코른월의 기사들이 이르되, "그렇도다, 이는 진실로 캐멀롯이라." 그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군, 이때에 아서왕께서 그 곳에 계실 가능성이 크니, 그가 거기에 계신다는 소문이 있었음이여, 그리로 믿사옵니다."

"하,"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이것은 내게 있어 매우 기쁜 소식이라. 나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서왕과 그의 궁정에 있는 고결한 기사들을 목격하는 것이라 믿노라. 그중에서도 내가 모든 것보다 먼저 간절히 바라는 바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불리는 그 위대하고 고결한 전사를 뵙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상륙하자. 그리하면 아마도 위대한 왕과 랜슬롯 경을 뵙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분들 중 한 분과 혹은 두 분 모두와 말도 나누게 될지 모를 일이라."

이러한 트리스트람 경의 말씀은 그와 함께하던 기사들에게도 좋게 들렸으니, 그들은 바다의 피로에 지쳐 잠시나마 마른 땅에서 쉬고자 했기 때문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천막을 치다] 이에 그들은 곧장 상륙하여, 성채와 마을에서 약 한 리가량 떨어진 평탄한 초원에 하인들에게 천막

을 치라고 명하였더라. 그 평원 한가운데 다른 천막들 사이에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이 세워졌으니, 그 천막은 은빛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홍포로 만들어졌고, 천막 중앙 기둥의 꼭대기에는 그리폰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더라. 트리스트람 경의 창은 막대기의 끝으로 땅에 꽂혀 있었고, 그 창에는 그의 방패가 달려 있어, 그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였더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이 아서왕의 궁정에서 선량한 기사들의 단체인 원탁의 기사들과 우정을 맺게 된 사연을 들려주리라.

[그림: 트리스트람 경이 랜슬롯 경과 함께 앉아 있다]

여섯째 장

<본문>

어떻게 트리스트람이 원탁의 기사 세 명과 싸웠는가. 또한 그가 아서왕과 담소를 나눈 일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이 이르렀고, 해는 그 영광의 모든 빛을 다하여 솟아올라, 드물게도 눈부신 광채를 네 방면으로 쏟아부었더라. 밤새 폭풍의 구름들은 사라져 가고 없었으며, 이제 공기는 맑고 푸르렀고, 수평으로 내리쬐는 빛의 광선들이 초원 너머로 가로질러 비추자, 잎사귀와 풀잎 위에는 무수한 물방울들이 반짝였으니, 마치 땅 전체에 흩뿌려진 수많은 빛나는 보석들 같았더라. 그때 잠들었던 자들은 새들의 무수한 노래소리에 깨어났으니, 그 시각 작은 새들은 기쁨에 찬 선

창을 불렀기 때문이라, 이른 아침 전체가 그들의 노래하는 달콤한 소리로 가득 찼더라.

이때, 아직 해가 높지 않은 이른 아침에, 트리스트람 경과 그 일행이 천막을 치고 머물던 곳 옆으로 두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갔다. 이 두 기사는 아서왕의 궁정과 원탁의 기사들 중 지명도가 매우 높은 이들이었는데, 한 분은 에커 데 마리스 경이요, 다른 한 분은 리즐의 모르가노르 경이었더라.

[각주: 두 기사가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으로 오다] 이 두 기사가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기사 동행의 천막을 보고는 멈춰 섰다. 에커 드 마리스 경이 이르되, "이곳에 온 이 기사들은 누구인가?" 하니, 모르가노르 경이 바라보며 곧장 이르되, "경이시여, 그들의 방패를 보아하니 저들은 콘월 기사들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중앙 천막에 머무는 자는 이무리의 대표 기사라 하겠나이다." 에커 경이 이르되, "좋도다. 내가 콘월 기사 하나쯤을 크게 염려하지는 않노니, 너는 그 기사의 방패를 치고 그를 불러내라. 우리가 그의 기개를 살펴보자."

“그리하겠사옵니다,” 모르가노르 경이 이르며, 이에 그는 트리스트람 경의 방패가 창끝에 걸려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창끝으로 방패를 치니, 방패는 매우 큰 소리를 내어 울렸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즉시 그의 파빌리온 문으로 달려나가 이르되, “경들은 어찌하여 내 방패를 치셨나이까?”

에커 경이 대답하되, “우리는 당신의 기개를 시험하려 하노라. 당신이 과연 어떤 기사인지 알아보고자 함이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주님께서 그대들이 만족하지 못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니, 그러니 내가 갑옷을 갖추어 입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라. 그리하면 즉시 그대들의 뜻대로 하겠노라.”

이에 그는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단단한 물푸레나무로 만든 훌륭한 창을 손에 쥐었다.

그때 콘월의 기사들이 모두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 있어 그의 시범을 구경하려 나왔고, 그들의 시종들과 하인들도 같은 목적으로 나왔다. 이는 기마전을 벌이기에 아주 좋은 시각이었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모르가노르 경을 격파하다〉 이때 모르가노르 경이 먼저 트리스트람 경을 시험하려 하였으나, 그 격투에서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치명적이고도 두려운 일격으로 내려쳐, 말의 안장 뒤쪽 너머로 창 한 자루 길이만큼 멀리 떨어뜨리니, 그 충격이 심하여 모르가노르 경의 코와 입, 귀에서는 피가 분출하였고, 그는 몹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하하,” 에커 경이 이르되, “네가 내 동무에게 먹인 그 일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내 상대가 될 차례이니,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나은 운명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에커 경을 쓰러뜨리다〉

이에 에커 경은 전투에 임할 채비를 갖추었고, 트리스트람 경 또한 이와 다름없이 준비를 마쳤다. 양군이 온전히 준비되자, 그들은 격렬한 기세로 돌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더라.

그 격돌에서 에커 경은 모르가노르 경이 겪었던 불운보다도 덜하지 않은 참패를 당하였으니, 그의 창은 트리스트람 경의 창에 부딪혀 백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반면 트리스트람 경의 창은 꺾이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 그가 돌진한 상대의 기마와 기수를 동시에 땅에 쓰러뜨렸더라.

그때 콘월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들의 기사가 그 격투에서 이처럼 훌륭하게 싸웠다고 크게 찬사를 보냈으나, 트리스트람 경은 여전히 땅에 쓰러져 있는 두 기사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이르되, "잘 들으시오, 영주님들아. 이는 나와 함께한 너희에게 매우 불운한 일이었노라."

이 말을 들은 에커 데 마리스 경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이르되, "경, 제게 기사도의 정의를 베푸시어, 경이 누구시며 경의 신분이 어떠하신지 알려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들 중 한 분이라 믿나이다."

"경,"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의 이름과 신분을 말씀드리는 데 주저함이 없나이다. 나는 리요네스의 왕 멜리아두스의 아들, 트리스트람 경이오."

"하," 에커 경이 이르되, "하느님께 맹세코, 내가 그대와 겨루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대의 명성은 이미 이 땅에 퍼

졌고, 그대의 무용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으며, 악사들과 시인들은 그대를 주제로 한 여러 노래를 지었노라.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나는 데 마리스라 불리는 에커 경이며, 이 나의 동행자는 리즐의 모르가노르 경이니라."

"슬프도다!" 트리스트람 경이 외쳤다. "내가 당신을 만나 싸우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원탁의 기사들을 사랑하며, 그중에서도 에커 경의 고결한 형제인 호수의 랜슬롯 경을 가장 존경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내 손으로 인해 이런 불운이 닥쳤음을 나는 크게 부끄러워하노라."

이에 에커 경이 웃으며 이르되, "그런 근심은 당신에게 맡기지 말라. 이는 우리가 당신을 도전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던 우리 쪽 잘못이니라. 당신은 다만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다. 우리가 저쪽 캐멀롯으로 향하던 중 이런 불운을 당하였노라. 이때 아서왕이 그곳에서 궁정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허락을 구하노니, 우리가 길을 재촉하여 왕께로 돌아가 당신이 여기 계심을 아뢰리니, 왕께서 이 소식을 매우 기뻐하실 줄 아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에게 떠날 허락을 주었고, 그들은 많은 친절한 위로의 말과 함께 떠났더라. 그들이 간 후, 트리스트람 경은 다시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 그에게 가져다준 음식을 먹었더라.

〈각주: 흰 갑주를 입은 기사가 오다〉 에커 경과 모르가노르 경이 그 곳을 떠난 지 얼마 후, 트리스트람 경이 아직 그의 천막에서 쉬고 있을 때, 한 기사가 그 길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온몸을 흰 갑

주로 두르고 있었고, 그의 방패는 흰 가죽으로 덮여 있어 그가 무엇을 문장으로 달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이 흰 갑옷의 기사가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동료들이 천막을 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에커 경과 모르가노르 경이 그랬던 것처럼 멈춰 섰으니, 그는 이 기사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그 때 고버네일은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 앞에 홀로 서 있었는데, 흰 갑옷의 기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보시오, 내가 청하노니, 이 천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 주시오.”

이때 고버네일은 속으로 생각하되, “저 또한 내 주군과 맞서려 하는 또 한 명의 기사로구나. 어쩌면 트리스트람 경이 그에게서도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는 백의 기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신사여, 이 기사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사오니, 그는 곧 나의 주군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려 하신다면, 반드시 친히 말씀하셔야 하리이다.”

"좋으니라," 백의 기사가 이르되, "그리하면 내가 곧바로 그에게 묻겠노라."

그리하여 그는 트리스트람 경의 방패가 걸려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 방패에 거세게 한 방을 가하였다. 그 타격이 심하여 방패가 매우 크고 맑은 소리를 울려 퍼뜨렸더라.

그때 곧장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기사 동료들이 여러 명 천막 밖으로 나왔고,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기사여, 어찌하여 내 방패를 치더뇨?"

“영주여,” 백의 기사가 이르되, “내가 당신의 방패를 쳤던 것은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오. 나는 당신의 시종에게 그것을 물었으나 그는 말하지 않나이다.”

“훌륭한 기사여,”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네가 내 방패에 가한 그 일격으로 인해 내게 가한 모욕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방패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로 인해 내가 입은 모욕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야 하노라.”

"그렇구나," 하얀 기사가 이르되, "나는 그대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만족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백기사와의 전투〉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니 여러 사람이 그를 따랐다. 그들이 그의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온갖 방편으로 그를 무장시켰더라. 그 후 트리스트람 경이 나와 말에 올라타 창을 손에 쥐고, 전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 이때 백기사는 그의 출현을 매우 차분하고 단호하게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자 트리스트람 경이 전투를 위한 자리를 잡으니, 백기사 또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이에 모두 준비를 갖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놀랍고도 두려운 격렬함으로 돌진하였으니, 그 대결을 목격한 자들은 돌진하는 굉음에 놀라 번개라도 맞은 듯 서 있더라.

이때 두 기사는 길목 한가운데서 마주쳤고, 각기 자신의 방패 중앙을 향해 적을 내리쳤다. 그 충돌에서 두 기사의 창은 모두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 버렸으니, 손에 쥐었던 창대조차도 파편이 되고 말았다. 그 타격은 너무나도 가혹하여, 두 기사의 말 모두 뒷발로 주저앉았으나, 기사의 뛰어난 기량이 있었기에 비로소 말은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트리스트람 경에게 있어, 이는 그가 그 때까지 겪었던 어떤 타격보다도 가장 혹독한 것이었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곧장 안장에서 내려 칼을 빼들고 방패를 차렸다. 그리고 그는 외쳤노라. "오, 기사여! 나는 당신에게 말에서 내려 발로 싸우기를 요구하노라."

"좋구나," 하얀 기사가 이르되, "너는 네 뜻대로 하리라." 이에 그 또한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아 들었고 방패를 차려 입었으며, 트리스트람 경이 행한 바와 같이 모든 준비를 갖추어 싸울 태세를 갖췄더라.

그때 두 사람은 마주하여 즉시 격렬한 싸움을 시작하니, 매번 검이 부딪칠 때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트리스트람 경이 강하고 빈번하게 내리치면, 백의 기사도 그에 못지않게 강하고 빈번하게 응수하였으므로, 주변에 서 있던 코른월의 기사들은 격투하는 두 기사의 힘과 맹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각기 다른 기사에게 많은 타격을 가하여, 갑옷 여기저기가 오그라들고 여기저기 검날에 찢겨 피가 흘러나와 갑옷을 타고 흘러내리니, 빛나던 갑옷의 빛깔은 이곳저곳 피빛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이렇듯 그들은 한 시간 이상 싸웠으나, 그 동안 어느 기사도 한 발짝 물러서거나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전투에서 쓰러지다〉

그 뒤 얼마 뒤, 트리스트람 경은 그토록 오랜 생애 중 어느 때보다도 전투에 지쳐 갔노라. 그는 자신이 마주한 이 상대가 지금까지 만나 본 어느 기사보다도 위대한 기사임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쪽 저쪽에서 놀라운 기교와 재주로 싸움을 이어 갔노라. 그러던 중 갑자기, 그가 스스로 흘린 피 위에 발이 미끄러져, 큰 피로로 인해 무릎을 꿇고 쓰러졌노라. 그는 잠시 동안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노라.

그때 백색 갑옷을 입은 기사는 만약 원했다면 손쉽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타격을 유보하고 트리스트람 경에게 손을 내밀며 이르되, “기사여,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만약 네가 원한다면 다시 이 싸움에 임하리라. 내가 네 넘어짐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함은 아니니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적의 놀라운 용맹함보다도, 그의 특별한 예의에 더욱 크게 놀랐다. 그 예의에 감복한 그는 다시는 싸우려 하지 않고, 검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경, 경의 기사도 정신을 빌려 말씀하옵나니, 경의 이름이 무엇이며 누구신지 알려주소서."

“메시에르,” 백의 기사가 이르되, “당신이 내 기사도(Knighthood)를 걸고 내게 물은 것이니,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와 같은 예의를 베풀어, 먼저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나에게 알려주어야 하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라. 나의 이름은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며, 내가 그 땅의 왕 멜리아두스의 아들이라 내 성을 얻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자기를 고백하더라〉

“하, 트리스트람 경아,” 백의 기사가 이르되, “너와 네 무예에 관하여 나는 이미 자주 듣곤 하였노라. 오늘 너의 명성이 진실임을 잘 깨달았노라. 네에 관해 들은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노라. 나는 오늘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보다 더 뛰어난 상대를 만나지 못하였노라. 만약 네가 우연히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났을지 나는 알 수 없노라. 내 이름은 랜슬롯, 호수의 기사이며, 벤윅의 왕 반의 아들이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큰 소리로 외쳤노라. “랜슬롯 경이시여! 랜슬롯 경이시여! 바로 당신을 향해 내가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오이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당신의 사랑과 우정을 간절히 원하였사오니, 차라리 내게 무슨 일이 생기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랜슬롯 경에게 항복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이같이 말한 후 곧장 무릎을 꿇고 이르되, “영주여, 제가 당신께 항복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무용 못지않게 당신의 예의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고백하노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요, 그와 맞설 다른 기사는 없나이다. 내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사오며, 당신이 잠시 전 내가 쓰러졌을 때 쉽게 나를 죽이실 수 있었사옴이니이다.”

“아니니라, 트리스트람 경,” 랜슬롯이 이르되 “일어나라. 내게 무릎 꿇지 말라. 나는 너의 복종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진실로 아직 누가 더 훌륭한 기사인가, 너인가 나인가가 증명되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쪽도 다른 쪽에게 양보하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형제와 다름없이 친밀하게 지내자.”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다시 일어섰다. "그렇다면, 랜슬롯 경. 당신이 정하신 바는 모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니이다. 그러나 이 전투로 인해 반드시 행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나이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그의 검을 부수다〉

그가 손에 뽑아 든 피투성이인 그의 검을 내려다보며 이르되, “좋은 검이여, 너는 나의 벗으로서 여러 전투에서 나를 잘 섬겼노라. 그러나 오늘이 너의 마지막 봉사일이라.”

이러고 그는 양손으로 검날을 잡아—한 손은 끝부분을, 다른 손은 손잡이 근처를—무릎 위에 얹고 검날을 부러뜨려 그 파편들을 멀리 던져버렸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 영주여!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나이까? 자기의 아름다운 검을 부수셨나이까?”

“경,”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 검이 오늘 그 어떤 칼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얻었사오니, 이는 곧 경의 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영예를 더럽힐 만한 다른 일이 일어날까 두

려워, 내가 이를 부러뜨렸사오니, 그 영예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으며 외쳤노라. "트리스트람,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기사보다도 너야말로 가장 고결한 기사라 믿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되, "그리고 너, 랜슬롯, 나는 너를 내 아버지나 친족보다 더 사랑하노라" 이르니라. 이에 각기 서로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으며, 곁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에 젖어, 순수한 기쁨에 몇몇은 눈물을 흘렸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랜슬롯 경이 함께 연회하다] 그 후 두 사람은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으로 들어가 갑옷을 벗었다. 이때 훌륭한 의술을 가진 종자들이 여러 명 모여들어 그들의 상처를 살피고 씻겨 주며 약을 발라 주었더라. 또 다른 종자들이 모여 부드러운 옷감을 가져와 기사들을 감싸 입혔으니, 그들의 몸은 매우 편안하였더라. 이어 또 다른 종자들이 좋은 진한 포도주와 부드러운 빵을 가져와 식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기쁨으로 식사를 하며 크게 기운을 회복하였더라.

이제 나는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 사이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무용담을 너에게 일러주었노라. 내가 이를 기록하며 누렸던 기쁨을, 너 또한 이를 읽으며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각주: 아서왕이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으로 오시다〉 이때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 안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더니, 갑자기 한 종자가 그들 곁으로 달려들어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영주들이여, 아서왕께서 오시나이다. 그가 곧장 가까이 오고 있사옵니다.”

종자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천막 밖에서는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굉음과 갑옷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고, 이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울려 퍼졌다.

이때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천막 문에 드리워진 커튼이 갈라지며 아서왕 친히 들어오시니, 그 분은 마치 왕실의 모든 영광을 두른 듯하셨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달려가 무릎을 꿇으려 하였으나, 아서왕이 그를 말렸다. 위대한 왕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경이시여, 경이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시냐?”

“예, 저입니다.”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더라.

“하!”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게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경을 만나게 되어 기쁘도다.”

그리하여 왕이 트리스트람 경의 뺨에 입을 맞추며 이르시되, “환영하노라, 메시에르! 환영하노라! 세 번이나 환영하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아서왕께 쉬어가시기를 간청하였고, 왕은 그 뜻에 따르시리라 말씀하셨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왕을 가장 높은 자리로 모시고 가니, 아서왕께서 그곳에 앉으셨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친히 술과 빵을 가져다 드리려 하였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

고 트리스트람 경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라 명하시니, 트리스트람 경이 그 명을 따랐노라. 그 후 아서왕은 트리스트람 경과 여러 가지로 담소를 나누시되, 특히 트리스트람 경의 아버지인 멜리아두스 왕과 리요네스의 궁정에 관하여 주로 말씀하셨더라.

그 후 잠시 있다가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 놀라운 하프 연주자라 들었노라." 하시니,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되, "폐하, 그런 말이 저에게도 돌곤 합니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가 네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니, 트리스트람 경이 답하되, "폐하, 폐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기꺼이 무엇이든 드리겠나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고버네일에게 명하여, 고버네일은 그에게 빛나는 황금 하프를 가져왔고, 하프는 천막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큰 광채를 발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아서왕 앞에서 노래하다]

트리스트람 경은 하프를 손에 쥐고 줄을 맞추어 그 줄을 튕기니라. 그가 하프를 연주하고 그 선율에 맞추어 노래하니, 그 노래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 거기에 앉아 있던 자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히 경청하더라. 이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트리스트람 경이 부르는 그 노래와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마치 천사가 거기에 앉아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트리스트람 경의 노래가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의 노래에 대해 큰 환호와 많은 찬사를 보내었더라.

"하, 메시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내 생애에 여러 번 훌륭한 노래를 들어왔노라.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 그대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었노라. 이제 내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항상 이 궁정에 그대를 모시고, 그대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저 또한 항상 그대와 이 궁정의 고결한 기사들 곁에 있고자 원하옵나이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기쁨과 우애로운 정신으로 함께 앉아 있더라. 잠시 동안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사명을 잊어버렸고, 그를 이곳으로 몰고 온 그 끔찍한 폭풍을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모험의 결말과, 트리스트람 경에게 닥친 일을 이야기하리라.

[그림: 아름다운 이졸트와 트리스트람 경이 사랑의 약을 마시다]

제칠장

<각주: 트리스트람이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과 나눈 대화와, 앵거스 왕의 편을 들어 싸우기로 한 일과 그 이후의 일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앵거스 왕의 소식을 듣다〉

이때 아서왕과 랜슬롯 경이 함께 앉아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던 트리스트람 경의 천막에, 고버네일이 갑자기 나타나 그 자리로 달려들었노라. 그가 트리스트람 경에게 다가가 어깨 너머로 몸을 굽히고 귀에 대고 속삭이되,

"경하,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이 바로 이 시점에 캐멀롯에 계셔서 아서왕의 궁정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아서왕을 돌아보며 이르되, “폐하, 제 시종이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께서 캐멀롯에 계신다 하더이다. 이제 폐하께 아뢰옵나니, 그 말이 참된 말씀이오리까?”

왕께서 이르시되, “그렇도다. 참된 말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저는 아일랜드에서 앵거스 왕을 찾아 나서려 하였사오나, 거친 폭풍우에 밀려 여기로 불려 왔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앵거스 왕께서 저를 친구로 여기실지, 적으로 여기실지 알 수 없사옵니다.”

〈각주: 아일랜드에서 베르트랑 경이 죽임을 당한 일〉

“하,” 아서왕이 이르시되, “앵거스 왕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노라. 그는 지금 영혼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 자신을 친구로 삼는 자는 모두 친구로 받아들이고, 화해시킬 수 있는 적이라면 누구든 적으로 두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는 지금 나와 내 궁정 모두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노라. 그 사연은 이렇노라.

너희가 아일랜드 궁정을 떠난 지 얼마 후, 블라모르 드 가니스 경(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라)가 그 곳으로 왔노라. 블라모르 경과 함께 베르트랑 드 라 리비에르 루주 경이라 불리는 한 기사가 동행하였노라. 이 두 기사는 아일랜드 궁정에서 명성을 얻고자 그곳으로 향하였노라. 그들이 그 왕국에 머무르는 동안 수많은 기마창시합과 투기가 열렸고, 그 모든 경기에서 블라모르 경과 베르트랑 경은 승리를 거두었노라. 그들을 상대한 아일랜드의 모든 기사들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치욕을 당하였노라. 아일랜드 기사 다수가 이에 극도로 분노하였고, 아일랜드 왕 역시 그러하였노라.

그런데 어느 날, 베르트랑 경이 왕의 숲 중 한 고개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노라. 이 소식이 블라모르 경에게 전해지자, 그는 동료가 이처럼 사악하게 살해당했다 하여 크게 노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는 즉시 아일랜드를 떠나 곧장 이곳으로 돌아왔노라. 그가 내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 살해 사건 때문에 앵거스 왕을 반역죄로 고발하였노라.

지금 앵거스 왕은 이 고발에 답변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나의 소환에 응하여 이곳에 있노라. 블라모르 경은 그의 고발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려 하노라. 반면 아일랜드 왕은 그 논쟁에서 자신을 대변할 기사를 찾지 못하였노라. 블라모르 경이 너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이들이 이 사건에서 앵거스 왕의 무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로써 너희는 지금 이 때 앵거스 왕이 적보다는 친구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노라."

"폐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좋은 소식이라.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해가 없도록 앵거스 왕과 담화할 수 있으며,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친구로 맞이할 것임을 알았노라."

이때 아서왕과 그의 궁정이 떠난 후라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으므로, 트리스트람 경은 고버네일을 불러 말들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고버네일이 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말에 올라타, 앵거스 왕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홀로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트리스트람 경은 왕과 면담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고, 시종들은 그를 앵거스 왕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여 들였다.

〈각주: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환영함〉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 경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얼굴이 낯설지 않고 친근함을 알아볼 때, 그는 기쁨의 큰 비명을 지르며 트리스트람 경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감싸 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노라. 이는 그가 그 적대적인 곳에서 한 친구를 발견함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폐하, 어찌 계십니까?" 하니 앵거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트리스트람아, 나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도다. 나는 적들 가운데 홀로 서서 나를 도와줄 이 없으니, 내일이나 그다음 날이라도 나를 위해 싸워줄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붉은 강가의 베르트랑 경 살해죄로 인하여 나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이 땅에서 나의 무죄를 변호할 투사를 어디에서 구하리오? 마주치는 모든 이가 적으로 보일 뿐이니 말이다. 불쌍한 트리스트람아! 전 세계에 나를 도와

줄 이가 없도다. 오직 당신 한 분만이 원탁의 기사들 밖의 모든 기사들 중에서도 그 훌륭하고 강인한 영웅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이다!"

"폐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지금 당신을 덮친 큰 근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잘 아노라. 바로 그 때문이라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이라. 당신이 아일랜드에서 내 생명을 살려 주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말하였던 것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였노라. 곧, 필요할 때 내가 당신의 친구로서 봉사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였노라. 그러므로 당신이 두 가지 점에 관하여 나를 만족시켜 주시거든, 내가 이 일에 있어 당신의 투사가 되어 서리라."

"아, 트리스트람이여," 앵거스 왕이 이르시되, "네 말이 내게 있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기사도 너만큼 강인하고 가치 있는 기사라 믿노라. 다만 호수의 랜슬롯 경이 예외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니 네가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일을 내게 말하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거든, 기꺼이 네 기쁨이 될 만한 답을 주리라."

"폐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첫째로 요구할 바는 이러하니라. 당신은 베르트랑 경의 죽음에 있어 전적으로 무죄함을 내게 확증하여야 하리라. 둘째로 요구할 바는 이러하니라. 내가 청하리라는 모든 은총을 허락하여야 하리라."

〈각주: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무죄를 맹세함〉 이때 앵거스 왕이 일어나 검을 빼 들어 이르되, "트리스트람아, 보라. 여기 내 검이 있노라. 그 칼막이와 칼날과 손잡이가 모든 기독교인이 절하여 공경

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표를 이루느니라. 보라! 보라! 내가 이 거룩한 표에 입을 맞추고, 아울러 그 신성한 상징 위에 맹세하노니, 또한 내 기사도의 명예 위에 맹세하노니, 내가 앞서 말한 그 고결하고 존귀한 기사의 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무죄하노라. 내가 그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그 일에 관한 모든 악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메시에여, 그대가 이 점에 대해 만족하는가?"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저는 만족하옵니다."

이에 앵거스 왕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는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고로 언제든지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하시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그의 청원을 구함〉

"폐하," 트리스트람 경이 외쳤노라. "이 은혜는 제가 감히 청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청하지 아니하려던 것이옵니다. 그 청원은 이러하니이다. 폐하께서 저의 숙부인 코른월의 왕 마크에게 폐하의 딸, 벨 이졸트 공녀를 아내로 주사 주시옵소서."

이 말에 앵거스 왕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트리스트람경을 매우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더라.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가 이르되, "경이, 이는 내가 듣기에 매우 특이한 요청이로다. 네가 앞서 내게 한 말과 내 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나는 네가 벨 이졸트 공녀를 스스로의 아내로 삼고자 함이라 여겼노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네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마크 왕의 이름으로 그녀를 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듯 외쳤다. “영주여, 내가 사랑하는 그 고운 부인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오. 그러나 이 일에서는 내가 코른월 왕에게, 바로 나를 기사로 임명하신 그 분에게, 내 기사도의 명예를 걸고 한 서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오. 나는 그 서약을 알지 못한 채 내렸으나, 이제 그 성급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손에 쥔 그 검을 가져 내 심장을 관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서약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리이다.”

“이제야,” 앵거스 왕이 이르되, “너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거니와,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리라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알라. 다만 이 일에서 네가 행하는 바에 대해서는, 코른월 왕에게 네가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옳은지, 그 선택에 대해 너는 하나님과 네 기사도적 명예 앞에 책임을 지고 답해야 하리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다시금 외쳤노라. “주여,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벌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하오.” 이에 그는 일어나 그 곳을 떠났으니, 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격정을 남들이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이제부터는 트리스트람 경과 가니스의 블라모르 경 사이의 그 유명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이 사건은 기사도 정신을 다룬 여러 역사서들에 있어 이미 많이 기록되어 왔노라.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니라. 하늘은 맑고 화창하며, 해는 놀라울 만큼 빛나더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그 전투의 시련을 위해 준비된 투기장이 설치된 곳으로 향하였으니, 그 곳은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인 평평한 초원이었더라. 그 곳은 성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며, 성문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또한 가까운 곳이었더라.

〈각주: 전장의 초원〉 실로 그곳은 전투를 벌이기에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으니, 한쪽에는 봄꽃과 꽃들로 가득한 활기찬 시골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성의 성벽이 솟아 있었기 때문이라. 그 성벽 위로는 많은 높은 탑들이 보이는데, 돌로 쌓은 탑도 있고 벽돌로 쌓은 탑도 있어, 천천히 떠다니는 구름이 가득한 맑고 빛나는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으니, 그 구름들은 마치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부른 백조들 같았더라. 그리고 성벽 너머로는 창문이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유리 창문들은 하늘을 향해 빛나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 격렬한 전투가 곧 벌어질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알 수 있으리라.

그때에 무리들이 광활한 전장의 초지로 모여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성곽의 성벽 위에 파리 떼처럼 모여 앉아 그 아름답고 평온한 초지 땅을 내려다보았더라. 꽃잎으로 덮인 그 아름다운 초원은 마치 화려한 카펫을 깔아놓은 듯 펼쳐져 있었노라. 전장의 한쪽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색감과 질감의 비단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좌석대가 길게 늘어섰고, 그 가운데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두 개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니, 하나는 아서왕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의 왕 앵거스를 위한 것이었더라.

초원 한가운데서 블라모어 경이 매우 당당하게 말을 몰아 다녔노라. 그는 붉은 갑옷을 두르고 있었고, 말의 안장 및 구비품 또한 모두 붉은 빛이어서, 마치 붉은 불꽃이 들판을 휘젓는 듯 그 모습을 드러냈더라.

"폐하," 아서왕이 앵거스 왕에게 이르되, "저자는 매우 강인하고 힘센 고결한 기사라. 이제 이 장차 닥칠 전투에서 그와 맞설 수 있을 자를 어디에서 구하랴?"

〈각주: 앵거스 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자신의 대리로 내세우다〉

"영주여," 앵거스 왕이 이르되, "나는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한 방패를 일으키셨음을 믿노라.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 어제 내게 이르러, 나의 이 논쟁을 대신 맡으리라 약속하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나는 온 크리스천 세계에 그를 능가하는 기사가 없음을 알노니,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나의 무죄가 고발자에 대항하여 입증되리라 하는 큰 희망으로 심장이 뜨거워지노라."

"하!" 아서왕이 이르시되, "만약 트리스트람 경이 이 일에 너의 대전사가 되겠다면, 진실로 너는 스스로를 위해 매우 훌륭하고 값진 수호자를 얻었도다."

그때 곧이어 트리스트람 경이 말을 타고 그 곳에 이르렀으니, 고퍼네일을 따르게 할 뿐 다른 호위도 없었더라. 그는 온몸을 빛나는, 광택나는 갑주로 두르었으니, 그가 전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설 때 그 빛이 큰 광채의 별과도 같이 빛나더라. 그는 곧장 아서왕이 앉아 계신 곳으

로 직행하여 왕 앞에 절하며 인사를 드리니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경은 어느 기사인가?"

"주여," 그가 대답하되, "나는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니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 곁에 앉아 있는 앵거스 왕을 옹호하러 왔나이다. 이는 그가 그 죄목에 대해 무죄라 믿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믿음에 몸을 걸겠나이다."

"이제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 왕이 너를 두고 확실히 훌륭한 기사를 거느렸도다. 그러므로 가서 네 예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옳은 편을 지켜주시기를 빌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블라모르 경의 결투] 이에 각기 기사들은 튼튼한 창을 단단히 쥐고 대결할 자리를 정하여, 각각의 방패를 앞에 세우고 창끝을 받침에 걸쳤다. 그러자 준비가 끝난 때에, 원수가 나팔을 크게 불어 알리니, 그 순간 두 기사는 천둥 번개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들은 길목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부딪쳤으니, 각기 기사의 창은 손잡이 끝까지 산산조각이 났더라. 두 필의 말은 모두 뒷발로 주저앉았으며, 기사가 타지 않았다면 모두 쓰러졌으리라. 그러나 기사들은 가장 뛰어난 기교와 재주로 말의 균형을 되찾아 넘어지지 않았더라.

이에 각기 기사는 안장에서 내려 서고, 검을 뽑아 자기 앞에 방패를 세우니라. 이에 그들은 두 마리 사나운 멧돼지처럼 발로써 싸움에 임하니, 그 격렬하고 맹렬함이 보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더라.

이는 그들이 이리저리 돌며 서로 찌르고 치므로, 각자의 갑옷이 온통 조각나 떨어졌기 때문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블라모르 경을 격파함〉 그러나 이 전투 전반에 걸쳐 트리스트람 경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두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격렬하게 싸운 끝에, 블라모르 드 가니스 경은 드디어 그를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하여 후퇴하느라 발걸음을 떼었으며, 지친 나머지 방패를 낮은 위치로 내리고 말았다. 이를 눈치챈 트리스트람 경은 즉각 블라모르 경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오른쪽 어깨에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였다. 그 타격의 위력 탓에 블라모르 경의 팔은 완전히 마비되어 더 이상 손에 검을 쥐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서 블라모어 경의 검이 풀숲 속으로 떨어지니라. 이를 본 트리스트람은 달려가 그 위에 발을 올렸노라. 그러자 블라모어 경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으니, 곧 죽음에 임박한 자의 피로와 기운이 없음을 닮은 지극한 쇠약과 허약함이 그에게 덮쳤기 때문이라.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기사여, 당신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노라. 이제 나는 당신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으니 스스로를 나에게 항복하라 명하노라."

이에 블라모르 경이 대답하되, 그의 투구 속에서 깊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르되, “기사여, 당신은 당신의 힘과 무공으로 나를 이겼노라.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결코 너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지극히 큰 치욕이므로,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그 치

욕을 견디지 아니하리라. 나는 원탁의 기사로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이 이긴 바가 없노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외쳤노라. "기사여, 내가 간구하노니 항복하라. 오늘 너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노라."

블라모르 경이 이르되, "나는 항복하지 아니하노니, 내리치라. 그리하여 이 일을 끝내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채 서 있더니, 블라모르 경을 내려다보며 망설임에 빠졌더라. 그러자 블라모르 경이 다시 이르되. "치시오, 기사여. 그리고 이 일을 끝내시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블라모르 드 가니스 경이여, 내가 너를 치고 죽이지는 못하리라. 너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피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라. 그에게 나는 무기의 형제결의를 맹세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대에게 항복할 것을 청하노라."

블라모어 경이 이르되, "아니오,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겠노라."

"그렇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나도 오늘 어제를 본받아 행할 수밖에 없으리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블라모르 경에게 그의 검을 돌려준다] 이같이 말하며, 그는 자신의 검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머리 위로 여러 번 휘

둘렀다. 그 행동을 마치자 그는 검을 멀리 던져버렸으므로, 이제 그는 자신의 미세코르디아(자비검)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상태였다. 그 후 그는 블라모르 경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풀밭에 떨어진 블라모르 경의 검을 주워 다시 블라모르 경의 손에 쥐여주며 이르되, "기사여, 이제 당신은 무장을 갖추었으니 나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사오니, 나의 생사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항복시키거나, 혹은 내가 여기 무기가 없이 서 있는 대로 나를 죽이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치지 못할 것이요, 비록 내가 공정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제 나를 죽이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이에 블라모르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너그러움에 크게 놀라 이르되, "기사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는 트리스트람,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이라" 하니라.

이때 블라모르 경이 트리스트람에게 나아가 그의 어깨를 품에 안으며 이르되, “트리스트람, 나는 너에게 항복하노라. 그러나 이는 원한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내가 항복하는 것은 네 팔의 힘 때문이 아니라, 네 지극한 고결함 때문이니라. 비록 내게는 이 세상에 너와 맞먹는 기사가 없을 것이라 믿거니와, 오직 내 사촌인 호수의 랜슬롯 경만이 너와 동급이라 여길 뿐이라. 그러나 나는 이 아일랜드의 왕이 배신자가 아님을 확신하고자 하노라.”

“영주여,”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 일에 관하여 나는 이 대결에 임하기 전에 이미 굳게 확신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기사도적 언약 위에 그를 무죄라 단언할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블라모르 경이 이르되, “나 또한 만족하노라. 이에 나는 그에게 대해 내가 제기했던 모든 탄핵을 철회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블라모르 경이 화해하다〉 이때 그 두 고결하고 뛰어난 기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높은 위엄으로 앉아 계시던 아서왕께 나아갔더라. 그 화해의 광경을 바라본 모든 이들은 큰 박수로 그들을 칭송하였노라.

아서왕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시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으시며 두 사람을 모두 품에 안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은, 너희와 같은 기사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클 수 없노라."

이렇게 하여 이 유명한 전투는 트리스트람 경에게 지대한 영광을 안겨주었으나, 그가 대항했던 저 유명한 기사에게도 전혀 실례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 후, 아서왕과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 그리고 궁정의 모든 이들은 캐멀롯 성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두 명의 결투 기사들은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상처를 살피며 치료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그 날 바로 그 때, 캐멀롯 성에서 모든 이들이 연회에 앉아 있을 때, 한 사내가 달려와 소식을 전하였다. 원탁의 한 좌석 위에 트리스트람 경의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연회를 마친 그들은 즉시 그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보러 달려갔다. 원탁의 천막에 이르러 보니, 보라! 그 이름이 정말로 그 좌석 위에 있었으니, 그 좌석은 한 때 펠리노어 왕의 자리였었더라. 그 좌석 위에 적혀 있던 이름은 바로 다음과 같았더라.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원탁의 기사가 되다〉 그러므로 이튿날, 트리스트람 경은 원탁의 기사 동반자로서 위대한 장엄함과 모든 정성을 다해 정식 서임되니라.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그는 고버네일과 자신을 따르는 코니스 기사들을 거느리고 앵거스 왕과 함께 아일랜드로 항해에 올랐더라.

이에 그들 모두 무사히 아일랜드에 도착하였으니, 이는 트리스트람 경이 왕의 극심한 위난 날에 왕을 도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왕비는 그에게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용서하시어, 그분은 왕과 왕비의 궁정에서 큰 우의와 높은 존경으로 맞이되셨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아일랜드에 머무르던 시절〉 잠시 동안 트리스트람 경은 아일랜드에 머물며 자신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앵거스 왕에게 이르되, "폐하, 벨 이졸트 공녀에 관하여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옵소서."

이에 앵거스 왕이 대답하되, "내가 이제 우리가 아일랜드에 이르렀으니 그 일로 인한 당신의 뜻을 바꾸셨으리라 바랐노라. 당신이 처음 나에게 말했을 때와 여전히 같은 뜻이시오?"

“그렇도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것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노라.”

“그렇다면,” 앵거스 왕이 이르되, “나는 내 딸이 당하게 될 이 불행한 일을 준비하러 가리라. 비록 내 마음으로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꺼려하노라. 내가 먼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너는 이 일을 네 손으로 처리하라. 솔직히 말해, 내가 더 이상 이를 꾀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에 앵거스 왕은 트리스트람 경이 머무르신 곳으로부터 물러나 가시어 한참 동안 자리를 비우셨더라. 그가 돌아왔을 때 이르되, “경이여, 그 길로 가시오. 벨 이졸트 공녀께서 경을 뵈옵게 되리니.”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앵거스 왕이 일러준 방향으로 나아가니, 한 시종이 길을 인도하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성채의 한 탑 꼭대기, 지붕 처마 밑 높은 곳에 자리한 넓은 방에 이르렀으니,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이 머무는 곳이었더라.

〈각주: 벨 이졸트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나타난 모습〉

벨 이졸트 부인은 이 방의 맞은편 끝에 서 있었으므로,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비추었다.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가 놀

랍도록 아름다우며, 살과 피를 가진 여인이라기보다는 빛나는 영혼과도 같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온통 흰 옷을 입었으며,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맑았다. 그녀의 목과 팔에는 다채로운 빛나는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가 둘러져 있어, 놀라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매우 밝고 맑게 빛났는데, 마치 열병에 걸린 자와 같았다.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의 얼굴에 눈물의 자국이 있으며, 하얀 뺨에는 빛나는 보석들이 매달려 있는 듯이 여러 방울의 눈물이 맺혀 있음을 보았다.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잠시 말없이 서서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더라. 그러자 잠시 후 그녀가 말하여 이르되, "경이여, 경이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나이까?" "부인," 그가 대답하되,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였사오나,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사옵니다."

그녀가 이르되, “트리스트람, 당신이 나를 배반하였나이다.” 이에 그가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부인,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녀가 이르되, “트리스트람, 내게 말하라. 네가 한 서약을 이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로써 나의 행복과 네 행복을 모두 희생하며 네 명예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네 자존심을 버리고 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나은가,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트리스트람,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네가 한 이 약속을 깨뜨리고 함께 행복하자.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부인여, 비록 당신이 제 가슴 깊숙이 손을 넣어 제 벗겨진 심장을 찢으셨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아픔을 주실 수 없으리이다. 부인이 원하시는 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제게 있어 이렇사오니, 만약 오직 제 자신만을 생각할 일이었다면, 저는 제 목숨과 명예를 아낌없이 바쳐도 좋았으리이다. 그러나 그러할 수 없나이다, 부인. 저는 제 소속된 기사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여겨지나니, 그러므로 오직 제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고 반드시 그 기사도 전체를 생각해야 하오. 만약 제가 제 기사도 신분에 걸려 맹세한 서약을 저버린다면, 저는 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한 그 기사도 전체를 치욕스럽게 할 것이오. 제가 그러한다면 온 세상은 말하리이다, ‘기사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제 마음이 내킬 때면 언제든지 서약을 저버릴 수 있는데, 그 기사도에는 과연 무슨 덕이 있겠는가?’ 하리이다. 그러니 부인, 저는 이미 이 높은 기사도의 명예를 지니었사오니, 끝까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오. 비록 그 서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신과 제 자신을 모두 희생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벨 이졸트가 잠시 동안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불쌍한 듯 미소하며 이르되, “아, 트리스트람, 내가 나를 위해 애도하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 슬퍼하노라.”

“부인,”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차라리 내가 여기 당신 앞에 죽어 있기를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가 없사오니, 오히려 온전히 강건하고 건강하오되, 마음속으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사오이다.” 이에 그는 몸을 돌려 그 곳을 떠났노라. 다만 그가 온전히 혼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듯 울었노라. 그리하여 경 트리스트람은 그의 서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

〈각주: 벨 이졸트와 트리스트람 경, 콘월로 떠나다〉 그 후, 앵거스 왕은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운 배를 준비하였으니, 그 돛은 새틴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형상의 문양이 자수로 수놓아져 있었더라. 그리고 왕은 그 배를 왕의 딸이요 왕의 아내가 타기에 마땅한 모든 방식으로 완벽하게 갖추었더라. 그 배는 바로 벨 이졸트 공녀와 트리스트람 경이 콘월의 궁정으로 향하기 위해 타고 갈 배였더라.

그리고 왕실의 한 아주 훌륭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왕비의 궁정에 있었으며, 어린 시절의 이졸트 공녀를 모셨고 그 이후로도 항상 그분의 곁을 지켰다. 이 부인은 이졸트 공녀와 함께 콘월의 궁정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 부인의 이름은 브라고웨인 부인이었다.

〈각주: 아일랜드 여왕이 마르크 왕과 아름다운 이졸트에게 사랑의 약을 제공하다〉

이때 아름다운 이졸트 여사가 아일랜드를 떠나려던 날 전날, 아일랜드 여왕이 브라그웨인 여사에게 나아가 그녀가 매우 정교하게 수공한 금으로 된 항아리 하나를 지니고 왔더라. 여왕이 이르되, “브라그웨인, 여기는 매우 특이하고 귀중한 연약의 한 항아리라. 그 액체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한 사내와 한 여인이 함께 마시거든, 그들이 생을 다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 항아리를 받아, 당신이 코른월 땅에 이르러 아름다운 이졸트 여사와 마르크 왕이

결혼한 뒤에, 그 두 사람에게 이 연약을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신 뒤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매달리게 되리라. 내가 이것을 주는 뜻은 이졸트 여사가 트리스트람 경을 잊고, 그녀가 장차 결혼할 마르크 왕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곧이어 벨 이졸트 부인은 왕과 왕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미 준비해 둔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과 브라그웨인 부인, 그리고 그들을 모신 수행원들과 함께 그녀는 콘월로 향하는 항해를 떠났다.

이때 그 여정 중에 브라그웨인 부인이 갑자기 그 배의 선실로 들어와 보니, 벨 이졸트 공주가 소파에 누워 흐느끼고 있더라. 브라그웨인 부인이 이르되, "공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에 벨 이졸트 공주가 답하여 이르되, "슬프도다, 브라고웨인아. 내가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와 장차 결혼하게 되었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브라그웨인 부인은 웃으며 이르되 "그것 때문에 우느냐? 보라, 여기는 보석과도 같은 포도주와 같은 기이한 물병이 있노라. 너는 코르월 왕과 결혼한 후에 그것을 마시고, 그도 또한 그것을 마실 것이라. 그 후 너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이를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매달릴 것이니, 이는 기이한 사랑의 묘약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나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눈물을 닦으라, 행복이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니라."

벨 이졸트 부인이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묘하게도 미소하였더라. 그 후 잠시 있다가 그녀가 일어나 시 트리스트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녀는 말하였다. "트리스트람, 나와 함께 한 잔의 술을 마시겠소?" 그가 말하였다. "네, 부인, 그 술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이르되, “그것에는 죽음이 없노라. 다만 매우 다른 것이 있을 뿐이니라.” 하고는, 그녀가 앞서 말한 그 잔이 숨겨진 선실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 때에 브라그웨인 부인은 거기에 없었더라.

이에 벨 이졸트 부인이 숨겨져 있던 그 항아리를 꺼내어, 금과 수정으로 만든 컵에 그 약액을 부어 넣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트리스트람 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르되, “트리스트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시나이다.” 하고는, 그 컵에 담긴 약액의 절반을 스스로 마셨더라. 그 후 그녀가 이르되, “이제 남은 것을 너도 나를 위해 마시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그 안에 남아 있던 술을 모두 마셔 버리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가 사랑의 묘약을 마시다]

그때 곧장 트리스트람 경이 그 묘약을 마시자, 그의 온몸의 모든 혈관마다 불꽃이 타오르는 듯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노라. 이에 그가 외쳐 이르되, “부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마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녀가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그것은 마르크 왕과 나를 위해 준비된 강력한 연약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당신과 내가 그것을 마셨으니, 이제부터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되, 오직 서로만을 사랑하게 되리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소리쳤노라. “이졸트여! 이졸트여, 그대는 우리 둘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고? 내 불행이 부족하여 그대 또한 불행을 선택하셨는가?”

이때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은 흐느끼면서도 미소 지으며,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이르되, “아니오, 트리스트람. 나는 다른 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당신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오.” 그가 이르되, “이졸트, 이 일은 우리 둘 모두에게 큰 고난이로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당신과 함께 그것을 나누리라 할진대, 나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의 얼굴에 세 번이나 입을 맞추고, 곧이어 그녀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었노라. 그는 그녀를 남겨둔 채, 혼자의 길로 떠나갔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가득 차 있었더라.

그 후 그들은 무사히 콘월 왕국에 도착하였고, 벨 이졸트 공녀와 마크 왕은 장엄한 의식과 화려한 행렬로 결혼식을 치렀으며, 그 후로는 큰 잔치가 열리고 모든 이들이 기쁨을 드러내는 듯하였다.

제이부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이야기

이제 서 트리스트람과 웨일즈의 서 라모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두 사람이 어떻게 전우의 우정을 맺었는지, 라모락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어떻게 불쾌감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는지 말하리라.

먼저 너희는 갈레스의 라모락 경이 당대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분으로 여겨졌음을 알지라. 이는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세 명의 기사가 있었으니, 그 셋은 호수의 랜슬롯 경,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그리고 갈레스의 라모락 경이었기 때문이라 전하여지더라.

라모락 경은 펠리노어 왕의 아들이었으니, 이에 관하여는 이미 『아서왕의 책』에서 그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사였다고 기록되었노라. 또한 그는 퍼시벌 경의 형제였으니, 이후 서술되리니 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사이었노라. 그러므로 이 가문에서 세 명의 위대하고 명성 높은 기사들이 나왔으므로, 펠리노어 왕의 가문은 기사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유독 유명하게 여겨졌노라. 실로 그보다 더 유명한 가문은 없었으니, 다만 벤윅의 왕 반의 가문만이 유일하였노라. 그 가문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두 명의 기사가 나왔으니, 곧 호수의 랜슬롯 경과 성배의 여정을 성취한 갤러해드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네가 시 트리스트람과 시 라모락이 어떻게 인연을 맺었으며, 어떻게 전우가 되어 형제처럼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이 읽게 되기를 바란다.

[일러스트레이션: 갈레스의 라모락 경]

제1장

<각주: 갈레스의 라모락 경이 틴타겔에 도착하고, 그가 숲에서 트리스트람과 우정을 맹세한 이야기>

갈레스의 라모락 경이 틴타겔에 이르러, 숲에서 트리스트람 경과 우정을 맹세한 일이라.

이 일들 이후, 트리스트람 경은 잠시 동안 코른월의 궁정에 머무르니, 이는 마크 왕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였더라. 그는 자신의 슬픔에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용을 닦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는 여러 모험을 성취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 모두 말씀드릴 여지가 없노라. 그러나 이러한 모험들로 인해 그의 기사도는 큰 명성을 얻어, 온 세상이 그의 위대함에 대해 떠들었더라.

그가 날로 명성을 떨칠수록 마크 왕은 그를 더 깊이 증오하더라. 그는 사랑에 절망한 벨 이졸트 공녀를 향한 트리스트람 경의 고귀함과 슬픔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이라.

또한 트리스트람 경은 매와 개를 동반한 사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니, 이는 비록 작은 위안이라도 되어 벨 이졸트의 손실로 인한 그의 슬픔을 어느 정도 달래고자 함이었더라.

이때는 이 장에서 말하는 가을의 계절이었으니, 온 세상이 숲의 갈색과 황금빛으로 영광을 더할 때라. 바람이 불어오자마자 잎사귀들은 나무들에서 떨어지니, 마치 황금의 소나기 같았더라. 그러므로 어디를 보아도 그것들은 황금의 눈송이처럼 붉은 잔디 위에 쌓여 있었고, 발밑

에서 바삭하고 따뜻하게 소리를 내며, 온 세상을 영광으로 덮어주었더라. 그리고 높은 하늘은 깊은 푸른색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하얀 구름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따뜻한 공기는 숲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견과류들이 우박알처럼 땅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사냥을 떠나니라]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었으므로, 트리스트람 경은 그 자신에게 내려진 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크게 즐겼노라. 이에 그와 그의 궁중 사람들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나무들과 덤불 사이를 달리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높은 음성의 외침, 그리고 숲의 깊은 구석에서 달콤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사냥개들의 짖음으로 숲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더라.

이때 가을의 한낮이 되어, 트리스트람 경은 온 아침을 유희로 보냈더니 배가 고파지더라. 이에 그 곁을 모신 종들에게 명하여 숲 속의 한 넓은 공터에 식탁을 차리게 하매, 종들은 그 명을 받들어 곧 여러 개의 바구니를 열었더라. 그 속에서 사슴 고기 푸딩을 비롯하여 빵과 견과, 사과, 그리고 프랑스와 라인 강 유역의 명포도주를 담은 여러 개의 병과 항아리를 꺼내었더라. 이 풍성한 음식들은 눈처럼 하얀 천 위에 차려졌으니, 그 천은 그들이 땅에 깔아 둔 것이었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 아름다운 연회에 앉으려 할 때, 옅은 노란빛 나뭇잎 사이로 멀리서 한 기사가 숲길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매우 위엄 있는 모습으로, 빛나는 갑옷을 두르고 붉은 옷감과 말 장식을 두르니, 마치 숲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저 혼자 말을 타고 가는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옵니다, 폐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대의 예의에 따라 그 기사에게 오라,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명하라."

세 네 명의 시종들이 그 기사가 달리던 곳으로 달려가, 잠시 후 그를 모시고 트리스트람 경이 있는 곳으로 이르렀으며,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맞으러 나갔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감히 경의 이름과 신분을 여쭙나이다. 보기에 경께서는 매우 높은 위계의 기사로 보임이오."

〈각주: 랄로락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만나다〉

"영주여," 다른 자가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말하리니, 만일 당신이 또한 그와 같은 예의를 베푼다면 나는 기꺼이 기뻐하리이다. 나는 웨일스의 랄로락 경이며, 전 왕 펠리노어의 아들이라. 그는 그의 날들에는 이 왕국에서 가장 앞선 기사로 여겨졌노라. 나는 트리스트람 경을 찾아 이 땅으로 왔노니, 그가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이라 함은 내가 가는 모든 기사도의 궁전마다 그의 명성이 들려오기 때문이라. 나는 아직 트리스트람 경을 본 적이 없으며, 그를 뵙고자 하는 큰 소원이 있노라."

"이제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당신이 아무런 다른 뜻 없이 오직 이 일 때문에 이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니, 나는 크게 영광이라

여기노라. 보라,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리오네스의 그 트리스트람 경이로다."

그때 랄로락 경은 즉시 전마에서 내려 투구의 차양을 치켜올리고 트리스트람 경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었노라. 트리스트람 경 또한 랄로락 경에게 다시 입을 맞추며,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큰 기쁨을 나누었더라.

그 후, 랄로락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따르는 시종 들의 도움을 받아 갑옷을 벗어 던지고, 숲속에서 거침없이 흐르는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에 얼굴과 목, 손을 씻었다. 그리하여 크게 상쾌해진 그는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 그 풍성한 연회에 앉아, 영혼의 기쁨과 만족으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먹으며 서로에게 자신의 행적을 묻자, 각자 자신에게 닥친 아름다운 모험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라모락 경에게 노래하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마친 뒤, 트리스트람 경은 하프를 손에 들어 벨 이졸트를 기리기 위해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뛰어난 발라드와 론델을 노래하였노라. 라모락 경은 이를 경청하며 트리스트람 경이 노래하는 곡마다 크게 박수를 쳤노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그 후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사랑하는 친구여, 서로 형제 결의를 맺자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힘으로 기울어짐을 보았사오니."

“하, 트리스트람이여,” 랄로락 경이 이르되, “내가 아는 그 누구와 사귀는 것보다 너와 형제처럼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수록, 나의 사랑은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나기 때문이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손가락에서 매우 화려한 반지를 꺼내었노라. 그 반지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새긴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고, 그 에메랄드는 금으로 된 반지 고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오, 라모락이여! 당신의 손가락에서 그 반지를 벗겨 내게 주시오. 대신 이 반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우리 형제애가 서로 굳건히 확인되리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명한 대로 라모락 경이 기쁨으로 행하니, 그는 트리스트람이 준 반지를 받아 입으로 찍고 손가락에 끼웠고, 트리스트람 경 또한 라모락이 준 반지를 받아 입으로 찍고 손가락에 끼웠더라.

그때 그들 사이에는 우정의 맹세가 맺어졌으니, 숲 속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앉아 있을 때였노라. 황금빛 낙엽이 그들 주위로 흩날리던 때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오후 내내 함께 앉아 있다가,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할 때에야 일어나 말을 타고 떠났노라. 그들은 서로의 교분을 크게 기뻐하며 틴타겔로 함께 향하였더라.

〈각주: 틴타겔에서 라모락 경이 존경을 받다〉

이때 틴타겔의 궁정에는 웨일스의 라모락 경처럼 저명한 기사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어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에 그를 맞이하는 잔치가 크게 열렸고, 궁중의 모든 이들은 라모락 경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했노라.

라모락 경이 틴타겔에 머무는 동안 그를 기리기 위한 여러 번의 기마 창 시합이 열렸고, 라모락 경 자신 또한 모든 무예 시합에 직접 참여하여 그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모두 쓰러뜨렸노라. 이로써 그는 놀라운 전사임을 입증하였으니, 그의 활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그의 무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더라.

그러나 모든 무관의 다툼에서 트리스트람 경은 스스로를 멀리했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랄로락 경의 영광을 너무도 사랑하였기 때문이니, 그 친구가 무공으로 얻은 명성을 해칠 만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으려 하였노라. 비록 트리스트람 경은 이러한 무관의 다툼을 깊이 사랑하였으나,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르되, “만약 내가 내 친구와 대결한다면, 불행히도 그를 쓰러뜨릴지니, 그렇다면 그의 영광은 내게로 전이되어 잃어지게 되리라” 하였노라.

〈각주: 랄로락 경이 이름난 전투를 벌이다〉 이때에 어느 날, 랄로락 경을 기리기 위해 큰 시합이 열렸노라. 그 무예 대회에는 콘월과 그 근방 여러 나라에서 최고의 기사 스무 명이 나서, 모든 도전자들을 막아섰노라. 그 기사 중 몇몇은 이미 명성이 높은 장사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그 장터를 지켰고, 이는 그들 자신과 콘월 모두에게 큰 영예가 되었노라.

그러나 낮이 깊어가던 무렵, 랄로락 경이 그 장터에 이르렀노라. 날씨가 선선하고 상쾌하였으므로, 그에게는 놀라운 힘과 전투의 정기가 충만하였노라. 그는 먼저 그 콘월 장사들 중 한 명을, 또 다른 한 명을 차례로 도전하였노라. 모든 도전에서 그는 성공하였으니, 그는 그 기사들을 한 명씩 차례로 낙마시켰노라. 열다섯 명이 그의 창에 쓰러졌고, 그 중 몇몇은 그 격투에서 크게 다쳤노라.

이에 나머지 다섯 명의 장사들은 랄로락 경의 기세와 힘과 술수를 보고 서로 말하였노라. "우리가 어찌 이 사내에게 감히 도전하리오? 진실로 이 기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힘과 술수의 악귀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무력 대결에서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없노라. 보라, 그가 그의 창으로 한 사람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곧장 안장에서 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 격투에서 물러나, 랄로락 경과 맞서기를 원치 아니하였노라.

그때에 트리스트람 경은 왕의 궁정에 앉아, 전투의 초원 너머를 내려다보며 벨 이졸트 공녀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

이때 마크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어찌하여 이 기사와 맞서 싸우지 않느냐? 그가 두렵기 때문이냐?"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큰 차분함으로 답하되, “아니옵니다. 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사오며, 살아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이 사실을 왕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시나이다.”

"나의 담력과 두려움 없는 기개를 듣게 되어 기쁘구나," 마크 왕이 이르시되, "실로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치욕이라. 우리 가운데 낯선 이 신사가 콘월의 모든 기사들보다 훨씬 더 큰 명성을 얻어 그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말일세. 이제 네가 그에게 두려움이 없노라 하므로, 내가 청하노니 경기장으로 내려가 우리 대신 그와 결투하라."

이렇게 마크 왕이 말한 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랄로락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무너뜨릴지니, 그렇다면 그를 극찬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아니오. 저는 오늘 랄로락 경과 전투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다른 날에는 어찌할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결하고 온유한 기사의 형제 결의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이처럼 불리한 상대와 맞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지쳐 숨이 턱까지 차 있을 때, 그를 공격하는 것은 저에게 마땅치 않으니이다. 만약 제가 지금 그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그에게 큰 치욕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저는 그를 친구로서 시험해 보리라. 그렇게 한다면 저와 그 모두에게 명예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각주: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전투를 명하다〉

"좋소," 마크 왕이 이르시되, "그 일로 인해 내가 기다리려 하지는 않노라. 또한 당신이 옆에 앉아 콘월의 기사들이 부당하게 모든 무공을 빼앗기게 방치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소. 이는 콘월의 기사들에게(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공인된 수호자요) 큰 치욕이 될 뿐 아니라, 당신께서 아일랜드에서 모셔와 콘월의 왕비로 삼은 이 부인에게도 동등한 치

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이 명령을 내리노니, 이는 내가 당신의 왕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사가 되도록 만든 이가 나이기 때문이오. 당신은 즉시 저 초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만스럽게 행세하는 그 기사와 전투를 벌이시오."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마크 왕을 향하여 큰 분노와 쓴맛을 품고 바라보며 이르되, "이는 주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이러한 명분으로 저에게 가하려는 큰 수치와 모욕이니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모든 방면에서 저에게 수치와 슬픔을 안기려 하시는 것 같으니이다. 그럼에도 저는 늘 주께 충실한 기사이었사오며, 아일랜드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주님의 왕국을 구원하였고, 모든 일에서 매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사옵니다. 하느님이여, 제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 기사 작위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을 보며 매우 냉소적으로 미소하였다. "너여," 그가 이르되, "너는 나를 너의 왕으로 모시면서 매우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더 이상 말 없이 즉시 저 들판으로 내려가 그 기사와 맞서 나의 명을 수행하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르되, "내가 가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일어나 그 곳을 떠났노라. 그의 마음은 왕과 그의 궁정에 대한 쓴맛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더라. 당시 궁정에는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에게 행한 공개적인 모욕을 불쌍히 여겨 슬퍼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굴욕을 보고 웃으며 기뻐하였더라. 참으로 진실하고 고귀한 신사라 할지라도, 트리스트람 경과 같이 위대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면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두기 마련이니라. 진실과 고귀함을 시기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천함과 거짓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적들을 두었노라. 이는 당시의 다른 고귀한 기사들, 즉 랜슬롯 경과 라모락 경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일이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무장을 함〉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숙소로 가서 고베르네일을 불렀노라. 그리고 고베르네일에게 그의 갑옷과 말을 준비해 주기를 명하였더라.

고베르네일이 이르되 "주여, 이 때에 어찌하여 무장을 하고 기마하려 하나이까?"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나로 하여금 라모락 경과 결투하게 명하셨노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나의 매우 친밀한 친구요, 동맹한 의형제라. 그는 이미 전투에 지쳤고, 내가 지금 무예로 그를 제압할 확률이 매우 높으리라." 고베르네일이 이르되 "주여, 이는 주께나 그에게나 큰 치욕이 되겠나이다."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참으로 큰 치욕이로다." 하더라. 이때 고베르네일이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부끄러움과 분개의 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이미 일어난 일을 짐작하여 침묵하였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자, 그는 전장의 초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모든 시선이 내려다보는 그 광경을 바라보

는 자들의 박수 속에서 라모락 경이 크게 영광을 떨치며 행진하고 있었더라.

〈각주: 라모락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말함〉 그러나 라모락 경이 자신을 맞서는 자가 트리스트람 경임을 보고는 크게 놀라 외쳤노라. “호, 트리스트람,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너라 나를 맞서다니? 내가 너의 동맹 형제요 원탁의 일원임을 이미 잊었느냐?”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스스로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올 수밖에 없어서 온 것이니, 이는 콘월 왕이 나를 명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매우 좋구나," 라모락 경이 이르되, "당신의 뜻대로 하라. 비록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당신이 나를 상대로 무기를 들게 될 줄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 특히 당신이 잘 알다시피, 나는 이제 전투로 인해 지치고 기력이 쇠진한 때임에 더욱 그러하오."

이에 더 이상의 담판 없이, 각 기사는 할당된 위치에서 대결을 위해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면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을 때, 광장의 마르셜은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었노라.

그 두 사람은 마치 투석기에서 날려 보낸 두 돌멩이처럼 서로에게 돌진하더라. 그리고 그 둘은 한창 달리는 도중에서 우레와 같은 굉음을 내며 서로 부딪쳤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라모락 경을 쓰러뜨리다〉 그 격돌에서 라모락 경의 창은 스무 개 서른 개 조각으로 부러졌으나, 트리스트람 경

의 창은 견고하여, 여러 차례 돌격을 거듭하며 지친 라모락 경의 말은 큰 먼지 구름 속으로 쓰러졌더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그의 마필과 함께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지극한 민첩함과 손재주로 안장을 벗어나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딜 수 있었기 때문이라. 비록 그의 말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쓰러졌을지라도 그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였노라. 이때 그에게 큰 분노와 부끄러움이 치밀었으니, 이는 모든 목격자들 앞에서 그가 이처럼 무너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곧장 검을 뽑아 크게 외쳐 이르되. "내려오시오, 기사여. 저와 걸어서 검을 겨루소서. 비록 제 말이 피로하여 저를 버렸을지라도, 제 몸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당신도 알게 되리이다."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아서 이르되, "아니오, 나는 오늘 당신과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 당신과 결투하기 위해 온 것은 내 뜻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해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다시 힘을 회복한 후에야, 나는 다시 한번 결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라모락 경이 매우 격분하여 대답하더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저를 놀리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옵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저를 치욕스럽게 여기셨고, 이제서는 그 치욕을 씻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라 명하시니이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당장 선생님과 결투를 벌이기를 요구하오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라모락, 내가 너와 싸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미 잘못을 저질렀노라.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노라."

〈각주: 라모락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책망하더라〉 이에 라모락 경은 분노로 가득 차,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노라. 그러므로 그는 전장의 초원으로 내려온 여러 이들을 돌아보며 이르되,

“너희 모두 들으라. 나의 말을 경청하라. 이 기사는 내가 이미 다른 열다섯 명의 기사들과 교전하여 지친 뒤에 이 들판에서 나를 습격하였노라. 그 대결에서 그는 나의 말이 지친 탓에 나를 쓰러뜨렸노라. 이러한 기사답지 못한 행위를 저지른 후, 그는 이제 더 이상의 검술 시합을 거부하며, 그가 내게 안긴 수치 아래 내가 누워 있게 하느니라. 이제 너희들 중 여기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호수의 랜슬롯 경에게 전하라.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은 나와 기사로서의 형제 결맹을 맺었고 원탁의 동료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투로 지친 틈을 타서 그가 새로이 나를 습격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이와 같이 나를 치욕스럽게 쓰러뜨렸으며, 이는 그 자신에게도 수치이고 나에게도 불명예라. 또한 그는 진정한 기사로서 마땅히 다른 기사에게 베풀어야 할 모든 보상을 거부하였노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큰 소리로 외치되 “나를 들어주소서, 경이시여!” 하니, 라모락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즉시 돌아서서 그곳을 떠났으며, 트리스트람 경을 그대로 남겨두

었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되,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과 같았더라.

〈각주: 라모락 경이 틴타겔을 떠남〉 그 후 라모락 경은 틴타겔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은 채 곧장 왕의 궁정을 떠났노라. 그 뒤 그는 해변으로 내려가 배에 올라타 캐멀롯으로 향하니, 그곳에서 아서왕이 당시 궁정을 열고 계셨더라. 그의 마음은 여전히 트리스트람 경에 대해 몹시도 쓰라려서, 그는 캐멀롯의 기사도 법정에 나아가 그를 고발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그 항해 끝에 캐멀롯에 도착하지 못하였더라. 그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선원들이 어떻게 애를 쓰더라도 막을 수 없이 거대한 폭풍이 갑자기 닥쳐왔기 때문이라. 그의 타고 있던 작은 배는 거친 암벽과 절벽이 우뚝 선 곳으로 밀려가, 파도에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더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그 작은 배가 파멸할 것을 미리 간파하였으므로, 그 종말이 임박하기 전에 그는 온몸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져 내기 위해 헤엄쳤더라.

〈각주: 라모락 경이 낯선 땅에서 난파되다〉

그가 헤엄치기를 오래도록 계속하여, 거의 기운이 다하고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그 때에 운이 따라, 고요한 물이 고인 작은 만이 그의 앞에 나타났으니, 그가 그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 간신

히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기운이 없고 약하여, 병들어가던 차에 자신이 곧 죽으려 함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라모락 경이 보니, 언덕 바위에는 히스가 자라고 있더라. 이에 그는 그 히스 속으로 기어가, 마른 곳에 몸을 눕히고 곧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졌으니, 그 잠은 휴식이라기보다 죽음의 기절과도 같았더라.

〈각주: 검은 나본 경에 관하여〉

이제 랄로락 경이 도착한 그 땅의 영주는 지극히 악독한 기사였으며, 그 체격은 거대하고 마음은 매우 잔인하며 성품은 차가웠노라. 이 기사의 이름은 나본 경이요, 별명은 '르 누아르(Le Noir, 검은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피부가 매우 어둡고 항상 흑색 갑주를 두루 입었기 때문이었노라.

이 기사는 몇 해 전 그 땅의 본래 영주를 살해하고 섬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강탈하였으며, 아무도 그 땅을 되찾으려 그에게 맞서기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노라. 그의 무용이 지극히 뛰어나고 그 몸집이 거대하여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해안가 바위 위에 쌓은 견고한 석성에서 방해받지 않고 거처하였으니, 그곳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배를 내려다볼 수 있었노라. 그가 어떤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즉시 자신의 함선을 내보내 그 배를 나포하였노라. 그리고는 배에 실린 모든 것을 약탈하거나, 혹은 배와 그 위에 있는 자들을 모두 가라앉혔노라. 만약 고귀한 신분의 사

람들이 그 배 위에 있다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아 몸값을 요구하였노라.

이와 같이 나본 경은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인심 사나운 땅 연안을 피하였노라. 바로 그 땅에 랄로락 경이 폭풍우에 밀려 표류하였더라.

〈각주: 물고기 잡는 이들이 랄로락 경을 제압함〉 이제 랄로락 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이끼밭에서 잠들었을 때, 그 길로 몇몇 어부들이 지나가더라. 그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그를 보고는 처음에는 그가 죽은 줄로 알았노라.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관해 이야기하며 서 있을 때, 랄로락 경은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깨어나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았더라.

그때 어부 무리 중 가장 우두머리 된 자가 말하여 이르되 “너는 누구며, 어찌하여 여기에 이르렀느냐?” 하니, 랄로락 경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슬프도다, 친구여. 나는 난파된 배에서 바다에 던져져, 보시는 바와 같이 벌거벗은 채로 해변에 밀려온 가련한 영혼이라. 이제 내가 간구하노니, 내 허물을 가릴 옷을 주시고,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인간이 베풀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소서.”

그때 우두머리 어부는 랄로락 경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았는데, 그 반지는 트리스트람 경이 그에게 준 것이었다. 어부는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느냐?"

랄로락 경이 대답하였다.

"나의 친구였던 이가 그것을 내게 주었노라."

어부가 이르되,

"좋으니라. 내가 그대에게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그러하려면 그대가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내게 주어야 하리라. 또 내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라 함은, 내가 말하노니 이 섬의 영주가 우리 목숨을 걸고 명하셨노라. 이곳으로 오는 자는 모두 즉시 그의 앞에 끌려가 그가 마땅히 결정할 바에 따라 처분받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먹이고 입힌 후에는 즉시 그대를 그에게 데려가야 하리라."

〈각주: 어부들이 랄로락 경에게 옷과 음식을 주다〉

"슬프도다!" 랄로락 경이 이르되, "내가 들어온 이 땅은 확실히 환대받지 못하는 곳이라! 그럼에도 내가 벌거벗고 굶주렸으니, 너희가 강요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보노라."

이에 그는 어부 두목에게 트리스트람 경이 그에게 주었던 반지를 건넸고, 어부들은 그가 벌거벗은 채로 있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은 옷가지를 그에게 주었으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다니던 가죽 부대로부터 쓴 맥주와 함께 검은 빵과 치즈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후 어부들은 랄로락 경의 손을 등 뒤로 묶어 그를 포로로 삼았고, 그리하여 그를 나본 경의 성으로 데려갔으며, 그때 그곳에 있던 나본 경 앞에 그를 세웠더라.

이때 우연히도 나본 경 성의 돼지치기는 한 동료와의 다툼에서 목숨을 잃었으므로, 나본 경이 랄로락 경의 거구와 건장한 체격을 보자 이르되, "이 자의 목숨은 아껴주마. 그러나 그를 내 돼지치기로 삼으리라. 그러니 그를 데려가 내 돼지를 치게 하라" 하였더라.

〈각주: 랄로락 경은 돼지 치는 신세가 되니라〉 이에 그들은 랄로락 경을 끌고 가서, 그를 레 노아르(Le Noir)라 불린 나본 경의 돼지치는 노릇을 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칠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변하여, 설령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더라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로써 랄로락 경의 모험은 막을 내렸노라. 이제 랄로락 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틴타겔을 떠난 후, 트리스트람 경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의 성에 도착하다]

제이장

어찌 트리스트람 경이 캐멀롯으로 떠났으며, 어찌 그는 길에서 나본 르 누아르 경과 싸우기 위해 머물렀는가

이제 앞서 전한 바와 같이 랄로락 경이 코른월의 마크 왕의 궁정을 떠난 후, 트리스트람 경은 오랫동안 마음 깊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차라리 다행이로다. 내가 내 친구이자 동맹인 형제와 싸우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었노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강요받았을 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노라.”

이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러한 생각에서 가능한 한 위로를 구했으나, 그 위로가 그리 크지는 못하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서한을 보내다〉

그리하여 어느 날, 호수의 랜슬롯 경으로부터 서한이 도착하더라. 그 서한에서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 경이 피로하고 지친 상태의 그 기사, 곧 랄로락 경을 공격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하더라. 그리고 그 서한에서 랜슬롯 경은 또 이렇게 이르되,

"경이시여, 이는 저로 하여금 매우 기이하게 여기게 하는 바입니다. 여러 입으로부터 경에 대하여 그러한 말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오. 그러므로 청컨대, 이 일을 바로잡으소서. 저는 경에 대하여 그러한 말이 퍼지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즉, 경이 다른 기사와 결투할 때, 그 기사가 싸움에 지쳐 피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오. 더욱이 랄로락 경은 경이 맹세한 동맹의 동지요, 원탁의 동료 기사이며, 게다가 기독교 세계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온유한 기사 중 한 분이오. 그러므로 청컨대 이 일을 바로잡으소서. 그리하여 경을 기사도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이 말하더라. 그 말을 들은 트리스트람은 심히 괴로워하며 영혼의 평안을 잃었으니, 이는 랜슬롯 경의 서한에 답하여 그 기사의 마음을 풀어주어 일을 명확히 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가 이르되, "나는 곧장 캐멀롯으로 달려가 랜슬롯 경을 만나 그

에게 구두로 설명하리니, 내가 마지못해 행한 일의 뜻을 깨닫게 하리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캐멀롯으로 가다〉 다음 날이 밝자, 트리스트람 경은 일어나 말을 타고 틴타젤을 떠나 캐멀롯으로 향하였노라. 그때 아서왕이 궁정을 열고 계셨고, 그곳에서 그는 랜슬롯 경이 머물고 있음을 기대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아무도 동반하지 아니하였으니, 고반일조차도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내가 트리스트람 경이 어떻게 말을 달렸는지 들려주리라. 그가 택한 길은 해안가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더니, 이내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다. 당시 숲은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뒤라, 그의 머리 위 가지들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그물망과도 같았다.

그 젊은 기사는 낙엽이 두껍게 깔린 짙은 카펫 위를 달렸다. 그의 전마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묻혔고, 오직 그 말발굽이 마르고 누른 나뭇잎 위를 밟을 때 나는 거칠고 끊이지 않는 소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트리스트람 경이 말을 몰아가며 노래했다. 그는 벨 이졸트 부인을 찬미하는 여러 곡을 불렀으니, 그 목소리는 맑고 크며 매우 달콤했다. 그 선율은 깊은 숲의 고요한 통로 사이로 멀리 멀리까지 울려 퍼졌더라.

이렇게 그는 길을 떠났노라. 때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깊은 명상에 잠겨 길을 걸었으니, 해가 기울고 저녁의 어

스름한 빛이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였더라. 이때 그가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니, 그는 숲 밖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 여겼노라.

그런데 저녁의 어스름한 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무렵, 그는 어느 한곳의 넓은 땅에 다다랐노라. 그곳에서 그는 앞쪽에 높은 성을 보았으니, 그 성은 돌과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가파른 바위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더라. 이 성의 한쪽 편에는 숲이 있고, 다른 한쪽 편에는 넓고 트인 바다의 광활한 지평이 펼쳐져 있었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성채의 여러 창문에서 빛이 비치는 것과, 성채의 홀 안이 마치 큰 불이 타오르는 듯 붉게 빛나고 있음을 보았노라. 이러한 환대의 징조들을 보고, 그가 결국 그 밤을 가을 황야의 어둠과 차가움 속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우호적인 성에 도착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의 명마에 박차를 가하여 성으로 달려가, 밤을 새울 쉼과 양식을 청하더라. 잠시 교섭이 있은 뒤, 도개교가 내려지고 쇠살문이 올라갔으며, 그는 큰 소음을 일으키며 성의 돌바닥 마당으로 들어섰노라.

그때 성의 종자들이 여러 명 달려와 그의 말을 거두어 주고 안장에서 내리도록 도왔다. 이어 다른 종자들이 나타나 그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온탕이 준비된 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목욕 후 몸을 닦을 부드러운 린넨 수건과 타월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목욕을 하고 몸을 가다듬자, 또 다른 종자들이 그의 긴 여정 후 입을 부드러운 따뜻한 옷을 들고 들어왔다. 트리스트람 경은 옷을 갈아입고 큰 안도감을 느꼈으며, 이 곳으로 온 것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그 옛날, 트리스트람 경과 같은 훌륭한 기사들은 온 세상을 누비며 다녔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성채와 대청에서 큰 기쁨과 환대로 맞이받았으니, 이는 백성들이 모두 이 고귀한 신사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기를 기뻐하였더라. 이에 나는 너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통해 기쁨을 얻기를 바라며, 트리스트람 경의 행적을 서술하였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성의 부인을 만남〉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앞서 말한 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성의 시종이 나아와 성의 부인이 그를 맞이하려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오시기를 청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시종을 따라가니, 시종은 그를 상차림이 갖추어진 자리로 인도하여 부인이 앉아 계신 곳으로 모셨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 부인이 지극히 아름다우시나, 과부의 깊은 상복을 입고 계심을 보았더라.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을 보자, 그녀는 일어나 그를 맞으러 나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우 달콤하게 인사를 건넸다. “영주여,” 그녀가 이르되, “저는 이 곳에 저를 마땅히 맞이할 만한 자가 없음을 슬퍼하노라. 그러나 슬프도다, 보시거니와 내가 입고 있는 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보시듯,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있으며 성의 예의를 다할 만한 영

주도 없노라. 그러나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하노라."

"부인,"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노라. 진실로 나는 당신의 옷차림이 예고하는 바와 같은 당신의 깊은 슬픔을 보며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청하소서."

"아니요,"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소." 그리하여 로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인은 손에 잡은 트리스트람 경을 이끌고 식탁으로 나아가 그에게 곁에 앉게 하였더라. 곧 여러 하인들이 달려와 백포도주와 적포도주를 비롯한 훌륭한 술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풍성한 연회를 차려 놓았으니, 두 사람은 큰 식욕과 즐거움으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연회가 모두 끝난 후,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 부디 자비로우시어 어찌하여 슬픔의 옷을 입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를 허영심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인이 겪고 계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각주: 부인이 검은 나본 경에 대해 트리스트람 경에게 말함〉

"슬프도다, 기사여!" 그녀가 이르되, "나의 근심은 당신의 힘으로 도와주거나 고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혹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나는 나의 슬픔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내게 닥쳤는지 말하리라. 너는 알라, 저 창문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한 섬이 있노라. 그 섬의 현재 영주는 매우 사악하고 잔인한 기사로, 거대한 체격과 굵은 팔다리를 지닌 자, 곧 검은 나본 경이라 일컫는 자니라. 한때 그 섬과 그 위의 성채, 그리고 이 대륙 위의 여러 성채와 영지,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던 고결하고 온순한 기사, 곧 나의 남편이 있었노라. 그러나 어느 악한 날, 나와 내 주군이 그 섬에 함께 있을 때, 이 검은 나본 경이 밤중에 나타나 섬의 사악한 무리들과 함께 내 주군을 정복하여 매우 사악하게 그를 죽였노라. 또한 나를 죽이거나 수치스러운 포로로 삼으려 하였으나, 내 주군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소음을 듣고 나는 다행히 탈출하여, 밤이 닥쳐서야 나를 따르는 충실한 종들과 함께 그 섬을 떠나 이 성채로 왔노라. 그 이후로 검은 나본 경은 그 성채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매우 악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노라. 너는 알라, 그 성채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매우 높게 자리 잡고 있으며, 한 배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검은 나본 경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나서는지라. 어떤 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배는 선원들과 수군들을 죽인 후 침몰시키노라. 만약 누군가 우연히 그 섬에 표류한다면, 그는 그를 죽이거나 몸값을 요구하거나, 그를 노예로 삼아 봉사하게 하노라. 이로 인해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배는 매우 드물어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사악한 땅의 해안을 피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검은 나본 경이 그 땅을 내게서 빼앗았노라. 나를 위해 이 분쟁을 일으켜 줄 친척이 아무도 없으므로, 나는 나의 손실을 최대한 견뎌내야 하노라."

"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 땅에는 그대가 말하는 나본 경과 같은 악한 자를 세상에서 몰아낼 만한 선한 기사-대장이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아니오," 부인이 이르되, "그 기사의 도전장을 내밀고자 하는 자는 없나니, 그는 그 거대한 체구에 걸맞게 강인하고 용감할 뿐 아니라, 그 힘과 장악력만큼이나 사나우며 잔혹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피하느니라."

"그렇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어떤 기사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괴물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노라. 비록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이제 이 근처에 그런 모험을 감행할 심장을 가진 기사가 없으니, 나는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그 일을 맡으리라."

"경," 부인이 이르되, "그런 일에는 두 번 세 번 깊이 생각하시오. 차라리 내 말에 따르시어 이 모험을 아예 포기하시오. 내가 두려워하건대, 만일 그 기사가 호수의 랜슬롯 경이나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과 같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거대하고 강력한 기사를 정복할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자기의 신분을 성주에게 밝힘〉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큰 기쁨으로 웃으며 이르되, "부인, 어찌하여 내가 누구인 줄 모르시오?"

"아니오," 그녀가 이르되,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옵니다."

“좋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바로 방금 당신이 말한 라이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임을 밝히오. 그리고 또한 내일 아침에 이 모험을 떠맡겠소.”

이때 부인이 자기가 보호한 이방인이 바로 리요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임을 알자, 그에게 큰 놀람과 기쁨을 표하며 그와 같은 인물이 이 곳에 머물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당시 세상은 모두 트리스트람 경의 활약에 대해 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성이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큰 자랑과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모험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고,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가 묻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여 주었더라.

그때 부인이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노래를 매우 달게 부르고, 하프를 능숙하게 다루어 놀라운 솜씨를 지녔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이제 저를 위해 노래 한 두 곡, 혹은 세 곡을 불러 주시지 않겠나이까?”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 귀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하겠사옵니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낭자를 위해 노래하다〉 이에 낭자가 하프를 가져오라 명하므로 그들이 이를 가져왔더라. 트리스트람 경이 하프를 받아 자기 앞에 두고 그것을 맞추어 연주하니, 그의 노래가 지극히 달콤하여 성채에 있던 자들이 이르되 "진실로 이 노래하는 자는 방랑 기사라기보다 낙원에서 내려온 천사라. 천사 외에는 어찌 이토록 유혹하는 듯 노래할 수 있으리오" 하니라.

이렇게 그 밤은 매우 유쾌하게 지나갔으며, 시간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자신에게 준비된 매우 훌륭한 방으로 물러났는데, 그 방에는 불빛 같은 색의 린넨으로 덮인 부드러운 안락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고요하고 편안한 잠에 빠졌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 나본 경의 섬으로 떠남〉 이제 다음 날 아침이 이르렀을 때, 트리스트람 경은 갑옷을 갖춰 입고 전쟁용 말에 올라타 해안의 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큰 배를 거느린 몇몇 선원들이 항구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나본 경이 머무는 그 섬으로 바다를 건너가 달라고 하여 열 개의 은화를 지불하였다. 처음에 이 선원들은 그런 위험과 죽음의 해안으로 항해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승낙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트리스트람 경을 성곽 근처의 땅에 내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아주 먼 곳, 즉 그들이 그 땅의 잔혹한 영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 내려주었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의 두려움을 조소하며 이르되, “우리가 기사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어부나 선원들보다 더 큰 담력을 지닌 것은 옳은 일이라.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나본 경과 같은 괴물들이 영원히 퇴치되지 못하리라.”

이때 이 선원들의 선장이 대답하되, “경이시여,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 선원들처럼 용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까지 감히 찾아온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이시여, 경 또한 이곳까지 용기를 내어 찾아온 첫 번째 유랑 기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경의 기사도들 용기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하니,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큰 호의로 웃으며 그의 길을 갔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내번 경의 성에 도착하다〉 그 후 그는 그 땅의 해안을 따라 여러 리가량을 더 나아갔노라. 그의 귀에는 항상 파도의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의 주변 공기에는 바다새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맴돌았더라.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일정한 높은 절벽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으며, 그곳에서 멀리 앞을 바라보니 해안의 높은 곶 위에 우뚝 선 키 크고 위압적인 성이 보였노라. 그 성은 돌로 쌓아 올린 것이었는데, 그 돌은 성이 서 있는 절벽의 바위들과 닮아 있어, 처음에는 그것이 절벽의 일부인지 인간의 거주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조금 더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성의 창문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성의 대문과 지붕, 굴뚝들을 보았노라. 이로써 그는 처음 생각했던 바위 벽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임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가 찾고자 하던 그 사악하고 악의적인 기사, 내번 경의 성이 바로 이곳임을 그는 직감하였노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굽이굽이 이어진 길로 성을 향하여 가며, 어떻게 하면 나본 경을 만나 결투를 청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더라. 그러던 차에 그는 갑자기 검정과 흰색이 섞인 옷을 입은 한 사내를 보았는데, 그 사내는 트리스트람이 가는 방향과 같은 길로 걷고 있었노라. 처음에는 그 사내가 트리스트람 경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잠시

후 그를 발견하고는 몸을 돌려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멀리서 한 기이한 기사가 말을 타고 빠르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그 자는 처음에 깜짝 놀란 듯 굳어 섰으나, 이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즉시 몸을 돌려 미친 자처럼 울부짖으며 달아나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뒤쫓아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 곧이어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그 사내의 재킷 목덜미를 움켜쥐고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 사람아, 너는 누구냐?"

"주군," 그 사내가 이르되, "나는 저 성채의 기사를 모시는 시종이온데, 그 기사는 곧 나본 경이요, '르 누아르'라 불리는 분이니이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한 노예와 이야기하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자네, 처음 나를 보았을 때 어찌하여 도망쳤는가?" 하니, 그 동무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신 외지인 중 처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려던 분이라, 주를 뵈옵고 말에 오르시어 오심을 보고, 주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여,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려 오신 영혼인지 알 수 없었사오니, 그리하여 주께로부터 도망쳤나이다."

"보시거니와,"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나이로다. 그러나 내가 과연 악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러 이 곳으로 보내어졌음을 나는 큰 소망으로 믿노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들은 바와 같이 그 여인의 남편을 사악하게도 살해한 저 성채

의 기사와 싸우기 위함이요, 또한 그 섬을 그에게서 빼앗아 정당한 주인인 로이즈 부인에게 돌려드리려 함이니라."

"슬프도다, 경," 동자가 이르되, "경이 찾아가는 이 여정은 실로 슬픈 모험이라. 경이 찾는 이 나본 경은 온 세상의 기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사라 일컬어지니. 진실로 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나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혹은 웨일즈의 라모락 경보다도 더 위대한 기사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므로 경이 아직 도망칠 기회가 남아 있는 동안,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청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에게 도전장을 보내다〉

"가엾은 자여, 너의 동정을 감사하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대가가 없기를 바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나의 마음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다름없노라. 그러므로 너는 즉시 주군에게 돌아가 내게서 전하되, 이 섬이 본래 마땅히 속한 공녀를 위하여 한 기사가 그와 결투를 벌이러 왔다고 전하라."

이와 함께 트리스트람 경은 그 동료를 놓아주었더라. 그는 큰 속도로 달아나 성의 후문으로 들어가 문 뒤를 닫았더라.

그때 성채의 성벽을 따라 서 있던 이는 나본 르 누아 경이었고, 그와 함께 있던 이는 열일곱 살의 소년, 곧 그의 아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트리스트람 경의 사신이 나타나 그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에 나본 경은 성벽의 치열 너머를 내려다보았는데, 성채가 우뚝 선 절벽 기슭에서부

터 내륙으로 펼쳐진 평평한 초원 위에, 한 신장 높은 고결한 기사가 말에 타고 앉아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나본 경이 자국의 땅에 낯선 기사가 감히 들어왔음을 깨닫자, 그 기사의 대담함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곧이어 거친 노여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이를 갈았으며 목의 힘줄은 나무 줄기의 마디처럼 드러났다. 잠시 동안 그는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이내 황소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며 곁에 있던 자들에게 외쳤다. "가라! 재촉하여 내 말과 갑옷을 가져오라. 내가 곧장 나가서 저 여인들의 챔피언이라 자처하는 자를 만나 반드시 응징하리라. 그가 다시는 여인들의 편을 들어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하리라."

이에 나본 경을 호위하던 자들은 그의 말에 놀라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가 그의 명을 받들었으며, 곧이어 그의 갑주를 가져와 입혀 주었고, 성채 안뜰로 그의 말을 끌어와 그를 타게 도와주었더라.

보라, 나본 경의 갑주는 먹물처럼 검었으며, 그가 탄 거대한 말 또한 검은색이었고, 갑주와 말의 모든 장식품과 구비품이 모두 검었으므로,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음 그 자체처럼 온통 흑암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

〈각주: 나본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만나기 위해 출정하다〉

이때 나본 경이 전투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으므로, 성문의 쇠창살문이 들어 올려졌고 그는 트리스트람 경을 맞기 위해 말을 몰아 나갔다. 그의 젊은 아들이 시종으로 함께 동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성의 모든 백성이 성벽 위로 모여들어 장차 벌어질 그 전투를 지켜보았으니,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트리스트람 경이 그 대결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더라.

나본 경은 곧장 트리스트람 경에게 다가가 거칠게 이르되, "이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이 땅에 이리 왔는가?"

“그 일이라면,”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보낸 사신이 내가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 그리고 이 섬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그 섬이 마땅히 속해야 할 로이즈 부인에게 돌려보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갚으려 왔다는 것을 말하였으리라.”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본 경이 큰 성냄으로 소리쳐 이르되

“영주여,”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당신 같은 악마 같은 괴물들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모든 참된 기사의 마땅한 소임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 나본 경이 이르되, “그 말은 매우 잘 되었노라. 내가 이전에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으리라 하더라도, 그 자비는 이제 너를 위해 상실되었노라.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 일로 말하면, 전승하신 후에야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제게는 더 적절한 때라 사료되나이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과 결투함〉 이에 각기 기사는 공격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각기 말에 채찍을 대고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으니, 그 기세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더라. 각기 서로의 방패 한가운데를 내리쳤고, 그 타격에 각기의 창은 손잡이 끝까지 완전히 부러져 조각나버렸노라. 그러나 각기 기사는 낙마한 말에서 일어나 땅으로 뛰어내려 검을 뽑아 들었고, 서로를 향해 그렇게 격렬히 돌진하였으니, 마치 헬멧의 눈구멍에서 순수한 불꽃이 튀어 오르는 듯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서로 마주쳐, 서로에게 그런 잔인한 타격을 가하였으니, 그 소리는 수백 야드 밖에서도 쉽게 들릴 만하였노라. 이제 그 전투의 처음에 트리스트람 경은 처음에는 크게 압박을 받았고,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만난 그 어떤 기사보다도 가장 거대한 기사와 마주쳤음을 알았노라. 다만 이 이야기에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수의 랜슬롯 경을 제외하고는. 그러므로 처음에는 나본 경의 타격의 힘에 밀려 조금씩 후퇴하였노라. 나본 경은 그 체격이 지극히 거대하였고, 그가 가하는 타격은 지극히 무거워, 마치 억지로라도 트리스트람 경을 뒤로 밀어내었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을 죽이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스스로에게 이르되, “트리스트람아, 만약 네가 이 전투에서 패한다면, 네 명예를 훼손한 랜슬롯 경 앞에서는 이를 변호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과 함께 마치 새로운 힘과 생명이 그에게 돌아온 듯하여, 그는 갑자기 전투에 돌진하여 삼중의 맹렬함으로 내리쳤다. 그의 힘찬 타격이 연이어 가해지자, 나본 경은 놀라 그의 공세 앞에 물러서야만 했다.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나본 경이 방패를 지나치게 낮게 들고 있음을 깨달았으니, 그는 즉시 그에게 돌진하여 다시 한번, 또 다시, 거듭 타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나본 경을 무릎 꿇린 뒤, 그는 그에게 재차 돌진하여 투구를 잡은 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이 검을 높이 들어 나본 경의 머리를 몸에서 베어냈으니, 그 머리는 땅의 먼지 속으로 굴러떨어졌더라.

이때 나본 경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여인처럼 비명 지르며,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며 트리스트람 경의 허벅지를 감싸쥐고 소리쳐 호소하되, "저를 용서하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밀쳐내며 이르되, "너는 누구냐?"

“영주여,” 그 청년이 이르되, “나는 방금 당신이 죽이신 자의 아들이니이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경의 아들을 죽이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거늘, 그 얼굴은 나본 경의 얼굴과 같이 사악하고 배반적이며 악의에 찬 기운이 서려 있음을 깨달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늑대를 죽이고서도 그 새끼를 살려두면, 세상이 이로 인해 무엇을 더 낫게 되리오?" 하더라. 이에 그는 나본 경의 아들의 머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그의 아버지의 머리를 베어낸 것과 같이 그 머리를 베어 땅에 떨어뜨렸으니, 그 머리는 나본 경의 머리 곁에 떨어졌더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이 섬에서 라모락 경을 어떻게 발견하였으며, 어떻게 그의 잘못을 갚아 다시 전과 같이 친구이자 동맹의 기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라모락 경이 나본 경의 돼지를 치다]

제삼장

트리스트람 경이 그 섬에서 정의를 행하여 라모락 경을 감옥에서 구해낸 일,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이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을 다시금 갱신한 일을 기록하노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이 나본 르 누아르 경을 격파하고, 방금 서술된 바와 같이 그의 아들을 죽인 뒤, 그는 곧장 나본 경의 성으로 향하여 성의 시종장과 그 관원들을 자신 앞으로 끌어오라 명하였다. 한편 그 전투에서 약간 부상을 입은 그는 성의 홀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그곳에서 법정을 열었다.

그리하여 잠시 후, 시종장과 가문의 여러 관리들이 트리스트람 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시종장이 트리스트람 경 앞에 나아가자,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와 자비를 빌었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성의 하인들과 대화함〉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너희의 사정을 내가 곧 살펴볼지니, 만일 너희와 이 다른 자들이 참회하는 바가 진실됨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또한 너희가 이제 다시 이 성지와 영지의 주인이 된 그 부인에게 앞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자비를 베풀리라. 그러나 너희가 죽

은 나본 경의 행태와 같이 배신하고 간사한 자로 드러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너희를 그 악한 기사와 그의 어린 아들에게 내린 형벌과 같이 벌하리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 성의 문지기는 누구냐?" 하니 문지기가 손을 들어 이르되 "주여, 곧 소인이라"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곳에 사로잡힌 포로는 누구인가?" 하니 문지기가 이르되 "주여, 여기 사 명의 기사와 세 명의 부인이 속전 거두어 감금되었나이다" 하거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포로들을 위로하더라] 이에 문지기와 성의 여러 하인들이 모두 재촉하여 달려나가 곧 돌아왔으니, 그들이 성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온 비참한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데려와 트리스트람 경이 여전히 나무 의자에 앉아 재판을 베풀고 계신 곳으로 인도하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바라보시니, 그들은 매우 슬프고 외로운 형편이며, 포로 생활로 인해 마음이 지쳐 일부는 순전히 심신의 쇠약함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시되,

"위로를 받으라, 다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이제 너희의 고난은 지나갔고, 행복이 너희 앞에 놓였노라. 나본 경과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를 괴롭힐 자가 없느니라. 더욱이 내가 단언하건대, 이 곳에 나본 경이 모은 보물이 많을 것이니, 그 모든 보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리라. 이는 너희를 위로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곳을 떠날 때면, 왔을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 갈 것이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잠시라도 너희를 위로해 드리겠노라” 하고는 다짐하더라.

그가 말한 그 보물에 관하여는, 곧바로 그 이력을 말씀드리리니, 즉 트리스트람 경이 그 곳의 재정을 맡은 자를 소환하였을 때, 그는 트리스트람 경을 성채의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게 하였고, 거기서 그는 잠금쇠와 자물쇠로 단단히 고정된 일곱 개의 튼튼한 상자를 보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 성채의 대장장이를 소환하였으니, 장인이 와서 상자를 깨뜨려 열었고, 보라! 모든 이들의 눈은 그들이 그곳에서 목격한 보물로 인해 놀람과 눈부심에 사로잡혔더라. 이는 그 상자들 안에는 다종다양한 수많은 보석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과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 보물 외에도, 그들은 그 지하 금고실에서 많은 뭉치의 직물을 발견하였노라. 그 중에는 비단과 벨벳으로 된 것도 있었으며, 금실과 은실로 짠 비단 천으로 된 것도 있었더라. 그들은 또한 많은 보석 장신구와 정교한 갑옷 여러 벌,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발견하였노라. 이는 몇 년 동안 나본 경이 그 땅을 지나가는 배들로부터 징수한 통행세로 그 모든 보물을 모아 두었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포로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다〉

이 모든 보물을 트리스트람 경은 햇빛 아래로 꺼내게 하였고, 이를 일곱 개의 동등한 몫으로 나누었노라. 그 후 슬픔과 비탄에 잠긴 포로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각자 하나씩 가져가라. 그리고 기쁨으로 이곳을 떠나라!”

이에 모두 트리스트람 경의 너그러움에 크게 놀라며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주께서는 이를 위해 조금도 취하지 않으시나이까?”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답하여 이르되, “무릇 내가 이를 어찌 취하리요? 나는 슬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았으며, 너희 가련한 포로들처럼 마음이 괴롭지도 않노라. 내가 이를 취한 것은 오직 너희를 위로하려 함이지, 나의 탐욕을 채우려 함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각기 그 분량을 취하여, 너희가 겪었던 것과 같이 곤경에 처한 다른 남녀들을 위해 이를 위로와 평화와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도록 하라. 이로써 이 보물이 지금까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니와, 이제부터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지니라.”

이에 그 전에 슬픔과 애곡에 잠겨 있던 모든 가난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은 세그와라이데스 경을 성의 총독으로 임명하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트리스트람 경은 로이즈 부인을 위해 그 땅을 잘 다스릴 방도를 궁리하노라. 이에 그는 해방된 포로들 가운데 코른월의 매우 훌륭하고 존경받는 기사 세그와라이데스 경을 택하되, 그에게 그 섬의 총독직을 맡겨 임의로 다스리게 하되, 다만 그 섬의 최고 영주인 로이즈 부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함을 조건으로 두었노라. 또한 트리스트람 경은 세그와라이데스 경이 매년 로이즈 부인에게 정당한 액수의 조공을 바치게 명하였노라. 이는 트리스트람 경이 그 섬의

지리적 요충성을 고려하여, 만일 강한 유능한 기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섬은 다시 한번 로이즈 부인의 손에서 빠져나와 나본 경과 같은 악하고 사악한 영주의 손아귀에 떨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노라.

이와 같이 트리스트람 경이 명한 대로 행하여지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건대, 세그와라이데스 경이 그 땅을 매우 공정하게 다스렸으며, 그가 로이즈 부인과 친밀한 벗이 되었으니, 이때로부터 삼 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섬에 며칠간 머무르며, 세그와라이데스 경의 권위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주시하리라 결심하였더라. 그는 그 땅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세그와라이데스 경 앞에 나아가 그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노라.

이때 이들 가운데 돼지 치는 체한 라모락 경이 왔으니,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헐벗은 옷과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렸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고 흐트러져 가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알아보고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트리스트람 경이 자신을 그토록 헐벗고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하기를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시선을 피하였으며,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지나쳐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라모락 경의 반지를 보다〉 성 안의 다른 무리들이 트리스트람 경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본래는 나본 경의 집종노예

였다. 이 여인이 트리스트람 경의 앞을 지날 때, 그는 그녀가 엄지에 아름다운 빛나는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 반지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으로 녹색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가 다시 바라보니,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라모락 경에게 주었던 조각된 에메랄드 반지였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 여인을 자신 앞에 나오라 명하매 여인이 떨리는 몸으로 그의 앞에 섰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다만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손에서 보는 그 반지는 어디서 얻었느냐?"

여인이 이르되, "주여, 저는 참말을 말씀드리리이다. 제 남편은 이곳 어부들의 우두머리로서, 어느 날 얼마 전 그가 저에게 이 반지를 주었나이다. 그때 저는 그의 총애를 받고 있었사옵나이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하니, 종녀가 이르되 "저기 서 계시나이다" 하거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여기 오라, 놈아!" 하니라. 이에 어부가 달려와 그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트리스트람 경 앞에 섰고, 또한 그 역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어부를 문책하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이토록 떨고 있는고?"

어부가 대답하되, "주여, 무서워 죽겠습니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다만 네가 죄를 지었지 아니하면 말일세. 진실을 내게 말하라. 저 부인이 쓰고 있는 그 반지는 어디에서 얻은 것이냐?”

어부가 이르되, “주여, 저는 온전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와 제 동료 여러 명이 바닷가 근처의 히스 덤불에서 한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죽은 줄 알았사오나, 저희 목소리를 들은 그가 깨어나 일어나더이다. 그는 벌거벗고 배고파하였으며, 저희에게 자신의 몸을 가릴 옷과 먹을 것을 간곡히 청하더이다. 이에 저희는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사오나, 그 대가로 그 반지를 요구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 반지를 저에게 주었사오니, 저는 어부 중의 우두머리요, 저는 그 반지를 제 아내인 저 부인에게 주었나이다. 주여, 이것이 곧 진실이니이다.”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마음이 매우 불안해졌으니, 이는 라모락 경에게 불운이 닥쳤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지금 너희가 말한 그 사내는 어디 있느냐?” 하니, 어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그는 돼지를 돌보게 되었사오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 성의 돼지치기이옵니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라모락 경에게 더 이상 악재가 닥치지 않았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더라.

어부 그 자리에서 물러간 후, 트리스트람 경은 잠시 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앉았더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노라. “슬프도다, 어찌 그리 고결한 기사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의 용모

를 부끄러워하여 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도움을 거부할 때, 내 친구는 얼마나 큰 수치심을 겪고 있는가! 내게는 지금 그의 차림새로 그를 불러내어 만나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이는 부당하고 무례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먼저 그가 그의 높은 신분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갖추도록 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는 아마도 내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꺼이 받으리라. 그 후, 그의 사랑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처음과 같이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 성의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의 명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라고 명하더라. 그들이 즉시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떠나가니라.

이때 우리는 라모락 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노라. 그가 그의 돼지들을 지키며 앉아 있을 때, 성채에서 네 명의 사내가 그에게로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즉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하노라." 라모락 경이 이르되, "너희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여도 좋다고 허락되지 않았노라. 다만 네가 우리의 명을 따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뿐이니라."

이에 라모락 경이 일어나 그 네 사람과 함께 갔노라. 그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깊이 의아히 여겨 가더라.

〈각주: 라모락 경이 성채로 모셔짐〉 네 사내들이 그를 성채로 데려가 안으로 들이었고, 여전히 심히 신기해하는 라모락 경을 성채의 계

단으로 올려 거룩하고 장엄한 한 방으로 모셨다. 그곳은 태피스트리와 자수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더라.

그곳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득 찬 큰 목욕통이 놓여 있었는데, 안팎으로 린넨 천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 곳에는 여러 하인들이 서 있었는데, 이들은 라모락 경을 데리고 옷을 벗겨 목욕통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부드러운 린넨과 고급 수건으로 그를 말려 주었더라.

그런 다음 이발사가 와서 라모락 경의 수염을 면도하고 머리를 깎아 주었으니, 이렇게 목욕하고 단장한 후 그의 고귀함은 다시금 빛나니, 잠시 자신을 가리던 두꺼운 구름 사이로 해가 다시금 빛을 발하듯, 혹은 그 빛을 감추었다가 다시금 더 큰 광채로 빛나는 새벽 별처럼 그의 위엄이 드러났더라.

〈각주: 라모락 경이 갑옷을 갖추다〉 그 후 여러 시종들이 달려와 왕을 모시는 기사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비단옷과 화려한 의복을 입혔더라. 이어 여러 종자가 화려한 갑옷 한 벌을 가지고 나아와 라모락 경에게 그것을 입혔으니, 그 갑옷은 놀랍도록 광택이 나 햇빛처럼 빛나고, 은으로 아라베스크 문양을 새겨 넣었더라.

이에 라모락 경이 이르되, “이제 너희가 내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무슨 뜻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기다리소서, 경이시여. 그리하시면 경께서 보시게 되리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 다섯 명의 시종이 나타나서 라모락 경을 그곳에서 데려갔다. 그들은 그를 여러 통로와 복도를 지나 인도하다가, 마

침내 한 명의 사내가 서 있는 넓은 홀에 이르렀으니, 그 사내는 트리스트람 경이었더라.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은 라모락 경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그를 향한 큰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찼노라. 그러나 그는 라모락 경과 함께 온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그는 잠시 자신을 억누르고 곁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물러가라" 하매, 곧바로 그들은 떠났노라.

이에 라모락 경이 눈을 들어 트리스트람 경이 서 있는 곳으로 나아가 이르되 “이는 너 트리스트람이 내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푼 자인가?” 하거늘 그가 이르되 “네 영혼의 고귀함에서 이러한 것이 기대됨이라” 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화해〉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라모락이여, 내가 너를 기쁘게 해 준 것은 적고, 너를 모욕한 것이 많도다.”

라모락 경이 이르되, “아니로다. 네가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많고,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은 적으니라. 보라, 네가 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끌어올렸고, 기근과 궁핍에서 부유와 안락으로 이끌었노라.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위해 이보다 더 큰 일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모락,”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으로 많노라.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불쾌함을 주었거든, 그 불쾌함을 입은 자와 화해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 다른

이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옷 입히어지리니, 이는 마치 네 몸이 명주와 고운 베옷으로 옷 입혀진 것과 같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라모락 경의 손을 잡고 이르되, "사랑하는 친구여, 이제 네 몸이 강건하고 활기차뇨?"

라모락 경이 크게 놀라며 이르되, "그렇사오."

"이제야 비로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가한 그 죄과에 대한 배상을 바칠 수 있노라. 보라, 내가 너를 가능한 최고의 갑옷으로 입혔거늘, 이제 너는 건강하고 강건하니, 네가 언제든 정하는 때에 내가 너와 무예를 겨룰 준비가 되었노라. 만약 이전에는 너의 피로함이 너를 패배케 하였거늘, 이제는 너도 강건하고 기운이 충만하니 내게 네 무공을 시험해 보라."

이에 라모락 경은 트리스트람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노라. 그리고 이르되, "트리스트람, 진실로 너는 지극히 고귀한 영혼을 지닌 자라. 내가 너와 싸우지 아니하노니, 대신 너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 영원히 아끼고 사랑하리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너는 완전히 만족하는가?" 하니, 라모락 경이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순전한 기쁨에 눈물을 흘렸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이 섬을 떠남〉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우리 함께 호수의 랜슬롯 경을 찾아가자. 내가 그에게도 화해를 구해야 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서신을 보내시어, 피곤하고 지

친 너와 싸운 일을 꾸짖으셨기 때문이라. 내가 이곳에 행운으로 도착하여 너를 곤경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 때, 나는 이미 랜슬롯 경을 만나 내 사정을 변호하려던 길이었노라." 이에 라모락 경이 이르되 "네가 원하실 때면 언제든 함께 가겠노라. 내가 너의 기사도 정신과 예의를 온전히 증언하리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그들은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 항해에 올랐다. 그날 밤, 그들은 로이즈 부인의 성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녀는 악독하고 사악한 자인 나본 경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되찾아 준 트리스트람 경에게 끝없는 감사를 표하였다. 이튿날 아침, 두 선량한 기사들은 캐멀롯으로 길을 재촉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랜슬롯 경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라모락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무죄를 밝혀 주었고, 랜슬롯 경은 즉시 트리스트람 경이 이전에 라모락 경과 벌인 전투에 대한 자신의 질책을 철회하였다.

그 후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은 아서왕의 궁정에 거의 일 년간 머무르며, 여러 가지 모험과 임무에 나섰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함께였다. 이러한 일들은 트리스트람 경과 라모락 경의 모험을 전하는 고대 사서들에 모두 기록되어 있노라. 그중 몇 가지를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기도 하나, 만약 내가 그 모든 일을 서술하려 한다면, 그 이야기들은 이 책 몇 권 분량을 가득 채울 것이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함께 행한 많은 기사적 업적들을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노라. 그 명성은 여러 기사도 사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그 기록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읽을 수 있겠노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러주마.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로 돌아온 일과, 그 시기에 그가 겪은 또 한 번의 유명한 모험에 대하여.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코른월로부터 팔라미데스 경에 관한 소식을 듣다〉

트리스트람 경은 아서왕의 궁정에 약 일 년간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캐멀롯 궁정에 한 사신이 도착하여 소식을 전하였다. 이 사신이 전한 바에 의하면, 본 역사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사라센 기사 팔라미데스 경이 교활한 꾀를 부려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을 납치하여, 코른월의 숲속 외로운 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사신은 마크 왕이 보낸 서한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코른월로 돌아와 그 부인을 포로 상태에서 구출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 것이었다. 서한에는 또한 코른월의 두 기사가 이미 이졸트 부인을 구출하려 시도했으나, 팔라미데스 경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심하게 부상을 입었기에 실패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한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듯, 팔라미데스 경처럼 놀랍고도 위력적인 기사로부터 이졸트를 구해 낼 수 있는 코른월의 유일한 기사는 오직 트리스트람 경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아서왕의 궁정을 즉시 떠나, 서둘러 콘월로 돌아왔더라. 그곳에서 그는 벨 이졸트 부인이 이처럼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온 성이 큰 동요에 빠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궁정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원하는 바의 정보를 얻은 후 곧장 틴타겔을 떠나, 벨 이졸트가 감금되어 있다 전해지는 그 외로운 탑을 찾기 위해 고버네일과 함께 숲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

그가 크지 않은 몇몇 모험을 겪은 뒤,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가 트인 공터에 다다랐노라. 그곳 한복판에 그는 외로운 탑이 해자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 곳이 바로 미녀 이졸트 부인이 감금되어 있는 곳임을 직감하였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팔라미데스 경을 숲에서 만나다〉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 탑에 가까워지자, 탑의 기슭에 앉아 머리를 가슴에 묻고 있는 한 명의 기사가 보였다. 그 모습은 슬픔에 마음이 부서진 듯했다. 트리스트람 경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 슬픔에 잠긴 기사가 바로 사라센인 팔라미데스 경임을 알아차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팔라미데스 경이 어찌 그리 마음이 부서진 채로 있느냐고 의아해하였다.

이제 팔라미데스 경이 어찌하여 그토록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지, 그 이치를 말하리라. 진실은, 팔라미데스 경이 성탑 밖에서 문이 잠겨 갇혀 있는 동안, 벨 이졸트 부인은 탑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마크 왕의 서한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고하되, 두 명의 코른월 기사가 팔라미데스 경을 맞서 도전하고 벨 이졸트 부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갔노라 하였더라.

이들 기사 중 둘째는 아드소프 경이었는데, 그는 팔라미데스 경을 숲속을 통해 매우 바짝 쫓아갔으므로, 팔라미데스 경이 벨 이졸트 부인을 그곳으로 데려간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숲의 탑에 도착하더라.

그리하여 아드소프 경은 팔라미데스 경에게 큰 소리로 도전을 외치며 나와서 결투를 벌일 것을 요구하더라. 이에 팔라미데스 경은 즉시 나와 맞섰으니, 아드소프 경이 그 일에 간여한 데 대해 분노가 가득 차 있었노라.

그러나 바로 이때 팔라미데스 경이 아드소프 경과 결투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간 순간,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은 탑의 계단을 내려가 그가 지나간 문을 즉시 닫았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커다란 참나무 빗장을 걸쳤다.

〈각주: 팔라미데스 경이 탑 밖으로 나온 경위〉 이에 팔라미데스 경이 코른월 기사를 쓰러뜨리고 다시 탑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탑문은 이미 그를 향해 단단히 잠겨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는 삼 일 동안이나 탑의 발치와 해자 옆에 앉아, 제 정신을 잃은 자처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그를 발견하고, 그곳에 앉아 있는 자가 팔라미데스 경임을 알아차린 뒤 고버네일에게 이르되, "가서 그 기사에게 나를 찾아와 싸우라고 전하라" 하였노라.

그때 고버네일이 팔라미데스 경에게로 가서 이르되, "경이시여, 일어나소서. 여기 경과 말씀하려 하는 기사가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팔라미데스 경은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이에 고버네일이 그의 창으로 그를 건드리며 이르되, “팔라미데스 경이시여, 일어나서 몸을 가누소서. 트리스트람 경이 경과 결투하려 오셨나이다” 하거늘, 팔라미데스 경은 그제야 몽롱함에서 깨어나 매우 느리고 굳은 몸짓으로 일어났노라. 그는 옆에 놓인 투구를 주워 머리에 쓰고, 벽에 걸어둔 방패를 내려 매었으며, 말에 올랐다. 그는 마치 꿈속을 걷는 자처럼 모든 행동을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말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으니, 그의 거친 영혼이 다시금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이를 갈며 큰 소리로 외쳤노라. “트리스트람, 이번에는 너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팔라미데스 경을 물리치다〉

그때 팔라미데스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돌진하여 그를 격렬하게 타격하니, 트리스트람 경은 간신히 자신을 방어할 뿐이었다. 팔라미데스 경이 또다시 내리치자, 트리스트람 경도 이에 응수하여 맞섰다. 팔라미데스 경의 타격이 혹독하였으나, 트리스트람 경의 타격 또한 그에 못지않게 무거웠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이 팔라미데스 경을 무거운 일격으로 내려쳐, 사라센 기사인 팔라미데스 경은 말에서 떨어지며 즉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달려가 그의 투구를 벗겨내고,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그의 목을 베어낼 뜻을 품었더라.

그러나 그 순간, 탑에서 벨 이졸트 부인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트리스트람이여, 그대이시뇨? 그 착각한 기사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그대 또한 자비를 받으리니.”

“부인,”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과 명을 따라 나는 그를 용서하노라.” 이에 그는 팔라미데스 경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팔라미데스 경이 매우 고통스럽게 일어나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떠나라.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왕에게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라. 그가 너를 용서한다면, 나도 또한 너를 용서하리라.”

이때 팔라미데스 경은 아무 말 없이 말에 올라타 그 자리를 떠났노라.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인해 그의 머리는 슬픔에 짓눌려 가슴에 굽혀졌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말 위에 앉은 채 벨 이졸트 부인을 등 뒤에 모셔 안고, 그와 그녀, 그리고 고버네일은 그곳을 떠나니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를 콘월로 데려옴〉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이졸트 부인을 콘월로 모셔갔더라. 그곳에서 그는 큰 찬사와 기쁨으로 맞이되었으니, 백성들은 모두 벨 이졸트가 무사히 돌아왔음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이 무공으로 인해 트리스트람 경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리라.

사실 마크 왕은 처음에는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부인을 구해낸 데 대해 깊은 은혜를 입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결한 기사를 날

로 더 깊이 미워하게 되었노라. 백성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보라, 트리스트람 경은 확실히 콘월의 최고 기사라. 이 땅에서 그와 맞설 자가 누구 있으랴?”

마크 왕은 이러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트리스트람이 더욱 고결할수록, 그러한 적에게 은혜를 입은 나는 더욱 천하게 여겨지리라”고 생각했노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노라. “그렇도다, 트리스트람아. 내가 너를 죽음보다 더 미워하노라.”

제삼부

트리스트람 경의 광기

이제부터 트리스트람 경이 콘월에서 쫓겨난 일과, 그 시련으로 인해 미쳐버린 일을 이야기하리라. 또한 그가 그 광란의 상태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놀라운 모험들과,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일에 대해서도 서술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을 공격하다]

제1장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부인과 함께 발견된 일, 그리고 그가 마크 왕을 습격하고 틴타겔에서 숲속으로 탈출한 일을 서술하노라.

서 트리스트람이 이같이 서 팔라미데스의 손에서 벨 이졸트 공녀를 구원한 후, 그는 온 겨울 내내 그리고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콘월의 왕

궁에서 매우 평온하게 지냈다. 그 동안 그는 모든 칭찬과 영예를 누렸노라. 그러나 마크 왕과 그의 궁정 사람들은 입으로는 서 트리스트람을 칭찬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그를 미워하였으며, 궁정 주변에는 항상 왕의 노여운 불씨를 불태워 불길로 만들 준비를 갖춘 악한 꾀쟁이들이 많았더라.

이 모든 악행을 꾸민 자들 중 으뜸은 마크 왕의 조카이면서 트리스트람 경의 사촌인 앤드레드 경이었노라. 앤드레드 경은 거칠고 힘센 기사였으며, 무예에 매우 능숙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트리스트람 경이 관대하고 고결한 자인 것과 달리, 비천하고 배신적인 자였으므로, 트리스트람 경을 지독히 미워하였노라(비록 그 증오를 감추었으나). 그는 트리스트람 경과 왕 사이를 갈라놓아 트리스트람 경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틈만 나면 노리고 있었노라.

〈각주: 콘월의 앤드레드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정탐꾼을 보냄〉 이에 콘월의 앤드레드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감시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고, 본인이 친족인 그에게 직접 정탐을 행하였으나, 그도 정탐꾼들도 트리스트람 경을 비난할 만한 어떤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어느 날 앤드레드 경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나아가 이르되, "경이시여, 벨 이졸트 부인이 경을 만나 말씀하려 하시나이다."

트리스트람 경이 물으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안드레드 경이 이르되, "그녀는 그녀의 방에 계시나이다." 그러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좋도다, 내가 그녀에게 가리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인을 찾으려 떠났고, 이와 함께 앤드레드 경은 마크 왕에게 달려가 이르되, "폐하, 일어나소서. 트리스트람 경과 이졸트 공녀가 서로 담소하고 있사옵니다."

마크 왕이 물었다. “그들은 어디 있는가?”

앤드레드 경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여왕의 침실에 있나이다.”

이때 마크 왕의 분노와 질투가 불꽃처럼 타올라, 그는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힌 자와도 같았노라. 분노의 광란 속에서 그는 서 트리스트람을 죽일 무기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벽에 걸린 큰 검을 보았노라. 곧장 그 검으로 달려가서 벽에서 내려받아 들고, 서 트리스트람과 이졸트 부인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노라. 앤드레드 경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였더라.

〈각주: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 경을 습격하다〉

마크 왕이 이졸트 부인의 방에 이르러는 문짝을 힘껏 밀어 열매 보았더니, 트리스트람 경과 이졸트 부인이 깊은 창가의 좌석에 함께 앉아 있더라. 왕은 이졸트 부인이 울고 있으며, 그 슬픔 때문에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 또한 매우 애처롭게 상한 것을 보았더라.

그때 마크 왕은 몸을 비틀며 심한 고통에 사로잡힌 자처럼 몸을 구부리고는, 목이 쉬고도 큰 소리로 세 번이나 외치니라.

“배신자여!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 세 마디를 반복하며 말하더라. 이에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달려들어, 손에 쥔 검으로 그를 맹렬히 내려치니, 그 뜻은 그를 죽이려 함이었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갑옷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붉은 명주옷을 두른 채였으므로 그 움직임이 매우 경쾌하고 민첩하였더라. 그러므로 마크 왕이 자신을 죽이려 돌진하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그 일격을 면하더니, 곧장 마크 왕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붙잡고 검을 빼앗았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분노에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삼촌을 죽일 뻔하였으나, 이졸트 부인이 그의 얼굴에 서린 격렬한 분노를 보고는 날카롭게 비명 지르며 외쳤노라.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에 그제야 그는 마크 왕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이며, 또 그 손에 의해 기사로 임명되었음을 기억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을 때리다] 이에 그는 손안의 검을 돌려 평평한 면으로 마크 왕을 다시 또다시 내리쳤고, 그 타격에 마크 왕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야수처럼 울부짖었노라. 마크 왕은 그 곳을 벗어나 도망치려 애썼으나, 트리스트람 경은 끊임없이 그를 쫓았노라. 그는 노기에 차서 멧돼지처럼 이를 갈며, 달아나는 왕을 여러 차례 내리쳐, 평평한 검날로 왕을 때렸노라. 그리하여 성 전체가 그 공격의 소란과 요란함으로 가득 찼노라.

그때 콘월의 기사들 다수가 왕을 구원하려 달려왔고, 그들과 함께 앤드레드 경도 왔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그들을 보니, 왕에게

서 떠나던 그의 격노가 다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치솟았으니, 그는 갑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들을 향해 맹렬히 내리쳤다. 그들의 마음은 그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그의 앞을 피해 도망쳤더라. 트리스트람 경은 성의 안뜰을 가로질러 그들을 쫓아, 좌우로 내리치며 피곤이 올 때까지 쫓았으니, 그의 내리치는 힘에 많은 자가 쓰러졌고, 그중 앤드레드 경도 크게 다쳤더라. 그러므로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은 그 싸움에 지쳐 외쳤노라. "정녕 이 자들은 기사가 아니라 돼지들이로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내리치기를 멈추고, 도망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놓아주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틴타겔을 떠남〉 그 후 그는 자신의 처실로 들어가 고베르네일을 부르지 않은 채 갑옷을 갖추었으며, 그 후 말에 올라타서 그곳을 완전히 떠나 달렸다. 고베르네일조차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총애하던 사냥개, 후데인이라 불리우는 그 한 마리만이 그가 숲으로 향하여 달릴 때 그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이 갈 때, 그는 우편이나 좌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정면으로 매우 자만스럽고 거만하게 나아갔으며, 아무도 그의 길을 막지 못하였더라.

비록 그가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노라. 그가 이 곳을 떠나가는 것이 곧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는 일이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즐거운 정원을 떠나 슬픔과 한탄이 가득한 황무지로 나아가는 자와 같았더라.

〈각주: 고베르네일이 숲에서 트리스트람 경을 발견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베르네일도 또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달려갔으며, 주인을 찾지 못하여 오랫동안 숲을 헤매었노라. 그러나 잠시 후 그는 한 나무 아래 앉아 머리를 가슴에 처뜨린 채로 앉아 있는 트리스트람 경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후데인은 트리스트람 경 곁에 누워 그의 손을 핥았으나, 트리스트람 경은 슬픔에 깊이 잠겨 있어 후데인이 그와 같이 그의 손을 핥는 줄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고베르네일이 말에서 내려 서 트리스트람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서 트리스트람의 슬픔을 보며 울었노라. 고베르네일이 이르되, "영주여, 눈을 들어 기운을 내소서. 이 세상에 아직 기쁨이 남아 있사오니."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매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흐릿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동안 고베르네일을 바라보았으나, 마치 그를 보지 못하는 양이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그가 말했다.

"고베르네일아,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기에 이처럼 무거운 저주가 내게 내려졌는가?"

고베르네일은 여전히 흐느끼며 대답하였다. "주군, 주군께서는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으셨나이다. 오히려 주군께서는 지극히 고결하고 존귀한 신사이시니이다."

"슬프도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시되,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무심코 큰 악을 저질렀음이 틀림없도다. 진실로 하느님의 손이 내게 무겁게 내려앉았으니."

고베르네일이 말하였다. "주군,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저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시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고베르네일이 이르되 "주군이시여, 우리가 여기 떠나소서. 어디로 가든 나는 개의치 않사오니, 비록 폭풍우나 빗줄기, 눈보라나 우박이 몰아치더라도 주군과 함께 있사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사오리다" 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은 고베르네일을 틴타겔로 돌려보내라 명하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고베르네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르되, "고베르네일이여, 네가 나를 이처럼 크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라.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함께 갈 수 없노라. 콘월의 궁정에선 벨 이졸트 공녀를 아는 친구는 드물고 적들은 많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 곁을 떠나 그녀가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 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그녀를 위해 돌아가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후데인 개를 데리고 가라. 벨 이졸트 공녀에게 이 개를 곁에 두라고 전하라. 이 개는 그녀에게 나의 충성을 상기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짐승이 모든 상황에서 나에 대해

충실하듯, 그녀가 기쁘든 슬프든, 형통하든 불행하든 나는 그녀에게 충실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명하듯 틴타겔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너의 의무를 다하되, 나를 위해 다하는 것처럼 다하도록 하라. 그녀가 내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라. 한 사나이에게 심장이 그 몸의 생명과 같듯, 그녀의 행복은 나의 생명의 생명이라."

그때 고베르네일은 다시금 심히 큰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군이여, 제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그는 슬픔의 깊은 격정으로 여전히 눈물을 흘린 채 말에 올라타 그 곳을 떠나가고, 후데인은 그를 따라갔으며, 트리스트람 경은 깊은 숲속에서 홀로 앉아 남게 되었더라.

〈각주: 광기에 사로잡힌 트리스트람 경의 방랑〉 그 후 트리스트람 경은 며칠 동안 숲을 헤매었노라. 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일어난 일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고, 어떠한 휴식도 취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로 인해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차츰 어지러워졌노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잊어버렸노라. 그리고 갑옷이 그에게 무겁게 느껴지자, 그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 후로 반쯤 벌거벗은 채 숲을 떠돌았노라.

이제 이 방황의 여섯째 날,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 다다랐고, 바다 연안 근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로이즈 부인의 성이 있는 곳을 보았노라. 그 성은 앞서 말한 대로, 그가 나본 경에 맞서 모험을 감행하던 때에 한때 머무르던 곳이었노라.

그리하여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그는 숲의 경계 바깥,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몸을 드러누웠고, 곧 실신에 가까운 깊은 잠에 빠졌노라.

그때 우연히 로이즈 부인을 모시는 한 처녀가 그 길로 지나가니라. 그녀가 숲 가장자리 풀밭 위에 누운 사내를 보고는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 사내가 죽은 자처럼 매우 고요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는 매우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더라.

그 낭자는 이전에 로이즈 부인의 성에서 트리스트람 경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었으므로, 이제 그가 기아로 인해 쇠약해지고 야위었으며,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여 그가 바로 트리스트람 경임을 알아차렸더라.

이렇게 말한 낭자는 서둘러 로이즈 부인께로 달려갔다. 부인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낭자가 이르되, "부인, 저쪽 숲가 어귀에 한 사내가 누워 있사오니, 저는 그가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이라 믿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반쯤 벗고 몸이 심히 쇠약하여, 도대체 그가 과연 트리스트람 경인지 아닌지 확신할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부인께서 저와 함께 가시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어, 그를 알아보실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에 로이즈 부인은 그 낭자와 함께 트리스트람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노라. 비록 그의 몸이 몹시 허약하였으나, 로이즈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을 알아보았더라.

[각주: 로이즈 부인이 서 트리스트람을 발견하다] 이때 로이즈 부인이 서 트리스트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흔들었으므로, 서 트리스트람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앉았더라. 이에 로이즈 부인이 이르되, “서 트리스트람이시여, 여기 누워 계신 이는 당신인가?” 하니, 서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인이 이르되, “영주여, 어찌하여 이 슬픈 형편으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서 트리스트람이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이르렀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게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나의 마음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아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 내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부인은 서 트리스트람의 처지를 보고 슬픔으로 한숨을 쉬며 이르되, “슬프도다, 서 트리스트람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같이 발견하다니! 이제 내가 청하노니, 영주여, 나와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성으로 오소서. 그곳에서 당신을 보살피고, 아마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나이다. 비록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는 알 수 있나니, 나는 미쳤으며, 이와 같은 자에게 가장 알맞은 곳은 이 숲뿐이라는 것을.”

그 부인이 이르되, “슬프도다, 트리스트람 경이여. 너는 이 숲속에서 홀로 남겨지면 죽으리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이여, 내가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노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을 듣고 로이즈의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의 정신이 완전히 어지러워졌음을 깨달았으니, 그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혹독한 시련이 닥쳤음을 알았더라. 이때 그녀는 그가 하프의 선율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였는지 생각하며 스스로 중얼거렸노라. “아마도 음악의 힘으로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구나.”

이에 그녀가 자신을 데려다준 그 처녀에게 이르되, “가라, 나의 작은 금하프를 가져오라. 음악이 그를 기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보자.”

그 처녀는 성으로 달려가 하프를 가져왔노라. 로이즈 부인이 하프를 받아 조율하고 치며 연주하거늘, 그녀가 매우 달콤한 목소리로 트리스트람 경이 사랑하던 발라드를 노래하였더라.

〈각주: 로이즈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에게 하프를 연주하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음악과 노래의 소리를 듣고는 몸을 일으켰노라. 그는 우선 크게 기쁨을 느끼며 귀를 기울이더니, 이윽고 이르되, “그것을 내게 주라! 내게 주라!” 하고는 손을 뻗쳐 부인으로부터 하프를 빼앗으려 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부인의 성으로 오다〉 그러나 로이즈 부인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고, 트리스트람 경을 떠나 성을 향해 걸어가며 여전히 작은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트리스트람 경은 그 뒤를 바짝 따라가며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주시오!”라고 외치며 하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에 로이즈 부인은 그를 그 장소에서 인도하여 초원

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성으로, 그리고 성 안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트리스트람 경은 늘 그녀를 뒤쫓아 그녀에게 하프를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리고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을 그 길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방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에게 하프를 주었다. 트리스트람 경은 그것을 매우 간절히 손에 받아들여 타악하고 연주하며 가장 달콤하게, 그리고 큰 기쁨과 쾌락으로 노래하였다.

그 후 위로를 크게 받은 그는 식욕을 돋우어 먹고 마신 뒤, 고요하고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잠들었음에도, 트리스트람 경의 정신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주변에 있던 자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미쳐 있었음에도, 그의 미침은 여전히 온유하고 자비로웠으며,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랐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로이즈 부인의 성에서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온순한 포로로 지내니라. 어떤 때는 그녀가 노래하며 하프를 연주해 주었고, 또 어떤 때는 그가 직접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불렀노라. 그러나 틈만 나면 그는 성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숲으로 향하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광기를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그 광기를 깊은 그늘진 숲속에서 숨기려 하였노라. 오직 야생의 짐승들만이 그를 볼 수 있을 그런 곳이었노라.

그러나 그가 그처럼 피하여 있을 때면, 로이즈 부인은 항상 작은 황금 하프를 들어 숲의 끝자락으로 나가 그것을 타주었노라. 그리고 그 선율이 트리스트람 경의 귀에 닿을 때면, 그는 그 음악에 이끌려 성으로 돌아왔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부인의 성을 떠남〉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너무 멀리 헤매어 하프의 선율도 그의 귀에 닿지 않게 되자, 그는 더욱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 마침내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 로이즈 부인은 큰 슬픔에 잠겼으니, 그녀가 트리스트람 경을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숲에서 그를 찾게 하였으나, 그 중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성채를 벗어나 다시 전과 같이 숲을 떠돌아다녔노라. 그 때에 그는 음식을 취하지도 않고 잠을 자는 일도 매우 적었노라. 가시덤불이 그의 옷을 찢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거의 완전히 벗겨진 몸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방황하는 동안의 어느 때쯤이면, 그는 전투의 광기에 사로잡힌 듯하더니, 그런 경우엔 적을 도발하는 듯 크게 외쳤다. 그리고는 상상력의 격정에 휩싸여 나무에서 큰 가지를 꺾어 찢어내곤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 그는 숲의 잎사귀로 된 통로를 더 온화한 심정으로 거닐며, 그렇게 달콤하게 노래를 불렀다. 만약 당신이 그를 들었다면, 당신은 이 고독한 곳에서 어떤 숲의 요정 영혼이 노래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돼지치기들과 함께 지내다〉 그는 기운이 다하여 쓰러질 때까지 방황하다가 낙엽 더미에 쓰러졌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때 죽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 길로 우연히 그 숲의 돼지치기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숲에서 발견되는 도토리로 돼지를 치고 있었다. 이 돼지치기들이 트리스트람 경이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이후 그들은 그를 데려가, 그가 그 숲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 숲 사람들은 그와 장난을 치고 함께 즐거워했으며, 그는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그는 항상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온순하고 자비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다만 그렇게 말하여 돼지치기들이 그와 함께 큰 즐거움을 찾았다.

이때 코른월의 앤드레드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재산을 몹시 탐내었노라. 수개월이 흐르고도 트리스트람 경이 틴타겔로 돌아오지 않자, 그는 스스로 이르되 "확실히 트리스트람은 이제 숲에서 죽었을 것이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외에 없으니, 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고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이는 앤드레드 경이 그 직위를 계승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숲속에 거처하는 매우 아름다우되 사악한 한 부인을 매수하여, 트리스트람 경의 죽음을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그는 어느 날 그 부인을 마크 왕 앞에 끌고 가서, 그녀가 증언하기를 트리스트람 경은 숲속에서 죽었고 자신은 그가 죽어갈 때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숲

속에 새로 파진 무덤을 보여주며 이르되, “저곳이 트리스트람 경의 무덤이니이다. 내가 내 눈으로 그가 죽어가는 것과, 그가 그곳에 묻히는 것을 보았나이다”라고 하였더라.

〈각주: 앤드레드 경이 트리스트람 경의 재산을 몰수하다〉 이에 모든 이들이 이 증언을 믿고, 트리스트람 경이 참으로 죽었다고 여겼으므로, 앤드레드 경은 트리스트람 경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그와 비등한 기쁨을 느끼는 자들도 또한 적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 소식이 벨 이졸트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크게 비명 지르고 기절하였노라. 그녀가 그 기절 상태에서 오랜 시간 누워 있자, 사람들은 잠시 동안 그녀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여겼노라. 그러나 이내 그녀가 깨어나며 호소하되, "하느님, 내가 트리스트람과 함께 죽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그 후 그녀는 트리스트람 경을 위해 끊임없이 애도하며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노라. 그녀는 마치 청춘의 연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 같았기 때문이니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이 돼지치기들과 함께 거처하던 숲에서 그가 어떻게 지냈으며, 그곳에서 어찌하여 매우 놀라운 모험을 성취하였는지를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케이 경과 숲의 광인]

제2장

트리스트람 경이 케이 경으로부터 검을 얻고, 그 검으로 숲속의 거대한 기사 한 명을 베어 죽여 매우 큰 곤경에 처한 한 부인을 구한 일. 또한 랜슬롯 경이 숲속에서 트리스트람 경을 발견하여 그를 다시 틴타겔로 데려온 일.

이때 우연히 한 날, 왕의 시종장 케이 경이 그 숲의 어딘가, 트리스트람 경이 돼지치기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던 곳을 지나 가던 중이었다. 케이 경과 함께 상당한 수의 기사 수종들이 따랐고, 그들과 함께 아서 왕의 광대 다고네트 경도 동행하고 있었다.

〈각주: 케이 경과 다고넷 경이 숲으로 오다〉 이제 너희는 알지니, 비록 다고넷 경이 왕의 광대였으며 그의 지혜가 다소 둔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용을 지닌 기사였노라. 그가 이미 여러 차례 명성을 떨친 선업을 행했으며, 모든 기사도의 궁정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다고넷 경은 항상 무장을 갖추고 다녔노라. 비록 그의 방패에는 그의 직분을 상징하는 수탉의 머리가 그려져 있었으나.

케이 경과 그의 궁정이 앞서 말한 대로 길을 떠난 때는 여름철이었고, 날은 매우 더웠다. 그리하여 케이 경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오후의 선선함이 올 때까지 쉬고자 하였다. 이에 모두들 말에서 내려 시원하고 쾌적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였더라.

〈각주: 다고넷 경이 숲을 배회함〉 그러나 케이 경과 그의 궁정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고넷 경은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녔으

니, 그는 매우 안주하지 못하고 간섭하려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 때 반갑옷만 입은 채, 그의 기분이 이끄는 대로 숲 여기저기를 배회하였노라. 잠시 동안은 그가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잠시 동안은 하품을 하기도 하며, 다른 때에는 점프를 한두 번 하기도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연히도 그는 곧 숲의 그 열린 벌판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돼지 치는 이들이 모여 있었노라. 그리고 그 때 그들은 검은 빵과 치즈로 한낮의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시며, 어떤 이들은 말하고 웃고, 다른 이들은 음식을 먹는 동안 고요하였노라. 이들에게 다고넷 경이 숲에서 나와 매우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나, 그가 입은 반갑옷에서 빛나므로, 그는 마치 숲속의 밝은 새처럼 보였노라.

그때 다고넷 경은 그 무례한 농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을 보고 그들에게로 다가가 그들 사이에 서서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돼지 치는 목동들입니다, 경. 경께서는 누구이신고?”

다고넷 경이 이르되, “나는 아서왕의 광대라. 세상에 나만큼밖에 지혜가 없는 자는 아마 많겠으나, 나처럼 스스로 바보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는 드무니라.”

이 말을 들은 돼지 치는 자들은 크게 웃었더라. “하하, 아서왕에게 광대가 있거늘 우리들도 있노라. 저기 보라,” 하며 그는 멀리 떨어진 나무 그늘과 깊은 우물 곁에 누워 있는 트리스트람 경을 가리켰더라.

그때 다고넷 경은 거의 벌거벗은 채 땅에 누워 있는 트리스트람 경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가야만 했다. 그가 그곳에 다다르자 이르되,

“일어나라, 바보여.”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일어나야 하리요? 보라, 나는 지쳤노라.”

이에 다고넷 경이 이르되, "너는 돼지 치는 자들의 광대로서 풀 위에 누우되, 나는 왕의 광대로서 내 다리로 서 있느니라. 그러므로 광대여, 일어나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일렀다. 이에 다고넷 경은 그의 검을 들어 트리스트람 경의 허벅지를 그 끝으로 찔러, 그가 몸을 일으키도록 하려 하였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다고넷 경을 우물에 처박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다고넷 경의 검이 찌르는 통증을 느끼자, 그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기사도의 일부분이 깨어나고 다고넷 경을 향한 갑작스러운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노라. 이에 그는 일어나 다고넷 경에게 달려들어 그를 안아 올렸으며, 발을 땅에서 떼어 올린 채 그를 우물에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푹 담가, 그를 거의 익사시킬 뻔하였더라.

그 돼지 치는 자들은, 그 바보가 다른 바보에게 행한 짓을 보자, 큰 소리로 웃어 대어 그들 중 일부는 순수한 희열에 몸이 떨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그곳에서 엎드려 신음하듯 웃었노라. 그러나 다른 이들은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외쳤노라. “그만 두시오. 그 남자를 익사시킬 것이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다고넷 경을 놓아주었고, 다고넷 경은 도망쳤노라.

다고넷 경은 나무 그늘 아래서 자신의 무리에게 다다를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케이 경이 다고넷 경이 어떤 초췌한 형편으로 나타났는지 보았을 때, 그가 이르되, “어떤 일이 네게 닥쳤느냐?”

이때 다고넷 경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 “영주여, 나 바보가 숲으로 들어가 다른 바보 하나를 만났노라. 나 바보가 그 바보와 장난을 치려 했으나, 그 바보가 나 바보를 붙잡아 찬 우물에 빠뜨렸노라. 그리하여 나 바보가 장난을 부린 것이로되, 그 바보가 장난의 재미를 본 것이니라.”

〈각주: 케이 경이 다고넷 경의 원수를 갚으려 함〉 이때 케이 경은 어찌된 일인지 짐작할 바가 되어, 다고넷 경이 이처럼 모욕을 당하였음을 알고 크게 노하였다. 이에 그가 물으니, “어디서 그런 일을 당하였느냐?” 다고넷이 대답하되, “저쪽 길에서였나이다.” 이에 케이 경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이 모욕의 원수를 갚으리라.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기사가 이런 식으로 농부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에 케이 경은 일어나 갑주를 입고 말에 올라타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돼지 치는 이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때 케이 경이 매우 엄한 어조로 이르되, “너희 중 누가 내 편에 있는 신사에게 이러한 중대한 모욕을 가한 촌놈이냐?” 하니, 돼지 치는 자들이 이르되, “저 우물 곁에 누워 있나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느리오니, 청컨대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마옵소서.”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케이 경을 물속에 빠뜨리다〉

그때 케이 경이 달려가 트리스트람 경이 있는 곳으로 다다랐다. 그가 이르되, “이 자식이여, 어찌하여 다고넷 경을 물속에 빠뜨렸는가?”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만 케이 경을 바라보며 웃었으니, 이는 그가 빛나는 갑주로 무장한 그 기사의 모습을 보기에 매우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케이 경이 트리스트람 경이 이와 같이 웃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심히 노하여졌더라. 그러므로 그는 곧장 검을 빼어 들고, 칼날로 치려 함으로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달려들었노라.

하지만 트리스트람 경이 햇빛에 번개처럼 빛나는 케이 경의 검을 보았을 때, 그의 기사도 정신이 그 속에서 일어나 새가 습지대의 풀밭에서 맑은 공중으로 날아오르듯 날아올랐노라. 그가 그 빛나고 번쩍이는 검을 바라보며 크게 외치며 일어나, 매우 단호하게 케이 경을 향해 나아가니, 케이 경 또한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달려들었더라.

그리하여 케이 경이 충분히 가까이 다다라 치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안장에 서서 검을 높이 들어 올려, 그것으로 트리스트람 경을 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 순간 트리스트람 경은 매우 빠르게 그 타격 아래로 들어가 버렸으므로, 케이 경의 한 방은 적중하지 못하였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이 뛰어 올라 케이 경의 몸을 감싸 안고, 그를 말에서 매우 거세게 끌어내어 땅에 떨어뜨렸노라. 그와 동시에 케이 경의 검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풀밭 위에 놓였더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케이 경을 매우 쉽게 들어 올리고는, 그와 함께 물 우물까지 달려가 여러 번 그를 물속에 빠뜨렸노라. 케이 경이 "동무여, 나를 용서하라. 내가 질식하리라!"라고 외칠 때까지 그랬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케이 경을 놓아주자, 케이 경은 자신의 말로 달려가서 타서 그 곳을 매우 빠르게 떠났으니, 그는 분수처럼 물이 흐르듯 온몸이 물에 젖었더라.

그동안 그 돼지치기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으니, 그 소리는 트리스트람 경이 다고넷 경을 우물에 빠뜨렸을 때보다 열 배나 더 컸더라.

그때 케이 경의 검이 풀밭 위에 놓인 것을 트리스트람 경이 보았고, 그는 곧장 달려가 그것을 들어 올렸노라. 그가 그 검을 손에 쥐고 보니, 그에게 큰 사랑의 정열이 일어났으므로,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고 그 손잡이를 입맞추었더라.

그러나 돼지 치는 자들이 트리스트람 경의 손에 든 칼을 보았을 때, 이르되 "이것은 미친 자가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아니라" 하며, 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트리스트람 경은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들에게 칼을 내어주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감히 도전하지 못하였더라.

〈각주: 케이 경의 검을 간직한 트리스트람 경〉 그 후로 그는 그 검을 밤낮으로 늘 곁에 두었노라. 그는 그 검을 사랑하고 입 맞추며 애무

하였으니, 이는 앞서 말하였거니와 그 검이 그의 마음속 기사도 정신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그 검을 사랑하였노라.

이제 트리스트람 경이 어떻게 검을 얻었는지 말씀드렸으니, 그가 그 검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하리라.

그때 그 곳 코르월의 숲에는 거대한 기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타울라스 경이라 하더라. 그는 그 일대의 모든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단순히 코르월 사람들 중 가장 키가 큰 자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컸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체격에 비례하여 그의 힘과 사나움 또한 지대했기 때문이라. 이 타울라스 경을 세상에서 몰아내려 많은 기사들이 나섰으나, 아직까지 그와 맞서 싸운 기사 중 한 명도 그의 손에서 별다른 화를 입지 않고는 돌아온 자가 없었노라.

그러나 이에 대해 말하건대, 지금까지 타울라스 경을 상대한 자는 오직 코르월과 웨일스의 기사들뿐이었으니, 이 두 나라의 국경은 타울라스 경이 활약하던 그 지역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라. 란슬롯 경이나 라모락 경과 같은 위대한 기사들은 아직 그를 상대하러 오지 않았었노라.

[각주: 데이난트 경과 그의 부인이 숲에 이르다] 어느 날, 데이난트 경이라 불리는 매우 고결하고 용감한 젊은 기사가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부인, 곧 그가 얼마 전 큰 사랑으로 맺은 아름다운 부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여행자들은 길을 가다가 돼지치는 이들이 머무는 숲의 한구석, 곧 앞서 말한 푸른 잔디의 광장과 아름다운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에 다다라 해가 무더웠으므로 이 두 여행자는 내려서 근처의 돼지치기들에게 음식을 청하매, 그 거친 성품의 선량한 자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내어 주었더라.

〈각주: 데이난트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트리스트람 경이 와서 데이난트 경과 그의 부인 곁에 앉아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을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데이난트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니, 그의 몸은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우며, 얼굴은 얼마나 고귀한지 보았더라.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 빛나는 아름다운 검을 보았더라.

그리하여 데이난트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벗이여, 당신은 누구며, 그 검을 어디에서 얻었나이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노라. 다만 이 검에 관하여는, 얼마 전 우리 곁에 찾아온 한 신사가 나에게 주었노라.”

그때 돼지치기 중 우두머리가 이르되, "주여, 이는 우리들이 숲속에서 거지처럼 헐벗고 굶주린 채로 발견한 한 미친 자이옵니다. 그 검에 관하여는, 그에게 생명을 위협하며 이 곳으로 찾아온 한 기사의 손에서 빼앗았노라 하오며, 그는 그 기사를 우물 속으로 밀어넣어 거의 익사하게 하였사옵니다."

데이난트 경이 이르되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라. 벌거벗은 광인이 무장한 기사의 손에서 검을 빼앗아, 너희가 말하듯 그 기사를 대하다니. 이제 아마도 이는 슬픔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정신을 잃고, 이토록 비참한 신세가 된 유명한 영웅이나 기사일지 모른다.”

이와 같이 데이난트 경이 이르매, 이때부터 그 거친 돼지 치는 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았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 기사가 한 말이 참일지도 모르고, 이는 실로 평범한 광인이 아닐지니라.”

이때 데이난트 경이 부인 곁에 앉아 돼지 치는 자들과 함께 트리스트람 경에 관해 이야기하던 차에, 숲 속에서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지더니, 그 사이로 앞서 말한 거대한 야만 기사 타울러스 경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왔다. 이에 데이난트 경이 비명을 지르며 “불행이로다, 여기 불행이 찾아왔도다!”라 하였고, 즉시 투구를 머리에 쓰기에 급급하였더라.

〈각주: 타울러스 경이 데이난트 경을 쓰러뜨리다〉 그가 충분히 무장을 갖추기 전에, 타울러스 경은 그를 향해 매우 맹렬히 돌진하더라. 타울러스 경은 안장에 서서 데이난트 경에게 지독한 일격을 가하였으니, 그 칼날은 데이난트 경의 투구를 뚫고 두개골 속으로 파고들었더라. 그러므로 데이난트 경은 죽은 자처럼 즉시 땅에 쓰러졌더라.

〈각주: 타울라스 경이 낭자를 데려감〉 이때 타울라스 경이 곧장 데이난트 경의 낭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르되 “낭자여, 당신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로다! 보라, 내가 당신을 얻었

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붙잡아 들어 올렸는데, 그녀는 비명 지르며 울부짖고 몸부림쳤으나, 그는 그녀를 안장 앞에 앉히고 모든 몸부림을 뿌리치고 그곳에 고정시켰더라. 곧장 그는 그녀를 데리고 숲속으로 달아났고, 그 동안 트리스트람 경은 미로에 갇힌 자처럼 서서, 일어난 일들을 공포 어린 눈으로 응시하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이난트 경이 땅 위에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기 때문이요, 그는 타울라스 경이 그녀를 데려간 숲에서 울려 퍼지는 낭자의 비명소리를 아직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돼지 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트리스트람 경에게 나아가 이르되, "동무여, 너는 칼을 지녔으니 그 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 방금 저 기사가 너에 대해 말한 대로, 네가 진정 영웅이요 완전한 광인이 아니라면, 저 기사를 따라가서 그 부인을 다시 여기로 데려오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타울라스 경을 따르니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미로에서 깨어나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는 즉시 매우 빠르게 숲 속으로 달아나, 타울라스 경이 간 길을 따라갔더라. 그가 멀리 달린 끝에, 얼마 뒤 타울라스 경이 앞장서 타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때쯤 그 낭자는 깊은 실신에 빠져 타울라스 경의 안장 위에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더라. 이때 트리스트람 경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 "멈추라, 기사여. 이쪽으로 돌아보라. 내가 이 낭자를 너로부터 빼앗아 다시 그녀의 친구에게 돌려보내려 하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타울라스 경을 죽이다〉 이때 타울라스 경이 돌아서 보니, 벌거벗은 한 사내가 손에 검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더

라. 이에 그는 격분하여 자신이 태우고 있던 부인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검을 뽑아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트리스트람 경이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안장에 몸을 일으켜 무척이나 거세게 한 방을 날렸으니, 만약 그 칼날이 적중하였다면 트리스트람 경을 둘로 쪼개었을 것이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옆으로 뛰어 피하여 그 일격을 능숙하게 막아냈고, 이때 그의 기사적 무용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떠올라, 역시 한 방을 날려 타울라스 경을 놀라게 하였더라. 그 일격이 타울라스 경의 머리에 무척이나 강하게 부딪히자, 타울라스 경의 뇌리가 어지러워졌고, 그는 몸을 비틀다가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달려와 그의 투구를 머리에서 벗겨냈으니, 그가 타울라스 경의 맨머리를 보았을 때, 그는 그 머리카락을 잡아 타울라스 경의 목을 앞으로 당겼더라. 그때 타울라스 경이 외쳤노라. "나를 용서하시오, 동무여!"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악한 자이로다!" 하고는, 이에 그의 검을 높이 들어 타울라스 경의 머리를 베어 땅 위로 굴러 떨어뜨렸더라.

그 후, 트리스트람 경은 그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니, 그녀는 기절했던 의식을 되찾았더라. 그녀가 의식을 회복하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부인, 마음을 가다듬으소서. 저쪽을 보시라. 당신의 원수가 이미 죽었사오니, 이제 제가 다시 당신을 당

신의 친구에게 모셔가리이다.” 이에 그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을 향해 미소 짓고,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잡아 입술로 맞추었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낭자를 타울라스 경의 말 위에 태웠노라. 그 후 그는 자신이 데이난트 경과 돼지 치는 자들을 남겨둔 곳으로 되돌아갔노라. 그는 타울라스 경의 말을 고삐로 끌며 그 등 위에 앉은 낭자를 데리고 다녔고, 또 한 손으로는 타울라스 경의 머리를 머리카락으로 쥐고 들고 갔노라.

그러나 그 돼지 치는 자들이 숲 속에서 그 낭자를 데리고 타울러스 경의 머리를 안고 나타난 트리스트람 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극히 놀라 서로 말하되 “정녕 이 젊은 기사가 방금 한 말이 참되도다. 이 광인은 실로 고난에 처한 위대한 기사라.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데이난트 경이 타울라스 경의 일격을 회복하였을 때, 그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행한 일에 대해 큰 찬사를 보내었노라.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모든 찬사에 트리스트람 경은 부끄러움을 느꼈더라.

이에 데이난트 경과 그 부인은 트리스트람 경에게 자기 성으로 함께 가시어 돌보심을 받기를 간구하였으나, 트리스트람 경은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미쳤음을 잘 아노니, 이 숲은 내 거처하기에 알맞은 곳이며, 이 친절하지만 거친 자들은 내가 정신을 잃고 헤매는 동안 함께하기 알맞은 동료들이라" 하였노라.

이와 같이 그 모험은 끝이 났노라. 이제 너희는 랜슬롯 경이 어떻게 숲 속에서 트리스트람을 발견하였고, 어떻게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냈으며,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을지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숲으로 들어가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이튿날, 랜슬롯 경이 그 숲길을 달려가며 타울라스 경을 찾아나섰다. 그는 타울라스 경의 악행이 많았기에 그와 결투를 벌이려 함이었노라. 랜슬롯 경은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생포하여 아서왕께로 끌고 가려던 것이라.

이리하여 랜슬롯 경이 트리스트람 경과 돼지치기들이 머무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곳에서 랜슬롯 경은 잠시 멈춰 쉬며 기력을 회복하니, 그는 투구를 벗어 곁에 두고 바람이 그의 얼굴을 식히게 하였더라. 그러자 거친 돼지 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그를 빤히 바라보더라. 랜슬롯 경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르시되, “좋은 친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곳 근처에서 사람들이 ‘타울라스 경’이라 부르는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때 수석 돼지치기가 이에 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당신이 타울라스 경을 찾아 여기로 오셨다면, 헛된 일을 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는 어제 살해당하였사오니, 당신이 저쪽을 바라보시면, 숲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가 매달린 것을 보실 수 있겠사옵니다."

이때 랜슬롯 경은 큰 놀람 속에 외쳤노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고는, 그는 즉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머리가 매달린 나무 곁으로 달려갔노라. 그리고 그는 그 머리의 얼굴을 바라보았거늘, 마침내 그가 보인 것은 바로 타울라스 경의 머리였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는 지극히 기이한 일이로소이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이 사악한 자를 죽인 그 기사는 누구였으며, 그의 머리가 어찌하여 여기 매달리게 되었는지 내게 알려주시오.”

이에 돼지치기의 우두머리가 대답하되, “영주여, 타울라스 경을 죽인 자는 기사가 아니요, 우리들이 숲에서 발견한 가난한 광인이라. 그는 지난 일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노라. 저기 보라, 그는 반쯤 벗겨진 채 그 우물가에서 자고 있도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실로 그가 타울라스 경을 죽인 자인가?” 하거늘, 돼지 치는 자가 이르되, “예, 주여, 바로 그이옵니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희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돼지치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옵니다, 영주여. 저희는 다만 그가 어느 날 숲속에서 벌거벗고 굶주려 죽게 되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저희가 그에게 먹이고 입혔으며, 그 이후로 그가 저희와 함께 살아오며 저희 모두에게 큰 사랑을 보여왔다는 것 외에는 알 바가 없사옵니다."

이에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 그를 바라보았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으니, 이는 트리스트람 경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가슴과 어깨 전체로 길게 자라났고, 그는 비바람에 찢어지고 지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

비록 랜슬롯 경이 그를 식별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트리스트람 경의 신체가 매우 아름답고 강인함을 보았노라. 그가 본즉, 그 몸의 모든 근육과 힘줄은 마치 밀랍으로 깎아낸 듯 매끄럽고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하며, 그 용모에 대해 지대한 감탄을 품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다〉 이때 랜슬롯 경은 잠든 그 사내가 칼집에서 뽑은 검을 품에 꼭 안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마치 그 검을 사랑하듯 다정하게 안고 있으니, 랜슬롯 경은 이 숲속 광인의 손에 그러한 검이 있음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에 그는 그 돼지 치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내는 그 검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영주여," 전에 말한 돼지 치는 자가 이르되, "얼마 전 어느 기사가 이곳으로 와 이 가난한 자를 심히 괴롭히매, 이 가난한 자가 그 기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검을 빼앗아 여러 번 우물에 빠뜨렸나이다. 그 후로 그는 이 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더이다."

"하!"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라. 맨몸의 사내가 무장한 기사를 제압하고 그의 검을 빼앗았다니. 이제 나는 그가 단순한 광인이 아니라, 불운에 빠진 고귀한 기사라 믿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깨우니라〉 이에 그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트리스트람 경의 어깨를 매우 부드럽게 어루만지니, 트리스트람 경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더라. 트리스트람 경이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노라. 비록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기억이 움직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슬롯 경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갑옷을 입은 그 고귀한 기사에게 큰 연민을 느꼈고, 그를 향해 매우 다정하게 미소하였노라. 랜슬롯 경 또한 트리스트람 경에 대해 매우 큰 존경을 느꼈노라. 그러나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였노라. 다만 랜슬롯 경에게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것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친구여, 타울라스 경을 죽인 자가 너냐?"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도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 경을 향하여 크나큰 연민과 자애를 느끼며 이르되,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을 데리고 이 곳을 떠나 인간의 거처로 가시렵니까? 그곳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다시금 온전해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나이다. 진실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위대한 기사를 그대에게서 다시 찾을 것이라 믿나이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비록 내가 내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나는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 가운데 섞이는 것이 부끄러워, 이 숲속에서 스스로를 감추고자 하노라. 그러나 내가 경을 사랑하는 바가 깊

어, 경이 세상을 끝까지 가자고 명하신다면, 나는 경과 함께 가리라 믿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을 향하여 매우 다정하게 미소하며 이르되, "내가 너를 여기에서 나와 함께 가라고 명하노라"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내가 가겠사옵나이다" 하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숲을 떠남〉 이에 랜슬롯 경은 돼지 치는 자들에게 명하여 트리스트람 경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입히라 하였으며, 또한 그에게 양말과 신발을 주라 명하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이와 같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후, 랜슬롯 경은 그곳을 떠날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나기 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트리스트람 경 주위로 모여들었으며, 그를 껴안고 뺨에 키스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매우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숲을 지나 떠났노라. 랜슬롯 경은 위엄 있게 그의 거마를 몰고 가시고, 트리스트람 경은 가볍고도 민첩하게 그 곁을 따라 달렸더라.

그러나 그 때에 랜슬롯 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타울라스 경을 찾아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안고 있었다. 당시 바다를 바라보며 아일랜드 왕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을 노략질하는 악명 높은 기사 세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랜슬롯 경은 타울라스 경과의 일을 마친 후 그들을

찾아나설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아서왕의 궁궐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먼저 그곳으로 향해야만 했다.

이제 너희는 알지니, 틴타겔 성은 그가 그 모험을 감행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는 트리스트람 경을 틴타겔 성으로 데려갔으니, 그곳에서 콘월의 마크 왕이 당시 궁정을 열고 계셨더라. 랜슬롯 경은 앞서 말한 그 모험을 떠나는 동안 트리스트람 경을 그곳에 남겨두고자 했기 때문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틴타겔에 이르다]

그때 랜슬롯 경은 틴타겔에서 지극한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맞이되니, 이는 그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까닭이라. 마크 왕은 랜슬롯 경에게 잠시 틴타겔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이 호의를 거절하며 이르되, "저는 주군인 아서왕을 위하여 수행할 모험이 있사오니, 지금 이곳에 머무를 수 없나이다. 다만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오니, 이는 제가 숲속에서 발견한 이 가엾은 광인을 잘 보살펴 주시고, 제가 수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하사 친절히 대우하여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저는 이 가엾은 동료를 깊이 사랑하오니,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그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마크 왕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치 않음을 아쉽게 여기노라. 그러나 이 일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리라. 네가 떠나는 동안 이 사내를 우리는 아끼고 돌보리라."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마크 왕이 매우 기쁜 얼굴과 예의 바른 어조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당시 그의 궁정에 있던 그 누구도 트리스트람 경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길을 떠났고,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이 잘 차려입고 충분한 식사를 하도록 명하시니, 왕의 명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 * * * *

이와 같이 트리스트람 경은 다시 틴타겔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노라. 이제 그가 그곳에서 겪은 일이 어찌 되었는지 전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트리스트람 경이 바다로 뛰어든다]

제삼장

【일러스트레이션: 트리스트람이 틴타겔 성에서 발견되는 장면】

틴타겔에서 트리스트람이 발견되던 일과,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타인테겔 궁정에 정체를 숨긴 채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으며, 누구도 그의 출입을 막지 못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자들 중 그 정체를 아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라. 모두 그를 그저 숲속의 가엾고 온순한 광인쯤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뜻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방랑할 수 있었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틴타겔에서 지내던 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의 기억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였노라. 비록 깨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더라. 그가 이방에 도착한 이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 내지는 못하였으나, 그곳은 그에게 매우 낯익은 곳이었기 때문이라. 그가 어디로 가든, 그곳이 그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 아님을 느꼈노라. 어떤 곳에서는 큰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약간의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어째서 그러한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방황하던 곳들 중에서도, 트리스트람 경은 공원과 과수가 우거진 성의 정원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았노라. 이는 그와 아름다운 이졸트 부인이 그의 고난이 닥치기 전, 함께 거닐던 곳이었기 때문이요.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 이 곳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더 큰 기쁨을 얻었노라.

어느 날, 트리스트람 경이 이렇게 방황하며 그 정원으로 들어왔을 때, 날은 더웠으므로 그는 대리석 분수 옆 사과나무 그늘에 앉았노라. 그의 머리 위 사과나무는 붉고 황금빛 열매로 가득 차 있었더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앉아,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그 분수와 그 정원, 그리고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사과나무를 보았었는지 기억해 내려 애썼노라.

그가 이처럼 명상에 잠겨 앉아 있을 때, 그 정원의 기쁨의 공간에 벨이졸트 부인이 들어왔고, 그녀의 시녀인 브라그웨인 부인이 함께하였으며,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고버네일을 통해 그녀에게 보내었던 하우데인이라는 이름의 사냥개가 그녀의 다른 편에서 따라 걸었다. 이때 벨

이졸트는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한 사내가 있음을 알아보고 브라고인 부인에게 말하였다.

"저기 그 사내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우리 사적인 정원으로 들어올 용기를 냈는가?"

이에 브라그웨인 부인이 대답하였다.

"그분은 공주님, 랜슬롯 경이 이틀 전에 이곳으로 데려온 숲의 온순한 광인입니다."

이에 이졸트 공녀가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가 과연 어떤 사내인지 살펴보자” 하기에, 그들은 트리스트람 경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 하우데인 개도 그들을 따랐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누구인가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그와 동시에 그의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숲 속에서 미쳐버린 이후로 처음 보는 이졸트 공녀를 바라보았노라. 공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를 알아보는 듯하지는 않았더라.

그때 그가 벨 이졸트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순간적으로 서 트리스트람에 대한 기억이 모두 되살아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숲속에서 광인처럼 그곳으로 끌려왔는지를 깨달았노라. 비록 그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으나, 앞서 말했듯,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 사랑스러운 낭자에게 이같이 발견됨을 당하여 부끄러움에 잠겼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돌리고 머리를 숙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더라.

그때 개 하우데인(Houdaine)은 트리스트람 경의 향기를 맡았더라. 이에 그는 벨 이졸트 부인 곁을 뛰쳐나와 트리스트람 경에게 달려가, 열렬히 그를 냄새로 확인하였노라. 그리고 곧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차렸더라.

〈각주: 하우데인이 서 트리스트람을 알아봄〉 이때 두 낭자는 하우데인이 서 트리스트람의 발치에 쓰러져 기쁨으로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보았노라. 또 그가 트리스트람 경의 발과 손을 핥고, 그에게 뛰어올라 목과 얼굴을 핥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들은 크게 놀라워하였더라.

그때 갑자기 브라그웨인 부인에게 한 생각이 떠올라, 그녀는 벨 이졸트 부인의 팔을 잡으며 말하였다. “부인, 저쪽 그 광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이까?” 그러나 벨 이졸트 부인은 대답하였다. “아니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누구이오, 브라그웨인?” 이에 브라그웨인이 이르되, “확실히 그분은 바로 트리스트람 경이오.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트리스트람 경이오.”

〈각주: 벨 이졸트가 트리스트람 경을 알아차리다〉

이때 그 말을 들은 벨 이졸트 부인의 눈에서 갑작스럽게 안개가 걷혔고, 그녀는 그를 알아차렸노라. 잠시 동안 그녀는 돌로 변한 듯 그 자

리에 서 있다가, 곧 큰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앉아 있던 트리스트람 경에게 달려가, 그의 발치에 몸을 던져 무릎을 감싸 안았노라.

그녀는 큰 열정의 목소리로 외쳤노라. “트리스트람이여! 트리스트람이여! 그대이신가? 그들은 그대가 죽었다고 말하였거늘, 보라, 그대는 다시 살아났도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토록 격렬한 정열의 눈물로 흐느끼기 시작하였으니, 마치 그녀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듯하였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크게 당황하여 재촉하듯 일어나 이르되 “부인이시여! 부인이시여! 이는 용납될 수 없나이다. 일어나시어, 격정을 가라앉히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파멸이 될지니이다. 보소서, 나는 이 성 안에 무장하지 않고 홀로 있사오며, 여기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여럿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내 정체가 드러날진대, 부인께서도 나도 모두 망하게 될 것임이니이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해져 있음을 깨닫고, 브라그웨인을 돌아보며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의 부인을 데리고 가시오. 곧 내가 그녀와 사적으로 담화할 방법을 마련하리니, 그 동안 여기 남아 그녀가 이 성의 다른 이들에게 나를 배신하도록 방치한다면, 그녀와 나 모두에게 죽음보다 더한 일이 될 것이오.”

이에 브라그웨인과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 부인을 들어 올렸고, 브라그웨인이 그녀를 그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데려갔노라. 내가 믿건대, 벨 이졸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반쯤 실신한 자처럼 걷고 있었기 때문이라.

〈각주: 안드레드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알아차리다〉 이때에 안드레드 경이 그 정원을 내려다보는 발코니에 있었는데, 목소리의 소리와 억눌린 소동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격하였더라. 그 때에 그는 랜슬롯 경이 숲에서 데려와 그 곳에 두었던 그 광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바로 트리스트람 경임을 또한 깨달았더라.

그때 안드레드 경은 큰 분노와 격분으로 가득 차고, 동시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그 성채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이 빼앗은 재산을 되찾으려 할까 봐 두려워한 것이라.

〈각주: 안드레드 경이 트리스트람을 마크 왕에게 배신하다〉 이에 그는 발코니에서 매우 조용히 물러나 뒤쪽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잠시 동안 그곳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양 머물렀노라.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일어나 마크 왕에게로 갔는데, 마크 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이르시되,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경?” 이에 안드레드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랜슬롯 경이 데려온 그 광인은 누구인지 아시오?” 마크 왕이 이르시되, “아니,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때 그가 온몸으로 떨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광인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노라. 안드레드 경이 이르되, “주여, 그이는 트리스트람 경이오며, 내 생각에는 랜슬롯 경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사오며, 그를 데려올 때에 반역을 꾀하고 있었사오나이다."

그때 마크 왕은 두 손을 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노라. "알았노라! 알았노라!" 그리고 이어 이르되, "맹인이어든! 맹인이여! 어찌하여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뇨?" 잠시 후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안드레드 경에게 말하되, "보라! 하느님께서 그 배신자 트리스트람 경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는 내가 그의 반역죄를 벌할 수 있게 하심이라. 보라! 그는 우리 한가운데에 있으며, 무장하지도 않았노라. 가라, 메시에여. 서둘러 필요한 병력을 모아 그를 사로잡고 결박하라. 그가 더 이상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라.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정의로운 형벌을 그에게 내리라." 이에 안드레드 경이 아뢰되, "주님, 왕의 명을 즉시 따르겠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앤드레드 경은 왕께서 계신 곳을 떠나, 온전한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과 시종들을 모아, 트리스트람 경이 있을 것으로 알던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트리스트람 경이 깊은 사색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트리스트람 경은 몸을 일으켜 자신을 방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 앤드레드 경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한 방을 치기 전에 그를 사로잡아 단단히 묶으라. 그는 무장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노라!"

〈각주: 성의 사람들이 트리스트람 경을 사로잡다〉

그때 안드레드 경과 함께 있던 십여 명의 무리가 야수처럼 고함치고 포효하며 트리스트람 경에게 달려들었더라. 그들은 수로 그를 땅에 쓰러뜨렸고, 간신히 그를 제압하여 손목을 묶어 결박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의 가슴은 격렬한 몸부림으로 격동했고, 그의 눈은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으며, 격분한 투쟁의 여파로 그의 입술은 거품으로 가득 찼더라. 그의 옷은 그 격렬한 몸부림에 찢겨 몸의 절반이 드러나 있더라.

그들이 그를 그곳에 세워두자, 그의 오른편에는 갑옷을 입은 채 검을 손에 쥔 한 기사가 서 있었고, 왼편에는 또 다른 갑옷 기사가 검을 들고 서 있었더라.

그때 앤드레드 경이 나아가 트리스트람 경 앞에 서서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자, 트리스트람, 이제 네 형편은 어떠냐? 보라, 네가 이 곳으로 정탐꾼처럼 들어왔더니, 이제 네 모든 배반이 드러나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네가 기사다운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하리라. 오히려 잠시 후, 네가 도둑처럼 목매달려 죽으리라.”

그때 그가 가깝게 다가가서 트리스트람 경을 바라보며 웃으며 이르되, “트리스트람, 네가 일찍이 모든 적을 물리치던 그 힘의 영광은 이제 어디 있느냐? 보라, 네가 네 명예를 지키려 단 한 방의 일격을 가할 수도 없구나.” 하고는, 이와 함께 앤드레드 경이 손을 들어 트리스트람 경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앤드레드 경을 죽이니라] 그 일격에 트리스트람 경의 분노가 치솟아 그의 눈은 순수한 녹색 불꽃처럼 타올랐노라. 그리고 순식간에, 아무도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할 만큼 급격하게, 그는 왼쪽편에 서 있던 그 기사를 향해 놀라운 갑작스러움으로 몸을 돌렸노라. 그는 결박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그 기사에게 얼굴을 향해 한 번 치니, 기사는 땅에 쓰러져 손에서 검이 떨어졌노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그 검을 빼앗아, 놀라운 속도로 몸을 돌려 오른편에 선 기사에게 강한 일격을 가하니. 그 기사는 즉시 무릎을 꿇고 쓰러진 뒤, 기절하여 땅에 굴렀노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앤드레드 경을 향해 몸을 돌렸노라. 그는 양손이 묶인 채로 검을 높이 들어 올리고, 그를 향해 끔찍한 일격을 가하니, 검날은 그의 갑옷을 뚫고 몸통의 절반까지 유방 부근까지 깊이 파고들었노라. 그 끔찍하고 위대한 일격에 앤드레드 경의 숨은 깊은 신음과 함께 빠져나갔고, 그는 땅에 쓰러져 즉시 죽었노라.

이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므로, 이를 목격한 자들은 모두 놀라움에 빠져 마법 같은 주문에 홀린 듯 굳어 서서 바라보았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그들에게로 돌아서서 높이 치켜든, 피 흐르는 검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분노가 불러일으킨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노라. 그들은 저마다 그의 앞에서 깨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으며,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내장을 쥐어짜고 있었노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들을 그 장소에서 쫓아내어 성의 안뜰로 밀어넣었으며, 어떤 자들은 그에게 쓰러뜨려졌고 어떤 자들은 도

망쳤노라.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바람 앞의 짚처럼 그의 앞에서 흩어졌노라.

그들이 물러가자, 트리스트람 경은 궁지에 몰린 사자처럼 헐떡이며 사방을 날카롭게 응시하더라. 그는 곧 자신의 검 끝을 궁전의 돌바닥에 대고, 검손잡이를 자신의 가슴에 대어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손목의 결박끈을 검날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걸치자, 끈은 단번에 잘려 나가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노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은 예배당을 수호하더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곧 성 전체가 자신에게로 몰려들 것을 알았고, 수적 우세로 인해 필히 압도당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리하여 그는 안뜰로 통하는 예배당의 문이 살짝 열려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그는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문을 닫고 또 다른 문도 닫은 뒤, 두 문을 모두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위에 무거운 나무 기둥을 가로로 대어 고정하였으니, 이로써 잠시 동안 그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더라.

그러나 그의 안전은 잠시뿐이었노라.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이른 밤무렵, 곧이어 찾아온 그 때에, 마크 왕의 무리 수십 명이 대거 성당으로 몰려왔더라. 그들이 문이 잠겨 있고 빗장으로 굳게 막힌 것을 보고는, 성당의 주된 문을 부수기 위해 파성퇴(공성 충차)를 가져왔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았노라. 그는 곧장 즉시 무언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곧장 죽게 될 것임을 깨달았더라. 이에 그는 성당 안의 창문으로 달려가 그것을 열었으며, 밖을 내

다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그 아래, 멀리 아래로는 바다가 있었고, 성이 세워진 해안의 바위들이 있었노라. 바다와 바위들은 그로부터 열두 패덤(약 22미터) 깊이 아래에 놓여 있었더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바다로 뛰어듦〉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여기서 죽는 것보다 저기서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문이 파성퇴에 의해 무너지려 하고 있음을 보자마자 그는 창틀에서 뛰어 나와 곧장 바다로 몸을 던졌더라. 그가 그 무서운 도약을 한 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으나 바위들과 부딪치지 않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다시 물 위로 떠올랐노라. 이때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황혼빛 속에서 바위 틈에 동굴이 하나 있음을 보았고, 그는 잠시 피난처를 얻으려 그곳을 향해 헤엄쳤노라.

그들을 맞서던 자들이 성당 안으로 들이닥치자, 모두 한꺼번에 큰 무리를 지어 안으로 뛰어들었으니, 그들은 트리스트람 경을 만나 그와 싸우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보라! 트리스트람 경은 거기에 없었고, 다만 빈 벽들만 남아 있을 뿐이었노라. 이에 처음에 그들은 크게 놀라 어찌 생각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 중 몇몇이 외쳐 이르되, "그 남자는 과연 영혼인가? 그가 허공으로 녹아 사라지다니!" 그러나 잠시 후, 그들 중 한 사람이 성당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달으니, 이에 여러 명이 그곳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고, 그들은 트리스트람 경이 그곳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음을 알았노라.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저 기사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밀물이 올라와 바위를 덮을 때에 필히 죽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밤은 이 일을

더 이상 다루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에 가서 그가 해변의 바위들 사이에 누워 있는 시체를 찾자." 그러자 이에 그들은 창문을 닫고 제각기 그 길을 떠났더라.

그때 고버네일은 틴타겔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도착하였을 때, 일어난 일을 일러주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거늘, 고버네일은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더라.

그러나 이후 고버네일은 그곳에서 자신 다음으로 트리스트람 경에게 가장 신실한 친구였던 산트레일 드 루손 경을 찾아 나섰다. 고버네일이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저는 트리스트람 경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분은 언제나 놀라운 수영과 잠수술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살아계시되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밀물이 들어와 그가 지금 숨어 계실지 모를 그 바위들을 덮을 때, 그분은 필연적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고버네일과 산트레일 경은 아무도 모르게 그 예배당으로 향하여, 트리스트람 경이 뛰어내렸던 창가에서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트리스트람 경을 불렀노라. "트리스트람 경이시여, 만일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일어나 우리 말에 답하시오.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일세!"

잠시 후 트리스트람 경은 고버네일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답하더라. "나는 살아 있노라.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지라." 이에 고버네일이 이르되, "폐하, 폐하는 다치셨소이까, 아니면 무

사하오이까?” 트리스트람 경이 답하되, “나는 몸은 강건하고 건강하나,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나이다.” 고버네일이 말하되, “영주여, 잠시 기다릴 수 있사오리까?”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그렇노라. 잠시라면 기다릴 수 있노라. 그러나 너무 오래는 기다릴 수 없노라.”

〈각주: 고버네일과 산트레일 경이 트리스트람 경을 구하다〉 이때 고버네일과 산트레일 경은 그들이 머물던 곳을 물러나, 가능한 한 신속히 움직이며 많은 양의 시트와 손수건을 모아 하나로 매듭지어 밧줄을 만들었노라. 그리고 그 밧줄을 트리스트람 경이 있던 바위 지대로 내려보냈노라.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린넨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올라가 무사히 예배당에 도착하였노라. 이때는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어 밤은 매우 어두웠노라.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은 성당에서 그들과 함께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거의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입을 열어 이르되, “경들아, 벨 이졸트 부인은 어떠신가?” 하였노라. 이는 그에게 있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녀를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산트레일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폐하, 그 부인은 탑에 갇혔사오며 그 문은 단단히 잠겨 있사옵니다. 그녀는 엄중한 감금 상태에 있나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이곳에 나의 벗이요, 나와 함께 이곳을 탈출하여 싸우려 할 기사는 몇이나 되느냐?"

그러자 고버네일이 대답하되, "폐하, 우리 외에 열두 명이 있사오니, 합하여 열네 명이 그대와 함께 생사를 건 이 싸움에 함께하리이다."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나에게 즉시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고, 그 열두 명을 온전히 무장시킨 채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나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우리, 벨 이졸트 공녀, 그리고 그녀의 시녀인 브래그웨인 부인의 말을 안장하게 하라.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 곳을 떠나 다른 피난처로 떠날 것이니, 우리가 무장한 후 이 성에서 우리를 막거나 머물게 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라."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무장을 함〉 트리스트람 경이 명령한 대로 행해졌고, 모든 이들이 모여 말들이 준비되자,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일파 중 몇몇 기사들이 공개적으로 그 탑으로 향하였노라. 그곳은 벨 이졸트 처녀가 감금된 곳이었더라. 그들이 문을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들어가자, 성의 윗부분에서 벨 이졸트와 그녀의 시녀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벨 이졸트가 트리스트람 경의 얼굴을 보자 이르되 “내 사랑이여, 당신인가이까? 당신은 아직 살아계시며,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트리스트람 경이 이르되 “네, 나는 아직 살아있노라. 하느님의 뜻이시라면, 내가 먼저 당신을 이 사악한 성채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마크 왕의 손아귀에 맡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크게 두려워하노니, 그가 당신을 손에 넣으면 당신을 통해 내 심장을 찌르는 복수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을 이곳에서 데려가리라.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당신은 내 팔의 보호를 벗어날 일이 없으리라."

그때 벨 이졸트 부인이 트리스트람 경을 향하여 매우 기이하게 미소하시니, 그녀의 얼굴이 사랑의 큰 빛으로 빛나는 듯하더라. 그녀가 이르되, "트리스트람이여,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무덤까지도 가리라. 네가 내 곁에 누워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내가 행복하리라 믿기 때문이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은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이르되, "이졸트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항상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주어야 하느냐?"

그러자 벨 이졸트 부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되, "불행이라니, 트리스트람, 결코 아니옵니다. 오직 행복만 있을 뿐이옵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의 사랑을 간직하였사오니, 당신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지니고 있사옵나이다. 이 사랑이 있기에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행복이 있사옵고, 결코 불행은 없나이다."

이때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탑의 계단을 내려가, 그녀를 말 위에 앉혔다. 브라그웨인이 그 뒤를 따랐고, 고버네일이 그녀를 말 위로 올려주었다.

〈각주: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를 틴타겔에서 데려감〉

그 성채에 있던 자들은 갑작스레 자신들 한가운데 무장을 마치고 전투를 준비한 기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놀라움에 말로 다할 수 없이 당황하더라. 특히 트리스트람 경이 이들 기사들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으니, 트리스트람 경이 성의 포드컬리스(낙하 문)를 열고 도개교를 내리라고 명령할 때, 성문을 지키는 자들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명을 따랐더라.

그때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기사들은 벨 이졸트 부인과 브라그웨인을 모시고 행장을 차려 나섰으나, 그들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들은 숲 속으로 들어가 트리스트람 경의 성 중 하나를 향해 길을 재촉하였으며, 해가 밝아오는 맑은 새벽녘에 그 성에 도착하더라.

그리하여 트리스트람 경은 벨 이졸트 공녀를 틴타겔에서 데려와 무사한 곳으로 모셨더라.

[그림: 마크 왕이 꾀를 꾸미느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제4장

트리스트람 경과 미녀 이졸트 부인이 코르월로 귀환하여 함께 생을 마친 이야기

이제부터는 트리스트람 경의 나머지 모험들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하리라.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와 관련하여 내가 지금 말한 만큼의 내용을 전할 생각은 아니었노라. 그러나 이 사연에 깊이 빠져들

며, 트리스트람 경의 기사도가 얼마나 고결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것이었는지 강하게 깨닫게 되자, 나는 본래 말하려던 의도를 버리고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러나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많은 모험들이 있노라. 나는 오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만 기록하였노라.

이제 그의 최후에 관한 일들을 들려주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마크 왕을 책망함〉

이 일들이 있은 지 이틀 후, 랜슬롯 경이 그가 떠났던 임무에서 돌아와 틴타겔에 도착하였더라. 그는 곧장 마크 왕께 나아가, 그에게 맡겨두었던 숲속의 광인을 무사히 잘 모시고 있는지 문안하였노라. 그러나 그 광인이 바로 트리스트람 경임을 듣자, 그는 지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또한 트리스트람 경이 마크 왕과 성의 사람들, 특히 앤드레드 경의 지휘 아래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듣자, 그의 마음은 거대한 분노로 가득 찼노라.

이에 그는 일어나 마크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주군 왕이여, 저는 여러 곳의 기사도 궁정에서 왕에 관하여 불쾌한 말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들었사오니, 곧 왕의 기사도 정신 결여에 관한 것이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야 그 말들이 참됨을 알았사옵니다. 이는 저 또한 이곳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왕께서 트리스트람 경을 속여 벨 이졸트 공녀를 왕께로 데려오게 하였음을 들었사오니이다. 또

한 왕께서 늘 그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대하며, 그의 명예와 목숨을 빼앗으려 함을 들었사옵니다.

그런데도 트리스트람 경은 늘 왕께 충실하고 신실한 기사로서, 왕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성실히 봉사하였사옵니다. 저는 왕의 마음속에 트리스트람 경에 대한 질투가 있음을 알고, 왕께서 늘 그에게 악함과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음을 아나이다. 그러나 온 세상이 아나니, 트리스트람 경은 참된 기사요, 어떠한 악과도 전혀 무관하시옵나이다. 왕께서 그에게 뒤집어씌운 모든 악은 오직 왕의 악한 마음 속에만 존재할 뿐, 실재하는 바가 없나이다.

이제 저와 왕의 모든 백성에게 밝히 말하노니, 만일 왕의 손으로 트리스트람 경에게 해가 끼쳤더라면, 저는 왕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할 것이요, 왕이 곧 잊지 못할 만큼의 벌을 내릴 것이었나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 트리스트람 경 스스로가 저의 도움 없이도 왕에게 온당한 벌을 이미 내렸음이오이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 다시는 이 곳에 오지 아니하리니, 만일 궁정이나 전장에서 왕을 만나더라도, 저로서는 왕을 주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니이다."

이렇게 말한 후, 랜슬롯 경은 매우 자존심에 차고 거만하게 그 자리를 떠나갔으며, 그의 꾸지람에 모두 당황해하였다.

〈각주: 랜슬롯 경이 숲속에서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를 만나니라〉 그 날, 랜슬롯 경은 숲속을 나아가 그 성에 이르렀으니, 그곳은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부인을 데리고 간 곳이라. 트리스트람 경은 그를 모든 기쁨과 존경으로 맞이하였더라. 랜슬롯 경은 그곳에 이틀간 머무르니, 그 자신과 트리스트람 경, 그리고 벨 이졸트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더라.

그때가 되자 랜슬롯 경은 트리스트람에게 이르되, "영주여, 당신과 이 고귀한 부인이 틴타겔의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진실로 마크 왕은 언젠가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저와 함께 조이러스 가드 성으로 오소서. 그곳에서는 이 부인이 으뜸가는 여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는 그녀를 위해 모든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충실한 하인이 되겠사옵니다. 그 성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그녀가 원하신다면 평온과 안전과 안식 속에서 일생을 보내실 수 있나이다."

〈각주: 그들이 조이러스 가드로 떠나다〉 이때에 랜슬롯 경의 말이 트리스트람 경과 벨 이졸트에게 모두 좋게 들리므로, 삼 일 만에 그들과 그들의 궁정이 떠나갈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숲 속의 성을 떠나 조이러스 가드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큰 존경과 기쁨으로 맞이되었더라.

이때 벨 이졸트 부인은 조이러스 가드에서 삼 년을 지내며, 참된 왕후로서 온갖 순결함과 무구함으로 거처하였노라.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의 수호기사들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궁정은 그녀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 삼 년 동안 조이러스 가드에서는 수많은 유명한 마상 시합이 열렸으며, 랜슬롯 경과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의 명성을 위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험들을 성취하였노라.

실로 이는 벨 이졸트 여인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으리라. 그녀가 그곳에서 평화와 사랑, 그리고 고요함 속에 살았으며, 그 모든 세월 동안 슬픔이나 불행 따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

〈각주: 아서왕이 조이러스 가드로 오시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서왕이 조이러스 가드에 이르렀으니, 그 곳에서는 전에 없던 기쁨과 환호로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를 위한 큰 연회가 차려졌고, 연회가 끝난 뒤 아서왕과 트리스트람 경, 그리고 벨 이졸트는 한쪽 구석으로 물러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그 후 잠시 후, 아서왕이 말씀하셨다. “부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이때 벨 이졸트 부인이 눈을 들어 왕을 매우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잠시 후 그녀가 대답하였다. “질문하소서, 폐하. 제가 알 수 있다면 대답해 드리리다.” “부인,” 아서왕이 말씀하셨다. “이 질문에 답하시오. 슬픔과 함께 명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수치와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가?”

그때 벨 이졸트가 큰 동요에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주여, 어찌하여 제게 그것을 물으시나이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부인아, 내가 생각하건대 그대의 마음도 때때로 그와 같은 물음을 그대에게 던졌을 것이라.”

벨 이졸트가 두 손을 모으며 외쳤다. “옳소, 옳소. 내 마음이 그 물음을 자주 던졌사오나, 나는 그에 답하지 아니하려 했소.”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대도 내게 답하지 말라. 나는 그대가 여인인 것과 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내일 뿐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 물음을 하느님께 답하라, 사랑스러운 부인이여. 그리할진대 그대는 진실로 답하게 되리라.”

이때 아서왕은 트리스트람 경과 다른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으나, 그 부인은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으며, 그 후로는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더라.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노라.

벨 이졸트는 아서왕이 던진 그 물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그녀가 트리스트람 경에게 나아가 이르되, “사랑하는 영주여, 아서왕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깊이 묵상하였사오니, 그 결과로 내가 다시 콘월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사옵나이다.”

이에 트리스트람 경은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리며 이르되,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였노라" 하더라. 그 후 잠시 후,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그녀가 그대로 서 있는 채로 남겨두었더라.

이리하여 트리스트람 경과 마크 왕, 그리고 벨 이졸트와 마크 왕 사이에 화해가 성취되니, 화친을 주선한 이는 아서왕이러라.

〈각주: 이졸트 공녀가 마크 왕을 업신여기다〉 그 후 트리스트람 경과 그의 궁정, 그리고 아름다운 이졸트 공녀는 콘월로 돌아와, 겉으로는 평온한 가운데 잠시 그 땅에 머물렀노라. 그러나 그 동안 이졸트 공녀는 마크 왕을 마주 보려 하지 않았고, 그와 한 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노라. 그녀는 성채의 한 구석에서 왕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지냈노라.

이때 마크 왕은 절망의 쓴맛에 깊이 찔려, 지옥의 악마처럼 고통받는 자와 다름없었노라. 그는 마치 보물이 눈앞에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지극히 가까우면서도 먼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었노라. 그가 그 고통을 더 깊게 겪을수록, 그는 트리스트람 경을 더 증오하게 되었노라. 그의 고통 속에서 트리스트람 경이 바로 그 고통의 근원인 양 보였기 때문이었노라.

이리하여 마크 왕은 트리스트람 경을 감시할 정탐꾼들을 파견하였노라. 그의 악한 마음속에는 트리스트람 경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으며, 정탐꾼들이 트리스트람 경이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찾아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정탐꾼들은 밤낮으로 트리스트람 경을 감시하였으나, 그가 잘못한 행동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어느 날, 벨 이졸트는 서 트리스트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기에게 오라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둘이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였노라. 서 트리스트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미심쩍어하였으나,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로 하였

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정탐꾼들이 마크 왕에게 와서, 트리스트람 경이 벨 이졸트 공녀의 침실로 갔으며, 그녀가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고 전하더라.

그때 마크 왕의 심장은 증오와 절망의 극심한 고통으로 뒤틀리며, 그는 몸을 반으로 굽힌 채 비명을 지르니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나는 지옥의 고통을 겪노라!"

〈각주: 마크 왕이 트리스트람 경과 이졸트 부인을 엿보다〉 이에 그는 일어나 성의 어느 쪽으로, 곧 벨 이졸트 부인이 머무는 곳으로 매우 빠르게 향하였다. 그는 뒷길로 매우 조용히 올라가 한 통로를 지나 커튼이 드리워진 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가 그곳에 다다르자 커튼을 걷어 안을 엿보았더라.

그는 벨 이졸트 부인과 트리스트람 경이 체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이 실제로 말을 움직여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매우 슬픈 표정으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또한 그는 한쪽 깊숙한 창가에 브라그웨인 부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벨 이졸트가 자신과 트리스트람 경이 혼자인 것처럼 말해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을 본 마크 왕은 질투라는 고통에 떨었다.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그 장소를 떠나 자신이 들어왔던 그 복도로 매우 조용히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그는 두 엘(ell) 길이의 장대에 달린 거

대한 언월도를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손에 쥐고 다시 그 커튼으로 가려진 문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그는 커튼을 소리 없이 가르고 매우 신속하고도 소음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트리스트람 경의 등이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이에 마크 왕이 검을 높이 들어 내리쳤고, 트리스트람 경은 소리 없이 쓰러졌더라.

"그렇소, 그 선한 기사가 낙원에서 깨어나 행복과 평화의 땅에 서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노라."

〈각주: 트리스트람과 이졸트의 최후에 관하여〉 이때 벨 이졸트가 일어나니, 그 일로 체스 판을 뒤집어엎었으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잠시 동안 트리스트람 경의 시체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어 죽었음을 확인하려는 양 만지더라. 이에 확신을 얻은 듯 그녀는 그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 쓰러졌노라. 이때 마크 왕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더라.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순식간에 지나갔으므로, 브래그웨인 부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너무도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여, 온 성이 그 소리로 울려 퍼졌더라.

그때 외실에는 트리스트람 경의 궁정에 소속된 몇몇 기사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왕께 어떠한 배신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언하기 위해 트리스트람 경과 함께 그곳에 왔던 자들이라. 브래그웨인 부인이 그와 같이 비명 지르자, 그들은 달려들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일어나버린 일을 목격하더라. 이에 그들 모두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여 굳어 서 있더라.

〈각주: 알렉산더 경이 마크 왕을 죽이다〉

그러나 트리스트람 경의 궁정에는 매우 연소이면서도 기개가 넘치는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경이라 일컬어지더라. 이 기사가 마크 왕이 서서, 그가 행한 일의 결과에 홀린 듯이 시선을 고정하며 자신의 손길이 만든 일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라. 이때 알렉산더 경이 마크 왕에게 이르되, “이것이 그대의 소행이오?”라 하니, 마크 왕이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알렉산더 경을 바라보며 대답하되, “그렇노라”라 하더라.

이에 알렉산더 경이 외치되, “너는 너무 오래 살았노라!”라 하고, 곧장 미세리코르디아(자비 칼)를 뽑아 마크 왕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어 그의 팔을 들어 올렸노라. 그리고 알렉산더 경이 그 단도를 마크 왕의 옆구리에 깊이 찔러 넣으니, 마크 왕이 신음하며 땅에 주저앉더니, 잠시 후 그곳에서 숨을 거두니라.

그때 기사들은 벨 이졸트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를 들어 올렸으나, 보라! 영혼은 이미 떠나갔고 그녀는 죽어 있었더라. 내가 믿기에, 사랑하는 그 두 영혼 가운데 하나가 몸을 떠나면 다른 하나도 함께

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둘이 낙원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으리라. 기사도의 역사를 통틀어 트리스트람과 이졸트의 영혼이 서로 그렇게도 부드럽게 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일처럼, 둘이 서로에게 그렇게도 깊이 결부되었던 적은 없었노라.

이로써 트리스트람 경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니, 다만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무덤에 안장되었다는 것과, 그들을 기록한 많은 이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트리스트람 경의 무덤에서 자라난 장미나무가 벨 이졸트의 무덤 위로 가지와 잎을 드리웠다는 사실만 남기노라. 또 이 장미나무는 기적이라 일컬어지니, 그의 무덤에서는 붉은 장미가 피어났고, 그녀의 무덤에서는 순백의 장미가 피어났기 때문이라. 그녀의 영혼은 세 번이나 빗어낸 양털처럼 순결하였으니, 그의 영혼은 용기와 기사적 자존심이 가득한 붉은 빛을 띠었음이니라.

내가 이 두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곧 이 두 사람과 그 전에 수많은 이들이 이미 걸어간 그 길로 가야 할 모든 이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아멘.

퍼시벌 경의 책

여기서부터 게일스의 퍼시벌 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니, 그는 당시 원탁의 기사들 가운데 세 분의 위대한 기사 중 한 분으로 여겨졌노라. 만일 랜슬롯 경이 아서왕의 궁정에 모인 모든 기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다면, 그의 뒤를 이을 둘째 자리는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인가, 아니면 게일스의 퍼시벌 경인가를 가려 말하기 어려웠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그와 같이 용감하고 정숙하며 존귀한 생을 살게 하시고, 또한 너희가 그의 보인 고결한 행실로써 거처하는 세상에서 마땅한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일러스트레이션: 게일스의 퍼시벌 경]

서문

퍼시벌 경의 부친은 바로 펠리노어 왕이시니, 그분은 아서왕과 치열한 결전을 벌이셨으니 그 이야기는 『아서왕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노라. 그 전투 이후에야 아서왕은 유명한 검 엑스칼리버를 얻으셨으니, 그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노라.

이때 펠리노어 왕은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아서왕 즉위 초기에 아서왕에 반역했던 열한 왕 중 한 분이었노라. 그는 그들 왕 중 가장 늦게까지 항거하다가, 마침내 패배하여 항복하였더라. 이에 아서왕은 그를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쫓아내었노라. 마침내 펠리노어 왕은 인간의 거주지를 떠나, 들짐승과 같이 숲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노라.

〈각주: 펠리노어 왕이 광야로 도망치다〉 이때 펠리노어 왕은 그의 아내와 네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 아들들의 이름은 라모락과 아글라발, 도나르, 그리고 퍼시벌이었더라. 이 중 퍼시벌은 겨우 세 살의 나이라서 아직 어렸고, 나머지 아들들 중 도나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장성한 남자로서의 기운이 서려 있었더라. 그 후로 그 고귀한 가문은 사냥감 같은 짐승처럼 숲속에 숨어 지내야 했으니, 이는 한

때 왕비였던 부인에게 있어 지극히 큰 고난이었고, 또한 어린 퍼시벌의 목숨에도 심히 위태로운 일이었더라.

이때 퍼시벌은 지극히 아름다웠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 중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녀는 이 어린 아이가 광야의 혹독한 시련으로 죽을까 두려워하였더라.

이때 펠리노어 왕이 이르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제 너와 이 어린 아이를 보호할 준비가 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아이가 자라 장성한 몸과 지위를 갖추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동안 너희를 내 곁에서 떠나 숨어 지내게 하리라."

"내 일생의 소유물 중 이제 내게 남아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라. 그 하나는 이 숲속에 있는 외로운 성(城)이니, 내가 지금 그 곳으로 향하는 바요, 또 하나는 이로부터 먼 곳에 있는 고독한 탑이니, 세상의 매우 황량한 곳, 많은 산들이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는 내 원수들이 그곳에서 너를 찾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니라."

"나의 뜻은 이러하니라. 이 아이가 그 외로운 곳에서 자라 성년이 되었을 때, 그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겁이 많으면, 너는 그를 성직자로 삼을지니라.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몸이 강건하고 기력이 왕성하며 정신이 높고, 기사의 일을 감당하려 하거든, 너는 그의 뜻을 막지 말고 그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게 할지니라."

"만약 그가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때가 올진대, 보라! 여기 정녕 귀중한 루비로 장식된 반지가 있노라. 그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든, 이 반지를 나에게 혹은 우리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가져오라. 이 반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나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임을 알겠노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지극한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각주: 퍼시벌의 어머니가 그를 산으로 데려감〉 펠리노어 왕의 부인이 이르되, "왕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펠리노어 왕은 아서왕이 그를 찾아 싸웠던 그 외로운 성으로 향하였고, 퍼시벌의 어머니는 펠리노어 왕이 말했던 그 산중의 거처로 향하였으니, 그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하나의 탑이었으며, 마치 돌로 된 손가락과도 같더라.

그곳에서 그녀는 퍼시벌과 함께 십육 년을 지냈노라. 그 모든 세월 동안 퍼시벌은 세상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는 완전히 거칠게 자랐으며,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하였더라.

그 동안, 곧 그 세월 동안, 펠리노어 왕의 집안은 매우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 아서왕이 펠리노어 왕과 화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서왕의 궁정에는 그 선량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의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펠리노어 왕이 먼저 배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이어 아글라발 경과 도나르 경이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매, 그 고귀한 가문 중에서는 라모락 경 한 사람만 남게 되었더라.

그리고 가웨인 경과 그의 형제들이 그 살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일컬어지니, 그들은 펠리노어 왕과 원수 사이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펠리노어 가문의 고귀한 기사들이 배신적이고 기사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웨인 일가는 항상 그 배신된 행위에 대한 큰 비난과 치욕을 뒤집어썼노라.

〈각주: 퍼시벌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통곡함〉

이제 그 여러 죽음의 소문이 산야의 외로운 탑과, 퍼시벌 경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지니라. 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음을 들을 때, 그녀는 큰 슬픔의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마주치며 격정적으로 울부짖었노라.

그녀가 소리쳐 외쳤노라. "라모락 경이 다음으로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나 보다. 퍼시벌에 관하여는, 그가 그 잔인하고 악한 살인자들의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리라. 만일 그가 또한 죽임을 당한다면, 나의 마음은 반드시 찢어질 것이오."

〈각주: 퍼시벌이 산중에서 보낸 세월〉

그녀는 퍼시벌을 항상 곁에 두었으며, 그는 기사도의 세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로 자라났다. 퍼시벌은 몸집이 크고 아름다우며 얼굴은 고결하고 위엄 있어 보였으나, 그는 여전히 그 산맥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그가 머무는 곳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순진한 어린아이보다도 더 알지 못했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다만 한 노인을 제외하고는. 그 노인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였다. 이 노인은 퍼시벌과 그의 어머니가 머무는 탑과 바깥 세상 사이를 오가며, 바깥 세상에서 돌아올 때는 퍼시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몇몇 하인들을 위해 의류와 식량을 실은 낡은 짐말을 끌고 왔다. 퍼시벌은 이 물건들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 번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세상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채로 살았다.

퍼시벌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떤 무기도 만지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작은 스코틀랜드인의 창 하나만은 허락하였으니, 그것은 일종의 투창과 같은 것이었더라. 그러나 퍼시벌은 그 창으로 매일 놀았노라. 그러므로 그가 자라나자 그는 그것을 다루는 데 매우 능숙하여, 공중을 나는 새의 몸이라도 그 창으로 꿰뚫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때 퍼시벌은 열아홉 살이 되어, 어떤 바위 꼭대기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계곡을 내려다보았노라. 봄이 막 시작된 때라, 계곡은 온통 맑고 연한 초록빛으로 덮인 듯하였더라. 계곡 한가운데를 따라 빛나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고,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 느끼게 하더라.

〈각주: 퍼시벌이 기사의 모습을 목격하다〉

이에 퍼시벌이 서서 그 낮은 들을 바라보았노라. 보라, 계곡을 통해 한 기사가 달려오더라. 비구름 뒤로 해가 모습을 드러내어 그의 갑옷에 빛을 비추니, 그의 갑옷이 순결한 빛으로 타오르는 듯 번뜩였노라. 퍼

시벌이 그 기사를 바라보았으나,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었노라.

기사가 계곡을 지나간 후, 퍼시벌은 큰 경외감으로 가득 차 곧장 그의 어미에게 달려가 이르되, "어머니여! 어머니여! 나는 지극히 놀라운 것을 보았나이다."

어미가 이르되,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퍼시벌이 이르되, "나는 사람과 비슷한 무언가를 보았나이다. 그는 말 위에 타고 있었으며, 지극히 밝고 놀라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나이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이때 퍼시벌의 어머니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마음은 크게 근심에 잠겼으니, 이는 퍼시벌의 기사 정신이 깨어나면 그는 더 이상 그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머무는 데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어찌 된 일인가? 이 어린 양 하나마저도 내게서 빼앗기고, 내 양 떼 중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인가?" 하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퍼시벌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보았던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천사였노라." 퍼시벌이 대답하되, "나 또한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소!" 하니,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인 부인은 매우 깊게 한숨을 쉬었더라.

이튿날, 퍼시벌과 그의 어머니는 그 탑이 서 있던 산 기슭에 펼쳐진 숲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던 봄의 이른 꽃들

을 따려 함이었노라.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보라! 숲을 가로질러 다섯 명의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오더라. 잎사귀가 희미하여 마치 푸른 안개와도 같았으므로, 퍼시벌은 멀리서부터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노라.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노라.

"어머니! 어머니! 보시오! 저기 어제 제가 보았던 천사들과 같은 무리가 있소이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리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찌 된 일이뇨! 어찌 된 일이뇨! 네가 천사들에게 인사를 하려느냐!"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그들이 얼굴은 온화하고 태도는 자비로우시니이다." 하므로, 그는 나아가 그 기사들에게 인사하려 하였더라.

〈각주: 퍼시벌이 다섯 기사와 담소하다〉 그 기사 무리 중 가장 앞장선 이는 에워네 경이었으니, 그는 모든 이에게 언제나 온후하고 정중한 자였더라. 이에 에워네 경이 가까이에 있는 퍼시벌을 보자,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네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 퍼시벌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제 이름은 퍼시벌이니이다." 에워네 경이 이르되, "그 이름은 참으로 훌륭하도다. 또한 네 얼굴은 지극히 아름다우니, 나는 네가 매우 높은 혈통에서 나왔으리라 여기노라. 이제 내게 말하노니, 청하노니 네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에 퍼시벌이 이르되, "제 혈통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사오니,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에워네 경은 지극히 놀라니라. 잠시 후, 그가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오늘이나 어젯날 이 길을 지나가는 기사가 있었는가?" 퍼시벌

이 이르되, “기사가 어떤 종류인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에워네 경이 이르되, “기사는 나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나이니라.”

이때 퍼시벌은 자신이 알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온 영혼을 다해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결심하였다. 이에 그가 이르되, “만약 당신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기꺼이 당신의 질문에도 답하겠사오.”라고 하니, 이에 에워네 경은 매우 기쁜 웃음을 지으며(그는 퍼시벌을 지극히 아꼈기 때문이라) 이르되, “원하시는 대로 물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답해 드리겠노라.”

이에 퍼시벌이 이르되 “내가 묻노니, 이 물건이 무엇인가?” 하며 그 위에 손을 얹었더라. 이에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것은 안장이라.”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것은 검이라.” 하더라. 퍼시벌이 다시 이르되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것은 방패라.” 하더라.

이와 같이 퍼시벌은 기사의 장구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가리키며 물었고, 에웨인 경은 그의 모든 질문에 답하였더라.

그때 퍼시벌이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하겠나이다. 어제 내가 한 기사가 이 길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사오니, 그는 저 골짜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달렸나이다.” 하더라.

이에 에웨인 경은 퍼시벌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사를 올렸고, 다른 기사들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길을 떠나가더라.

그들이 떠나간 후, 퍼시벌은 어미에게로 돌아왔더라. 그가 보니 어미는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이는 퍼시벌이 이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영혼이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라.

퍼시벌이 어미가 앉으신 곳으로 다가가 이르되, "어머님, 저들은 천사가 아니라 지극히 선량하고 훌륭한 기사들이었나이다."

이 말을 듣자 그의 어미, 곧 그 부인은 격렬한 울음소리를 터뜨렸노라. 퍼시벌은 어미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어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그 앞에 서 있더라. 잠시 후 그가 묻되, "어머님,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나 그녀는 잠시 동안 대답하지 못하더니,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이르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침묵한 채 길을 걸었더라.

그들이 거처하는 탑에 이르렀을 때, 부인은 갑자기 퍼시벌을 돌아보며 그에게 이르되, "퍼시벌,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나이다." 부인이 이르되, "네가 또한 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네 뜻대로 하리라. 나와 함께 오라."

이에 퍼시벌의 모친이 그를 인솔하여 마구간으로 나아가니, 그곳에는 그 곳으로 식량을 운반하던 가련한 짐나귀 한 마리가 서 있더라. 어

머니가 이르되, “이것은 초라한 말이오나, 내가 당신을 위한 다른 수단이 없소.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안장을 만들어 주리이다.”

이에 퍼시벌과 그의 모친은 여러 겹의 천과 건초를 꼬아, 비록 형편없으나 그나마 안장이라 할 만한 것을 만들어 주었더라. 어머니는 퍼시벌에게 빵과 치즈를 담은 주머니를 가져와 그의 휴식을 위한 양식으로 주었고, 그것을 그의 어깨에 걸어 주었노라. 또한 어머니는 그의 창을 가져와 그가 손에 쥐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머니는 펠리노어 왕의 반지를 주었는데, 그 위에는 귀한 루비 보석이 박혀 있더라. 어머니가 이르되, “퍼시벌이여, 이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시오. 이는 왕가의 반지이기 때문이오. 이제 나를 떠나거든,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라모락 경을 찾아 분별 있게 물으시오. 당신이 그를 만나거든 이 반지를 보여 주시오. 그리하면 그는 당신이 훌륭한 기사가 되었음을 알 것이오. 퍼시벌이여, 라모락 경은 당신의 형제이기 때문이오.

과거에는 당신에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셨고, 또 다른 두 형제도 있었소. 그러나 모든 이들은 우리의 적들의 배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오. 오직 당신과 라모락만이 살아남았으니, 세상에 나가 그 적들 가운데 있을 때 각별히 자신을 보호하시오. 만일 당신이 그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오.”

〈각주: 퍼시벌의 어머니가 그에게 조언을 주다〉 이때 그녀가 퍼시벌에게, 스스로 기사로서 자격을 갖추려 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노라.

“네가 길을 떠남에 있어, 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야 하리라. 네가 교회나 성지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기도문을 외라. 만일 누군가 곤경에 처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거든, 그에게 도움을 주러 서둘러 달려가라. 특히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나 아이일진대 더욱 그러해야 하리라. 만일 네가 부인이나 낭자를 만나거든, 마땅한 예의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라. 만일 네가 남자와 마주치거든, 그에게 예의 바르고 용감하게 대하라. 만일 네가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며 음식과 포도주를 발견하거든, 네가 만족할 만큼 먹고 마시되, 그 이상은 취하지 말라. 만일 네가 보물이나 값비싼 보석을 발견하고, 타인에게 부당함을 가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거든, 그것을 네 것으로 삼으라.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라. 이와 같이 이 계율들을 순종하거든, 너는 진정한 기사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요, 또 아마도 너보다 앞서 진정한 기사였던 네 아버지의 품위에까지 도달하게 될지니라.”

퍼시벌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지키며 행하리이다” 하니라

퍼시벌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나 너는 나를 잊지 않으리라, 퍼시벌이여?"

〈각주: 퍼시벌이 산을 떠나다〉

그가 이르되, “아니오, 어머니. 그러나 제가 힘과 명성과 재산을 얻은 뒤에는 곧장 이곳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이 곳에서 데려가리니, 제가 베풀어 줄 모든 영광으로 어머니는 여왕과도 같은 지위가 되시리라.”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더라. 퍼시벌은 몸을 굽혀 어머니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노라. 그 후 그는 돌아서 그녀를 떠났고, 산을 내려가 숲 속으로 말을 몰고 갔노라. 그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그가 간 뒤에는 매우 외로워하였더라.

이제 내가 퍼시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명망 높은 기사가 되었는지 말하였노라.

[그림: 미인 이브트 부인]

제1장

퍼시벌이 세상에 나아가고, 천막 속에서 아름다운 낭자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구이니비어 여왕 앞에 나아가 첫 모험을 서약하게 된 이야기

〈각주: 퍼시벌이 버드나무 가지를 모아 갑옷을 만들다〉

이제 퍼시벌이 매우 오랜 시간 말을 몰아 길을 가다가, 마침내 그 숲의 한 부분을 벗어나 물줄기 옆으로 많은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어느 계곡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버드나무 가지들을 모으고 껍질을 벗겨, 자신이 그 숲으로 들어왔던 기사들이 입고 다니던 갑옷과 꼭 닮은 형태로 매우 교묘하게 엮어 내었다. 그리고 그가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자,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잘 차려입었노라.” 이에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나니라.

〈각주: 퍼시벌이 세상을 누비던 이야기〉 그러나 그 고을 사람들이 짐나귀 등에 얹힌 안장의 형편을 보았고, 또 퍼시벌이 입은 갑옷이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것임을 보았으며, 또한 그가 창 하나와 그 외에는 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로 무장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웃으며 비웃었노라. 그러나 퍼시벌은 그들의 조롱을 깨닫지 못하여 이르되, “보라, 세상이 얼마나 상쾌하고 즐거운지. 내가 이곳이 이렇게 즐거운 곳인 줄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이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같이 조롱하던 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니라. 그러자 어떤 이들은 말하되, “저는 미친 자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말하되, “아니로다, 그는 어리석은 바보일 뿐이라.” 하더라. 퍼시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종류의 기사들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는 매우 기뻐하며 길을 떠났노라. 그가 여행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를 보고 웃었으나, 그는 그들보다 더 크게 웃으며, 이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친절함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었더라.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그는 한가로운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고, 거기서 그는 나무들 사이에 우뚝 선 매우 고귀하고 장엄한 천막을 보았노라. 그 천막은 온통 노란 새틴으로 만들어져 있어, 기울어지는 해의 빛 아래에서 마치 금처럼 빛나더라.

이에 퍼시벌이 속으로 생각하되, “정녕 이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교회 중 하나니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는 말에서 내려 그 천막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었더라.

〈각주: 퍼시벌이 금빛 천막 안으로 들어감〉

그 기도를 마친 뒤, 그가 일어나 천막 안으로 들어섰을 때, 보라! 그는 그곳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열여섯 살의 낭자를 보았으니, 그녀는 조각이 새겨진 벤치 위에 놓인 금실 직물의 쿠션에 앉아, 은실과 금실로 분주하게 수를 놓는 자수 틀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 낭자의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맣고, 뺨은 장미 꽃잎처럼 붉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띠를 두르고, 하늘색 실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흰 포도주와 붉은 포도주가 준비된 식탁이 놓여 있었고, 모든 잔은 은으로, 모든 접시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식탁 위에는 금실로 수를 놓은 냅킨이 깔려 있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그곳에 앉아 있던 그 젊은 아가씨는 페셔 왕의 딸이시요, 미인 이브트 부인이시니라.

퍼시벌이 그 천막에 다다랐을 때, 이베트 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심한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되, “저는 아마 미친 자이거나, 혹은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갑옷을 입고 이곳에 찾아온 어리석은 광대일 것이로다.” 하고는 그에게 말하였다. “여봐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부인, 이것이 성전입니까?”

이에 그녀는 그가 장난을 걸려 한다고 여겨 노하여 이르되. “물러가라, 어리석은 자여. 만약 내 아버지, 곧 페셔르 왕께서 오셔서 너를 여기에서 발견하시면, 너의 이 장난을 벌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퍼시벌이 대답하되. “아닙니다, 부인. 저는 그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처녀는 퍼시벌을 더 자세히 살피며 그의 얼굴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지 보았노라.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말하되, “이 자는 바보도 아니고 광대도 아니라. 그가 누구요, 혹은 어떤 자인지는 알 수 없노라.”

〈각주: 퍼시벌이 금빛 정자에서 빵을 부수다〉 이에 그녀가 퍼시벌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산과 광야에서 왔나이다.” 그 후 그가 이르되 “부인, 내가 어머니를 떠날 적에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음식과 음료를 보고 배가 고프다면 필요한 만큼 취하라 하셨나이다. 이제 나는 이 경우에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러자 그는 그 탁자에 앉아 큰 식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

그때 그 낭자가 그의 행동을 보고 크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손뼉을 쳤다.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만약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돌아와서 당신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반드시 가혹하게 벌하실 것이오. 당신도 그들과 화해할 길이 없을 것이오.”

퍼시벌이 말하되, “어찌하여 그들이 그런 일을 하리이까, 부인?”

그녀가 이르되, “그것은 그들의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이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한 왕이시요, 내 형제들은 그의 아들들이오.”

이에 퍼시벌이 말하되, “진정히, 그들이 주린 자에게 음식을 아낀다면 무례한 일이 되리이다.” 이에 그 낭자는 또다시 웃었다.

퍼시벌이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그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 처녀가 손가락에 매우 값진 진주를 박아 넣은, 조각이 정교한 매우 아름다운 금반지를 끼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그는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제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만약 제가 보석이나 보물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취해도 된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제 손가락에 끼신 그 반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이오.”

이 말을 듣자 처녀는 퍼시벌을 매우 이례적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본 어떤 남자보다도 용모가 수려하며, 그의 얼굴은 매우 고귀하고 높으나 동시에 지극히 온화하고 자비로움을 보았다. 이에 그녀는 매우 부드럽게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내가 내 반지를 네게 주어야 하느냐?”

이에 그가 답하되, “그것은 당신이 제 눈이 본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부인이시기 때문이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사오니.”

그때 처녀가 그에게 미소를 띠며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퍼시벌이라 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좋은 이름이로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에 그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알 수 없나이다.” 그녀가 이르되, “그분께서는 분명히 매우 고귀하고 훌륭한 기사이시겠구나.” 그러자 퍼시벌이 이르되, “그분께서는 그 모든 분이시라니이다. 그분께서는 또한 왕이셨사오니이다.”

〈각주: 낭자가 퍼시벌에게 반지를 주니라〉 이때 낭자가 이르되 “내 반지를 네게 주노라” 하고 그에게 그것을 내주었노라. 퍼시벌이 그것을 손가락에 끼고 이르되 “내 어머니께서도 내 소유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라 하셨사오니, 이에 내 반지를 그대의 것과 교환하여 드리니, 부디 당신이 나의 친절에 보답하실 그 날까지 이를 착용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장차 매우 유명한 기사직과 크고 찬란한 명성을 얻으리라 믿노라. 만일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리라면, 그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 되리니라. 나는 이제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장차 다시 당신의 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하더라.

그때 그 낭자가 이르되, “내가 네가 누구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네가 기꺼이 취한 그 기이한 차림새를 볼 때, 필시 네는 매우 고귀한 혈통에서 나왔음이 틀림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나의 기사로 받노라. 그리고 내가 언젠가 너를 통해 큰 영광을 얻으리라 믿노라.”

〈각주: 퍼시벌이 황금 천막의 낭자에게 인사하다〉

이에 퍼시벌이 이르되, “부인, 제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낭자를 만나거든 모든 정성으로 그녀에게 인사하라 하셨나이다. 이제 제가 부인에게 인사하여도 좋겠습니까?”

그 낭자가 이르되, “허락하노라.”

이에 퍼시벌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니, 이는 그가 여성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오직 이로만 알았기 때문이라. 보라, 그녀의 얼굴이 불꽃처럼 온통 붉어지더라. 이에 퍼시벌은 그 천막을 떠나 말에 올라타고 달아났더라. 그리고 그에게 있어 세상은 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곳임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이 실로 어떠한지, 그 본질이 어떠했는지, 혹은 그 끝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서 명성을 얻으리라 단언하며, 또 그녀와 이별한 뒤에도 그 젊은 낭자를 쉽게 다시 만나리라 믿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더라.

그 밤, 퍼시벌은 장작을 모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숲의 한 구석에 다다랐다. 이들은 그가 멀리 헤매다 온 무해한 광인인 줄 알고 그에게 하룻밤의 은신처와 쉼터를 제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해를 끼치지 않을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에게 그때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들려주었으므로, 세상은 처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랍고 경이로운 곳임이 그에게 드러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이 밝자 일어나 몸을 씻은 뒤 길을 떠났노라. 그가 기르던 가엾고 기운 빠진 말 위에 올

라타자, 그는 어젯밤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준 빵과 치즈로 아침 식사를 하였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노라. 그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대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각주: 퍼시벌이 숲을 여행하던 모습〉 이에 퍼시벌이 그 숲 속으로 길을 재촉하매, 그는 여행하는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탄을 느끼는지라, 때로는 살아 있음의 기쁨에 눈물 흘릴 듯하였다. 그가 걷는 숲의 길은 수목이 우거진 숲 아래를 지나갔고, 그 때 나무들은 연한 새잎을 틔우고 있어, 마치 땅 위로 황금빛 빗줄기를 뿌려 대는 듯하였다. 숲속의 새들은 모든 덤불과 수풀에서 지저귀었고, 곧이어 숲비둘기가 아주 부드럽게 우는데, 퍼시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 간절한 그리움에 잠기니라.

그리하여 그는 달리니, 때로는 푸른 숲속의 미로에 갇힌 듯했고, 때로는 그 곳을 벗어나 빛이 넓고 밝은 열린 숲속으로 나가기도 하였더라. 또 다른 때에는 그는 어떤 숲의 시냇물을 만나는데, 그곳에는 황금빛 자갈이 깔린 얕은 연못이 있었고, 물은 너무도 맑고 투명하여 물이 어디에서 끝나고 순수한 공기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물을 가로질러 말을 몰아갔는데, 큰 소리를 내며 물이 튀는 동안, 작은 은빛 물고기들은 그의 오기 전에 빛의 불꽃처럼 사방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갔더라.

이때 퍼시벌의 마음은 이 숲이 봄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큰 기쁨과 희열에 겨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순수한 행복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더라.

그때 우연히 아서왕과 그 측근 여러 명이 사냥을 하며 이 숲으로 들어왔으나, 날이 무더웠으므로 왕비는 이 놀이에 지쳐, 왕이 사냥을 계속하는 동안 자신을 위해 천막을 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천막은 숲의 한 넓은 빈터에 쳐졌는데, 퍼시벌이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퍼시벌은 나무들 사이에 세워진 천막을 보았고, 또한 그 천막이 장미빛 비단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노라. 또한 그는 자신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매우 화사하고 호화롭게 차려입은 한 젊은 시종이 있음을 알아차렸노라.

〈각주: 퍼시벌이 구이니비어 왕비의 시종을 부르다〉

이제 그 시종이 퍼시벌을 보고, 그가 지닌 기이한 용모를 보았을 때, 그는 참을 수 없이 크게 웃었다. 퍼시벌은 그가 조롱하며 웃는 줄 알지 못했기에, 또한 함께 웃으며 매우 활기찬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그때 퍼시벌이 시종에게 이르되, “부디 내게 일러다오, 아름다운 청년아, 저편에 서 있는 그 천막은 누구의 것이냐?”

시종이 이르되, “그것은 구이니비어 왕비의 것입니다. 아서왕께서 그의 궁정 일행과 함께 이 숲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이때 퍼시벌은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는 이제 랄로락 경을 만나게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라.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내게 일러 주시오. 웨일스의 랄로락 경이 왕의 궁정에 계시나이까? 내가 그 선량하고 존귀한 기사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여기로 왔사오니.”

그때 그 소년은 크게 웃으며 이르되, “너는 누구이기에 랄로락 경을 찾느냐? 너는 혹시 광대인가?”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광대란 어떤 것이오?” 하니 그 소년이 이르되, “진실로 너는 어리석은 바보로구나.”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바보란 무엇인가?”

이때 그 소년은 크게 웃어댔으니, 마치 그의 기쁨이 그치지 않을 듯하여 퍼시벌은 속으로 분을 치며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웃고 있구나. 그들의 그 기쁨이 나를 지치게 하도다.” 이에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말에서 내려, 왕후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랄로락 경을 찾아보려 하였다.

그 때 그 시종은 퍼시벌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자, 그를 막으려 달려들며 이르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 퍼시벌이 이르되, “하하!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퍼시벌이 그 시종을 크게 때리니, 그 청년은 움직임도 없이 쓰러져 죽은 자와 같았더라.

그때 퍼시벌이 곧장 구이니비어 부인의 천막으로 들어갔더라.

〈각주: 퍼시벌이 구이니비어 왕비를 바라보다〉 그가 처음 본 것은 한 무리의 처녀들 가운데 둘러싸인 매우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왕비는 한 시종이 시중을 들며 금으로 만든 잔에 맑은 포도주를 받쳐 든 가운

데 한낮의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장미빛 천막 한가운데서 왕비의 식사를 지휘하는 한 고귀한 영주를 보았는데, 그 영주는 집사장 케이 경이셨다. 케이 경은 궁정의 모든 이 가운데 왕비와 그 처녀들을 맡아 돌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퍼시벌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 케이 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노라. 그는 그곳에 선 자의 모습을 보고는 큰 불쾌감을 드러내며 눈썹을 찌푸렸노라.

"하!" 그가 이르되, "이곳으로 오는 이 미친 바보는 누구인가?"

이에 퍼시벌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 장대한 그대여, 내가 간청하노니 이 곳에 모인 이 부인들 중 누가 왕비인가?"

케이 경이 이르되 "그대가 왕비와 무슨 일이 있느냐?"

퍼시벌이 이르되 "내가 아서왕 앞에 내 사정을 아뢰러 왔노라. 내 사정은 이러하니, 나는 기사의 작위를 얻고자 하나니, 왕께서 이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사오니라."

〈각주: 케이 경이 퍼시벌을 꾸짖음〉

여왕은 퍼시벌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였노라. 그러나 케이 경은 여전히 크게 분하여 이르되, "야, 너는 분명히 어리석은 바보일 것이로다. 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갑옷을 두르고 왔을 뿐, 어떤 무기도 장비도 없이 오직 작은 스코틀랜드 창 하나만 들고 왔노

라. 이곳은 여왕의 궁정이니, 너와 같은 자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느니라."

"하," 퍼시벌이 이르되, "너는 매우 어리석구나. 키 큰 자여, 내 옷차림과 장비로 나를 판단하려 함이여. 비록 내가 이와 같이 초라한 의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 출생과 지위에서 너보다 훨씬 우월할 수 있음이라."

〈각주: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여왕의 천막으로 들어오다〉 이때 케이 경은 심히 노하여 퍼시벌에게 매우 가혹한 말을 건네려 하였으나, 그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퍼시벌이 말을 멈추는 그 순간, 어떤 거대하고 야만적인 기사 하나가 천막으로 갑자기 들어왔으니, 그의 용모는 지극히 두려운 자태라.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기사는 보인데가르드스 레 사바지, 즉 야만인 보인데가르드스 경이라 불리었으니, 그는 아서왕의 영토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야만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그가 숲속 외롭고 음울한 성에서 야수처럼 살았기 때문이요, 또한 이 성에서 때때로 나와 숲길 옆길을 지나는 행인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했기 때문이라. 많은 기사들이 그를 죽이거나 포로로 잡으려 그를 맞섰으나, 그는 일부 기사를 물리치고 다른 자들은 피하였으므로, 그는 아직 자신의 악의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 자유로웠다.

이제 그 야만스러운 기사가 투구를 허리에 걸치고 방패를 어깨에 메고 이 천막으로 들어섰으니, 거기에 있던 모든 부인들은 그가 악의를 품고 노하여 찾아왔음을 알기에 그의 출현에 놀라 떨었더라.

케이 경은 다만 녹색의 비단 튜닉과 홍색의 바지, 그리고 벨벳 신발을 입고 있어 귀부인의 궁정에 어울리는 차림이었거늘, 그는 두려움에 떨며 보인데가르드스 경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이때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이르되, "아서왕은 어디 있느냐?" 하니, 케이 경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때 왕비의 낭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분께서는 숲의 외곽 너머에서 매사냥을 하고 계시나이다." 하니,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이르되, "슬프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때에 그분께서 여기 계실 줄 알았노라. 그리하여 그분과 그분의 온 궁정에 도전장을 내밀려 하였노라. 내가 그들 중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음이니라. 그러나 아서왕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니, 적어도 그분의 왕비를 모독할 수 있겠구나."

〈각주: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여왕을 모욕함〉

이와 함께 그는 여왕의 잔을 들고 있던 소년의 팔꿈치를 치니, 잔에 담긴 포도주가 여왕의 얼굴과 가슴에 흩뿌려졌더라.

이때 왕후가 공포에 질려 비명지를라. 이에 한 여종이 달려가 그녀를 돕고, 다른 이들도 손수건들을 가져와 그녀의 얼굴과 의복을 닦아주며 위안의 말을 건네니라.

그때 케이 경이 담력을 모아 이르되 "하! 너는 어찌하여 한 부인을 이같이 모독하는 무례한 기사로다."

이와 함께 보인데가르드스 경은 그를 향하여 매우 사납게 돌아서며 이르되, "내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거든, 이 곳에서 동편으로 조금

떨어진 초원으로 나를 따라오라. 거기서 네가 원한다면 내게 가한 모욕을 갚을 수 있으리라."

그때 케이 경은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 그가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지극히 강인하고 무서운 기사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케이 경이 이르되, "보시라, 내가 무기와 갑옷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노라." 이에 보인데가르드스 경은 큰 경멸을 담아 웃으며, 즉시 시동의 손에서 금잔을 빼앗고 천막 밖으로 나갔으며, 말에 올라타 그 귀중한 잔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

〈각주: 퍼시벌이 케이 경을 꾸짖다〉 이때 여왕은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심히 통곡하더라. 젊은 퍼시벌이 그녀의 눈물을 보자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노라.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케이 경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 큰 키의 자여! 이는 매우 나쁜 짓이었노라. 진실로 갑옷이 있든 없든 너는 이 부인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았어야 했노라. 내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방어할 필요가 있는 자들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갑옷이나 무기를 기다려야 한다고는 하지 않으셨노라. 그러므로 이제 비록 내가 무예나 기사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내게 맡기겠노라. 만약 그녀가 허락하시거든, 이 부인이 입은 모욕을 갚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리라."

구이니비어 왕후가 이르시되, "케이 경이 나의 원한을 대신 져지려 하지 아니하니, 그대의 뜻대로 하라" 하시니라.

〈각주: 처녀가 퍼시벌을 칭찬함〉

이때 왕후의 궁정에 엘란데라 이름 붙여진 매우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있으니, 그녀는 "말 없는 처녀"라 불렸다. 이는 그녀가 궁정의 어느 기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왕의 궁정에 머무는 일 년 내내 그녀는 어느 남자든 향해 단어도 발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미소조차 보이지 아니하였노라.

이 처녀가 퍼시벌의 얼굴이 얼마나 단아하고 고귀한지 깨닫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매우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그대는 크고 고귀한 마음을 지녔도다. 나는 확신하노니, 그대의 겉모습이 일러주는 바와 달리 그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라. 이제 내가 단언하노니, 만일 그대가 이 모험을 목숨을 걸고 완수할 수 있다면, 그대는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들 중 한 명이 되리라. 내가 듣기로는, 무기도 갑옷도 없이 온전히 무장한 검증된 기사와 맞서 싸움을 떠맡으려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노라. 그러나 진실로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얼굴이 아름답듯 담대하며, 나는 그대의 말과 태도가 온화한 만큼 그대도 고귀하리라 믿노라."

〈각주: 케이 경이 처녀를 때림〉 이때 케이 경은 그 처녀를 심히 노하여 이르되, "정녕 너는 무례하게 교육받았구나. 왕의 궁정에 일 년 동안 머물며 기사도의 꽃과도 같은 고귀하고 존엄한 기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촌뜨기에게만은 단 한 마디의 말이나 미소라도 보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다른 고귀한 기사들 중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음이여." 이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들어 그 처녀의 귀를 때리니, 그녀는 고통과 공포로 인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

이때 퍼시벌이 케이 경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이르되, “너 무례한 장신아, 이제 내가 네게 일러두노라. 만약 지금 여기 수많은 부인들과 그중 한 분인 여왕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너와 어떤 일을 치렀을 것이며, 그것이 네게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라 믿노라.

일단 나는 저 무례한 기사의 뒤를 따라가 그 기사께서 이 고귀한 여왕께 행한 모욕을 갚으려 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와 일을 마친 뒤에는, 방금 전 나를 아끼며 친절히 대했던 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손을 대었던 너와도 반드시 맞서리라. 때가 차면, 네가 그 처녀에게 가한 악한 일격을 스무 배로 갚아주리라.”

이에 퍼시벌은 곧장 그 천막을 빠져나와, 초라한 자신의 말에 올라타서, 황금 잔을 안고 떠난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간 길로 향하여 달렸다.

〈각주: 퍼시벌은 보인데가르드스 경을 쫓아간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또 다른 평평한 초원 지대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황금 잔을 안장의 뿔에 매달고, 위엄 있게 앞서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보인데가르드스 경은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창을, 다른 팔에는 방패를 지니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무예의 대결을 준비한 채였다.

그가 숲에서 퍼시벌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는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고 방향을 돌렸다. 퍼시벌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자,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이르되,

"너는 어디서 온 바보냐?"

퍼시벌이 대답하되, "나는 구이니비어 왕비의 천막에서 왔노라."

그때 보인데가르드스 경이 이르되,

"거기 있던 그 기사가 나를 따라 여기로 왔느냐?"

이에 퍼시벌이 대답하되,

"아니로다. 나는 너를 따라와, 네가 구이니비어 왕비에게 저지른 모욕에 대한 벌을 주려 하노라."

그때 보이데가르두스 경은 크게 분하여 이르되 “바보여, 내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은 매우 선한 뜻이라.” 하고는 즉시 창을 들어 퍼시벌의 목덜미에 가혹한 일격을 가하니, 그 타격이 너무도 맹렬하여 퍼시벌은 말 위에서 거세게 날아내려 떨어졌더라.

이에 퍼시벌은 격분하여 눈앞의 하늘이 모두 붉은 빛으로 물드는 듯하였는지라. 그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보이데가르두스 경에게 달려가 그의 창을 손으로 붙잡고, 그토록 가혹한 힘으로 씨름하듯 다투어 보이데가르두스 경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내었노라. 그리고는 이렇게 그 창을 손아귀에 쥔 퍼시벌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을 꺾어 부수어 버린 뒤, 그것을 멀리 던져 치워 버렸더라.

〈각주: 퍼시벌이 보이네가르드스 경을 죽이다〉 이때 보이네가르드스 경은 격분하여, 퍼시벌을 죽일 의도로 그의 빛나는 검을 뽑아 들

었노라. 그러나 퍼시벌이 그의 뜻을 보자마자, 그는 창을 들어 들고 약간의 거리를 둔 뒤 돌아서서 보이네가르드스 경을 향해 던졌노라. 그 투척이 지극히 교묘하여, 창끝은 보이네가르드스 경의 투구 눈구멍에 들어갔고, 눈을 뚫고 뇌를 관통하여 머리 뒤로 나왔노라. 이에 보이네가르드스 경은 말에서 떨어져 땅 위에 뭉쳐 쓰러졌고, 퍼시벌이 달려가 그를 굽어보니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았노라. 이때 퍼시벌이 이르되, "보아하니, 나는 여성들에게 지극히 무례한 기사의 생을 끝낸 것 같구나."

〈각주: 아서왕은 랜슬롯 경과 라모락 경을 퍼시벌을 구하러 보낸다〉

이때 퍼시벌이 구이니비어 왕비의 천막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서왕과 궁정의 열한 명의 고귀한 기사들이 매사냥에서 돌아와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 중에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웨일스의 라모락 경이 있더라. 이에 왕비의 궁정에 있던 자들이 아서왕에게 일어난 일을 아뢰매, 왕은 케이 경에게 큰 노여움을 품으시더라.

왕이 이르시되, "케이여, 너는 왕비의 이 논쟁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매우 무례하였거니와, 나는 네가 잘 알려진 기사라 하더라도, 보이네가르두스 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청년을 생명을 건지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하게 할 모험에 내보낸 원인이 되었음을 믿노라. 이제 내가 너희 기사 두 명에게 그 청년을 뒤쫓아가,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를 구출하게 하노라. 그 두 사람은 호수의 랜슬롯 경과 웨일스의 라모

락 경이 되리라. 그러니 이 용감하고 순진한 광인을 향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여보시여, 서둘러야 하노라."

이에 두 기사들은 곧장 말에 올라타, 퍼시벌이 향하여 간 그 길로 달렸더라.

[일러스트레이션: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함께 말을 타고 가다]

제2장

아서왕께서 퍼시벌을 기사로 서임하신 일과, 그가 라모락 경과 함께 말을 타고 떠나서 모험을 구하러 가는 길에 라모락 경을 두고 혼자 길을 떠난 일, 그리고 한 위대한 기사가 그에게 무예의 술수를 가르쳐 주신 일을 서술하리라.

그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퍼시벌이 보이네가르드스 경을 발견했던 그 초원지대에 이르렀더라.

〈각주: 두 기사가 초원에서 퍼시벌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더라. 그들은 윗가지로 엮은 버들가지 갑옷을 두른 한 사내가, 무장한 한 기사의 시체를 지면에 끌어당기며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에 두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말을 몰고 가까이 갔고, 충분히 가까이 다다랐을 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매우 기이한 일을 행하고 있도다. 너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퍼시벌이 그에게 이르되, “경, 이 기사의 갑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웃으며 이르되 “잠시만 기다리게나. 내가 갑옷을 벗기는 법을 보여주마.” 하고는 다시 이르되 “이 기사는 어떻게 죽었는가?”

퍼시벌이 이르되, “경이시여, 이 기사는 아름다운 부인 구이니비어 여왕을 크게 모욕하였사오니, 내가 그 여왕의 원수를 갚고자 그를 따라갔을 때, 그가 창으로 나를 찔렀나이다. 내가 그의 창을 빼앗아 무릎 위에 얹어 부러뜨리자, 그는 검을 빼어 나를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그를 죽였사오니이다.”

그때 랜슬롯 경은 심히 놀라워하며 이르되, “그 기사는 보이네가르드스 경이 아니냐?” 하니 퍼시벌이 대답하되, “그렇사옵니다.”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아, 네가 전 세계 중 가장 강하고도 두려운 기사 중 한 명을 죽였음을 알라. 이로써 너는 아서왕께 큰 공을 세웠으니, 만일 우리가 아서왕의 궁정으로 함께 가거든, 왕은 네가 행한 바를 후히 갚아 주실 것이 분명하노라.”

이때 퍼시벌이 고개를 들어 랜슬롯 경과 라모락 경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들 둘이 지극히 고결한 기품을 지니셨음을 깨달았더라. 이에 그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르되, “경들이시여, 청하건대 저에게 경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대의 신분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랜슬롯 경도 미소로 답하며 이르시되, “나의 이름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하며, 이 내 동행자는 웨일스의 라모락 경이라 하노라.”

〈각주: 퍼시벌은 라모락 경을 알아차리니라〉 이때 퍼시벌은 자기가 친형제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라모락 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고결하고 우아한 기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는 라모락 경을 향해 지극한 사랑의 정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었노라. 그러나 그는 라모락 경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이라. 그 중 하나는 이러한 일에는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아직 내 형에게 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리라. 그가 나를 부끄러워할까 두려워하노라. 먼저 내가 명성을 얻어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후, 비로소 내 신분을 밝히리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청하노니 아름다운 청년이여, 내가 이미 내 이름을 말하였거늘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말하라.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네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에 퍼시벌이 이르되 "내 이름은 퍼시벌이라" 하더라

그때 라모락 경이 소리쳐 이르되, "나는 퍼시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알노니 그는 내 친형제라.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너와 같은 나이의 청년이 되었으리라."

이때 퍼시벌의 마음은 라모락 경을 향해 깊이 끌려, 그가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향해 큰 사랑으로 미소 짓기에 이르렀노라. 그러나 그는

라모락 경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이제 아름다운 청년이여, 우리가 이 죽은 기사의 갑옷을 벗기는 법을 보여주리라. 그 일을 마치면, 우리가 너를 아서왕께 모셔가리니, 왕께서 네가 행한 공로를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상을 주시리라.”

〈각주: 두 기사가 퍼시벌에게 갑옷을 입힘〉 이에 랜슬롯 경과 라모락 경은 말에서 내려 그 죽은 기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갑옷 끈을 풀고 시체에서 갑옷을 벗겨 내었더라. 그들이 그 일을 마치자 퍼시벌을 도와 꺾인 버드가지로 엮은 갑옷을 벗기고, 대신 보이네가르드스 경의 갑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더라. 그리하여 세 사람은 모두 왕과 왕후가 어전을 베푸는 그 천막으로 말을 타고 되돌아갔더라.

아서왕이 보이네가르두스 경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찼노라. 그리고 퍼시벌이 그를 어떻게 죽였는지 들었을 때, 그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하며 퍼시벌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이와 같은 훌륭한 무공을 이루었노라. 아직 어느 기사도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노라.” 그 후 아서왕은 이르되, “네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주리라.”

이에 퍼시벌은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폐하, 제가 이 세상 모든 것 중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는 기사로 서는 것이니, 만일 폐하

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면, 친히 손수 저를 왕실의 기사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아서왕은 퍼시벌을 향하여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우시며 이르시되, "퍼시벌, 네가 바라는 바대로 되리라. 내일 내가 너를 기사로 만들리라."

〈각주: 아서왕이 퍼시벌을 기사로 임명하다〉 그 밤, 퍼시벌은 숲 속의 은수자의 예배당에서 자신의 갑주를 지켰다. 그가 지켰던 갑주는 보이네가르두스 경이 소유했던 것이었으니, 퍼시벌은 그 갑주가 자신이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이었기에 자신의 것으로 입기를 아서왕께 청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랜슬롯 경과 라모락 경이 퍼시벌을 아서왕 앞으로 인도하였고, 아서왕은 그를 기사로 서임하셨더라.

그 후 퍼시벌 경은 아서왕께 청하여, 자신이 무공을 세워 명성을 얻도록 하사해 줄 것을 간구하였노라. 이에 아서왕은 그의 청을 들어주셨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케이 경을 협박함〉 이때 퍼시벌 경은 앉아 있던 케이 경의 곁으로 다가가 이르되, "영주여, 어젯날 그 아름다운 낭자가 나를 향해 다정히 말했을 때, 당신이 그녀에게 가한 그 일격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지금의 나는 당신과 맞서 싸울 만큼 성숙한 기사가 못되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돌아와 당신이 가한 그 일격을 열 배, 스무 배로 갚아주리라!"

이 말에 케이 경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퍼시벌 경이 언젠가 매우 강인하고 훌륭한 기사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도 라모락 경의 마음은 퍼시벌을 향해 크게 끌려 갔으나, 그 연유를 그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퍼시벌이 모험을 떠나겠다는 허락을 얻은 후, 라모락 경은 아서왕께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기마를 나가겠다는 승낙을 구하였고, 아서왕은 라모락 경에게 그 허락을 내려 주셨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함께 행차하시니라] 이에 라모락 경과 퍼시벌 경이 서로 우애를 다지며 기쁨을 안고 함께 말을 몰아 나섰노라. 그들이 길가에서 나아가실 때, 라모락 경은 퍼시벌 경에게 기사도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일러 주시니, 퍼시벌 경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경청하였노라.

그러나 라모락 경은 자신이 자신의 친형제와 함께 행차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사도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의 형제인 줄은 알지 못하셨노라. 또한 퍼시벌 경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퍼시벌 경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주시거든, 나는 반드시 그대의 가르침에 흠이 없도록 행할 것이니이다, 나의 형제여!"

이때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멀리까지 여행을 한 끝에, 마침내 그 숲을 벗어나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으로 나아갔더라. 그곳은 잘 가꾼 들판과, 평원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넓고 고요한 강이 있는 곳이었더라.

그 평원의 한가운데에는 상당한 크기의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을 내려다보듯 여러 개의 높은 탑과 수많은 지붕 및 굴뚝을 가진 매우 큰 성이 우뚝 서 있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서쪽 하늘은 마치 금빛 불꽃이 타오르는 듯이 빛나고 있었으니, 그 광경은 지극히 아름다웠더라. 그들이 들어선 대로는 매우 넓고 매끄러워, 마치 다듬어진 마루판 같았더라. 그 대로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도보로 걷는 자도 있고 말에 올라타는 자도 있었더라. 또한 강가에는 강둑을 따라 길이 나 있어, 말들이 짐을 실은 뱃들을 강을 따라 마을로 끌고 가고, 다시 그곳에서 끌어올리고 있었더라. 이 뱃들은 모두 선명한 색으로 칠하여졌고, 말들은 화려한 마구를 채우고 울리는 종들을 달고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을 퍼시벌 경은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가 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외치되, “영광의 성인들이여! 세상이 어찌 이토록 크고 놀라운가!”

이에 라모락 경이 그를 바라보며 지극한 사랑과 자비로 미소 짓고 이르되, “아, 퍼시벌아! 이것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세상에 붙은 한 조각일 뿐이로다.”

이에 퍼시벌 경이 대답하되, “친애하는 경이여,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 너무도 기뻐, 제가 환영 속에 있는지 깨어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옵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그 성채를 지닌 마을에 이르렀는데, 강가에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더라. 그 마을과 성채는 카드넌이라 불렸노라. 그 마을은 매우 큰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는 물들인 양모 직물로 인해 널리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카드넌에 이르다〉 이에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성내로 들어갔노라. 퍼시벌 경이 거리로 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입은 고운 빛깔의 비단 옷감을 보았을 때, 그리고 다채로운 물건들로 가득 찬 수많은 장막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어찌 할 바를 몰랐노라. 그러므로 그는 큰 감격 속에 큰 소리로 외쳤노라. "어찌 이토록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가! 내가 알기에 이 도시가 이토록 크리라 생각지 못하였노라."

이때 라모락 경은 그에게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이르되,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곳을 캐멀롯(즉 왕의 도시)과 비교한다면, 이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보름달과 별을 비교함과 같도다." 이에 퍼시벌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성안의 거리를 따라 올라가 카드넌 성에 이르러 입성을 청하니, 라모락 경의 이름과 신분을 아뢰자 문지기는 큰 기쁨으로 성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여 들였더라.

그때 곧 성주와 그 부인이 조각이 새겨진 나무 발코니에서 내려와 입구로 나오며 입으로써 그들을 환대하는 인사를 전하셨고, 이어 여러

하인들이 즉시 나타나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을 말에서 내리게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말을 마구간으로 끌고 갔더라. 또 다른 하인들은 그들을 몇몇 거실로 안내하여 갑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키며 부드러운 옷을 입혔더라.

그 후 성주와 그 부인이 그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는 하프 연주자와 가수들이 음악을 연주하였고, 몇몇 배우들이 그들 앞에서 신비극을 공연하였더라.

〈각주: 성의 영주와 부인이 두 기사를 환대하는 법〉 이에 두 기사와 성의 영주 및 부인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잠시 동안 매우 유쾌하게 담소를 나눴더라.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라모락 경이 밤인사를 드리니, 그와 퍼시벌은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거위깃털로 채운 침대 위에 붉은빛 천이 깔린 매우 고귀한 방으로 안내되었더라.

이와 같이 그 날은 끝이 났으니, 이는 갈레스의 퍼시벌 경이 기사 서임을 받은 첫날이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랄로락 경과 함께 매우 만족스럽게 여행하였으나, 그는 마음속으로 가능한 한 빨리 라모락 경을 떠나 자신의 모험을 향해 떠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젊은 기사일 뿐이로다. 나의 형제가 나의 동행을 지겨워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지치게 하기 전에 먼저 그를 떠나, 스스로 기사의 영예를 얻으러 가리라. 그 후, 하느님의 뜻이 나의 공로를 인정하여 내가 합당한 기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나의 형제는 기꺼이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리라.”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퍼시벌 경은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빛 속에서 매우 조용히 일어나, 라모락 경을 깨우지 않은 채 갑옷을 입었노라. 그는 몸을 굽혀 라모락 경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형제가 부드러운 겉옷에 감싸인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보았더라. 퍼시벌 경이 이렇게 잠든 라모락 경을 응시할 때, 그는 그를 지극한 열정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의 강렬함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노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형이여, 내가 떠나가니 당신은 계속 잠을 자시오. 내가 큰 영광을 얻은 뒤에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드리리니, 당신은 나를 인정하며 기뻐하시리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 퍼시벌 경은 매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갔노라. 라모락 경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퍼시벌 경이 떠났음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라모락 경을 떠남〉 그 후 퍼시벌 경은 성채의 안마당으로 나아가, 자신의 말을 준비하라고 몇몇 시종들을 명하니 그들이 따랐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무장하게 하니 또한 그들이 따랐더라. 이에 그는 말에 올라 그 성채를 떠나 멀리 말을 몰아 떠나갔더라.

이제 퍼시벌 경이 앞서 말한 대로 성채 안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라모락 경을 남겨두고 떠나, 그가 가는 길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큰 기쁨으로 삼으며 여정을 계속하였더라. 그는 그 아침 내내 여행을 계속하였고, 날은 매우 밝고 따뜻하였으므로, 이내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왔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목적에 적합해 보이

는 한 길을 발견하고는, 어떤 모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음식과 음료를 구할 수 있기를 큰 희망을 품고 그 길을 택하였더라.

그 후 잠시 후, 그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자, 그는 어느 은자의 거처와 길가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다다랐다. 그리고 퍼시벌 경은 그 은자, 곧 긴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예배당의 종을 울리는 것을 보았다.

〈각주: 퍼시벌 경은 숲의 예배당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는다〉 이에 퍼시벌 경은 이곳에서 음식과 음료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수도자가 종을 치는 곳으로 말을 몰고 나아갔노라. 그러나 퍼시벌 경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예배당 뒤편과 한쪽에서 매우 고귀한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기사가 온몸을 흰 갑옷으로 두르고 있으며, 그의 말(우유처럼 희고 매우 고귀한 기품과 체구를 지닌 말)이 온전히 흰색의 마구로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노라.

이 기사는 퍼시벌 경을 보고는 곧장 그를 향해 달려가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노라. 그리고 그 기사가 이르되, “경이여,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저와 한 번 기마 창 시합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곳은 매우 아름답고 평탄한 푸른 초원이라, 만약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친선적인 무예 시합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니이다.”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경이여, 저는 기꺼이 그대와 시합을 벌이려 하나, 저는 아직 매우 풋내 나는 젊은 기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는 어제 아서왕 친히 저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하셨을 뿐이오. 비록 무예에 미숙하나, 그대가 베푸신 이 고결하고 정중한 도전은

저로 하여금 크게 기쁨을 느끼게 하오니, 기꺼이 받아들일 따름이니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백의 기사에게 쓰러지다〉

이와 함께 각기 기사가 자신의 말을 돌려, 자신에게 가장 나아 보이는 위치를 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속도로 말을 달렸으며, 서로를 마주 보고, 방패를 창에 부딪히며, 트랙의 한가운데서 충돌하였다. 그 충돌에서 (그가 처음으로 치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퍼시벌 경은 매우 잘, 그리고 큰 기사도적 노력으로 자신을 나타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창을 백의 기사에게 부딪쳐 작은 조각들로 부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의 기사의 창은 견고하여 펠리아스 경을 안장에서 들어 올려 말의 뒷부분을 넘어 땅에 큰 충격과 먼지 구름과 함께 떨어뜨렸다.

그때 흰 갑옷 기사가 그의 달림을 마치고 돌아와 퍼시벌 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더라. 그리고 그는 매우 정중하게 그를 물었노라. "경, 다치셨나이까?" 이에 퍼시벌 경이 대답하되, "아니옵니다, 각하! 저는 다치지 아니하였사오나, 단지 낙마한 충격으로 인해 다소 흔들릴 뿐이옵니다."

그때 백색 기사가 말에서 내려 퍼시벌 경이 있는 곳으로 나아왔노라. 그가 투구의 안개막이를 들어 올리자, 퍼시벌 경은 그 백색 기사가 호수의 랜슬롯 경임을 알아차렸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퍼시벌아, 내가 너를 처음부터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노라. 그러나 내가 너의 기개를 시험해 보려 했노라. 그리고 내가 네가 참으로 훌륭한 기개를 지녔음을 확인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하노라. 기사들의 무기를 쓰는 법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젊은 기사인 네가, 무기에 익숙한 나 같은 기사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완벽하게 배워야 하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영주여, 저로 하여금 이같이 중대한 일에서 도움이 될 만한 무예의 술수를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사옵니까?”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직접 너를 가르치리라. 내가 가진 모든 기예를 너에게 전하리라. 이 곳에서 남쪽으로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은 곳에 나의 성, 조이우스 가드가 있노라. 내가 너를 만나던 때에 그곳으로 향하던 중이었노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조이우스 가드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기의 사용법을 온전히 가르쳐, 내가 믿건대 하느님이 너에게 부여하신 그 기사도의 위상을 지탱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그 후 랜슬롯 경과 퍼시벌은 은자의 거처로 향했고, 은자는 자신이 가진 소박한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조이우스 가드에서 지낸 지에 대하여〉 그 후, 그들은 다시 말에 올라타 조이우스 가드로 향하여 떠났고, 그곳에서 퍼시벌 경은 일 년 동안 머물렀노라. 그는 자신이 지닌 명성을 떨칠 그 기

사도의 위상을 떠맡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자신을 연마하였노라. 그 일 년 동안 랜슬롯 경은 그에게 무예의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이요. 또한 그는 기사도의 모든 예의와 관습을 그에게 일러주었노라. 그러므로 퍼시벌 경이 조이우스 가드를 다시 나서기 전에는, 그가 어떤 때에, 전장이나 궁정에서나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방식을 잘 숙지하게 되었더라.

그때 퍼시벌 경이 재차 조이우스 가드에서 나왔을 때, 무예의 달인으로서 그를 능가할 기사는 없었노라. 설령 랜슬롯 경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러했으며, 심지어 그의 친형제인 라모락 경조차도 그러하더라. 또한 가웨인 경이나 제레인트 경이라 할지라도, 그의 궁정적 예의나 고결한 풍모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리고 이제 나는 랜슬롯 경이 조이우스 가드에서 그를 그렇게 가르친 후, 퍼시벌 경에게 일어난 위대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퍼시벌 경이 마법사 비비엔을 물리치다]

제삼장

_퍼시벌이 두 기이한 자를 숲에서 만나고, 깊은 슬픔과 비탄에 잠긴 한 기사를 구원하게 된 이야기*

이때 퍼시벌 경이 조이우스 가드를 떠나신 후, 여러 날을 달려 모험을 찾았으나 하나도 만나지 못하셨더라.

그때 어느 날, 그는 매우 어둡고 신비로운 숲에 이르렀다. 그곳은 고요하고 외롭기 그지없었으나, 동시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퍼시벌 경은 이것이 필시 마법의 숲일 것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 들어가,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모험을 만날 수 있을지 탐구하려 하였다.

〈각주: 퍼시벌 경이 아로이 숲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그 숲은 마법의 숲이었으니, 이는 아서왕의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아로이 숲, 혹은 모험의 숲이라 불리던 곳임이라. 그 숲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반드시 특이한 모험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때 퍼시벌 경은 이 신비로운 숲속을 오랫동안 달렸으나, 그에게 닥친 것은 온통 기이한 정적뿐이라. 새들의 지저귐 하나조차 들리지 않아, 그 고요함을 깨뜨릴 소리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가 그 침묵을 헤치고 나아가려 할 때, 마침내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고, 곧이어 그는 가느다란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 한 기사와 한 부인을 목격하였노라. 그 기사는 큰 백마를 타고 있었고, 부인은 붉은 적갈색 승용마를 타고 있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두 명의 기이한 이들을 만나다〉 이들은 퍼시벌 경을 보고 그를 기다렸고, 퍼시벌 경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들이 지극히 특이한 용모를 지녔음을 깨달았노라.

무릇 두 사람 모두 온몸을 녹색으로 옷입었고, 목에는 오팔과 에메랄드가 박힌 매우 놀라운 금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노라. 각자의 얼굴

은 희고 맑은 밀랍과 같았고, 각자의 눈은 상아에 박힌 보석처럼 매우 빛나고 있었노라. 이 두 사람은 웃지도, 찌푸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끊임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노라.

퍼시벌 경이 본 그 기사는 펠리아스 경이요, 그 부인은 호수의 부인 님뉴였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 두 사람을 보매, 그가 그들이 요정임을 알았더라. 이에 그는 매우 신속하게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더라. 이때 호수의 부인이 퍼시벌 경을 보시고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이르시되, "퍼시벌 경이시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말씀하시오."

이에 퍼시벌 경이 일어나 그 기사와 부인 앞에 서서 이르되, "부인, 어찌하여 저를 아시는지 알 수 없사오나, 진실로 부인은 현명하시며 많은 일을 아시는 듯하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온 목적은 모험을 구하기 위함이니, 부인께서 저를 위해 감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그 낭자가 이르되, "만일 당신의 소원이 그러한 것이라면, 나는 아마도 어떤 기사라도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모험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올 수 있겠노라. 당신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로 조금 더 나아가라. 그리하면 곧 당신은 그 빛이 금처럼 빛나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니, 그 새를 뒤따라가라. 그 새는 당신을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기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퍼시벌이 이르되 “내가 당신의 권고를 따르리다” 하더라

〈각주: 호수의 부인이 퍼시벌 경에게 부적을 주다〉 이때 호수의 부인이 이르되,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소.” 하고는 목에 걸고 있던 아주 가느다란 비단 끈에 달린 작은 금 부적을 꺼내 보였노라. 이어 이르되, “이를 지니시오. 이는 당신을 모든 악한 마법으로부터 보호하리이다.” 하고는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 부적을 퍼시벌 경의 목에 걸어 주었노라. 이에 퍼시벌 경은 그에게 지극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더라.

그때 기사와 낭자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기 다른 길을 향해 떠났더라.

〈각주: 퍼시벌이 황금새를 따라간 이야기〉 이에 퍼시벌 경은 부인이 권한 대로 그 길을 얼마간 행하였더니, 차차 그가 그 부인이 말하던 새를 목격하더라. 그가 보니 그 새의 깃털은 마치 금으로 된 듯 빛나므로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가 새에 가까워지자 새는 길 따라 얼마간 날아갔다가 땅에 내려앉는지라 그가 그를 따랐노라. 그가 다시 그 새에 가까워지자 새는 한층 더 멀리 날아갔고, 그는 여전히 그를 따랐노라. 그리하여 새는 날아갔고 그는 따랐노라. 매우 먼 길을 간 후, 차차 숲은 희박해졌고 퍼시벌 경은 그 숲 끝 너머에 열린 들판이 있음을 목격하더라. 새가 그를 이 지점까지 이끌어 주자, 갑자기 새는 다시 그가 왔던 숲 속으로 날아갔노라. 날아가며 매우 날카롭고 높은 소리로 지저귀더라.

〈각주: 퍼시벌이 기이한 성을 목격하다〉 이에 퍼시벌은 숲을 벗어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활한 들판으로 나아갔으니, 그곳은 참으로 황량하고 척박한 불모지였더라. 그 황량한 평야 한가운데에는 매우 기이한 모습을 한 성이 우뚝 서 있었는데, 그 성의 일부는 군청색(울트라마린)을 띠고 있고 다른 일부는 진홍색을 띠었으며, 군청색과 진홍색에는 금색으로 그려진 매우 특이한 문양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더라. 이러한 기이한 색채들로 인해 그 성은 하늘을 배경으로 찬란한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으므로, 퍼시벌 경은 잠시 말에 앉아 이를 바라보며 크게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때에 퍼시벌 경은 성채로 이르는 길이 돌로 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가 다리를 바라보매, 그 한가운데에 하나의 돌기둥이 서 있고, 그 기둥에는 온몸을 갑주로 두른 한 기사가 철사슬로 묶여 섰더라. 이 광경을 본 퍼시벌 경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노라.

이에 그는 그 길로 매우 빠르게 달려가 다리에 이르러, 기사가 묶인 곳으로 다가가니라. 퍼시벌 경이 다리에 이르러 보니, 사슬에 묶인 그 기사는 외모가 매우 고귀하고 위엄 있어 보였으나, 기둥에 묶인 탓에 심한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 있는 듯하였노라. 포로가 된 기사가 끊임없이 신음하는 소리가 퍼시벌 경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니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기사님, 감히 아뢰오니, 지금 경의 처지는 참으로 슬프고 비참하옵니다."

그 기사도 대답하되, "그렇도다. 나도 슬프노라. 내가 이제 사흘 동안이나 이곳에 서 있노라. 마음과 몸이 모두 큰 고초 속에 있느니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어쩌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리라” 하고, 곧장 말에서 내려 그 기사에게로 다가가니, 그가 칼을 빼어 들매 햇빛에 번쩍이며 빛나더라.

이때 그 기사가 이르되, "영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너를 묶은 사슬을 끊으리라" 하니라.

이때 그 기사가 이르되, "어찌 그리하실 수 있겠나이까? 누가 이러한 철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리라” 하니

〈각주: 퍼시벌 경이 포로로 잡힌 기사를 풀어주니라〉 이에 그가 칼을 들어, 전례 없이 무서운 위력을 지닌 일격을 가하니, 그와 같은 타격은 드물게 보았을 뿐이었다. 그 일격은 철사슬을 베어 끊고, 기사의 하버크(철갑옷)를 강타하여, 그가 숨을 죽인 채 완전히 땅에 쓰러지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기사가 그처럼 쓰러지는 것을 본 퍼시벌 경은 외쳤다. “불쌍한 내가! 나는 그를 섬기고자 했거늘, 어찌 이 선하고 온유한 기사를 죽였는가?” 이에 그는 기사를 들어 무릎 위에 앉히고, 목의 갑옷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기사는 죽지 아니하였고, 잠시 후 숨이 다시 돌아오며 이르되, “내 신앙에 의해, 이는 내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친 어떤 타격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노라.”

그 후, 그 기사가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퍼시벌 경은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다. 그가 이렇게 서자, 그의 힘은 곧 크게 돌아왔다.

그때 기사는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구하기를 간절히 청하거늘, 퍼시벌 경이 그를 도와 다리의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까지 이르는 좁은 길로 내려가게 하였노라. 거기에 기사는 몸을 굽혀 목의 갈증을 풀었더라. 그가 충분히 마시고 나자, 그의 기운이 온전히 회복되니 그가 이르되, “경하옵소서, 내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올리오이다. 만일 경께서 내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곧장 이 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임이니이다.”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대경이시여, 경께서 어찌하여 그 슬픈 형편에 빠지셨는지, 제가 발견하였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라.

[각주: 기사가 그의 이야기를 말하더라] 이에 기사에게서 이같이 대답하더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니, 그 사연은 이러하니라. 이틀 전, 내가 저 성채를 지나가던 중, 나와 함께 두 명의 훌륭한 시종이 있었노라. 내가 왕족의 피를 이은 기사임을 알지니. 이제 우리가 그 성채를 지나가려 할 때, 온몸을 붉은 옷으로 두른 한 부인이 성채에서 나와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지극히 놀라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노라. 그 부인과 함께 수많은 시종들과 하인들이 나왔으니, 모두 얼굴이 아름답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붉은 옷을 입고 있었노라. 이제 그 부인이 내게 가까이 오자, 그녀가 나에게 매우 온화하게 말하며 친절한 말로 나를 유혹하매, 나는 그녀처럼 겸손하고 예의 바른 이를 결코 만난 적이 없

었노라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녀가 내게 매우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흑단 지팡이로 내 어깨를 갑자기 내려치며, 동시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마디의 말을 외쳤노라. 즉시로 깊은 실신과도 같은 큰 어둠이 내게 덮치며,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그 실신에서 깨어났을 때, 보라, 나는 이 돌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는 나를 발견하였노라. 만약 그대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나의 고통 속에서 죽었을 것이노라. 그리고 나의 시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그 부인에 관해서는, 그녀는 멀린에게 강력한 주술을 걸어 모든 인간의 시야에서 그를 제거한 바 있는 비비엔이라 불리는 어떤 마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 모든 것을 퍼시벌은 지극한 경이로움으로 경청하더라. 기사가 그 이야기를 마칠 무렵, 퍼시벌이 이르되,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기사가 이르되, "내 이름은 퍼시데스라 하오. 나는 페셔 왕의 아들이오. 그가 서쪽 해안가에 거처하는 모든 어민들의 왕이므로, 그리 불리어지나이다. 이제 내게도 그대의 이름과 신분을 알려 주시오. 내가 보기에 그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오."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 이름은 퍼시벌이라. 그러나 지금 내 신원과 출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기사로서 선한 명성을 얻기 전까지 이를 비밀에 부쳐야 함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이 비비안 부인을 응분의 대가에 따라 다루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퍼시데스 경이 소리쳐 외쳤노라. "그 마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녀가 내게 행한 바와 같이, 그녀의 강력한 주술로 너에게도 큰 해를 끼칠 것이니라."

그러나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일어나 다리를 건너 그 신비로운 마법의 성으로 향하였노라. 퍼시데스 경도 함께 가려 하였으나 퍼시벌 경이 이르되 “네 자리에서 머물라” 하므로 퍼시데스 경은 머물렀고 퍼시벌 경은 홀로 앞서 나아갔더라.

〈각주: 비비안 부인이 퍼시벌 경에게 나아감〉 그가 성채에 가까워지자 성문은 열렸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으니, 그 미모는 지극히 빼어났더라. 그녀를 따라 나온 시종들과 하인들도 모두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더라. 이 여인과 그녀의 모든 시종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어, 마치 여러 불꽃이 타오르는 듯 빛나고 있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금빛처럼 붉었고, 목에는 금 장신구를 두르고 있어, 그 광채는 매우 눈부셨고, 바라보는 자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녀의 눈썹은 매우 검고 가늘었으며, 중간에서 서로 이어져 마치 연필로 그은 두 개의 가는 선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가늘고 검었으며, 뱀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때 퍼시벌 경이 이 처녀를 뵈옵고, 그토록 기이하게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니, 그의 마음은 홀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에게로 다가가니라. 보라, 그녀가 그 자리에 서서 그에게 미소 짓는지라, 퍼시벌의 심장은 가슴 안에서 줄을 당기듯 요동쳤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그 목소리는 지극히 달콤하고 온유하여라.

"기사여, 당신을 이 곳으로 오심을 환영하노라. 만약 당신이 이 성을 당신의 집인 양 여기고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머무르신다면, 이는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퍼시벌 경에게, 전보다 더 교묘한 미소를 띠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다가서니, 그녀는 그에게 미소로 화답하여 그가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때 이 부인은 다른 한 손에 약 한 엘 길이의 흑단 지팡이를 쥐고 있더니, 퍼시벌 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그 지팡이를 들어 그의 어깨를 매우 세게 내려쳤다. 동시에 그녀는 날카롭고도 끔찍하게 높은 목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너는 돌이 되라!"

그때 호수의 부인이 퍼시벌 경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부적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니, 만일 그 부적이 없었다면 그는 즉시 돌로 변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녀의 주술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황금 부적의 더 큰 힘에 의해 막혔기 때문이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비비엔 부인에게 칼을 겨누다〉 그러나 퍼시벌 경은 마녀 비비엔이 자신에게 행하려던 계략을 잘 알고 있었노라. 그녀가 자신을 돌로 변하게 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큰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찼노라.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마녀의 긴 금발을 움켜쥐고, 그

녀를 거침없이 앞으로 끌어당겨 무릎을 꿇게 하였노라. 그 후 그는 빛나는 칼을 빼어들어, 백옥처럼 가늘고 하얀 그녀의 목을 베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 낭자는 지극히 큰 공포로 비명 지르며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더라. 이때 퍼시벌 경의 마음은 연민으로 부드러워지니, 그는 그녀가 한 여인임을 깨닫고, 그 목이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다우며, 그 피부가 하얀 새틴처럼 매끄러운지를 보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여인의 자비로운 간청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그 검으로 그 목을 베어낼 힘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에 그가 그녀로 일어나라 명하되, 그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더라. 머리카락은 따뜻했고 실크처럼 부드럽고 매우 향기롭더라. 그 부인은 그의 앞에서 떨며 일어섰더라.

이에 퍼시벌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목숨을 원하거든, 네가 나를 저주하려던 바와 같이 네가 저주한 모든 사람들을 제 모습으로 되돌리라.”

이에 그 부인이 이르되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고는, 곧 그 두 손을 힘차게 치며 외쳐 이르되 "너희 모두 제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아, 제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각주: 비비엔 부인이 마법을 풀다〉

그때, 보라! 즉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원형의 돌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마치 알에서 깨어난 듯이, 생기가 그들에게 스며들자 돌

들은 꿈틀거리며 움직였노라. 그러자 돌들은 녹아 사라지고, 보라! 도합 여든여덟 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사들과 시종들, 그리고 여러 부인들과 낭자들이 일어났노라. 또 다른 돌들도 이와 같이 살아나, 퍼시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탈 말들이 일어났노라. 말들은 모두 여행 준비를 마친 듯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마법에 걸렸던 사람들이 비비안 부인을 보고, 퍼시벌 경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에 대해 크게 부르짖으며 복수를 외쳤노라. “그녀를 죽이라! 그녀를 죽이라!” 이에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죽이려 그녀에게로 달려들었노라. 그러나 퍼시벌은 그녀 앞에서 그의 검을 휘두르며 말하길, “그렇지 않도다! 그렇지 않도다! 이 부인은 나의 포로이며, 너희가 나를 통해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는 한 그녀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에 그들이 잠시 동안 침묵하자, 퍼시벌은 그들을 진정시킨 뒤 호수의 부인 비비엔을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내리는 명령은 이러하니라. 너는 아서왕의 궁정으로 들어가 그에게 나아가 네 죄를 자백하고, 네 허물로 인해 그가 정하는 모든 보속을 성실히 수행하라. 이제 네 목숨을 구하고자 이 명령을 따르겠느냐?”

그때 호수의 부인 비비엔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이 행하여지리이다" 하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그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자신이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퍼시벌 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이르되, “바보여, 내가 네가 나를 맹세하게 한 그 미친 짓을 행할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마법사 멀린을 죽였으니, 아서왕의 올바른 고문이었음을 기억하라. 내가 그를 죽였으니 아서왕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서왕에게 직접 가서 네 메시지를 전하라.”

〈각주: 비비안 부인의 탈출〉 이같이 말하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보던 모든 이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노라. 그녀와 함께 사라진 것은 홍색과 남색, 그리고 금빛으로 빛나던 그 성이었고, 남은 것은 오직 헐벗은 바위들과 황량한 평야뿐이었노라.

그때 그곳에 있던 자들은 그 거대한 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놀람에서 회복되자, 퍼시벌 경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끝없는 경외와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마법사의 마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오?”

퍼시벌이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아서왕의 궁궐로 가서, 일 년 전 그가 기사로 임명한 젊은 기사 퍼시벌이 이 마법사의 마술에서 너희를 구해냈다고 전하라. 또한 케이 경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내가 곧 돌아와 그가 말 없는 낭자 옐랜드를 때린 그 일로, 그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스물 배의 값을 치르리라 하라.”

퍼시벌 경이 이같이 말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명한 대로 행하리라"

이에 퍼시데스 경이 이르되, “너는 내 성으로 와서 밤을 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네가 모든 수고로 인해 피곤할 것임이라.” 이에 퍼시벌이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다.” 이에 퍼시데스 경과 퍼시벌은 함께 말타고 퍼시데스 경의 성으로 향하더라.

〈각주: 퍼시데스 경이 퍼시벌이 차고 있는 반지를 아느니라〉

이때 퍼시벌 경과 퍼시데스 경이 퍼시데스 경의 성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퍼시벌 경이 사랑의 뜻으로 퍼시데스 경의 팔소매를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퍼시데스 경은 퍼시벌 경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았는데, 이는 천막의 낭자가 그의 반지와 바꾸어 준 것이었더라. 퍼시데스 경이 그 반지를 보고는 크게 놀라 외쳐 이르되,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 반지를 얻었는가?"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 하고, 이에 그는 퍼시데스 경에게 자기가 처음 야만인의 땅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겪은 모든 일을, 그리고 황금색 천막에 들어가 이제 자신의 선택한 부인이 된 처녀를 발견한 일을 모두 일러주었노라.

퍼시데스 경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으며 이르되 “그러나 다시 그 젊은 처녀를 만나려 할 때, 어찌하여 그녀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니, 퍼시벌 경이 이에 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찾을 것이니, 비록 이 세상이 처음 내려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부인을 찾으려 할 때 마땅한 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그녀를 찾을 것이니라” 하더라.

이에 퍼시데스 경이 이르되 “사랑하는 친구여, 그 반지를 지닌 낭자를 찾으려 한다면 내게 오라. 내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일러주리라. 그러나 지금 어찌하여 그녀를 찾아가지 않는지 나는 알 바 아니로다.”

이에 퍼시벌 경이 대답하되, “나는 그를 당장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비록 그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영광을 더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나는 먼저 기사로서의 명성을 얻으려 하겠고, 그 후에야 그를 찾으리라.”

퍼시데스 경이 이르되, “퍼시벌이여, 너는 지극히 놀라운 기사의 길로 나아갈 큰 재능을 지녔도다. 또한 네가 감당할 모험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믿노라. 실로 오늘 날, 내가 아는 한 모험이 있으니, 만일 네가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한다면, 네게는 막대한 영예가 따르리라. 그리하여 온 세상의 기사 중 네게 미치지 못하는 자가 드물리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청하노니 친애하는 친구여, 그 모험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오"

이에 퍼시데스 경은 퍼시벌에게 그 모험이 어떠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더라.

〈각주: 퍼시데스 경이 퍼시벌에게 보레페어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하루 여정쯤 더 나아가면, 매우 비옥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넓은 평원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 평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안에는 섬이 있으며, 그 섬 위에는 크고 위엄 있는 매우 고귀한 성이 서 있노

라. 그 성의 이름은 보레페어(Beaurepaire)라 하며, 그 성의 부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녀 중 한 분으로 여겨지느니라.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은 블랑슈플뢰르(Lady Blanchefleur)니라."

이때 섬들의 왕이라 일컫는 클라마디우스 경이라 하는 매우 강인하고 위력 있는 기사가 있으니, 그는 세계 각지에서 가장 명성 높은 기사 중 한 사람이라. 클라마디우스 경은 오랜 세월 동안 블랑슈플뢰르 부인을 사랑하여 왔노라. 그의 사랑은 그토록 간절하고 뜨거워,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자는 드물리라. 그러나 블랑슈플뢰르 부인은 클라마디우스 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온통 차갑게 식은 채 항상 그를 외면하더라.

"클라마디우스 경은 놀라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하여, 어느 부인으로부터든 경멸을 받음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의 궁정 기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리고 보레페어 성을 향하여 진격하여, 현재 앞서 말한 성을 포위하고 있노라."

그 성에는 이를 대신할 만한 충분한 명성을 지닌 기사가 없었으므로, 보레페어의 모든 이들은 성벽 안으로 물러나 있더라. 그리고 클라마디우스 경은 성 밖의 초원을 장악하여, 누구도 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네가 만일 클라마디우스 경이 그 여주인 블랑슈플뢰르에게 가하는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나는 네가 기사도 사회에서 가능한 한 가장 큰 명성을 얻으리라 믿노라. 트리스트람 경이 떠난 후로, 많은

이들이 란슬롯 경과 갈레스의 라모락 경을 제외하고는 클라마디우스 경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게 큰 기쁨이로다. 이는 젊은 기사라면 누구나 감당하기에 매우 좋은 모험이기 때문이라. 패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기면 큰 영광이 따르리라. 그러므로 내일 나는 이 모험에 나서, 나의 운명이 어떠할지 탐구하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퍼시벌 경이 호수의 란슬롯 경의 가르침 아래 기사도의 신비를 완성한 후, 세상의 첫 모험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큰 영광을 안기고 기사도 질서에 큰 빛을 더했으며, 이제 그는 가장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진정으로 그 기사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밤, 그는 퍼시데스 경의 성에서 큰 위안과 안식을 얻으며 지냈고, 이튿날 아침이 밝자 정신과 육체 모두 상쾌하고 강건하게 일어나니라. 그는 홀로 내려가 그에게 다시금 기운을 불어넣어 줄 풍성한 아침 식사가 차려진 곳으로 향했고, 거기서 그는 퍼시데스 경과 함께 앉아 큰 식욕으로 식사를 하며, 앞서 말했듯 큰 친교와 우정으로 담소를 나누었더라.

그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퍼시데스 경과 작별을 고하고 말에 올라 밝은 햇살을 가르며 보레페어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더 큰 모험들을 향해 달렸다.

퍼시벌 경이 그 첫 번째 모험에서 겪었던 바와 같이, 너희도 또한 기사도의 영광에 들어선 후 첫 번째 사명을 띠고 말을 달려 나설 때에 비슷한 성공을 거둘 것이니, 이는 너희의 생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고, 너희가 자유롭게 들어가 하느님의 영광과 너희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온 세상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제 퍼시벌이 보레페어 성에서 겪은 그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블랑슈플뢰르 공주]

제4장

<본문: 퍼시벌 경이 보레페어 성의 모험을 떠난 일과, 그 안에서 여러 훌륭한 모험을 겪은 일>

〈각주: 퍼시벌 경이 숲속 오두막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

이때 퍼시벌 경이 가던 길은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져 있어, 그는 때로는 숲속을 지나고 때로는 벌판 위를 달렸다. 정오 무렵, 그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골짜기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소치는 목동의 오두막에 다다랐다. 그 곳에는 작은 시내가 숲에서 흘러나와 골짜기로 내려오며 작은 호수를 이루었고, 그 호수 주변에는 노란 수선화가 무성하게 피어 있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수많은 황금별이 초원 전체에 흩뿌려진 듯 보였다.

이곳의 정취에 반한 퍼시벌 경은 말에서 내려, 오두막 근처에 자라는 참나무 그늘 아래 있는 이끼 덮인 작은 자리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

는 큰 기쁨으로 휴식을 취하며 앉았을 때, 오두막에서 다리가 드러난 한 처녀가 달려와 신선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또 한 명의 단아한 주부가 크림으로 만든 치즈와 빵을 가져다 주었다. 퍼시벌 경은 큰 식욕으로 먹고 마셨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그와 같이 쉬며 힘을 회복하고 있을 때, 갑자기 노르웨이 혈통의 얼룩무늬 군마를 탄 키 크고 고결한 한 기사가 그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퍼시벌 경이 그와 같이 다가오는 기사의 모습을 보자, 그는 즉시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타, 그 기사가 자신을 공격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방비를 갖추었다.

〈각주: 퍼시벌 경이 이상한 기사를 말함〉

그때 그 기사는 높은 품위를 드러내며 크게 말 타고 다가와 퍼시벌 경이 있는 곳으로 이르렀다. 그가 충분히 가까이 다다르자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청컨대 당신의 이름과 어디로 가며, 어떠한 사명으로 가는지를 저에게 알려 주시오.”

이에 퍼시벌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저는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자 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아직 어리고 모험에 매우 미숙한 기사로서, 내가 떠난 이 여정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제 이름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 모험의 성패를 먼저 시험하고자 하나이다. 비록 제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어디로 가는지와 어떠한 사명을 띠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있나이다. 저는 보레페어라 불리는 한 성을 찾아갈 것이요, 그 성의 부인을 클라마디우스 경이라 불리는 한 기사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 하나이다. 내가 알기

로, 그는 그 성의 성벽 안에서 그녀를 포위하여 가두고 있다 하더이다."

이때 그 낯선 기사가 말하기를, "경하소서,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로소이다. 경이 말한 그 모험은 바로 내가 스스로 떠맡은 바로 그 모험이기 때문이니이다. 경이 말씀하시기를 경은 아직 젊은 기사라 무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사온데, 나는 반대로 무예에 능숙한 기사이니, 이 구원을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더 마땅하오. 경은 내가 무예의 봉사에 얼마나 익숙한지 알 수 있겠소. 내가 스물네 번의 다양한 전투를 치렀고, 그 중에는 우호적인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사오며, 또한 거의 모든 것이 큰 무용을 보인 기사들과의 일대일 무예 시합이 그 수의 네 배 이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오. 그러므로 이제 경이 이 일에서 물러나 내가 먼저 이를 시도하게 하시오. 만일 내가 내 임무에 실패한다면, 경이 그 모험을 떠맡으시오."

"영주여,"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지닌 기사임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험을 포기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노라. 당신과 내가 이곳에서 결투를 벌이고, 우리 둘 중 더 뛰어난 자가 이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과업을 수행하리이다."

이 기이한 기사께서 기꺼이 수락하시며 이르시되 "매우 좋사옵니다, 경이 청하시는 바 그대로 행하리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기이한 기사와 싸우다〉

이렇게 말한 후 각기 기사의 한 분은 말머리를 돌려 잠시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각자 마음에 드는 위치를 점하였다. 그리고 각자는 창과 방패를 손질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대결에 임할 태세를 갖췄다.

그들이 이렇게 준비를 마치자, 각기 기사는 말에게 박차를 찔러 넣으며 외쳤고,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다. 그들의 충돌은 지극히 무서운 소리와 격렬함으로, 마치 천둥 폭풍 같은 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져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달음질 길 한가운데서 격렬한 충돌로 마주쳤으니, 그 광경은 보는 이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충돌에서 각기 기사의 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각기 기사의 말도 뒷다리에 주저앉으며 쓰러질 뻔하였으나, 각기 기사는 놀라운 기예와 민첩함으로 안장에서 벗어나 위기를 면하였더라.

이에 각기 기사들이 검을 뽑아 서로 마주쳤으니, 그 격렬함은 싸우는 두 수컷 양과 같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찌르고 치며, 여기저기 격렬하게 움직이며 싸웠고, 그들이 가한 타격의 소리는 여러 퍼롱 밖에서도 들릴 수 있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기이한 기사를 물리치니라〉

그 전투 중에 퍼시벌 경은 여러 곳을 깊이 다쳐, 이내 격렬한 분노가 그에게 엄습하더라. 이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전투에 몰입하여, 그와 함께 맹렬한 타격을 가하니, 곧 그 다른 기사는 지친 나머지 방패를 매우 낮게 내리게 되었더라. 퍼시벌 경은 이를 간파하고, 곧장 그 상대의 머

리에 맹렬한 일격을 가하여, 기사는 무릎을 꿇고 일어설 수 없게 되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그에게 달려가 목을 잡아 힘껏 땅바닥에 던지며 외쳤노라.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때 그 기사는 매우 약한 목소리로 자비를 구하며 이르되, "기사여, 내가 청하노니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퍼시벌 경이 이르되, “좋도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내게 네 이름을 말하라.” 이에 다른 이가 이르되, “나는 라이오넬 경이니이다. 나는 아서왕의 궁정 기사요, 원탁의 기사 하나이니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라이오넬 경을 돕다〉 이때 퍼시벌 경이 이 말을 듣자 크게 소리 지르니, 그 마음은 지극히 괴로워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알라,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너와 싸우려 하였는가! 나는 퍼시벌이라. 호수의 랜슬롯 경, 곧 너의 친족이 내게 무예를 가르쳤노라. 그러나 실로 나는 그가 가르친 그 술수를, 그에게 이토록 귀한 자인 너와 대적하는 데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노라, 라이오넬이여."

이와 함께 퍼시벌 경이 라이오넬 경을 일으켜 부축하매, 라이오넬 경은 그 비참한 싸움으로 인해 지극히 약하여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제 앞서 말한 시냇물과 호수가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퍼시벌 경은 라이오넬 경을 부축하며 그곳으로 데려갔다. 라이오넬 경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차렸다. 그가 조금 회복되자, 그는 나른한 눈빛으로 퍼시벌 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르되,

"퍼시벌, 오늘 너는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내게 행하였노라. 이제까지 내가 얻은 모든 영광은 이제 이 전투로 인해 너의 영광이 되었노라. 너는 정당한 논쟁에서 나를 이겼으며, 나는 스스로를 너에게 항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나를 네 뜻대로 명령할 권리가 있느니라."

이때 퍼시벌이 이르되 "슬프도다, 친애하는 기사여! 당신과 같은 분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도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거든, 내가 간청하노니, 당신이 아서왕의 궁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 고하되, 그분의 젊은 기사인 나 퍼시벌이 당신과의 전투에서 부끄럽지 않게 싸웠노라 전하소서. 이는 내 일생 중 처음으로 내가 기사의 대결을 감행한 것이니이다. 또한 내가 간청하노니, 시종장 케이 경에게 내 인사를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곧 내가 그와 마주쳐 왕의 천막에서 그가 벙어리 처녀인 예란데 공녀에게 가한 그 일격을 갚으리라 전하소서."

라이오넬 경이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네 명을 따르리라. 그러나 케이 경에 관하여는, 네가 그에게 전할 이 말이 그에게 그리 큰 기쁨을 주지 않으리라 믿노라. 그가 네가 그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한 대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은 낙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각주: 퍼시벌 경이 그의 모험을 계속 나아가니라〉 이때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으므로, 퍼시벌 경은 그 전투가 벌어진 곳 근처의

목동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는 그곳에서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았으니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그는 일찍이 일어나 말에 안장을 얹고 길로 나아가니라. 그는 가다가 전날 라이오넬 경과 벌인 전투를 생각하며 큰 기쁨을 느꼈노라. 그는 그 격투에서 스스로에게 큰 명성을 얻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라이오넬 경과 같은 자와 힘을 겨루어 보았으니,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명이어야 함을 깨달았노라.

그의 마음은 그 생각으로 인해 큰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노라. 그는 이제 검증된 기사이자 용장으로서, 자신의 기사 작위에 합당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그 날 내내 말을 몰고 나아갔노라. 전날 그가 행한 일을 생각하며 영혼이 크게 기뻐하였노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낮이 깊어가던 때, 퍼시벌은 드디어 숲을 벗어나 넓고 트인 평야로 나아갔다. 사방으로 밀과 호밀이 무성하게 자란 비옥하고 잘 가꾼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평야 한가운데에 꽤 큰 호수가 있음을 보았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는 섬이 있으며, 그 섬 위에는 아름다우면서도 고귀한 성채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성채가 바로 보레페르 성임을 알았다. 이에 그는 그 계곡으로 속도를 높여 내려갔다.

〈각주: 퍼시벌 경이 붉은 갑옷을 입은 기사를 발견하다〉

그가 잠시 동안 이렇듯 달리고 있자, 한 기사가 그의 앞길에 나타나 있더라. 그 기사는 외모와 태도 모두 매우 위엄 있어 보였고, 퍼시벌 경이 나아가는 길과 같은 길을 따라 앞서가고 있었다. 그 기사는 온몸을 붉은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고, 탄 말은 너무도 검은색이라, 나는 그 위에 흰 털이 하나도 없으리라 믿노라. 말의 모든 마구와 장비 역시 붉은색이어서, 그는 지극히 장엄한 풍채를 드러내고 있었더라. 이에 퍼시벌 경은 그 기사를 재빨리 따라잡으려 하였으나, 가까이에 이르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말을 멈추었더라. 그러자 붉은 갑옷의 기사가 퍼시벌 경에게 매우 위압적인 어조로 말을 걸며 이르되, "기사여, 어디로 가며 무슨 사명으로 말에 오르셨나이까?"

"경," 퍼시벌이 이르되, "나는 저 성채로 향하여 가노라. 나는 그것이 보레페르 성이라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그곳의 블랑슈플뢰르 부인을 구원하려 왔노라. 클라마디우스 경이라 불리는 한 기사가 그녀를 억지로 가두고 있으니, 선량한 기사라면 누구든 그녀의 구원에 나설 의무가 있느니라."

이때 붉은 기사가 매우 격렬하게 말하여 이르되, "영주여,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오? 내가 당신에게 일러두마. 나는 클라마디우스 왕의 기사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당신은 그 소임에 더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오. 나는 그란드가르드의 기사 잉게레론이라. 또한 나는 클라마디우스 왕의 시네샤(시종장)라. 당신이 이 길을 더 나아가려거든 나를 제치고 지나가야 할 것이오."

"영주여," 퍼시벌 경이 이르되, "저와 사이에는 다툼이 없나이다. 그러나 만일 영주께서 저에게 다툼을 강요하시려 하시면, 저는 그 대결을 피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 영주께서는 준비를 갖추시오. 저 또한 준비를 갖추리니, 곧 이 길로 저를 지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리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엔게레론 경과 격투를 벌이다〉 이에 각기 기사들은 자신의 말머리를 돌려 각자 마땅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향하니, 그들이 모두 준비를 갖추자 놀랄 만한 속도와 우레 같은 굉음과 함께 서로에게 돌진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경주의 한가운데서 마주쳤노라. 그리고 그 충돌에 엔게레론 경의 창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으나, 퍼시벌 경의 창은 견고하여 그가 엔게레론 경을 안장 밖으로 완전히 튕겨 말의 엉덩이 너머로 땅바닥에 거세게 떨어뜨리니, 엔게레론 경은 그 자리에 기절하여 누웠노라.

〈각주: 엔게레론 경이 퍼시벌 경에게 항복함〉 이때 퍼시벌 경은 서둘러 말에서 내려, 엔게레론 경의 투구를 벗겨내며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노라. 그러나 엔게레론 경은 자신의 위급함을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어 퍼시벌 경의 다리를 감싸 쥐며 외쳤노라. "경이시여, 경의 기사도 정신을 걸고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제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너희가 나의 기사도 정신을 빌려 간청하니, 내가 너희의 청을 들어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이를 행하리라.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그곳의 낭자 중 하나인 '말없는 여인'으로 알려진 예란드 부인에게

스스로를 포로로 바치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낭자에게 이르되, '보이네가르드스 경을 죽인 젊은 기사가 그녀에게 문안하며, 잠시 후 케 경이 그녀에게 가한 일격을 갚기 위해 돌아오리라'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조건이니라." 이에 엔게레론 경이 이르되, "나는 그 조건을 이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하니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이 모험을 수행하는 데에 네 갑옷을 내게 주라. 그리고 네가 내 갑옷을 받아, 내가 이 길로 왔던 도로로 되돌아가면 잠시 후에 마주하게 될 작은 예배당의 은자(隱者)에게 맡기라. 잠시 후 내가 돌아와 내 갑옷을 돌려받으리니, 그 때에 너는 내 갑옷을 돌려받으리라.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조건이니라."

그때 엔게레론 경이 이르되 "이 명령에 따라 이 조건도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사오니" 하니

〈각주: 퍼시벌 경과 엔게레론 경이 갑옷을 바꾸다〉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일어나소서" 하매 엔게레론 경이 일어나니라. 그 후 엔게레론 경이 자신의 갑옷을 벗고 퍼시벌 경도 갑옷을 벗으니라. 퍼시벌 경은 엔게레론 경의 갑옷을 입었고, 엔게레론 경은 퍼시벌 경의 갑옷을 말에 싣고 퍼시벌 경이 정한 조건에 따라 떠날 준비를 하였더라. 이에 두 사람은 헤어졌으니, 퍼시벌 경은 보레페르로 향하는 길을 갔고, 엔게레론 경은 퍼시벌 경이 말한 그 은자의 예배당을 찾으러 길을 떠났더라.

이러한 연유로, 두 번의 모험을 겪은 후 퍼시벌 경은 블랑슈플뢰르 공녀를 위해 수행하러 온 그 임무에 착수하였더라.

만약 독자들이 이어서 읽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보레페르 성에서 퍼시벌 경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실 것이니라.

엔게레론 경과의 그 모험을 마친 뒤, 퍼시벌 경은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보레페르 성과 마을이 자리한 호수 근처에 다다랐다. 퍼시벌 경은 호수의 한 부분을 건너, 본토에서 섬과 마을로 이어지는 길고 좁은 다리가 놓여 있음을 보았다. 이에 퍼시벌 경은 다짐을 다져 그 다리를 매우 담대하게 건너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클라마디우스 경의 기사들이 그를 보고는 "저곳을 타고 가는 이는 엔게레론 경이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퍼시벌 경은 다리를 건너 담대하게 계속 나아가 성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를 목격한 자들은 "엔게레론 경이 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로다"라고 수군거렸다. 그가 엔게레론 경이 아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 때문에 모두 그를 엔게레론 경으로 여겼던 것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보레페르로 오다〉 이에 퍼시벌 경이 성채에 가까이 다다르니, 그가 그곳에 이르러 안의 자들을 향해 매우 크게 소리쳐 부르는지라, 곧 높은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슬픔에 잠겨 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창가에 있던 여인에게 이르되, "문을 열어 나를 들이게 하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하니라.

이때 그 여인이 이르되 “내가 문짝을 열라 명하지 아니하리라. 네 갑옷을 보고 너의 정체를 알노니, 너는 시종장인 엔게레론 경이로다. 또 너를 우리 적대자 중 가장 맹렬한 자라 알노라. 이미 성채의 기사들을 수명이나 죽였거늘, 이제 꾀를 부려 성채 안으로 들어오려 함이로다.”

〈각주: 퍼시벌 경이 보레페르에 들어가다〉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는 엔게레론 경이 아니라, 전장에서 엔게레론 경을 무찌른 자이옵나이다. 나는 클라마디우스 경으로부터 이 곳을 지키려 이 갑옷을 입었사옵나이다” 하고, 이와 함께 그는 투구의 가림막을 올려 올리며 이르되, “보라, 보라. 나는 엔게레론 경이 아니니라” 하더라. 이에 창가에 있던 여인이 그의 얼굴을 보아 엔게레론 경의 얼굴이 아님을 깨달으니, 퍼시벌 경의 얼굴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 그녀가 달려가 성의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되, “밖에는 친구인 한 기사가 섰나이다” 하니, 성의 사람들이 곧 인도를 내리고 성문을 열었더라. 그리하여 퍼시벌 경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성의 주요 인물들이 수명인들 모여들었으니, 그들도 또한 오랜 금식과 고통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더라. 이는 퍼시벌 경이 처음 보았던 그 여인과 같았으니, 성 안 모든 이들이 그 공성전의 고달픔과 근심 때문에 크게 쇠약해졌기 때문이라.

그들이 퍼시벌 경에게 그의 신원과 출신,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이르렀는지 물으니, 퍼시벌 경은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노라. 그는 자신이 랜슬롯 경의 보호 아래 기사의 예법을 배운 젊은 기사임을 밝히고, 블랑슈플뢰르 부인을 섬기고자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며, 오는 길에 겪은 여러 모험과 이미 리오넬 경과 엔게레론 경을 무찌르고 이곳에 도달했음을 이야기하였노라.

이러한 말들을 들은 성의 사람들은 퍼시벌 경이 매우 강인하고 가치 있는 기사임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 이곳에 이르렀음을 기뻐하며 큰 기쁨에 겨웠더라.

이에 성곽의 사람들이 그 중 으뜸이 된 자가 여러 시종들을 소환하매, 그들이 모여들었더라. 어떤 이들은 퍼시벌 경의 말을 거두어 마구간으로 이끌고 가고, 어떤 이들은 퍼시벌 경의 갑옷을 벗겨내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미지근한 물이 담긴 목욕탕으로 데려가니, 퍼시벌 경은 몸을 씻고 부드러운 린넬 타월로 닦았더라. 또 다른 이들은 회색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의복을 가져와 퍼시벌 경에게 입혀주고, 이어 그를 아름다운 큰 방으로 내려보내었으니, 그 방에는 음식이 차려진 듯한 식탁이 놓여 있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블랑슈플뢰르 공녀를 보다〉

이때 퍼시벌 경이 그 연회당에 이르러 잠시 지내던 차에,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오더라. 그들과 함께 한 처녀가 왔으니, 그 아름다움과 풍채의 우아함이 지극히 기이하여 퍼시벌 경은 깜짝 놀라 서 있노라.

그의 얼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왔으니, 흰 자옥 위에 붉은 빛이 돌아 마치 크림 위에 장미 꽃잎이 얹힌 듯하였고, 그 눈은 매의 눈처럼 밝고 빛나며, 코는 가늘고 곧았으며,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고, 머리카락은 어둡고 풍성하여 실크처럼 부드러웠더라.

그는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 입었으니, 옷감에는 금빛 별들이 수놓아졌고, 옷감 안감은 흰담비 털로, 목깃과 소매 끝, 그리고 옷자락 둘레는 검은담비로 장식되어 있더라.

이에 퍼시벌 경은 그 낭자를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에 젖었고, 그가 이 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여인, 블랑슈플뢰르 공녀를 만나기 위함임을 깨달았더라.

블랑슈플뢰르 부인은 퍼시벌 경을 지극한 자비로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이가 힘과 아름다움에 있어 한 명의 영웅과도 같이 그녀에게 보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퍼시벌 경에게 매우 은혜로운 미소를 띠며 다가와 그의 손을 내밀었더라. 퍼시벌 경이 그 손을 받아 입술에 대니, 보라! 그 손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매우 따뜻하였으며, 장미빛이 돌고 향기롭고, 그 손가락들에는 빛나는 금반지와 여러 빛깔의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더라.

이에 아름다운 블랑슈플뢰르 부인이 이르되, "경이여, 경께서 이 곳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기사다운 행실이라. 경이 오신 때는 매우 적기라. 우리 식량은 이미 매우 고갈되어 잠시 후면 기아를 맞을 형편이기 때문이라. 클라마디우스 경이 이 곳을 감시하고 있사온즉, 들어가는

자도 나가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진실로 경은 그가 보아레페르 성을 포위하고 앉아 있는 이후로 오신 첫 번째 분이시라."

〈각주: 블랑슈플뢰르 부인이 퍼시벌 경에게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다〉

그때 곧이어 그녀의 미소가 그치고 얼굴이 어두워지니라. 블랑슈플뢰르 부인의 눈에서 빛나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클라마디우스 경이 마침내 이 성을 점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는 오랫동안 우리를 이 성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니라. 비록 그가 성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성 안에 담긴 것을 점령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은상자가 있으니, 그 안에는 매우 날카롭고 정교한 단도가 있노라. 그러므로 클라마디우스 경이 이 성으로 들어오는 날, 나는 그 단도를 내 심장에 꽂으리라. 클라마디우스 경이 내 성을 점령할지언정, 내 영혼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이때 퍼시벌 경은 블랑슈플뢰르 부인의 얼굴에 빛나던 눈물을 보고 큰 슬픔을 느꼈으므로 이르되, "부인, 저의 소원컨대 이 일이 부인이 말씀하신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블랑슈플뢰르 부인은 이르되, "나도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에 눈물을 닦으며 다시 미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이르되, "보시오, 퍼시벌 경님, 저녁이 이미 왔사오니 저녁 식사를 하기에 적절하옵니다. 이제 저를 청하오니 함께 식탁에

앉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대접하오니 당신을 크게 환영하노라."

이에 블랑슈플뢰르 부인이 퍼시벌 경을 식탁으로 이끌고, 그 황량한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으로 상을 차려 앉혔노라. 그들이 가진 것은 매우 적었으니,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와, 조금의 빵, 그리고 아주 소량의 포도주뿐이었기 때문이라.

〈각주: 블랑슈플뢰르 부인이 퍼시벌 경에게 노래하다〉 그들이 먹고 마신 후, 블랑슈플뢰르 부인이 황금 하프를 손에 들어 그것을 타며 노래하였으니, 그 목소리는 맑고 높으며 아름다워 퍼시벌은 그 노래에 완전히 홀려 매료되었더라.

이와 같이 그 밤은 그들에게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으므로, 퍼시벌 경이 자신의 휴식을 위해 준비된 침대로 물러나기까지는 한 밤중이 다 되어야 했더라.

이때 클라마디우스 경에게 전갈이 이르되, 호관(Seneschal) 잉게레온 경이 다른 한 기사의 손에 패배하였노라 하더라. 이에 클라마디우스 경은 그 기사가 바로 성채 안으로 들어온, 잉게레온 경의 갑옷을 입은 자임을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클라마디우스 경이 이르되, "확실히 이는 작은 기량이 아닌 자라. 이와 같은 위험한 임무를 홀로 맡아 성채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 입성을 두고 그들이 큰 환희를 베푸는 것을 보라. 이제 그가 머물러 있거든, 그들은 나에 대항하여 더 오랫동안 저항할 기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리라."

〈각주: 노신사가 클라마디우스 경에게 충고를 드리다〉

이때 클라마디우스 경의 고문들 중에는 지혜가 깊고 원대한 안목을 가진 한 노장(老將)이 있었더라. 그가 왕께 아뢰어 이르되,

"폐하, 필경은 이 성채 밖의 기사 대장을 어떻게든 성채 밖으로 유인해 낼 방도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사료하옵니다. 필경의 계책은 이러하니이다. 내일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기사 열 명으로 하여금 그 성채 앞에서 행진하게 하되, 성내의 자들에게 나와서 결투를 벌이기를 청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필경은 그 기사 대장이 성내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나와서 그 도전에 응할 것이라 믿사옵니다.

그 후 우리 기사들이 퇴각하는 체하며 후퇴하게 하되, 그 기사와 성내 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여 매복 지대로 유인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우리 군사가 일제히 그들을 습격하여, 죽이거나 포로로 잡게 하소서. 그리하면 성채는 그 새로이 합류한 기사 대장을 잃게 되리니, 이로 인해 성내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결국 폐하께 항복할 것이라 믿사옵니다."

이 충고는 클라마디우스 왕에게 매우 훌륭해 보였으므로,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그는 모든 기사 중 가장 뛰어난 열 명을 뽑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도전을 행하게 명하였노라. 그들이 이에 따르자, 이때 퍼시벌 경과 다른 아홉 명의 기사들이 성채를 나와 그들을 맞서 나갔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큰 싸움을 하다〉 그러나 클라마디우스 경이 기대하였던 바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퍼시벌 경과 그 기사들의 공격이 너

무도 맹렬하고 급작스러워, 열 명의 기사들은 본의 아니게 쉽게 물러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물러나기 전에, 퍼시벌 경은 친히 여섯 명을 쓰러뜨렸고, 나머지 네 명은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더라.

이러므로 퍼시벌 경과 그의 기사들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던 매복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매복하던 자들은 그들의 계략이 실패하였음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 함으로 은신처를 벗어나 나섰노라. 그러나 퍼시벌 경과 그의 기사들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용기로 자신을 방어하며 물러나, 다시 무사히 성채 안으로 들어왔더라.

이와 같이 클라마디우스 왕과 그의 고문관이 세운 계책은 모두 헛수고로 끝났으므로, 클라마디우스 왕은 그 지혜로운 노경(老境)의 기사에게 몹시 분을 터뜨렸노라. 그러므로 그 고문관이 다시 찾아와 이르되, "폐하, 저에게 또 다른 계책이 있사옵니다"라고 하니, 클라마디우스 왕은 매우 격렬하게 외쳐 이르되, "너의 계책은 물리쳐라!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클라마디우스 왕이 이르되, "내일 아침이 오거든 내가 스스로 이 일을 맡아 처리하리라. 내가 직접 그 기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이로써 이 다툼을 사람과 사람 간의 결투로 결정하고자 하노라. 저 기사란 호수의 랜슬롯 경이나 갤스의 라모라크 경이 아닌 한, 나는 그가 사람과 사람 간의 결투에서 나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노라."

〈각주: 클라마디우스 경이 전장을 위해 무장을 함〉

다음 날 아침이 밝자, 클라마디우스 경은 온몸에 갑주를 단단히 매고 곧장 성벽 아래 펼쳐진 고르고 넓은 초원으로 향하더라. 그곳에 도착한 그는 큰 소리로 외쳤노라.

"붉은 갑옷의 기사여, 나와 담판하러 나오시오."

그 후 얼마 뒤 퍼시벌 경이 성벽 꼭대기에 나타나 이르되, "영주여,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에 클라마디우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오?" 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아니오, 나는 그가 아니오"라.

클라마디우스 경이 다시 이르되 "그렇다면 당신은 웨일스의 라모락 경이오?" 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아니오, 나는 그가 아니오"라.

이에 클라마디우스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요?" 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두 사람과 같은 위대한 기사나 용사가 아니오. 나는 아직 젊은 기사로서 내 생애에 두세 번도 싸워 보지 못하였소."

그때 클라마디우스 경은 매우 기뻐하였으니, 그는 퍼시벌 경이 무예에 능숙한 유명한 기사일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퍼시벌 경이 오직 젊고 경험 없는 기사임을 알았을 때, 그를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라 여겼노라. 이에 그가 이르되, "영주여, 내가 너를 나와 단대단으로 싸우러 나오라고 도전하노라. 이로써 우리 사이의 이 다툼을 해결

하리라. 이 다툼에서 불필요한 피를 더 흘리는 것은 슬픈 일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나와 싸워 나를 쓰러뜨린다면, 나는 내 병력을 이 곳으로부터 물리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쓰러뜨린다면, 이 성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리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영주님, 그 논쟁에 관하여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블랑슈플뢰르 공녀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옹호자가 되어야 하옵니다."

이에 퍼시벌 경이 블랑슈플뢰르 부인에게 나아가 이르되 "부인, 이 논쟁의 쟁점을 클라마디우스 경과 일대일 결투로 결정할 제, 저를 부인의 대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녀가 이르되, "퍼시벌이여, 너는 그처럼 늙고 노련한 기사를 상대하기엔 너무 어리구나. 지금 그와 같은 싸움에서 네 생명이 크게 걱정되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부인,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내 영혼 깊숙이 거대한 기개가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나를 믿어 주시거든,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리라 믿사옵니다."

이에 블랑슈플뢰르 공주가 퍼시벌 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며 이르시되, "퍼시벌, 나의 생명과 안전을 너의 보호에 맡기노라. 나도 또한 너의 기사도에서 큰 의지를 두기 때문이라."

이에 퍼시벌 경은 곧장 무장을 갖추었고, 모든 준비를 끝내자 큰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 전투를 향해 나아가니라.

그곳에서 그는 성벽 아래 초지에서 여전히 행진하며 자신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클라마디우스 경을 발견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클라마디우스 경의 격투]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 성벽 위에 서서 이 대결을 지켜보았고, 각기 기사는 스스로 선택한 지점에 자리 잡았더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각기 기사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으니, 그 기세는 참으로 무서웠고 격렬하였더라. 이에 두 기사는 성의 평평한 성벽에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과 함께, 그 길목 한가운데서 충돌하였더라.

그 격돌에서 퍼시벌 경의 창은 견디었으나, 클라마디우스 경의 창은 산산조각이 났더라. 이에 퍼시벌 경이 맹렬한 기세로 말을 몰고 나아가자, 클라마디우스 경은 말과 함께 쓰러졌으니, 그 타격이 심하여 그가 땅바닥에 누운 모습은 죽은 자와 다름없었더라.

그때 성벽 위의 모든 이들은 큰 환호성으로 크게 외쳤고, 클라마디우스 경의 일파는 그에 상응하는 비통한 울부짖음을 터뜨렸더라.

〈각주: 클라마디우스 경의 항복〉 그러나 퍼시벌 경은 급히 안장에서 내려 클라마디우스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퍼시벌 경은 클라마디우스 경의 머리에서 헬멧을 벗겨내고,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잡은 뒤, 그가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려 하며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때 클라마디우스 경은 자신의 위기를 깨닫고,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

로 외쳤다. "영주여, 제게 기사도의 정의를 베풀어 주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자, 그대가 내 기사도(騎士道)를 걸고 청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는 이를 거절할 수 없노라. 고명하신 랜슬롯 경이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청이라면 기사도를 걸고 구하는 모든 호의(boon)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노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한 가지 조건 하에 너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그 조건이란, 너는 모든 방편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갑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니라. 거기서 너는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한 처녀, 이름하여 이란드(Yelande), 별명은 '말 못하는 처녀(Dumb Maiden)'라 불리는 이에게 자신을 종으로 바치라. 너는 그 처녀에게, 보인데가르두스 경(Sir Boindegardus)을 죽인 그 청년이 자신을 종으로 보내었다고 전하라. 또한 너는 아서왕의 시종장(Seneschal)인 케이 경에게, 젊은 기사 퍼시벌이 곧 그 전의 일로 이란드 처녀에게 가한 일격을 갚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하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렇게 하겠나이다."

클라마디우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하시거든 나의 목숨만은 아껴 주소서. 모든 지혜를 다하여 주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일어나라."

클라마디우스 경이 일어나니, 퍼시벌 경이 다시 이르되, "이곳을 떠나라."

이에 클라마디우스 경은 퍼시벌 경의 명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났더라.

그 날 클라마디우스 경은 보오레페르 성을 모든 기사들을 거느리고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퍼시벌 경이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더라.

이와 같이 퍼시벌 경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블랑슈플뢰르 공녀를 억압에서 해방시켰노라. 하느님께서 너희 또한 그분께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은 지극한 명예와 고결함으로 모든 사명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케이 경이 퍼시벌 경의 명상에 방해가 되다]

다섯째 장

케이 경이 한때 말없는 처녀 예란데에게 가한 일격을 어떻게 페르시벌 경이 갚았으며, 그 후 그가 자신의 사랑의 부인을 찾아 나섰는지에 대하여

다음 날 아침, 페르시벌은 성의 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한 무리의 기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중 한 명은 바로 케이 경이었다. 케이 경은 평소 페르시벌을 얕보고 모욕하기를 즐겼던 사나이었다. 그는 페르시벌이 아직 기사로서의 기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종종 조롱하곤 하였다.

그날도 케이 경은 페르시벌을 발견하고는, 그의 말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페르시벌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야생인아! 너는 아직 기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내 앞을 지나가지 말라!"

페르시벌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케이 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케이 경은 그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교만해졌다. 그는 말에서 내려 페르시벌의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그를 강제로 멈추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네 귀로 듣지 않느냐?"

케이 경은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페르시벌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이는 일종의 모욕적인 행동, 즉 '버펫(buffet)'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페르시벌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타고, 케이 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하였다.

"경,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지르십니까?"

페르시벌이 이렇게 물었으나, 케이 경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주위의 기사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외쳤다.

"보라! 이 야생인이 어떻게 놀랐는지!"

그때, 멀리서 한 기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페르시벌의 친구인 가웨인 경이었다. 가웨인은 케이 경의 행동이 너무도 불의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말에서 내려 케이 경에게 다가갔다.

"케이 경,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페르시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케이 경은 가웨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가웨인을 향해 분노를 표하며, 그를 향해 말을 돌렸다.

"너도 내게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너도 함께 당할 것이다!"

이때, 페르시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빼어들고, 케이 경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하였다.

"경,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케이 경은 페르시벌의 태도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는 페르시벌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너, 감히 나에게 그러다니! 나는 아서왕의 시종장이니, 너 같은 야생인이 감히 나에게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페르시벌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케이 경을 향해 검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나아갔다. 케이 경은 자신의 검을 빼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고, 격렬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싸움은 짧았으나 치열하였다. 페르시벌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모두 검에 실어, 케이 경을 향해 공격하였다. 케이 경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려 하였으나, 페르시벌의 힘과 기술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결국, 페르시벌은 케이 경의 검을 튕겨내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이는 케이 경이 페르시벌에게 가한 그 일격의 배상이었다.

케이 경은 넘어지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맞서지 않았다. 그는 페르시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페르시벌, 나는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페르시벌은 케이 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그의 검을 거두어들였다.

"경,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성을 떠나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케이 경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페르시벌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페르시벌은 캐멀롯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말에 올라타, 넓은 들판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가득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부인을 찾기 위해, 이 넓은 세상을 헤매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떠난 후, 캐멀롯의 기사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페르시벌이 단순한 야생인이 아님을, 이제 진정한 기사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페르시벌 자신은 그들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험들을 마친 후, 퍼시벌 경은 장기간 보레페아르에 머무르며 블랑슈플루르 부인의 수호 기사가 되었노라. 블랑슈플루르 부인은 날이 갈수록 퍼시벌 경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으나, 퍼시벌 경은 이에 화답하는 사랑의 정을 보이지 않았노라. 이에 블랑슈플루르 부인은 크게 근심하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블랑슈플뢰르 공녀가 함께 거닐다〉

이때 어느 날, 블랑슈플뢰르 공녀와 퍼시벌 경은 함께 테라스를 거닐고 있었노라. 이때는 이미 가을이 되어,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마치 금빛 눈송이들처럼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더라.

그 날, 블랑슈플뢰르 공녀는 퍼시벌 경을 지극히 사랑하였노라. 그녀의 마음은 마치 큰 고통처럼 그 사랑에 찔려 아팠노라. 그러나 퍼시벌 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블랑슈플뢰르 공녀가 이르되 “경이여, 경이 이 곳에 머물러 우리의 수호 기사가 되어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낭자여, 그런 말씀은 할 수 없나이다. 곧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비록 이처럼 친절한 곳을 떠나기가 슬프기는 하나, 저는 유랑 기사로서, 여기서 이룬 한 모험 외에도 수행해야 할 많은 모험들이 있기 때문이니이다."

"영주여," 블랑슈플뢰르 공녀가 이르되, "만약 당신이 여기서 머물러 주시겠다면, 이 성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되리라."

이때 퍼시벌 경은 크게 놀라 이르되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이옵니까? 보소서, 이 성은 부인의 것이오며,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고, 부인께서도 그것을 내 소유로 저에게 줄 수 없나이다."

이에 블랑슈플뢰르 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숙이며,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르되, "퍼시벌이여, 성을 내게서 빼앗을 필요는 없노라. 나를 네 것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성은 물론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

〈각주: 퍼시벌 경은 블랑슈플뢰르 공녀를 거절하다〉 이때 퍼시벌 경은 한참 동안 숨조차 쉬지 않는 듯이 고요히 서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어 이르되, "공녀여,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기사에게도 당신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을 것이나, 만일 내가 당신께서 베푸시는 이 선물을 받으려 한다면, 나는 내 기사도 정신을 크게 훼손하여 당신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이 높은 영예에 전혀 합당치 않은 자가 되리라. 이미 나는 한 공녀를 섬기기로 서원을 세웠으니, 만약 내가 그 서원

을 저버린다면 나는 이미 치욕스러운 자이며 합당치 않은 기사가 될 것임이라."

그때 블랑슈플루르 공녀가 큰 고통의 목소리로 외치되, "더 이상 말하지 마소서. 나는 부끄러워하오이다." 하였더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이 없거늘, 오히려 내게 큰 영예니라." 하되, 블랑셰플뢰르 공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급히 그를 뿌리치고는 그 자리에서 홀로 남겨둔 채 사라졌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그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노라.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말을 타고 떠나갔노라.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그는 블랑슈플뢰르를 다시는 보지 못하였노라.

퍼시벌 경이 떠난 후, 블랑슈플뢰르 낭자는 큰 슬픔에 잠겨 자신을 맡기었으니, 그녀는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많이 울었더라. 그리고 오랫동안 그녀는 살아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의 그 이후의 모험에 대하여〉 이에 퍼시벌 경은 보레페아르 성의 포위 상태를 해제하는 그 모험을 성취하더라. 그 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는 명성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험들을 수행하더라. 그 동안 그는 여러 무예의 행사에서 열 한 명의 기사들을 격파하였으며, 모든 그 모험들에서 그는 그 자신에게 어떠한 불운도 만나지 아니하더라. 또한 그러한 무예의 충돌들 외에도, 그는 매우 가치 있는 일

들을 수행하였으니, 그는 암버 숲 근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야생 멧돼지를 죽였고, 또한 다트의 황무지를 횡행하던 매우 사나운 늑대를 죽였더라. 이러하므로, 이러한 여러 모험들로 인해 퍼시벌 경의 이름은 모든 기사도 궁정들에서 매우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이르되 "참으로 이 젊은 기사는 호수의 랜슬롯 경 그 자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 하였더라.

이때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어가던 날,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으니, 퍼시벌 경은 우스크 숲에 있는 한 은자의 오두막에 이르러 그 곳에서 밤을 새웠더라.

이제 아침이 이르러 그가 나가 오두막 앞에 서매, 밤새 내린 부드러운 눈이 땅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더라. 또한 그가 보니, 한 매가 은자의 거처 앞에서 까마귀를 공격하여, 까마귀의 깃털 몇 장과 피가 눈 위에 떨어졌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명상에 잠기다〉 이때 퍼시벌 경이 하얀 눈 위에 맺힌 피와 검은 깃털들을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눈은 내 공녀의 이마와 목덜미보다 더 희지 못하고, 이 붉음은 그녀의 입술보다 더 붉지 못하며, 이 검은 빛은 그녀의 머리카락보다 더 검지 못하도다" 하였노라. 그와 함께 그 공녀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크게 사로잡히니, 그가 깊게 한숨을 쉬자 그 한숨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가슴 속에서 들려 올 것 같았노라. 이에 그는 서서 그 희고 붉으며 검은 것들을 응시하되, 세상에서 그의 사랑스러운 공녀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더라.

그때에 이르러 그 땅을 지나가는 기마의 무리가 있으니, 그들은 가웨인 경과 제레인트 경, 그리고 케이 경이었더라. 그들이 서서 나무에 기대어 깊은 사색에 잠겨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퍼시벌 경을 보자, 케이 경이 이르되, “저기 그 기사는 누구인가?” 하니, 이는 그가 그 기사가 퍼시벌 경인 줄 알지 못함이더라. 케이 경이 또 이르되, “내가 저 기사에게 다가가 그 정체를 물어보리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퍼시벌 경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음을 간파하고는 이르되, “그대여, 그 기사를 어지럽히지 말게나. 그에게 무거운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부인을 생각하며 잠겨 있는 것일세. 어느 쪽이든 그가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는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옳으리라.”

〈각주: 케이 경이 퍼시벌 경의 팔을 흔드는 장면〉 그러나 가웨인 경의 말에 케이 경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곧장 퍼시벌 경이 서 있는 곳으로 향하였노라. 퍼시벌 경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어, 자신의 다가오는 기척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케이 경이 이르되, “기사여,” 그러나 퍼시벌 경은 그 말을 듣지 못하였노라. 케이 경이 다시 이르되, “기사여, 너는 누구뇨?” 그러나 퍼시벌 경은 여전히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케이 경이 노하여 이르되, “기사여, 내게 대답하라!” 하고는, 이에 퍼시벌 경의 팔을 잡아 매우 거칠게 흔들었노라.

〈각주: 퍼시벌 경이 케이 경에게 주먹질을 함〉 이때 퍼시벌 경이 정신을 차리니, 그 누구든 그의 몸에 거친 손길을 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노라. 퍼시벌 경은 케이 경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전히 복잡한 생각의 그물망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매우 격렬하게 외쳤노라. “하, 이놈아! 네가 내게 손을 대려느냐!” 그러면서 그는 주먹을 들어 케이 경의 머리 곁에 무서운 주먹질을 날렸노라. 그 타격이 너무도 강렬하여 케이 경은 즉시 죽은 자처럼 땅에 쓰러져 감각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였노라.

이때 퍼시벌 경은 가까이 두 명의 다른 기사들이 서 있는 것을 깨닫고, 그제야 다른 일들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다시 돌아왔노라. 그리고 그는 분노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깨닫고, 너무 성급하게 그 한 방을 날렸다는 사실에 매우 후회하며 부끄러워하였노라.

그때 가웨인 경이 퍼시벌 경에게 나아가 엄숙한 어조로 말하더라. "기사여, 어찌하여 나의 동료를 그토록 기사도적이지 못한 일격으로 치셨는가?"

〈각주: 가웨인 경이 퍼시벌 경을 책망함〉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그리도 성급하게 행동하였음을 애통하게 여길 뿐입니다. 다만 나의 공주를 생각하며 있다가, 이 기사가 나의 사색을 어지럽혔사오므로, 부득이 성급하게 그를 치고 말았사옵나이다."

이에 가웨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이여, 그대가 내리친 타격에는 큰 변명이 있었음을 저는 보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그 기사를 치셨음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노라. 이제 저는 그대에게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묻나이다.”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 이름은 퍼시벌이요, 나는 아서왕께서 친히 기사로 임명한 자라" 하더라

[각주: 가웨인 경과 제레인트 경이 퍼시벌 경을 기뻐함] 이때 가웨인 경과 제레인트 경이 퍼시벌 경의 말을 듣자, 그들은 지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외쳤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아, 퍼시벌 경이여! 이는 참으로 뜻밖의 인연이라. 나의 이름은 가웨인이요, 나는 아서왕의 조카로서 그의 궁정에 소속되었노라. 이 기사는 제레인트 경이시니, 그 역시 아서왕의 궁정과 원탁의 기사단에 속한 자라. 우리가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너를 찾아다닌 것은, 너를 캐멀롯의 아서왕께 모셔가기 위함이었노라. 이제 너의 명성은 이 왕국 전역에 널리 퍼져, 모든 기사도의 궁정에서 너의 이름을 논하고 있느니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 말씀은 저에게 기쁜 소식이니이다. 제가 이토록 짧은 시일 내에 이만한 명성을 얻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왕의 궁정으로 함께 돌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저는 사정을 말씀드려 허락을 구하오리다. 지금 제가 기사로서 충분한 명성을 얻었으니, 마땅히 즉시 저의 부인께 나아가 그녀에게 봉헌해야 할 것이오. 그녀와 작별할 때, 저는 기사로서 충분한 명성을 얻는 대로 그녀에게 돌아오리라 맹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타격한 이 기사에 관하여는, 비록 제가 마땅히 검으로 내려야 할 것을 주먹으로 내려 그 타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로 슬퍼하지 않겠나이다. 이는 제가 케이 경에게 여러 차례 서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니이다. 곧, 그가 엘란데 공녀에게 가한 그 타격을 저 또한 그와 같은 타격으로 갚으리라

고 하였사오니, 이제 저는 그 서약을 성취하여 그에게 그 타격을 가하였나이다."

이에 가웨인 경과 제레인트 경은 웃으며, 가웨인 경이 이르되 "좋도다, 퍼시벌 경이여. 네가 정말로 그 약속을 매우 훌륭히 성실히 이행하였도다. 내가 맹세하노니, 케이 경만큼 제 몫의 응보를 톡톡히 받은 자도 없었느니라."

이때에 케이 경은 그 타격으로부터 회복하여, 슬픔에 찬 얼굴로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니, 아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듯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은 궁정으로 돌아가지 않노라〉 이때 가웨인 경이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왕의 궁정으로 향하는 네 길에 관하여, 네가 다른 의무를 지기 전에 먼저 아가씨께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비록 왕께서 직접 네게 오라 명하시더라도, 아가씨에게 진 의무는 왕의 명보다 우선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가씨를 찾아 나서라 명하노라. 다만 네가 가능한 한 빨리 왕의 궁정에 도착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퍼시벌 경은 케이 경에게 행한 그 주먹질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더라.

이제 그가 아름다운 이베트 공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들어라.

*****

〈각주: 퍼시데스 경의 성으로 온 퍼시벌 경〉 이제 가웨인 경과 제레인트 경, 그리고 케이 경과 작별한 퍼시벌 경은 그가 알고 있던 길로 향하여 길을 재촉하더라.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퍼시데스 경의 성에 도착하였노라. 퍼시데스 경은 성에 계셨고, 퍼시벌 경을 맞이하여 큰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노라. 퍼시벌 경의 명성이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퍼시데스 경은 큰 환호성과 함께 그를 맞이하였노라.

이에 퍼시벌 경은 퍼시데스 경과 함께 앉아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리고 그 동안 퍼시벌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매우 절제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말에 성급함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음식과 음료를 충분히 즐긴 후, 퍼시벌 경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을 퍼시데스 경에게 묻기 시작하여 이르되,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당신을 찾아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 때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가진 그 부인이 누구이며 그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리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저는 그녀를 위한 기사로서 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청하러 왔나이다. 부디 저에게 그 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소서.”

〈각주: 퍼시데스 경이 자기를 퍼시벌에게 밝히다〉 이때 퍼시데스 경이 이르되 “친애하는 자여, 네가 내게 묻는 바를 내가 네게 밝히리

니, 첫째, 그 낭자는 나의 친누이요 이름은 이베트라 하느니, 그녀는 페슈르 왕의 딸이라. 둘째, 네가 그 낭자를 찾으려거든 이 땅의 서해안에 우뚝 선 내 아버지의 성으로 가라. 그 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니, 그 고장에서 길을 묻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쉽게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두 해 전부터 내 아버지와 누이를 만나지 못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퍼시데스 경에게 나아가 그의 팔을 감싸 안고 양 뺨에 입을 맞추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 부인의 총애를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이 그녀의 형제라 함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리라. 실로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노라."

그때 퍼시데스 경은 기쁨에 겨워 웃으며 이르되, "퍼시벌이여, 네가 어느 집안에서 왔노라 말하지 않겠는가?" 퍼시벌이 이르되, "내가 네가 묻는 바를 말하리니, 나의 아버지는 아서왕의 궁정과 그의 원탁에 속한 매우 훌륭하고 고결한 기사였던 펠리노어 왕이시라."

그때 퍼시데스 경은 큰 놀람을 금치 못하며 크게 외쳤노라.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내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찌되었으랴. 나의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매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통 사촌지간이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것은 내게 큰 기쁨이로다!" 하더라. 그가 퍼시데스 경과 친족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세상의 구석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어부왕의 성으로 떠남〉 이에 퍼시벌 경은 퍼시데스 경과 함께 이틀을 머문 뒤, 그 모험을 좇아 서쪽으로 길을 재촉하더라. 그가 사흘 동안 길 위에 있었고, 나흘째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부지런한 문답을 통해 어부왕의 성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노라. 이 성은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서 있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절벽 그 자체인 듯 보였더라. 이는 매우 고귀하고 장엄한 성으로, 수많은 높은 탑과 성벽 안의 수많은 건물들을 지니고 있었노라. 그리고 어부들의 하얀 집들이 모여 이루어진 한 마을이, 성벽 아래 바위들에 닭들이 어미 날개 그늘 아래에 모인 듯 모여들었더라.

그때 퍼시벌은 일생에서 처음으로 광활한 바다를 목격하였노라. 그가 본 것은 거대한 파도들이 해안을 향해 달려와 바위들에 부딪히며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광경이었으니, 그는 그 위대함에 경외심에 잠겼노라. 또한 바위들 주위를 오가는 바다 새들의 무리를 보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니, 그 수가 장대하여 하늘을 가릴 지경이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흰 돛을 바람에 펴고 백조들처럼 물결 위를 떠다니는 어선들을 보며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이는 그가 일생 동안 그런 배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그는 바다 근처 높은 바위 위에서 말에 탄 채, 그에게 있어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마음껏 바라보며 앉아 있었노라.

그 후 잠시 뒤, 퍼시벌 경은 성채로 향했다. 그가 성채에 가까워지자, 바다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붉은 벨벳 쿠션을 깔고 앉은 한 위엄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눈처럼 하얗게 서리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과 은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두 시종이 서

있었고, 노인은 바다를 향해 응시하고 있었으나 퍼시벌 경이 보기에 그는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퍼시벌 경이 그에게 다가가자, 노인은 일어나 성채 안으로 들어갔고, 두 시종은 두 개의 붉은 벨벳 쿠션을 들어 올린 뒤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퍼시벌은 성채까지 말을 몰아 올랐고, 성채의 성문이 열린 것을 보았으므로 성채의 안뜰로 말을 몰아 들어갔더라. 그가 안뜰에 들어오자마자 두 시종이 즉시 나타나 그의 말을 받아 들고 그를 내려주었으나, 이 두 시종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아니하고, 둘 다 귀먹은 자처럼 고요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어부왕을 만남〉 이때 퍼시벌 경이 대청으로 들어가 보니, 그가 전에 보았던 노인이 있더라. 노인은 큰 나무 장작으로 타오르는 불 옆에 새겨진 큰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 퍼시벌 경은 노인의 눈이 온통 붉게 충혈되어 있고, 뺨에는 눈물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음을 보았더라. 그의 처지가 지닌 슬픔을 보자 퍼시벌 경은 부끄러움과 경외감으로 마음이 눌렸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인이 앉으신 곳으로 다가가 큰 공경으로 예를 올리고 이르되, “당신은 어부왕이십니까?” 하니, 노인이 대답하시되, “그렇노라. 나는 어부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니라” 하시더라. (페셰르라는 말은 어부와 죄인 두 의미를 모두 지니기 때문이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폐하, 제 아드님이신 퍼시데스 경으로부터 문안과 함께 안부를 전하오니 그는 저에게 지극히 친분 깊은 벗이옵나이다. 또한 저 스스로도 폐하께 문안과 안부를 전하오니, 저는 펠리

노어 왕의 아들이자 페하의 왕비와 저의 어머니가 자매인 퍼시벌이옵나이다. 또한 저는 서약을 이행하러 왔사오니, 보시옵소서, 여기는 페하의 공녀 이베트의 반지가 있사오니, 이는 제가 그녀의 참된 기사가 되기로 맹세한 분의 것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기사도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명성을 얻었사오니, 그녀의 자애를 간구하러 왔사오니 그녀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저의 반지를 돌려받아 다시 그녀에게 돌려드리려 하옵나이다."

이에 피셔왕은 크게 울며 이르되 "퍼시벌이여, 네 명성이 이 먼 곳까지 미쳤노라. 모든 이들이 너를 두고 큰 감동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 딸 이벳에 관하여는, 네가 나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면 내가 그녀를 데려다주리라."

이에 페셔 왕이 일어나 나가시니, 퍼시벌 경이 그를 따랐더라. 페셔 왕이 퍼시벌 경을 한 탑으로 인도하여, 길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게 하였고, 계단 꼭대기에는 한 문이 있더라. 페셔 왕이 문을 열자 퍼시벌 경이 방 안으로 들어갔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이베트 부인을 발견함〉 방의 창문들은 열려 있었고,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왔노라. 방 한가운데에는 검은 벨벳으로 덮인 침상이 서 있었고, 이베트 부인이 그 침대에 기대어 누워 있더라. 보라, 그녀의 얼굴은 밀랍처럼 새하얗고, 그녀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오직 그곳에 고요히 누워 있었노라.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녀의 머리맡에는 일곱 개의 밀랍 초가 타오르고 있었고, 발치에도 또 일곱 개가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닥칠 때마다 초불은 퍼지고 흔들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퍼시벌 경이 눈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던 그 까마귀 깃털처럼 새까만) 창문 틈으로 불어든 바람에 의해 검은 비단 실처럼 흔들렸으나, 이베트 부인은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온몸을 흰 옷으로 두른 대리석 조각상처럼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그때 퍼시벌 경은 문턱에 서서 돌처럼 굳어 버린 듯이 꼼짝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는 앞으로 나아가 침상 위에 누운 이베트 부인 곁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그녀를 응시하였노라. 그는 오랜 동안 그 자리에 섰으나, 그에게 닥친 비극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자신이 돌로 변한 듯 고요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노라. (사실 그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나,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노라.)

〈각주: 퍼시벌 경의 슬픔에 대하여〉

그때 퍼시벌이 그 고요한 형상에게 말하더라.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당신을 다시 찾았으니, 과연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야 한단 말이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낙원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이루었던 모든 일을 보고 계실 것이오. 그리하시면 당신은 영원히 나의 부인이 되시리니, 내 생의 끝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당신의 반지를 돌려드리고, 그 대신 내 반지를 끼워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그 손, 눈처럼 차가운 그 손을 들어 올렸노라. 그는 자신의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서 벗겨내고, 다시 그녀의 반지를 그 자리에 돌려놓았더라.

그때 어부왕이 이르되, "퍼시벌, 너는 눈물이 없느냐?"

퍼시벌이 이르되 "아니오, 저에게는 눈물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니, 페슈르 왕이 그와 함께 행하더라.

그 후 퍼시벌 경은 그 곳에 삼 일 동안 머무르니라. 피셔왕과 그의 부인 왕비, 그리고 그 곳에 거하던 두 어린 아들은 그를 보고 크게 불쌍히 여겨 심히 울었노라. 그러나 퍼시벌 경은 대답을 적게 하였고, 전혀 울지 아니하였더라.

* * * * *

이제 내가 이 때 크리스마스 날에 퍼시벌 경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환상에 대해 말하리라.

〈각주: 퍼시벌 경이 성배를 목격하다〉

그리고 제삼일, 곧 성탄절의 날에, 퍼시벌 경이 성의 홀에 홀로 앉아 있으며, 그에게 내려진 큰 슬픔을 묵상하더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매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이르니라: 그가 갑자기 두 명의 소년들이 그 홀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두 소년들의 얼굴은 지극한 밝기로 빛나며, 그들의 머리카락은 금처럼 빛나고, 그들의 의복은 매우 밝으며 금처럼 빛나더라. 이 두 소년 중 한 사람은 그의

손에 거대한 창을 들고 있으며, 피가 창끝에서 떨어지더라; 그리고 다른 소년은 그의 손에 순수한 금으로 된 잔을 들고 있으며, 보기에 매우 놀랍더라. 그리고 그는 그 잔을 고운 캄브릭 리넨 천으로 된 수건에 싸서 들고 있더라.

이에 퍼시벌은 처음에 자기가 목격한 것이 자신의 마음 가득 차 있던 깊은 슬픔이 불러일으킨 환상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성배를 멘 청년이 유난히 높고 맑은 소리로 말하되, "퍼시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보는 이는 성배(Sangreal)요, 저기는 슬픔의 창이노라. 이러한 거룩한 것들 앞에 네 슬픔이 무엇이랴? 이 거룩한 것들은 그 자체로 큰 슬픔과 영혼의 고통을 안고 왔으니, 이로써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노라. 퍼시벌이여, 네 슬픔 또한 네 삶을 거룩하게 하되, 그 맛을 쓰게 하지 말라. 이 쓴 잔이 그것을 음미한 큰 슬픔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음과 같으니라."

퍼시벌이 이르되 "이것이 실재한 것인고, 아니면 내가 보는 환상인고?"

성배를 든 자가 이르되 "그들은 실재하노라" 하였고, 창을 든 자가 이르되 "그들은 실재하노라" 하였더라.

그때 퍼시벌 경의 마음속에 큰 평화와 위안이 찾아와, 그 위로는 그의 죽는 날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성배와 창을 모신 이들이 홀을 나서니라. 그들이 떠난 후, 퍼시벌 경은 잠시 동안 그곳에 무릎을 꿇고 큰 경건함과 깊은 위로, 그리고 만족으로 기도하였더라.

이때가 바로 아서왕의 원탁에 속한 기사들 중 누군가가 이 거룩한 잔을 목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노라. 훗날 이 잔을 성취한 세 기사 중 한 사람이 바로 퍼시벌 경이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그 홀에서 나오시니, 그를 목격한 모든 이들이 그분께서 발산하시는 위대한 평화와 고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분은 방금 목격한 그 기적 같은 환상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이 사건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으나, 그때에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퍼시벌 경이 그의 삼촌인 페슈어 왕과 그의 이모, 그리고 그들 자식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랑하는 벗들,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왔나이다. 저는 곧장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그의 명령을 받들고, 제 형제인 라모락 경에게 제 정체를 밝히러 가리이다."

〈각주: 퍼시벌 경이 궁정으로 떠남〉 그 날 퍼시벌 경은 캐멀롯으로 향할 뜻을 품고 길을 나섰다. 당시 아서왕은 그곳에서 위엄과 장엄함을 가득 안고 법정을 열고 계셨기 때문이라. 퍼시벌 경은 그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캐멀롯에 도착하였으니, 그때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한창 무렵이었더라.

이때 아서왕은 연회에 앉아 계셨고, 그와 함께 매우 고귀한 백이십 명의 기사들이 함께 좌석에 앉아 있더라. 왕의 마음은 기쁨과 환호로 인해 크게 들뜨고 넓어졌더라. 모든 이들이 화목하게 연회를 즐기던 차에, 갑자기 한 전령이 그 홀로 들어왔더라. 아서왕이 그를 보고 물으시되, "네가 가져온 소식은 무엇인가?" 전령이 아뢰되, "폐하, 지금 이곳에 들어오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는 자가 왔사오니, 폐하께서 그를 보시면 크게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왕이 물으시되, "그는 누구인가?" 전령이 아뢰되, "그는 자신의 이름을 퍼시벌이라 한다고 하옵니다."

이때 아서왕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함께 있던 모든 이들도 일어나더라. 큰 목소리의 함성이 일었으니, 이는 퍼시벌 경의 명성이 그가 모험을 시작한 이후로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 이에 아서왕과 다른 이들은 홀을 내려가 퍼시벌 경을 맞이하려 하였더라.

그때 문이 열리자 퍼시벌 경이 그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선의로 인해 매우 빛나고 있었고, 그는 지극히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각주: 퍼시벌 경이 기쁨으로 맞이되더라〉 아서왕이 이르시되, “너는 퍼시벌이냐?” 퍼시벌이 이르되, “제가 그이옵니다.” 이에 아서왕은 퍼시벌 경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의 이마에 입 맞추시니라. 퍼시벌 경은 아서왕의 손을 입 맞추고, 왕의 손가락에 낀 왕권의 반지를 입 맞추었으니, 이로써 그는 아서왕께 충성을 다하는 참된 기사가 되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폐하, 말씀드려도 좋사옵니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말하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라모락 경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아서왕이 이르시되, “저기 있노라.” 이에 퍼시벌 경이 다른 기사들 사이에 서 있는 라모락 경을 알아보고, 그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더라. 라모락 경은 매우 놀라 이르되, “퍼시벌이여, 어찌하여 내게 무릎을 꿇느냐?”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이 반지를 아십니까?”

그때 라모락 경은 그의 아버지의 반지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노라. “이것은 내 아버지의 반지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얻었느냐?”

퍼시벌이 이르되 “우리 어머니께서 이를 내게 주셨노라. 나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라모락 경에게 자신을 밝힘〉 이에 라모락 경은 큰 감격에 사로잡혀 크게 외치며, 퍼시벌 경에게 두 팔을 감싸 안고 그의 얼굴을 거듭하여 입맞추었노라. 그에게 일어난 지극한 사랑과 격정이라, 곁에 서 있던 자들조차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억누를 수 없어 모두 눈물을 흘렸더라.

그 후 잠시 후, 아서왕이 이르시되 “퍼시벌, 내게 따르라.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 있노라” 하시니

〈각주: 퍼시벌 경이 원탁의 기사가 되다〉 이에 아서왕과 라모락 경, 퍼시벌 경과 여러 신하들이 원탁의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천막에 이르러 아서왕은 퍼시벌 경에게 위태로운 자리 바로 오른쪽에 놓인 한 자리를 보여 주셨노라.

그 좌석 뒤쪽에는 금자(金字)로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갤리스의 퍼시벌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보라, 퍼시벌 경이여, 이것이 네 자리라. 나흘 전, 네 이름이 이곳에서 기이하게도 갑자기 나타났노라. 그러므로 이 자리는 네 것이라."

그때 퍼시벌 경은 그 이름이 페셔 왕의 성에서 성배가 그에게 나타나던 때에 스스로를 드러냈음을 깨달았으니, 그는 여인 이벳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동경에 사로잡혀 그 정열의 강렬함으로 인해 오히려 두려운 기쁨의 형상을 띠었더라.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만약 내 여인이 이것들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이제 낙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리라," 하고는, 그녀를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으나 그녀가 있는 곳은 아니요, 다만 그 파빌리온의 천장만이 있을 뿐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생각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로써 나는 현재 퍼시벌 경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노니, 그 후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가능한 한 빨리 어머니가 머무는 산지로 올라가 그녀를 그곳에서 데려와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였노라. 그녀는 캐멀롯의 아서왕 궁정에서 지극한 존경

과 높은 예우를 받으며 지내다가, 세월이 흐른 뒤 수도원에 들어가 서원을 맺고 수도복을 입었더라.

이와 같이 서술하거니와, 퍼시벌 경은 그가 서원한 바와 같이 일생 동안 정결한 기사로서 살았노라. 그가 그 때부터 어느 부인께도 구애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마음 성소 안에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는 그 사랑스러운 부인의 형상을 간직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는 하느님께서 마땅히 보시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부인을 만나러 가리라 맹세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고찰해 온 이 고결하고 온유하며 덕망 높은 젊은 기사의 이야기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리라. 그 후 그는 자신의 기사도 명예를 크게 빛내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업적을 이루었으며, 또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모험을 성취하였으니, 세상은 그를 호수의 랜슬롯 경 다음가는 존경을 받을 만한 기사라 일컬었기 때문이라.

정녕, 많은 이들이 호수의 랜슬롯 경 자신도 과연 퍼시벌 경보다 더 위대한 기사인지 의문을 품었노라. 비록 내가 랜슬롯 경이 더 큰 무용을 가졌음을 인정할지라도, 퍼시벌 경은 이 두 사람 중 확실히 마음이 더욱 순수하고 영혼이 더욱 투명하였노라.

그러므로 장차, 하느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퍼시벌 경에 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리라. 내가 앞서 예언된 바와 같이 페셔왕의 성에서 그 경이로운 환상을 목격한 성배의 성취에 대해 서술하게 될 때, 그에 관하여 기록할 일이 많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 모험들은 여기서 끝내리니, 안녕히 가라.

결론

이로써 호수의 랜슬롯 경, 리오네스의 트리스트람 경, 그리고 웨일스의 퍼시벌 경이라는 세 위대한, 고결하며, 뛰어난 기사들의 특별한 역사는 막을 내렸노라.

나 또한 내가 그들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며 즐거움을 얻었으니, 당신도 또한 그들을 생각하며 기쁨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숙고할 때, 그들 삶이 지극히 높은 본보기임을 보았노라. 이 세상은 고쳐져야 할 악이 많으니, 누구든 이를 따라 선을 도모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방금 말했듯 여전히 이야기할 일들이 남아 있나니, 바로 랜슬롯 경과 퍼시벌에 관한 것들이라. 이는 독자에게 큰 기쁨을 줄 만한 이야기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내가 다른 시기에, 다른 한 권에서, 각 연대기가 요구하는 정밀함을 다하여 서술하겠노라.